

제 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결과보고서





CONTENTS

목차

01

축제 개요

01 축제 개요	6
02 축제 중장기 발전계획	8
03 축제 추진일정	9
04 축제 조직 및 예산	10
05 축제 성과	14
06 축제 총평	17

02

공연 프로그램

01 해외초청작	22
02 국내초청작	27
03 자유참가작	34
04 찾아가는 공연	40
05 음악극어워드	42
06 개 · 폐막식	46
07 평가 및 발전과제	48

03

기획프로그램

01 예술교류 프로그램	52
02 전시미술 프로그램	56
03 시민참여 프로그램	59
04 협력 프로그램	68
05 평가 및 발전과제	69



04 홍보

01	언론홍보	74
02	인쇄물홍보	80
03	옥외홍보	89
04	온라인홍보	101
05	오프라인 홍보	113
06	기념품 및 판촉물	114
07	영상홍보물	116
08	매체광고	118
09	평가 및 발전과제	123

05 마케팅

01	티켓 및 집객	130
02	마케팅	136
03	프로모션	140
04	후원 및 협찬	142
05	평가 및 발전 과제	143

06 축제운영

01	축제공간	146
02	인력 운영	152
03	물품 운영	156
04	안전관리	160
05	평가 및 발전과제	166

07 설문조사 분석결과

01	설문조사 개요	170
02	관객의 특성 분석결과	172
03	관객의 평가 분석결과	175
04	시사점	184

부록

01	사진으로 본 축제마당	187
02	음악극살롱	206
03	전문가 워크숍	211
04	관객과의 대화	216
05	프리렉처	223
06	주제체험관	227
07	자문위원회 회의록	230
08	관람객 평가 설문지	233
09	언론 보도 리스트	237

CHAPTER

1.

축제 개요

- 01 | 축제 개요
- 02 | 축제 중장기 발전계획
- 03 | 축제 추진일정
- 04 | 축제 조직 및 예산
- 05 | 축제 성과
- 06 | 축제 총평

1. 축제 개요

1) 축제 개요

- 명 칭 :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Uijeongbu Music Theatre Festival 2015
- 주 제 : 삶을 연주하다
- 기 간 : 2015년 5월 8일(금) ~ 5월 17일(일), 10일간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 일원
-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 (총 5개국 57개 작품, 95회 진행)	기획 프로그램 (총 38개 프로그램)
공식참가작 : 5개국 15개 작품, 32회 공연 자유참가작 : 27개 작품, 42회 공연 찾아가는 공연 : 7곳, 8개 작품, 14회 공연 음악극어워드 : 5개 작품, 5회 공연 개막식, 폐막콘서트	예술교류 프로그램 : 5개 프로그램 7회 진행 전시미술 프로그램 : 주제체험관, 설치미술 시민참여 '고고고': 삶을 연주하다 등 17개 협력 프로그램 : 사랑의 장기기증 등 14개

- 주 최 : (재)의정부예술의전당
- 주 관 :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 협 찬 :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베를린시, 칠레 아트 카운슬, 캐나다 아트 카운슬, 퀘벡 아츠 & 레터 카운슬, 몬트리올 아트 카운슬
- 후 원 : 농협중앙회의정부시지부,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경민대학교, 한국마사회의정부점, KB국민카드, 신한대학교, 성베드로병원

2) 축제 주제

삶을 연주하다

- 2015년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삶을 연주하다' 라는 주제로 말러, 파리넬리, 노베첸토 등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묻고 삶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획함

3) 축제 추진 방향

① 축제 예술성 강화

• 음악극의 정체성을 높이는 공식초청작

음악극이라는 기본 골자 안에서 클래식, 재즈, 오페라, 무용 등 다채로운 예술적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 선정

• 야외 거리 음악극 작품 공식 초청

기존에 실내 중심의 공식초청작 공연을 확대시켜 올해 주제인 '삶을 연주하다' 에 부합되는 야외작품을 공식초청작으로 선정하여 좀 더 대중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극 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② 축제 정체성 강화

• 음악극 주제체험관 운영

지역민들에게 올해 축제 주제와 음악극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공간으로 전시뿐만 아니라 체험을 통해 음악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 공간 마련

• 축제의 메인 컬러와 캐릭터 활용 강화

축제 공식지정 컬러의 '핑크' 를 강조하고, 축제 캐릭터인 Mr.M의 스토리와 형상을 강조하여 축제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구축

③ 축제 대중성 강화

• 설치미술로 축제장 분위기 조성

축제기간 동안 의정부예술의전당 일대에 설치미술을 설치하여 정적인 공연장 분위기를 밝은 축제장 분위기로 전환시킴

•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와 협력예술가 제도 도입

시민참여-고고고 "연주하고, 체험하고, 사고팔고, 먹고, 놀라고" 20여종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참여를 확대시키고, '음악극' 장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술가를 협력예술가로 위촉하여 전문성과 대중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공연예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중장기 발전계획



- 의정부음악극축제는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예술' 로 행복한 의정부음악극축제를 만들기 위해 5가지 핵심가치를 가지고 실천하고자 함
- 음악극축제의 기본 컨셉을 계승, 발전시켜 음악극 형식의 공연예술제 + 시민축제 + 한국형 창작 음악극 산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적인 음악극에서 보다 확대하여 폭 넓은 음악극을 수용하여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은 국가의 음악극을 발굴 소개하고 의정부시 전역으로 축제 현장을 확대하여 시민의 참여를 증대시킴

3. 축제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14년 8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프로그램 리서치 작업 및 섭외 · 공연예술축제아카데미 기획 및 모집
14년 10월~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축제 프로그램 구상 및 기획(주제 선정 '삶을 연주하다') · 해외공식 초청작 확정 및 계약 진행, 공연웨어 단체 섭외 · 국내공식 초청작 섭외 · 공연예술축제아카데미 진행(8주과정) · 경기도 10대 축제 및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축제 조직 구성 및 직원모집 공고
14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공연 홍보자료 수집 및 번역진행 · 축제 서체, 로고 및 캐릭터 개발 · 2015 축제 기본계획안 작성 · 후원 및 협찬 섭외 및 제안서 제출 · 자체제작프로그램 계획 및 진행 · 2015년 라인업 1차 언론보도
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사무국 인력 구성 · 메인디자인 확정 · 자유참가작 프로그램 공모, 음악극 어워드 공모 및 심사위원 구성 · 공연별 계약 진행 · 단체 마케팅 진행(기업, 교육기관-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 집행위원 및 자문위원 구성 및 임명
15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티켓 오픈, 메인 홈페이지 오픈 · 자유참가작 프로그램 확정 및 찾아가는 공연 장소 섭외 · 업체선정 및 계약 · 축제공간 기획
15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2차 오픈 - 업데이트 · 인쇄물 제작 및 홍보 시작 · 자원활동가(이끄미) 모집 · 체험 및 음식업체 섭외
15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별 포스터 제작 및 배포, 차량 및 옥외광고 시작 · 집행위원회/자문위원회 개최, 기자 간담회 개최 · 자원활동가 발대식 및 교육
15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점검 → 축제 진행 · 자원활동가 해단식
15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결산 및 결과보고서 제작, 정산보고서 제출 · 축제 합평회

4. 축제 조직 및 예산

1) 축제 조직

① 사무국 조직 구성

- 2015년 음악극축제사무국은 기존의 총괄운영, 기획홍보, 국제교류팀이 해당업무에 맞게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공연사업팀으로 명칭을 변경함. 올해는 각팀별 담당제로 운영하고, 사무국장이 전체 축제를 총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업무를 담당함
- 축제 총감독은 축제가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축제의 방향설정과 기획을 총지휘하고, 의정부예술의전당의 공연기획을 담당하는 행정감독은 축제의 예술감독 역할과 축제의 행정처리 및 예산운영을 관리 감독함
- 축제사무국은 축제개최 전 5~6개월 전에 단기인력 5명을 추가 고용하여 확대사무국을 운영함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집행위원장 (박형식)

축제집행위원회

축제자문위원회

총 감독 (이훈)

행정감독 (소홍삼)

사무국장(김지선)

축제 총괄 계획수립
행정업무 총괄
대외협력, 재정운영

공연사업팀

박정제 팀장
박성호

국내·외
공식 초청공연 담당

기획운영팀

김미정	김정운	윤 용
야외공연	기획프로그램 전시미술	기획프로그램 야외운영

홍보마케팅팀

지영림	이지은	김진아
언론 오프라인홍보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홍보물 제작	사무국운영 마케팅 및 협찬

② 집행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집행위원회는 축제를 운영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의결권을 가지며, 지역 내의 예술, 교육, 산업, 단체 등 대표자로 선정됨. 각 단체들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방식으로 축제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함

구분	성명	직함 (소속)
위원	조금석	의정부시 시의원
위원	정선희	의정부시 시의원
위원	윤창하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위원	조수기	의정부문화원장
위원	노만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위원	추희경	의정부시립 합창단 단장
위원	박범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위원	김한주	범죄피해예방위원회 의정부협의회장
위원	오범구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 의장
위원	김선유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회장
위원	김재우	의정부청년회의소(JCI) 회장
위원	나병기	의정부시 통장 협의회장
위원	안금례	의정부시 여성단체 협의회장
위원	소경숙	의정부어린이집연합회장
위원	김인태	농협중앙회의정부시지부장
위원	김경희	(사)대한숙박업중앙회 의정부시지부장
위원	이근중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의정부시지부장
위원	신형기	구성건축사 대표
위원	강신택	경민대학교 뮤지컬학과 교수
위원	이현숙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 교수
위원	최승구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위원	김현우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위원	이상훈	의정부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위원	최정희	의정부여자고등학교총동창회장
위원	이상백	제일시장 번영회 회장
위원	박기환	(사) 새마을회 의정부시 지회장

③ 자문위원회 구성 및 역할

- 자문위원회는 공연예술계의 전문가들과 축제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예술성과 축제성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축제 기획에 대해 자문을 하고, 축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함

구분	성명	직함 (소속)
위원	구 자 흥	명동예술극장장
위원	이 진 배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위원	양 원 모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장
위원	손 상 원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위원	민 경 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무처장
위원	정 현 옥	정동극장장
위원	이 승 엽	세종문화회관 사장
위원	임 경 식	서경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위원	오 용 수	한국융복합관광산업진흥원장
위원	유 인 화	한국공연예술센터 센터장
위원	이 재 원	원주 다이내믹 페스티벌 총감독
위원	홍 철 옥	수원연극축제 축제기획단장
위원	윤 종 연	안산거리극축제 예술감독
위원	유 경 속	세계축제연구소 소장
위원	박 정 원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위원	김 민 정	송실대학교 성악과 교수
위원	이 의 신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위원	이 정 원	신한대학교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교수
위원	서 우 석	서울시립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
위원	오 순 환	용인대학교 문화관광학과 교수
위원	정 강 환	배재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위원	이 수 범	경희대학교호텔관광대학교수
위원	김 성 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위원	송 대 섭	홍익대학교미술대학교수

2) 축제 예산

① 축제 수입구성

- 올해 축제예산은 전년도 세월호 사고로 인해 이월된 173,345천원의 이월금과 개막작 <말러메니아>를 대전예술의전당과 공동초청하여 발생한 50,000천원의 수입금 및 협찬금을 포함하여 총 914,345천원으로 구성됨
- 작년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5 대표적 공연예술축제>로 지정받아 1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음
- (재)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축제사업비 470백만 원, 인건비 72백만 원을 교부받음
- 기업 협찬금은 전년(40,000천원) 대비 23%가 증가한 49,000천원을 유치함

② 축제 지출 구성

- 올해는 야외 공식초청작 선정 및 <말러메니아> 대전예술의전당 공동초청으로 인해 초청비 지출이 증가해 전체예산의 44%를 차지함
- 본 지출금액은 보고서 작성 시점(2015. 6. 30)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지출예상 금액을 상정하여 작성함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합 계	914,345	합 계	914,345
전년 이월금액	173,345	사무국운영비	247,285
예술의전당 교부금사업비 470,000, 인건비 72,000	542,000	초청비	399,000
국비(문화체육관광부)지원금	100,000	예술교류비	38,000
협찬금	49,000	장치비	70,060
해외작 공동초청 경비 (말러메니아:대전예술의전당)	50,000	행사운영비	65,000
		홍보마케팅비	95,000

5. 축제 성과

1) 총 방문객 성과

① 총 98,225명 참가(유료 관객 5,048명/무료 관객 93,177명)

구분		공연명	장소	횟수	유료	무료	총관객수
실내 공연	해외 초청공연	I on the sky	소극장	3	414	109	523
		도자두	소극장	2	211	111	322
		말러매니아	대극장	2	913	585	1,498
		사랑의 역사	대극장	3	467	356	823
	국내 초청공연	노베첸토	소극장	2	331	72	403
		파리넬리	대극장	2	1,463	373	1,836
		하얀 눈썹 호랑이	소극장	2	411	48	459
소 계					4,210	1,654	5,864
야외 공연	공식초청작	더 체어 외 7작품	야외무대	15	-	9,330	9,330
	자유참가작	아코 외 24작품	야외무대	32	-	7,655	7,655
	개폐막식	개막식, 폐막콘서트	야외무대	2	-	8,200	8,200
	찾아가는 공연	1호선 칸타빌레 외 11개	의정부역 외 5곳	14		12,293	12,293
	소 계				63	0	37,478
예술 교류	프리렉처 <말러매니아>, <파리넬리>	대극장	1		1,704	1,704	
	관객과의 대화 <말러매니아>, <사랑의 역사>	대극장	1		350	350	
	음악극살롱	전시장	1		17	17	
	전문가 워크숍	영상감상실	1	23		23	
	소 계					23	2,071
기획프로그램	음악극 어워드	소극장	1		160	160	
	KB국민은행 경제금융교실	국제회의장	1		103	103	
	음악극 공동제작파트너찾기	국제회의장	1		30	30	
	JCI 미술대회	야외	1		3,560	3,560	
	시네마M	야외무대	7		1,245	1,245	
	소 계					5,098	5,098
	상설프로그램	주제체험관	전시장			24,500	24,500
먹거리		야외			5,400	5,400	
타일 체험 및 협력프로그램		야외		815	16,976	17,791	
소 계				815	46,876	47,691	
합계		유료 5,048	무료 93,177	총계 98,225			

② 외국인 참가 현황 : 총 23개국 약 600여명 참가

• 참여 외국인 예술단체 4개국 38명 참가

공연명	초청단체	초청인원
도자두 (4명)	도자두 (프랑스)	투어매니저(1), 테크니션(1), 연기자(2)
I on the sky (8명)	다이나모 씨어터 (퀘벡)	투어매니저(1), 테크니션(1), 연기자(5), 디렉터(1)
말러매니아 (18명)	니코 앤 더 네비게이터스 (독일)	지휘자(1), 피아니스트(1), 싱어(2), 테크니컬디렉터(1), 테크니션(2), 라이팅(1), 디렉터(1), 스테이지매니저(1), 프로듀서(1), 연기자(5), 사운드(1), 의상(1)
사랑의역사 (8명)	떼아뜨로 시네마 (칠레)	테크니컬디렉터(1), 테크니션(2), 스테이지매니저(1), 연기자(2), 투어매니저(1), 사운드(1)

•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홍보 서포터즈 21개국 94명 참가

초청일시	초청내용
5/9(토) 개막일	캐나다(3명), 중국(6명), 독일(2명), 홍콩(4명) 인도(1명), 이탈리아(1명), 한국(1명), 말레이시아(4명), 미얀마(1명), 파키스탄(5명), 필리핀(2명), 러시아(2명), 싱가포르(2명), 대만(7명), 트리니다드토바고(1명), 미국(6명), 우즈베키스탄(1명), 베트남(1명)
5/12(화)~13(수)	중국(5명), 독일(2명), 홍콩(2명), 일본(1명), 미얀마(1명), 파키스탄(4명), 러시아(5명), 대만(8명), 트리니다도토바고(1명), 터키(1명), 우크라이나(1명), 아랍 에미레이트(1명), 미국(7명), 베트남(2명)

• 기타 외국인 관광객 약 450여명

2) 총 수입 성과 ₩92,138,890

- 올해 실내공연의 배정좌석이 작년에 비해 27%가 적은 상태에서도 공연수입은 작년에 비해 더 높았으며(+2.6%), 기타 수입이 전체적으로 증가함

수입 내역	금 액
공연 수입	81,389,850
기념품 및 프로그램북 판매	1,135,000
체험비	1,884,040
부스비	900,000
워크숍	1,830,000
유통수입(말러매니아)	5,000,000
총계	92,138,890

6. 축제 총평

의정부음악극축제 총감독 이 훈

1) 축제 평가와 성과

2015년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예술성’ 과 ‘축제성’ 을 결합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예술성 측면에서 보면, 실내에서 공연된 작품들은 예년에 비해 음악극의 정체성에 가까웠으며, 예술적 공감으로 관객의 우호적 호응을 이끌어 냈다. 특히, ‘말러매니아’ 와 ‘사랑의 역사’ 등 해외초청작과 ‘파리넬리’ 등 국내초청작은 공연예술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올해 더 확대한 배우와 제작진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와 공연 전 시행한 ‘프리렉처’ 는 대중에게 공연이 가깝게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축제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장 밖에서 진행된 야외공연은 다양한 주제로 수준 있는 작품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의 경우 공연시간에 맞추어 옮겨 다니면서 주도적으로 공연을 보았다. 뮤직터널 M과 로드스케치 M 등 체험프로그램 등은 직접 참가하면서 축제를 즐기도록 하였다. 이번에 시도된 다양한 먹거리의 심야식당은 새로운 즐길 거리와 함께 축제장에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폐막식에서 내년 축제의 주제(Arts & Humanity)와 주 공연작품(The War)을 소개하여 다음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준 것도 준비된 축제로서 모범적 사례이다.

시민이 만드는 축제를 지향하였다. 좋은 기획은 다 만들어놓고 방문객이 와서 수동적으로 즐기고 노는 방식이 아니라, 방문객이 직접 사전에 준비하여 축제를 완성해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개막식의 주제공연인 ‘삶을 연주하다’ 는 시민 200여명이 사전에 악기를 연습하여, 함께 공연함으로써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를 꾸미는 방식이었다. ‘1호선 칸타빌레’ 는 효자중학교 음악중점반 학생들이 전철역에서 축제노래를 연주하면서 축제의 사전홍보를 하고, 동영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알리는 프로그램이었다. 올해의 시도는 일정정도 성과를 보였고, 축제다움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실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준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런 방식의 축제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하여 시민이 만드는 축제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축제브랜드를 높이는 축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작년부터 축제브랜드를 확립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올해는 축제명의 수정과 축제서체와 로고를 확정하였고 축제노래에 맞는 춤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색깔, 이름, 서체, 노래, 춤까지 전체적으로 통일된 브랜드 체계를 수립하였다. 향후 친근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의 수정만 완성되면 전체 틀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체험관 역시 작년 이어 예술적으로 해설될 수 있도록 음악극역사, 의정부음악극축제 역사, 올해 초정작품에 대한 해설 등으로 음악극과 축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주제체험관은 축제를 인지적으로 알게 됨으로

써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장소로서 역할을 수행 하였다. 한편 의정부 시민들 모두가 축제를 알게 하자는 목표의 마케팅은 다 수행되지는 못하였다. 향후 어떻게 시민들에게 축제인지를 높일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축제를 통해 한국 음악극 네트워크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음악극 창작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음악극살롱’, 창작자와 기획자를 연결하기 위한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신진예술가 인큐베이팅을 위한 ‘음악극어워드’를 주최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무대예술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떼아뜨로 시네마와 함께하는 전문가 워크숍’은 축제를 통해 음악극이 재생산 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전체적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고 참가한 단체와 개인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프로그램 확대를 바라고 있었다. 향후 지속적으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아카데미와 연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축제 과제와 방향

축제의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축제장소가 사람들의 생활공간이 아닌 의정부의 외진 장소가 한계이기는 하다. 하지만 재미있고 의미있는 축제로서 지명도를 갖게 되면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축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슈제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개막 야외공연을 원래 제목 보다는 ‘하늘을 나는 공연과 불꽃’, 시민이 직접 만드는 ‘개막식’ 등의 이슈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또한 조직적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JCI의 미술대회에 약 3000명이 참여하였듯이, 축제기간에 주제와 부합되는 ‘대회’, ‘연계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별 행사 등 행정단위별 행사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청과 협력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지역단체와 동우회, 모임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기를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축제기간과 연계된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과 연령별 프로그램과 마케팅의 차별화도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많이 오는 것보다는 누가 오느냐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마케팅 차원에서는 공연을 보는 사람들이나, 공연을 볼 사람들이나(관객개발), 축제의 지지층으로서 의정부시민이나, 국제화를 위한 외국인 방문객이나를 고민하여 대상에 맞는 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축제의 대중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드레스코드를 지정하여 홍보했지만, 실제 축제장에서 활용할 소재는 부족하였다. 참여관객 모두가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동작, 노래, 기념품, 야광모자와 팔찌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Mr.M의 스토리와 상징성을 반영하여 함께 어울리는 공통의 소재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심야식당의 음식을 고급화하고 축제의 정체성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맥: 소시지 + 맥주' 을 중심메뉴로 먹거리의 수준과 정체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 축제에서는 가장 맛있는 수제맥주와 가장 맛있는 소시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국내외 업체와 의정부 지역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축제음식의 전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음악극 축제에서 공연도 재미있지만 가장 맛있는 맥주도 마실 수 있다는 지명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다른 음식 역시 Art의 콘셉트나 고급스럽고 청결함을 전제로 선정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올해 가장 인기 있는 상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의정부 음식점과 상품을 연계하거나 전시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안전에 대한 체계화된 축제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와 시 차원의 점검이 아니라 축제 차원에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정리한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심야식당의 안전점검, 야외공연의 안전매뉴얼, 주차와 혼잡관리를 위한 동선체계 등을 사전에 준비하고 참여업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계약 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축제사무국의 조직안정화가 필요하다. 전체가 계약직 형식의 사무국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시와 전당과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제 후에 진행하고 있는 '공연예술축제아카데미' 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인 '음악극 학교' 를 전당의 일부 조직과 운영을 통합하여 축제사무국을 확대하고 안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축제는 한, 두 달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고민하고 준비한 노력의 결정체이다. 조직의 안정화는 축제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본 전제이다.

축제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럿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올해 축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별화되고 축제다운 축제로 접근하였다. 축제를 위해 귀한 시간과 열정을 내 준 이끄미들의 노력, 밤을 낮같이 애쓴 팀원들과 사무국의 책임감, 끊임없이 지원해준 전당 직원들과 시청직원들의 애정 덕분이다. 내년 축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여 백

CHAPTER

II.

공연프로그램

- 
- 01 | 해외초청작
 - 02 | 국내초청작
 - 03 | 자유참가작
 - 04 | 찾아가는 공연
 - 05 | 음악극어워드
 - 06 | 개 · 폐막식
 - 07 | 평가 및 발전과제
- 

1. 해외초청작

1) 말러매니아 Mahlermania

- 공연일시 : 5월 8일(금) 20:00 | 5월 9일(토) 19: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초청단체 : 니코 앤 더 네비게이터스 *Nico and the Navigators*, 팀프 앙상블 *TIMF Ensemble*
- 후 원 : 베를린시
- 공연소개
 -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치열한 삶과 사랑, 음악을 소재로 한 음악극으로 니코 앤 더 네비게이터스와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극장과의 공동 제작한 작품. 아내 알마 신들러에 대한 말러의 사랑을 말러의 가곡과 16인조 앙상블로 편곡된 교향곡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표현되어있음
 - 말러음악, 무용, 연기, 영상과 더불어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작품은 고전적인 베이스로 차가울 정도로 정확한 현대적인 감성을 표현하는 작품임. 기쁨, 슬픔 이라는 단순한 감정보다는 연출가의 이성적인 판단과 연기자들의 즉흥적인 표현이 만들어낸 종합구성물임
 - 니코 앤 더 네비게이터스는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음악극 제작에 힘쓰고 있으며, 베를린시로부터 영구적인 지원을 약속받아 베를린의 샤우뷔네 극장과 더불어 유일한 단체로 명성을 얻고 있음
- 평가
 - 음악극축제 컨셉에 맞는 정통 유러피언 음악극을 선보임으로써 축제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되새길 수 있는 깊이 있는 작품이었음. 전체적인 공연 밸런스와 전문가들과 관객들의 반응은 좋았으나 TIMF앙상블의 미묘한 퀄리티가 아쉬웠음



2) I on the sky

• 공연일시 : 5월 9일(토) 14:00, 17:00 | 5월 10일(일) 15: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 초청단체 : 다이나모 씨어터 *DynamO Théâtre*

• 후원 : 캐나다 아트 카운슬 *Canada Council for the Arts*,
 퀘벡 아트 카운슬 *Conseil des arts et des lettres Québec*

• 공연소개

- 서커스, 리듬체조, 무용수 출신의 5명의 배우가 아크로바틱, 무용, 연기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무용극. 골든베르크 변주곡을 포함한 다양한 바흐의 레퍼토리를 편곡하여 공연의 시작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연주되며, 이러한 공연기법은 화려한 움직임과 다이내믹한 연기자들과 대비되면서도 일치하는 묘한 분위기를 표출함
-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 듯 혹은 하늘이 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다소 철학적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음.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늘 같은 자리에서 바라보는 하늘을 나타내며 삶을 영위하게 해주는 희망에 대한 따뜻한 울림을 선사하는 작품
- 다이나모 씨어터는 현재 캐나다 퀘벡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커스 단체 중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현지 공연예술 청소년 부분의 다양한 어워드에 노미네이트 됨

• 평가

- 아트서커스로 유명한 퀘벡지역의 단체답게 아트적인 요소와 피지컬한 움직임을 잘 결합한 작품. 특히, 편곡되어진 바흐음악과 무대 배경의 멀티미디어 영상 또한 완성도가 높았음



3) 사랑의 역사 Historia de Amor

• 공연일시 : 5월 12일(화) 20:00 | 5월 13일(수) 16:00, 20: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초청단체 : 떼아뜨로 시네마 Teatro Cinema

• 후 원 : 칠레아트카운슬 Consejo Nacional de la Cultura y las Artes

• 공연소개

- 프랑스 소설가 레지 조프리의 동명소설을 무대로 옮긴 멀티미디어극. 한 남자의 비뿔어진 사랑, 그리고 파멸로 치닫는 집착과 광기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나,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어쩌면 이 또한 사랑의 한 가지 종류일 뿐이다라는 주제를 내포하고 있음

- 흑과 백, 단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공연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팝아트적인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리고 영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연기자들의 완벽한 연기 또한 주목할 만한 사항임

• 평가

-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중 전문가들과 관객들의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작품. 스크린에서 보여주는 영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연기자들의 프로페셔널리즘은 어떠한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을 불러 일으켰음



4) 도자두: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 *Dos à deux, 2ème acte*

- 공연일시 : 5월 16일(토) 20:00 | 5월 17일(일) 15: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 초청단체 : 도자두 *Dos à deux*
- 공연소개
 -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 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된 신체극. 이 작품은 블라 디미르(디디)와 에스트라공(고고)의 '고도' 라는 인물을 향한 기약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그리고 있는 작품
 - 마임과 무용, 빈티지한 프렌치 감성을 잘 보여주는 미장센으로 두 명의 명배우의 실없는 장난과 부질없는 다툼은 안타까움이라는 묘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
- 평가
 - 간결하지만 완벽한 소품, 드러나지 않지만 파워풀한 조명, 완벽한 두 연기자들의 호흡과 간간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 등. 이 작품에서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지만 작품 속에 있는 내용은 전혀 단순하지 않는 작품임



5) 스트리트 서커스 Street Circus

- 공연일시 : 5월 9일(토) 13:00/16:30, 5월 10일(일) 13: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분수무대, 신세계의정부점 S가든
- 초청단체 : 다이스케 DAISKE
- 공연소개
 - 일본의 거리 광대, 다이스케가 선보이는 서커스 코미디는 외발자전거, 시가박스, 요술풍선, 흡착 화살, 3mm 와이어 외줄타기 등 신기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장르를 선보이면 관객들에게 웃음을 전달하고 있음
 - 순간순간 관객들을 참여시키며 함께 호흡하면서 진행되는 공연으로 국내 거리예술단체 '팀 퍼니스트' 와 연계하여 국내 다수의 축제와 TV방송 출연을 통해 점점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단체
- 평가
 - 대중성이 가미된 서커스를 기본 바탕으로 라인업 된 작품이며, 의정부시민들의 축제에 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작품. 일반 무료 관객들의 반응과 의정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음



2. 국내초청작

1) 하얀 눈썹 호랑이 The tiger with white eyebrows

- 공연일시 : 5월 12일(화) 11:00, 19: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 초청단체 :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Taroo
- 공연소개
 - 하얀 눈썹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호랑이 이야기 <하얀 눈썹 호랑이>를 원작으로 한 어린이 국악뮤지컬. 다섯명의 소리꾼이 판소리, 재담, 동작을 선보이며 우리의 가락인 국악을 어린이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알려주는 작품
 - 국악뮤지컬집단 타루는 국악을 활용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보유한 젊은 국악창작단체로 2001년 창단 이후 2005년 올해의 예술상, 2013년 예그린 어워드 등에서 수상하며,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
- 평가
 - 실내 공식초청작 중 유일한 어린이 타겟 공연으로 매진 사례를 기록했으며, 공연 당일 입석판매를 진행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음
 - 통상적으로 어린이공연을 평일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배치해 유치원 단체마케팅을 진행했으나 이번 공연에서는 오후 7시 공연을 편성해 아이들과 부모님의 동반관람을 유도함. 오후 7시 회차 역시 매진되어 어린이 공연 오후시간 수요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노베첸토 Novecento

- 공연일시 : 5월 12일(화) 11:00, 19: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 초청단체 : 극단거미 *Spider Company*
- 공연소개
 - 연극적인 요소와 음악(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음악극 <노베첸토>는 이탈리아 작가 알레산드로 바리코의 모놀로그 희곡 <노베첸토>를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과 엔니오 모리꼬네 음악감독이 합작한 <피아니스트의 전설>의 원작과 동일한 작품
 - 1920년대 초 아메리칸 드림을 쫓는 이민자들의 배, 버지니아호에서 태어나 평생을 배 위에서 연주하며 자신의 음악을 연주한 천재 피아니스트 '노베첸토' 에 관한 이야기로, 연기력과 카리스마를 갖춘 배우 조판수와 재즈 피아니스트 곽윤찬이 펼쳐지는 극과 음악이 하나되는 진정한 음악극 작품
- 평가
 - 올해 축제 주제 '삶을 연주하다' 와 부합하는 작품으로 축제 주제와 밀접하게 맞닿아 전체적인 컨셉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줌
 - 극과 음악이 완벽하게 하나된 공연으로 음악극 장르의 정석을 보여주고 시민들에게 음악극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음



3) 파리넬리 Farinelli

- 공연일시 : 5월 16(토) 17:00 | 5월 17일(일) 17: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초청단체 : HJ컬처(주) *HJ Culture*
- 공연소개
 - 파리넬리라 불린 카스트라토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뮤지컬.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음. 18세기 바로크시대 최고의 카스트라토의 화려한 삶과 이면에 감춰진 슬픈 사연과 비극적 운명을 이야기한 작품
 - 축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된 뮤지컬 <파리넬리>는 축제의 주제인 ‘삶을 연주하다’ 와 잘 부합했다는 평을 받았음. 자신의 몸을 하나의 악기로 삼아, 평생을 노래했던 한 성악가(카스트라토)의 일생을 통해 삶을 연주하다는 주제를 잘 내포하고 있음
- 평가
 - 음악극 장르 중 가장 대중적인 뮤지컬 작품으로 티켓 오픈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킴. 마니아층, 단체마케팅, 의정부 시민들 모두가 선호하는 작품으로 객석점유율 97%, 전석 기립의 쾌거를 이룸



4)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 in Wonderland

- 공연일시 : 5월 9일(토) 13:30, 17:00 | 5월 10일(일) 13:30, 17: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앞
- 초청단체 : 예술무대 산 Artstage SAN
- 공연소개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 직접 탈 수 있는 높이 4미터의 대형 케익마차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관객이 주인공이 되어 퍼레이드, 공연, 전시, 게임, 체험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복합형 체험공연
- 평가
 - 복합형 체험공연으로서 축제 첫 주말 동안 관람객들의 많은 관심과 환호를 받았던 공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익숙한 레파토리를 예술무대 산만의 독특한 미장센으로 소화하여 대형 퍼레이드부터 소규모의 한뼘 공연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

5) 빛, 날다 Light, Nalda

- 공연일시 : 5월 9일(토) 21: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무대
- 초청단체 : 프로젝트 날다 Project NALDA
- 공연소개
 - 의정부예술의전당 건물 벽에 매달려 하늘을 캔버스 삼아 펼쳐지는 불꽃 공중 퍼포먼스는 컴퓨터의 빛, 조명의 빛 등 일상의 불빛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함
 - 배우들의 반투명 LED의상에 각기 다른 불빛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아름답고 예술적인 공중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축제의 화려한 개막을 선사함
- 평가
 - 축제 개막식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함으로써 의정부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안겼던 작품. 버티컬 장치, 조명장치 및 불꽃 등을 이용하여 흔히 볼 수 없는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펼쳐질 축제 야외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빛, 날다

6) 더 체어 The Chair

- 공연일시 : 5월 16일(토) 16: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앞
- 초청단체 : 프로젝트 곧사 *Project no-w-here*
- 공연소개
 - 의자라는 오브제를 이용해 춤과 노래, 음악이 어우러져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으로 관객과 함께 몸의 언어와 흥을 통해 무감각했던 일상의 순간들을 새롭고 즐겁게 느끼는 시간이 되도록 함
- 평가
 - 야외공식초청작 중 유일한 무용 장르의 공연으로서 공식초청작 라인업의 장르적 다양성을 확보해 주었음. 전시장 앞 무대공간에 가장 어울릴만한 공연이었으며 중간 중간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가장 반응이 좋았던 작품임

7) 랄랄라쇼 Lalala Show

- 공연일시 : 5월 16일(토) 19:45 | 5월 17일(일) 16: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앞
- 초청단체 : 음악당 달다 *UMDALDA*
- 공연소개
 - 요상한 행색의 부부가 기이하고 커다란 수레를 끌고 등장하여 세상의 갖가지 이야기와 골치 아픈 현실을 익살스러운 노래로 풀어내며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함
 - 예술적으로 완성도 높은 수레 형태의 이동형 특수무대와 생생한 라이브 연주, 유쾌한 퍼포먼스의 융합으로 관객들은 색다른 예술세계를 경험하게 됨
- 평가
 - 음악극이라는 장르를 거리작품으로 풀어냈을 때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시공간적 제약을 매우 영리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완성도 있게 풀어낸 인상적인 작품. 음악극축제라는 타이틀 아래 야외공식초청작으로서 가장 적합했던 작품 중 하나였음



더 체어



랄랄라쇼

8) 당나귀 그림자 재판 Donkey Shadow Trial

- 공연일시 : 5월 9일(토) 14:00 | 5월 10일(일) 14:0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분수무대
- 초청단체 : 예술창작공간 콤마앤드 *Art Factory Comma, And*
- 공연소개
 - C.M. 뷔알란트의 소설 '당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판' 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거리음악극 <당나귀 그림자 재판>은 두 배우가 9개 역할을 오가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허를 찌르는 통쾌함으로 관객에게 다가감
- 평가
 - 2014년 살롱극 페스티벌 대상수상을 시작으로 2015년 다수의 공연예술축제에서 공식 초청받는 등 예술성과 대중성 모두를 인정받은 작품. 정통음악극을 거리예술작품으로서 풀어낸 작품이 드문 요즘 공연계에서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음악극 작품 중 하나임

9) 퇴근 후에... After work...

- 공연일시 : 5월 16일(토) 18:3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무대
- 초청단체 : 예술마당 살판 *Art Center The Salpan*
- 공연소개
 - 누구나 그려왔던 꿈, 그리고 현실 앞에서 좌절된 아픔이 있는데, 마당극 <퇴근후에...>는 광대를 꿈꿔왔던 회사원의 넋두리에서 포기했던 꿈을 이루는 순간까지를 그리며 관객과 함께 희열과 해방감, 아련함을 공유함
 - 소고놀이, 북놀이 등 다양한 마당놀이에 배우와 관객이 하나가 되어 함께 하는 난장은 시름을 모두 잊고 한(恨)을 풀어내는 신명의 장으로 탈바꿈하게 됨
- 평가
 - 현대사회의 시대상을 전통연희가 갖고 있는 풍물굿, 탈춤, 소리, 극, 음악 등의 총체적 예술형태로서 구현함으로써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자아냈던 작품. 주말저녁 공연으로서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며 대동의 장을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어 냄

10) 빈대떡 신사 Pate and Pie

• 공연일시 : 5월 16일(토) 13:30, 17:30 | 5월 17일(일) 13:30

• 공연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분수무대

• 초청단체 : 인형극연구소 인스 *INS Puppet Theatre*

• 공연소개

- 유럽 중세시대의 익살극인 소극(笑劇) ‘빠떼와 파이(Farce du pate et de la tarte)’가 우리 정서를 녹아낸 코믹인형극으로 재탄생한 〈빈대떡 신사〉는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상황과 사건을 바탕으로 관객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함
- 인형극연구소 인스는 인형, 가면, 오브제를 창작의 핵심으로 이용하여 연극적 상상의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의 연극인들이 모여 설립한 실험창작극단임. ‘인형극은 곧 아동극’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아이와 어른 모두 즐길 수 있는 독특하고 섬세한 무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

• 평가

- 굶주린 두 거지와 욕심쟁이 요리사, 실수투성이 아줌마 사이에서 황당무계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생생한 라이브 음악과 함께 배우들이 극 속 인물이 되어 인형들과 펼치는 연기는 어린이와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는 작품임



퇴근 후에...



당나귀 그림자 재판




빈대떡 신사

3. 자유참가작

<p>제랄다와 거인</p>  <p>극단 문 <문> 5/13(수), 14(목), 15(금) 11:00 소극장로비</p>	<p>작은 종이컵으로 커다란 상상의 세계가 열리는 종이컵인형 1인극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거리에 나선 요리천재소녀 제랄다는 어린아이를 잡아 먹기 좋아하는 거인을 만나 생명의 위협에 처한다. 제랄다는 정성스러운 음식으로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마음과 관계를 치유하는 음식의 힘을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p> <p>평가 인형극의 형식으로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던 완성도 높은 공연. 평일 낮 스쿨워크 전용 공연으로 마련되어 예약되어 있는 단체를 제외한 보다 다양한 관객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음</p>
<p>아코</p>  <p>작은극장 H 5/9(토) 15:30 5/10(일) 13:00, 16:00 분수무대</p>	<p>커다란 코가 콤플렉스인 한 소녀의 특별한 사랑이야기 아코에게 자신의 코는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크게만 보이는 콤플렉스다. 이 때문에 아코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자기만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들려주는 이 특별한 사랑이야기는 다양한 오브제 활용을 통해 관객에게 마치 한 편의 그림책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 준다.</p> <p>평가 거리예술작품 중 음악극을 표방한 작품이 드문 만큼 음악극축제에 잘 어울렸던 작품. 중간중간 관객참여를 위한 여백을 마련해 놓아 관객과 함께 극을 완성해나가는 형식을 띄었으며, 관객호응도 또한 좋았음</p>
<p>여우누이</p>  <p>극단 아이드리 5/10(일) 18:30 야외무대</p>	<p>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가 우리집에 업둥이로 들어왔다? 전래동화 여우누이 이야기를 놀이연극이자 참여연극으로 구성하여 한국 고유의 놀이와 정서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준 작품.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하여 배우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다.</p> <p>평가 전래동화라는 키워드, 배우들의 준수한 연기력, 효율적인 관객참여 장치 등으로 인해 전 연령대가 모두 만족했던 호응도 높았던 공연. 주말 저녁 메인공연으로서 알맞았음. 극장공연을 야외공연으로 바꾼 작품이었던 만큼, 무대소품을 지지할 수 있는 웨이트 보유여부, 무대 상태 등을 좀 더 세심히 체크할 필요가 있음</p>
<p>김 수한무 이야기</p>  <p>극단 마루한 5/17(일) 17:00 분수무대</p>	<p>세상에서 가장 긴 이름 김 수한무에는 무슨 비밀이? 어린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많던 시절, 자식이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기만을 바라는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이름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식' 에 얽힌 이야기. 오랫동안 사랑 받아 온 김 수한무 이야기가 배우들의 재치와 입담으로 유쾌한 마당극 한마당이 펼쳐진다.</p> <p>평가 관객참여형 마당극. 3면 개방형 무대였다면 마당극의 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었을텐데 분수무대 운영상 1면 개방형으로 공연이 진행되어 작품의 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해 아쉬웠음</p>

<p>블랙클라운</p>  <p>김찬수 마임 컴퍼니 4/11(토)13:00 광화문광장 5/10(일)16:30,19:30 분수무대</p>	<p>클라운 마임의 대가 김찬수가 선사하는 블랙코미디와 클라운마임의 콜라보 지금까지 보아온 친절한 광대는 사라졌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한 광대가 툭 툭거리며 등장. 관객을 무대 위로 불러 다양한 놀이를 시작한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놀이형식으로 풀어 관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연</p> <p>평가 찾아가는 공연으로서 광화문과 축제기간에 공연함. 광화문에서는 초연이라 작품이 잘 다듬어지지 못했었으나, 축제기간에는 작품 수정이 되어 무리 없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음. 2번의 공연 중 1번을 저녁시간 대에 조명과 함께 진행하였는데 관객들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어서 좋았음</p>
<p>댄스매직 퍼포먼스</p>  <p>투승호 4/11(토)12:30 광화문광장 5/10(일)15:00 신세계S가든 5/17(일)13:00,15:00 전시장앞</p>	<p>유쾌! 통쾌! 신나는 댄스매직 퍼포먼스가 펼쳐진다!</p> <p>관객들과의 소통과 호기심 유발을 가장 중요시 하는 댄스매직 퍼포먼스.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과 유쾌한 댄스의 장점을 결합하여 남녀노소 거리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무대를 선사한다.</p> <p>평가 찾아가는 공연 2번, 축제 본기간 때 2번 공연을 진행하였음. 춤과 마술이 결합한 형태라 다양한 관객층에게 고루 호응도가 높았음. CJ 헬로비전의 <우리동네 보고서> ENG 촬영에 대해 투승호측에 협조를 얻어 마지막 공연 후 무용연습실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음</p>
<p>마블러스 코믹마임쇼</p>  <p>마블러스모션 5/16(토)13:00 전시장앞 5/16(토)15:30 분수무대</p>	<p>각기 다른 개성의 두 남자가 펼치는 유쾌한 마임 대결</p> <p>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판토마임 공연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클라운 마임쇼. 누구나 흔히 겪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하여 배우들의 몸동작과 표정만으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각기 다른 대성의 두 남자가 대립하며 춤, 립싱크, 마임, 마술, 구슬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난버벌 코믹마임이 펼쳐진다.</p> <p>평가 거리광대극들이 마임, 저글링, 서커스 등이 융합된 형태가 많은데에 비해 코믹마임이라는 단일한 장르에 집중하여 밀도있는 레파토리로 승부한 작품.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발전할 작품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볼만함</p>
<p>잊을 수 없는 사랑</p>  <p>종합예술인 박민선 5/16(토)16:45 분수무대 5/17(일)15:30 분수무대</p>	<p>인어와 목신의 잊을 수 없는 사랑 이야기</p> <p>말라르메의 시 '목신의 오후' 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목신과 님프와의 사랑이야기 「잊을 수 없는 사랑」은 드뷔시의 음악을 주재료로 니진스키의 무용, 마그리트의 이미지, 마이크렐리의 퍼포먼스 등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종합퍼포먼스</p> <p>평가 공연이 특정 공간을 염두해 두고 만든 장소특정형 공연이어서 음악극축제에서의 적용이 어려웠음. 공연장 입퇴장 동선, 공연 중 물 사용 등 협의하기 까다로운 사항들이 많았었음. 거리축제가 처음인 신생팀이라 요구사항이 많았고, 당일날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공연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 사무국 쪽으로 부담이 상당부분 전담되었음</p>

<p>인어</p>  <p>흔 아트 컴퍼니 5/17(일) 16:30 소극장로비 5/17(일) 18:00 전시장앞</p>	<p>인어가 의정부에 나타났다! 도시를 활보하는 인어 두 마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이야기를 풀어가며 추억을 공유한다. 이 시대에 필요한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낸 2인조 거리 퍼포먼스</p> <p>공간을 이용한 퍼포먼스라 사전미팅 및 공간탐색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음. 소극장로비와 야외무대 객석을 적극 활용해 공간에 활력을 주고자 해당 작품을 선택하였으나, 음악 없이 두 배우의 퍼포먼스에만 기대데다 퍼포먼스 또한 단순하여 분장형 이벤트류로 전략한 감이 있음</p> <p>평가</p>
<p>경민 뮤지컬 갈라쇼</p>  <p>경민대 뮤지컬 연기와 5/13(수) 19:00 야외무대</p>	<p>눈과 귀가 즐거운 뮤지컬 갈라쇼 오페라의 유령부터 최근작 드라큘라까지, 경민대 뮤지컬연기와 학생들이 모여 유명 뮤지컬 넘버 20여곡을 들려준다. 연기, 노래, 춤, 제작 등 전문적인 실기실습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경민대학교 뮤지컬 연기와가 눈과 귀를 모두 만족시키는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p> <p>공연팀 내에 무대, 음향, 조명을 담당하는 크루가 있어 리허설부터 공연 연진행까지 자체적으로 소화하였음. 평일 저녁 공연인터라 출연자와 그 지인들만을 위한 공연이 된 경향이 있음</p> <p>평가</p>
<p>Fusion Play</p>  <p>더 플레이+퓨전MC 5/17(일) 18:30 야외무대</p>	<p>축제 로고송의 주인공 The Play와 세계최고 비보이 퓨전MC의 만남 세계 최고 비보이 대회인 배틀오브더이어(BATTLE OF THE YEAR) 우승팀인 비보이 퓨전MC 와 국내최고 뮤지션들이 결성한 7인조 밴드 더플레이가 만나 춤(B-BOY), 음악(K-POP) 을 통해 새로운 K-CULTURE를 창조한다.</p> <p>폐막콘서트 오프닝공연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음. 밴드공연과 비보이 공연의 콜라보 공연으로서 폐막콘서트를 찾은 관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함</p> <p>평가</p>
<p>따뜻한 말 한마디</p>  <p>동화 5/10(일) 15:30 야외무대</p>	<p>국악그림 동화가 관객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음악방송의 형식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이색 국악콘서트가 열린다. 국악그림 동화의 자작곡 라이브 연주와 함께 청취자의 사연, 이벤트 퀴즈 등 관객이 참여하는 코너가 어우러진다. 관객들은 음악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며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p> <p>관객들에게 생소한 창작국악 레파토리임에도 불구하고 해설과 곁들여 진행되어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공연. 해설이 함께하는 공연의 형식이라 추후에 좀 더 시간을 넉넉하게 할애하여 초청해도 좋을 것이라 판단됨</p> <p>평가</p>
<p>길 위의 음악이야기</p>  <p>사계절소리 5/11(월) 19:00 야외무대</p>	<p>시골 출신 청년들의 풋풋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객 한 명 한 명이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음악을 통해 공유하고 공감하며 해소하는 공연이다. 멤버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자작곡을 통해 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다.</p> <p>평가 우천으로 인하여 당일 공연 취소 결정</p>

<p>너와 내가 하나되는 달콤한 음악여행</p>  <p>초코렛라인 5/11(월) 19:30 야외무대</p>	<p>사랑의 따뜻함, 사랑의 달콤함. 달달한 음악여행 어쿠스틱 그룹 초코렛라인이 사랑의 달콤함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가득 담아 초코렛만큼 달달한 시간을 선사한다. 관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꾀하며 삭막한 일상에 지친 관객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일 따뜻한 공연</p> <p>평가 우천으로 인하여 당일 공연 취소 결정</p>
<p>소프트한 감성으로 다가가는 이야기</p>  <p>소프트이웨이브 5/16(토) 14:30 야외무대</p>	<p>감미로운 멜로디에 감각적인 남녀 듀엣의 보컬을 더하다 4인조 어쿠스틱 팝밴드 소프트 웨이브가 선사하는 힐링타임. 풋풋한 사랑의 달콤함을 노래하는 '봄, 비' 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는 '내일도 잘 부탁해' 등 자작곡을 통해 관객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다.</p> <p>평가 버스킹공연을 많이 하는 인디밴드답게 관객들과 소통하기 위한 멘트가 유려했음. 음악 또한 자작곡 레파토리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호응이 좋았음</p>
<p>거리 위 감미로운 러브스토리</p>  <p>미스티 멜로우 5/16(토) 15:00 야외무대</p>	<p>남성듀오 미스티 멜로우의 사랑이야기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그리움과 친구에서 연인이 되는 사랑의 설레임, 연인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언어 등 감미로운 사랑의 이야기가 보사 리듬, 핑키, R&B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펼쳐진다.</p> <p>평가 관객들에게 익숙한 기존 가요곡과 자작곡을 섞어 레파토리를 구성함</p>
<p>7080 세시봉</p>  <p>기따세 5/15(금) 19:00 야외무대</p>	<p>7080의 향수에 흠뻑 젖어들어가는 포크의 밤 의정부 지역 교장선생님 등 교직원으로 이루어진 7인조 7080 밴드, 기따세(기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 2008년 결성되어 지금까지 다양한 행사에서 음악으로 봉사하고 있는 단체로서, 관객들로 하여금 7080의 향수에 흠뻑 젖어들게 해주는 공연을 펼친다.</p> <p>평가 역대 음악극축제 뿐만 아니라 예술의전당 야외무대 행사에 자주 초청되었던 밴드, 레파토리가 고정되어 있어 특별하진 않지만, 친숙함을 무기로 공연마다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냄</p>
<p>워리어 네이션</p>  <p>미2사단 군악대 재즈밴드 5/15(금) 19:30 야외무대</p>	<p>미2사단 군악대 재즈밴드의 블루지한 밤 국내 여러 축제, 초청공연 등을 통해 미2사단을 국내에 알리는 등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미2사단 군악대 재즈밴드의 특별공연. 블루지한 재즈 연주곡들을 위주로 레파토리를 구성하여 분위기있는 축제의 밤을 만든다.</p> <p>평가 처음엔 미2사단 군악대 소속의 여러 밴드 중 락밴드가 초청될 계획이었지만, 군악대 내부 사정으로 말미암아 공연 직전 재즈밴드로 교체되었음. 공연운영과 관련하여 조금 혼란이 있긴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공연 뒤 바로 이어졌던 시네마M(시카고)와 맞물려 훨씬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었음.</p>

다가가는 오케스트라



의정부윈드오케스트라
5/9(토) 20:30 야외무대

의정부윈드오케스트라가 선사하는 관악기의 매력

의정부윈드오케스트라는 일상에서 지친 마음을 음악으로 치유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과 최고의 열정으로 모인 순수음악단체이다. 바람을 이용해 연주하는 모든 관악기를 표현하기 위해 '윈드' 라는 단체명을 쓰고 있다.

평가

개막식 피날레공연인 <빛, 날다> 직전 공연으로서 웅장한 관악합주의 매력을 보여주며, 딜레이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리허설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체의 노력함 덕에 시간 안에 공연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음

자연을 노래하다 '풍경화'



프렌즈싱어즈
의정부유스챔버오케스트라
5/14(목) 19:00 야외무대

프렌즈싱어즈+의정부유스챔버오케스트라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비발디의 사계 중 <봄> 등 대규모 편성 오케스트라 연주로 관객들에게 봄을 전한다. 의정부 전문성악단체 프렌즈 싱어즈와 함께 협연을 통해 <강 건너 봄 오듯이>, <꽃구름 속에> 등 가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이 함께 노래하며 봄의 정취에 흠뻑 젖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평가

성악, 오케스트라, 미술관련 지역단체 3곳의 콜라보 공연으로서 눈과 귀가 즐거운 무대를 선보임. 여러 단체가 모여 기획을 진행한 만큼 준비 단계부터 리허설까지 많은 부침이 있었으나, 공연 자체는 무사히 진행됨

인생은 음악이다



의정부뮤지션협회
5/12(화) 19:00 야외무대

의정부 관내 직장인밴드연합의 희노애락 음악스토리

직장인이 살아야 도시가 살아난다. 아마추어 직장인밴드 씨니사이드, 서울 상경음악단, 명진조창성홍과 의 연합공연, 인생이 곧 음악이고 음악이 곧 인생인 그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그대로 드러난 무대가 펼쳐진다.

평가

역대 음악극축제에 매년 초청되었던 단체인 만큼 무대 운영에 있어 무리 없이 진행됨. 다만 당일 공연직전까지 보슬비와 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 집객이 어려워 아쉬웠던 공연이었음

꿈꾸는 사람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
5/9(토) 19:00 야외무대

의정부의 자랑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보여주는 천상의 하모니

의정부시 문화시설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천상의 하모니로 남녀노소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합창공연을 선보인다. 우리민족의 얼과 흥이 살아있는 <아리랑>을 테마로 다양한 안무를 곁들인 공연 등 이색적인 무대가 펼쳐질 것이다.

평가

공식 개막행사 이후 축하공연 4팀 중 첫 번째 순서, 합창단을 연령대별, 수준별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다양한 무대를 선보인 점은 좋았으나 협의된 것 보다 길었던 무대전환 시간, 곡수로 인하여 딜레이를 초래함. 그로 인해 뒤에 이어지는 3팀의 공연들이 모두 밀리는 상황이 펼쳐짐

삶의 기쁨



TMA 색소폰 앙상블
5/9(토) 19:45 야외무대

모든 연령대가 즐기고 감동 받을 수 있는 색소폰 앙상블의 향연

20인조 대규모 색소폰 앙상블이 가슴을 울리는 관악기의 매력으로 인도한다. 클래식, 올드팝부터 가요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곡들이다.

평가

공식 개막행사 중 앞 팀이었던 합창단의 딜레이로 인하여 공연팀이 준비해 온 레파토리 중 두곡을 현장에서 급하게 뺄 수밖에 없었음. 또한 공연 도중 조명이 OFF 되는 공연사고가 있었으나, 지휘자의 임기응변으로 관객의 큰 이탈없이 유연하게 공연을 진행할 수 있었음

<p>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p>  <p>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 5/12(화) 18:30 소극장로비</p>	<p>심금을 울리는 맑고 고운 오카리나 소리 우아하고 아름다운 음색으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오카리나. 가곡, 유명 가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선곡과 다양한 주법으로 오카리나만의 우아하고 상쾌한 음색을 전한다.</p> <p>평일 소극장 어린이공연 전 20분여 동안 로비에서 진행된 공연. 오카리나의 음색 및 연주곡들과 후에 이어질 어린이 공연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관객들 분위기가 좋았음</p>
<p>이야기가 있는 음악 그리고 봄</p>  <p>트리오골림 5/9(토), 10(일) 15:00 전시장</p>	<p>봄을 노래하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삼중주 '봄'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가 있는 음악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삼중주로 선보인다. 음악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을 추구하는 트리오 골림은 클래식식의 대중화를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p> <p>첫 공연때 멘트에 필요한 음향시설, 관객석을 위한 방석 등을 미리 챙기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 둘째날에 이를 보완하여 공연을 진행하였음</p>
<p>우꼬우쿨~~~~한 이야기</p>  <p>샤프렛우쿨렐레 4/21(화) 12:30 의정부성모병원 4/29(수) 18:15 성베드로병원 5/10(일) 14:30 야외무대</p>	<p>작은 악기 우쿨렐레에서 나오는 풍성한 매력 아주 쉬운 곡부터 고난이도의 연주까지 가능한 우쿨렐레. 이 작은 악기에서 나오는 풍성한 매력을 우쿨렐레 앙상블 샤프렛우쿨렐레가 확실히 보여준다. 우쿨렐레와 다른 여러 악기를 사용해 가요, 팝송, 하와이 민속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며 우쿨렐레의 매력을 관객에 알릴 예정이다.</p> <p>3월에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했던 별별예술마당 2위팀 초청작. 찾아가는 공연의 경우 병원로비의 공간적인 특성과 기술적인 조건, 그리고 공연팀의 넘버가 분위기와 잘 조화되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음</p>
<p>퍼포먼스의 중심 JOKER!</p>  <p>조커 5/17(일) 14:30 야외무대</p>	<p>관내 중학교 댄스동아리의 파워풀한 방송댄스 리믹스 춤에 대한 열정과 끼로 뚝뚝 뚝친 천보중학교 댄스동아리 'JOKER'와 신곡중학교 '유화'의 콜라보 공연. 방송 댄스를 중심으로 워킹, 걸스힙합, K-POP, 얼반 등의 다양한 장르의 기술들을 조합해 특별한 댄스퍼포먼스를 선보인다.</p> <p>3월에 예술의전당에서 진행했던 별별예술마당 3위팀 초청작. 어린 나이의 출연진임에도 불구하고 잘 짜여진 무대구성과 완성도 있는 실력으로 주말에 축제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음</p>

4. 찾아가는 공연

1) 개요

일시	소요시간(분)	장소	장르	공연명	단체명	비고
3.20(금) 18:00	15	의정부역	음악	1호선 칸타빌레	효자중학교 음악중점반	p.60참고
3.21(토) 16:00						
4.11(토) 12:00	30	광화문 중앙광장	복합장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예술무대산	공식초청작 p.30참고
	30		댄스매직	댄스매직 퍼포먼스	투승호	자유참가작 p.35참고
	30		클라운마임	블랙클라운	김찬수 마임컴퍼니	자유참가작 p.35참고
4.21(화) 12:30	30	의정부 성모병원	음악	우꼬우쿨한 이야기	샤프렛 우쿨렐레	자유참가작 p.39참고
4.25(토) 13:00	15	행복로	댄스	이꼬미 플래시몹	-	p.66참고
4.29(수) 18:15	30	성베드로 병원	음악	우꼬우쿨한 이야기	샤프렛 우쿨렐레	자유참가작 p.39참고
5.10(일) 13:00	30	신세계 의정부점	서커스 코미디	스트리트 서커스	다이스케	공식초청작 p.26참고
5.10(일) 15:00	30	S가든	댄스매직	댄스매직 퍼포먼스	투승호	자유참가작 p.35참고
5.14(목) 16:00	60		어린이 음악극	미술관에 간 윌리	오디	
5.15(금) 14:00	108	신세계 의정부점	영화	시네마M(맘마미아)	-	p.62참고
5.16(토) 14:00	60	문화홀	음악	라탱스	새바	
5.17(일) 14:00	108		영화	시네마M(빅히어로)	-	p.62참고



2) 공연별 소개

① 미술관에 간 윌리(오디)

일시/장소	2015.5.14(목) 16:00/ 신세계문화홀
제작진	연출 노주희 스탭 김왕래, 이해경, 박순철, 정태동
출연진	조서연, 조서희, 이한나, 황안나
작품소개	세계적인 그림책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동명의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음악극. 아이들의 키보다 더 큰 그림책을 사이에 두고 두 명의 음악선생님이 노래로 대화하며 책장을 넘긴다. 구연동화처럼 책을 읽어주는 형식이지만 음악수업의 성격을 띠고 아동과 상호 작용하는 '음악과 아동문학의 만남의 장'
평가	신세계와 공연단체들의 협조가 매우 좋았으며, 공연 진행 준비 과정에서 큰 문제 사항 없이 진행되었음. 무료공연으로 공연 전 선착순으로 관람객을 모집하였는데 객석이 매진이 될 만큼 호응도가 높았음
주요 사진	

② 라탱스(새바)

일시/장소	2015.5.16(토) 14:00/ 신세계문화홀
제작진	연출 마도원 스탭 김진태, 허균열
출연진	한정희, 박수진, 오재영, 조아라, 한순욱, 최정욱, 최미정, 황진욱, 구순영, 김순영
작품소개	크로스 오버 공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새바의 라탱스.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폭 넓게 연주되어 온 라틴 음악 명곡 외 유수한 곡들을 새바만의 라틴+탱고+스윙 스타일로 새롭게 탄생하여 결합된 음악공연
평가	공연단체가 신세계 문화홀에 대한 이해가 높아 큰 무리 없이 공연 준비가 되었음. 사전 접수로 진행되었으며, 윌리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매진 됨
주요 사진	

5. 음악극어워드

1) 기본 개요

• 기본 방향

-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음악극어워드는 창작자들에게 어워드를 통해 창작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작품을 무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음악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음악극축제의 대표적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참가 대상

- 음악극에 관심이 많은 신진예술가 및 단체
- 공연예술전문 대학 및 대학원생

• 모집 부문

- 음악의 극적 내용과 감성을 표현한 순수창작품으로 쇼케이스가 가능한 작품 (Try out이나 워크숍 형태로 공연되었던 작품도 참가 가능)
- 형식은 자유롭게 조명장치 없이 실내 및 야외에서 공연 가능한 작품으로 작품의 주요 장면을 발췌한 30분내외 소규모 공연작품
- 출연자들은 평상복 차림으로 악보나 대본을 들고 무대에 설 수 있으며 관현악을 대신한 피아노 반주도 가능

• 진행일정

구분	일정	비고
서류접수	2015. 2. 27(금) ~ 3. 21(토)	23개 작품 지원
서류심사	2015. 3. 24(화) ~ 3. 28(토)	5개 작품 선정
본선참가작 발표	2015. 3. 31(화)	홈페이지 공고
본선일시	2015. 5. 7(목) 13:00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결과발표 및 시상	2015. 5. 27(수) 15:00	의정부예술의전당 귀빈실

2)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독창성	25	소재, 표현법 등의 참신성 및 차별성
완성도	25	프로그램 구성도
관객호응도	25	공연 몰입도, 관객 만족도
발전가능성	25	작품 발전 가능성

• 심사방법

구분	가중치	구성원	총 인원
심사위원	70%	이정만(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이재원(원주댄싱카니발총감독), 황운기(극단도모대표)	3
시민평가단	30%	의정부 시민 등	68
총 합	100%		71

• 시민평가단 모집


-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료공연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함
- 객석 237석 중 유보석을 제외한 230석을 개방하였으며, 공연 시작 전 매진을 기록하였으나 무료 공연의 특성 상 신청자가 전부 참석하지 않았음. 입장은 총 90명이 했으나, 어워드 평가는 68명으로 집계됨

3) 심사결과


- 음악극어워드에 지원한 총 23개의 작품 중 5개의 작품이 본선에 올랐으며, 그 중 3개 작품을 다음과 같이 선정함

구분	작품명	극단명
대상	그녀를 구하라	극단 벼랑끝날다
최우수상	토토의 리본	이준석
우수상	시간의 맛	극단 자화상


• 대상 수상작

작품명	그녀를 구하라 (극단 벼랑끝날다)
제작진	연출 이용주 스태프 구중회, 육한나, 매튜, 박진화, 황규철, 박소정
출연진	이용주, 김경인, 양성훈, 김동준, 허란, 이영상, 홍은택, 김수경, 강나리, 문세진, 정휘린, 이견휘, 김무늬
작품소개	연예계를 통해 스타를 꿈꾸던 한 소녀가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이 어려운 세상에서 스스로 중심을 가지고 설 수 있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본다.
단체소개	음악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풀어나가는 음악극 전문극단으로 작품 창작 과정을 통해 <벼랑끝날다> 만의 독특한 작품 해석과 클라우닝, 피지컬 무브먼트 마임, 다양한 악기연주, 노래 등을 접목하여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다.
심사평	심사위원 전원과 시민평가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그녀를 구하라>는 경연에 나온 다섯 작품 중 가장 완성도가 높았으며 준비를 많이 했다는 인상을 충분히 주었다. 극과 음악 구성이 돋보였고 관객과의 소통이 탁월했던 작품이었다.
주요사진	

• 최우수상 수상작

작품명	토토의 리본 (이준석)
제작진	연출 이준석 스태프 허재원
출연진	배정민, 김성규, 고현경, 박효서
작품소개	애완견 토토, 푸코, 덩치는 관광객 섬에 버려진 유기견들이다. 푸코와 덩치는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인정하지만 토토는 주인이 자신을 찾아올거라고 굳게 믿고 1년을 넘게 배가 들어 올 때마다 선착장에서 주인을 기다린다. 주인 잃은 토토는 주인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단체소개	이준석은 중앙대 기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 연극 및 뮤지컬 창작학과 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불과 얼음' 단원으로 대본/작사/작가로 활동했었다.
심사평	유기견을 소재로 한 점이 매우 신선했으며, 대중적인 부분이 눈에 띄었던 작품이었다. 또한 음악적 구성이 탄탄하여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주요사진	

• 우수상 수상작

작품명	시간의 맛 (극단 자화상)
제작진	연출 손재린 스텝 이유미, 김은지, 김은선, 유지영
출연진	김진태, 이슬, 박동조
작품소개	창작인형극 〈시간의 맛〉을 통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멀지 않은 북한 땅에서 일명 꽃제비라 불리는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맛의 기억 그리고 추억의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단체소개	극단 자화상은 숨겨진 이야기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집단이다.
심사평	북한의 꽃제비 소년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표현한 점이 좋았으나 스토리 개연성이 다소 떨어진 부분이 아쉬웠던 작품이다.
주요사진	

6. 개·폐막식

1) 개막식

① 개요

- 일 시 : 2015. 5. 9(토) 18:00-21:30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무대
- 기획방향
 - 내빈소개 및 주최측 인사말로 대체되는 일반적인 개막선언과 달리 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직접 개막을 알리는 행위로서 개막을 알림
 - 의정부시장, 집행위원장, 총감독, 무대 위 출연진 및 관객석의 시민들이 다함께 축제라고송 〈우리들의 축제〉을 노래 및 연주하는 것으로 축제의 개막을 선언함
 - 이를 위해 축제 2달 전 개막식의 내용과 함께 연주할 곡의 악보를 사전에 공지하여 시민참자가 200여명을 모집하였으며, 이들과 함께 개막식 일주일 전 워크숍을 진행함
- 개막 축하 공연(7팀)
 - 프로젝트 날다, 방타타악기앙상블, 효자중 음악중점반,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 TMA 색소폰 앙상블, 의정부윈드오케스트라, 〈삶을 연주하다〉 시민참가자 150여명
- 식순

구분	시간	내용	출연진
개막식 (1부)	18:00-18:45	1호선 칸타빌레	효자중 음악중점반
		오프닝공연	방타타악기앙상블
		축제소개	트레일러 영상(5분) 포함
		개막선언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시장, 집행위원장, 총감독 방타타악기앙상블, 시민참가자 150명,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
	18:45-19:00	말러매니아 관람자 대극장 이동	
개막 축하공연 (2부)	19:00-19:40	꿈꾸는 사람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
	19:45-20:15	삶의 기쁨	TMA 색소폰 앙상블
	20:30-21:00	다가가는 오케스트라	의정부윈드오케스트라
	21:00-21:30	빛, 날다	프로젝트 날다

2) 폐막콘서트

① 개요

- 일 시 : 2015. 5. 17(일) 18:30-21:00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무대
- 기획방향
 - 한국의 대표적인 뮤지컬배우인 '바다', '루이스 초이'의 무대, 의정부 비보이팀 '퓨전MC'와 음악극축제송의 주인공 '더플레이'의 콜라보 공연을 통해 축제의 폐막을 알림
 - 마지막 폐막인사 때 2016년 축제의 주제 및 개막작을 소개함으로써 내년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 폐막 축하 공연(4팀)
 - 바다, 루이스초이, 퓨전MC, 더플레이
- 식순

구분	시간	내용	출연진
식전공연	18:30-19:15	식전 축하공연	더플레이, 퓨전MC
	19:15-19:30	Break Time	
폐막식	19:30-19:45	이끄미유랑단 공연	이끄미유랑단
		2015년 축제 보고 (행사 사진 슬라이드쇼)	사회자
	19:45-20:00	2016년 주제 발표 (가제: Arts & Humanity) 및 폐막인사	집행위원장, 총감독
		축하공연1	루이스 초이
20:00-20:45	축하공연2	바다	



개막식 <춤을 연주하다>



폐막콘서트

7. 평가 및 발전과제

1) 해외초청작

- 평가
 - 예년에 비해 프로그래밍 업무를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음악극다운 작품 선정과 통일된 라인업으로 축제 정체성을 살림
 - 해외 현지 문화기관의 협력으로 공연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공동초청을 통해 예산을 절감함
 - 방송사 및 언론 인터뷰, 공연실태 중계를 통한 축제를 알리고, 국내 공연예술계 전문가 및 문화기관 관계자들의 관심이 되살아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에이전시와 투어매니저 역할을 동시에 하기에 인력이 부족함. 따라서 무대셋업_통역가, 공동초청_투어매니저, 자료번역_인턴(혹은 번역업체), 프로그램북_개별디자이너 등의 적절한 인력고용 및 배치
 - 각 공연단의 출·입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셋업, 철수 등 일정이 매우 타이트하여 공연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 공연예술축제로 실내 공연작품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연 가능한 공연장 확보 및 장기적 관점에서는 공연장 신설 방안 모색
 - 자막(번역)문제에 따른 관객들의 불편함(이해도)이 초래되어 텍스트가 많은 공연들은 대본번역본이나 프로그램북을 온라인 사전 판매하는 형식을 고려

2) 국내초청작

- 평가
 - 잘 알려진 공연들을 라인업으로 활용한 결과, 축제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춤. 특히 어린이공연이나 뮤지컬의 경우, 관객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효과를 냄
 - 공연프로그램을 통한 사업비 환수율 증대에 기여함
 - 실외공연에 대한 공식초청작 제도 도입으로 질적 양적으로 실외공연에 대한 비중을 높임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기존의 기획공연과 축제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재함. 국내공연단, 연출가를 활용하거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짐. 창작작품을 제작할 경우 의정부음악극축제 이후 타 공연장과 축제를 통한 투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공연관련 워크샵, 제작 워크샵, 연출가와의 대화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연자체의 홍보뿐이 아니라 참여공연단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 더불어 국내초청공연이 축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것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3) 자유참가작

• 평가

- 실외공연이 펼쳐지는 사이트 3곳을 마련하였으며, 각 사이트의 공연이 겹치지 않도록 릴레이식으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스케줄링 함. 여러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었던 것에는 올해 시도한 사이트 매니저의 역할이 컸음
- 관객들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주도적으로 실외공연을 감상해나가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많은 관객들이 장시간 축제장에 머물게 하고, 축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의도하였음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예년에 비해 실외작품 공모시기는 비슷하였으나, 공식초청작 제도 도입 및 실외작품의 양적 확대로 업무진행이 빠듯했음. 좀 더 거리예술작품 공모시기를 앞당기고, 작품 선정, 계약, 기술협의 등 프로세스를 앞당겨서 추진해야함
- 예술의전당 야외가 비좁아 실외공연 사이트 3곳을 운영하는데 소리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함. 각 사이트 별 공연 및 리허설이 겹치지 않도록 세심한 스케줄링이 중요함
- 축제기간 중 주중에 관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과 축제장소를 예술의전당에 한정짓지 않고 예술의전당 앞을 벗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방법도 필요함

4) 찾아가는 공연

• 평가

- 광화문, 의정부역, 행복로, 성모병원, 성베드로병원, 신세계문화홀, 신세계S가든 이상 7곳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하였음
- 기존 공연을 배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플래시몹, 칸타빌레 등 기획적인 면을 부각시킨 찾아가는 공연을 배치함으로써 축제 사전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이용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올해 찾아가는 공연에 대한 예산배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팀을 섭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음. 결과적으로는 7곳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였으나 향후 더 많은 소외된 장소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축제기간 주중에 예술의전당 앞 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서의 찾아가는 공연을 늘려야 함

5) 음악극어워드

• 평가

- 작년부터 이어온 시민평가단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관객확보에 주력하였음. 무료공연으로 소극장 좌석을 개방하여(230석)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형식으로 모집함
- 공연 전 전화석이 매진되었으나, 무료공연의 특성으로 90명만 참석하였음. 다만, 기존의 어워드 성과를 보았을 때 매우 많은 관객을 확보한 것으로 보임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음악극어워드는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창작품을 키워내지 못하는 실정임. 대상작에게는 내년도 초청자격이 부여되는 기존의 혜택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 점이라 볼 수 있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 시 되어야 함
- 무료공연의 특성상 온라인 예약제를 할 경우 관람 신청을 하고 안 오는 경우가 많음. 230석이 아닌 300석 정도 개방하는 방법 또는 희망티켓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6) 개 · 폐막식

• 평가

- 기존의 형식적인 개막행사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시민이 주인공으로 개막을 선언하는 컨셉으로 기획하였고, 신선한 반응을 얻음
- 시민참가 사전예약자(200명)와 함께 온 가족단위 등을 통해 관람객 수를 일정 수준이상 확보할 수 있었음
- 폐막식에는 신속하게 올해 축제 결과보고 영상모음을 띄우고 내년 개막작과 더불어 주제(Arts & Humanity)를 발표하여 준비된 축제임을 보여줄 수 있었음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삶을 연주하다〉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오케스트라, 합창, 즉흥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곡 선정, 편곡방향, 키 조절, 무대 구성, 무대진행 등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개막식과 폐막식은 단순한 축하공연이 아닌 축제의 중요한 공식행사로 축제 정체성과 주제에 맞게 사전에 기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CHAPTER

III.

기획프로그램

- 01 | 예술교류 프로그램
- 02 | 전시미술 프로그램
- 03 | 시민참여 프로그램
- 04 | 협력 프로그램
- 05 | 평가 및 발전과제

1. 예술교류 프로그램

1) 전문가워크숍

① 기본방향

- 해외의 초청작 가운데 <사랑의역사>를 선정하여, 메아뜨로 시네마의 배우 및 스태프들과 국내창작자들이 제작기술과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함

② 운영 개요

- 일시 : 5월 13일(수) 13:30~15:00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내용 : 공연 하이라이트 관람, 무대 세트 견학 및 공연단 설명, 자유 질의응답
- 참가비 : 3만원(공연관람료, 워크샵 진행비 포함)
- 참여인원 : 총 23명 (인터넷 접수)

③ 세부 내용

- 부록3 (p.211) 참조



전문가 워크샵



음악극살롱

2) 음악극살롱

① 기본방향

- 국내 음악극을 제작하는 창작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음악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음악극 창작자 및 전문가들이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음악극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② 운영 개요

- 일시 : 5월 12일(화) 17:00~19:30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 주제 : 음악극 창작자로서의 삶
- 참여인원 : 총 15명
 - 현수정(ITI 음악극위원회 위원장), 작곡가(최우정, 신나라, 황호준, 노선락, 심연주), 연출가(권호성, 김제민, 조용신, 이용주), 국악계(최용석), 기획자(김민정, 육한나, 임정숙, 이지은)

③ 진행 방식

- 진행 : 현수정 교수 (ITI 음악극위원회 위원장)
- 토론 내용
 - 음악극을 창작하게 된 배경은 어떠한가?
 - 국내에서 음악극의 출발점은?
 - 국내 음악극의 제작 환경은 어떠한가?
 - 음악극 발전을 위해 앞으로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 진행방법
 - 살롱 내 사회자 개념의 호스트의 역할을 한 명에게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살롱을 이끌어가는 분위기 주도
 - 만찬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파티로서 무겁지 않고 가볍게 살롱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살롱 종료 후 <사랑의 역사> 공연 단체 관람

④ 세부 내용

- 부록3 (p.206) 참조

3)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① 기본방향

-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공연 제작사와 문예회관의 매칭(Matching)을 통한 창작 작품 발굴 및 유통을 위해 추진함. 공연제작 단계에서 막대한 초기 비용을 기획사와 문예회관이 분담함으로써, 제작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두고 있음

② 운영 개요

- 일시 : 5월 8일(금) 14:00~17:00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공동주최 : (사)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재)의정부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
- 진행방식 : 장르에 상관없이 '초연 창작 작품' 및 '재창작 재연 작품' 의 카테고리로 사전에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행사 당일에는 선정된 작품별로 PT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음

③ 선정작품

NO	구분	분야	작품명	기획사
1	초연	뮤지컬	더 콰이어트	(주)문화공작소 상상마루
2		음악극	오! 캐롤스트라	문화기획 함박우슴
3		뮤지컬	써니	MJ 컴퍼니
4		뮤지컬	하모니	MJ 컴퍼니
5	재연	뮤지컬	로기수	(주)아이엠컬처
6		연극	밥 할머니	생생극단 세발자전거
7		뮤지컬	복순이 할매	집컴퍼니
8		뮤지컬	아가사	아시아브릿지컨텐츠(주)
9		뮤지컬	캣조르바	(주)문화공작소 상상마루



4) 관객과의 대화

① 기본방향

- 공연 종료 후 관객들이 공연 혹은 공연단체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어 공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연단은 직접적인 관객의 평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② 운영 개요

- 일시 : 5월 8일(금) <말러매니아> 20:00 공연 종료 후
5월 12일(화) <사랑의 역사> 20:00 공연 종료 후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③ 세부 내용

- 부록4(p.216) 참조

5) 프리렉처

① 기본방향

-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공연이야기. 공연 시작 전 무대 위에서 음악극 장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올해의 협력예술가> 장일범 음악평론가의 사전강의로 공연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② 운영 개요

- 일시 : <말러매니아> 5월 9일(금) 20:00~20:10, <파리넬리> 5월 16일(토) 17:00~17:10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③ 세부 내용

- 부록5(p.223) 참조



관객과의 대화



프리렉처

2. 전시미술 프로그램

1) 주제체험관

① 기본방향

- 14년 동안 이어온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역사를 모든 연령층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전시 기획
- 축제기간에 공연되는 작품 및 공연에 대한 자료를 전시장에 전시 및 설치하여 의정부음악극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고, 전시뿐 아니라 체험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전 연령층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② 운영개요

- 일시 : 5월 8일(금) ~ 17일(일) 10:00~20:00 (※ 5월 12일(화) 10:00~16:00)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 내용 : 음악극에 대한 소개, 의정부음악극축제 역사, 올해 축제 실내공연 소개 및 체험프로그램 진행
- 관람료 : 무료
- 해설시간 : 주중 10:00 / 11:00 / 15:00, 주말 11:00 / 14:00 / 17:00

③ 전시구성

- 음악극관(제2전시장)



음악극	축제 소개	축제 영상
		
<p>음악극에 대한 다양한 정의부터 음악극을 창시한 바그너의 삶 등을 소개</p>	<p>역대 음악극축제에 초청된 작품의 국가들을 지도로 구현 의정부음악극축제 상징 소개</p>	<p>역대 초청작품 및 결과보고 영상 상영</p>

• 주제관(원형전시장)

공연별 포토존	올해 축제 스팟	피아노 for M
		
<p>2015 실내 초청작 7개작품에 대한 소개 및 포토존</p>	<p>올해 축제 소개 스팟 및 이끄미플레이시움, 칸타빌레 영상 상영</p>	<p>원형전시장 중앙에 그랜드 피아노 설치</p>

• 체험관(제1전시장)

체험프로그램	포토존
	
<p>Make your M : 미스터엠 종이 놀이 Make with Stamp : 스탬프 찍기 놀이</p>	<p>의정부음악극축제에 어울리도록 음표모양, 미스터엠 등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포토존</p>

2) 야외 설치미술

① 기본방향

-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주변에 설치 미술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보다 더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고, 음악극에 대한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축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② 운영 개요

- 일시 : 5월 8일(금) ~ 17일(일)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일대
- 내용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일대에 올해 축제 타이틀인 “삶을 연주하다” 를 기본 주제로 다양한 형식의 설치물들을 설치

③ 설치미술 구성

소극장 로비		관객 센터	
			
음표모양의 의자를 10개 배치	음표모양의 오브제를 센터 위에 매다는 형식의 설치미술		
축제장 오는 길		주차부스	Piano for M
			
분홍색 천을 나무에 감아 축제 오는 길 상징	축제 입구라 할 수 있는 주차부스를 성처럼 꾸며 재미를 선사함	축제장 곳곳에 길거리 피아노를 배치하여 설치미술 겸 체험을 가능하게끔 함	

3. 시민참여 프로그램

1) 연주하고 : 삶을 연주하다

① 기본방향

-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주제인 '삶을 연주하다' 를 반영한 동명의 특별 기획 프로그램인 '삶을 연주하다' 는 시민참가자들로 구성된 즉흥 잼콘서트로 진행함.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로서 축제의 대동성과 축제성을 동시에 구현하도록 기획함

② 운영 개요

- 일시 : 5월 9일 (토)18:00 개막식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무대
- 내용 : 제 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식의 메인공연. 시민오케스트라 150여명과 함께 축제송을 연주 및 노래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림
- 참여인원 : 총 200여명 (방타 타악기앙상블,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민연주자 150여명)

③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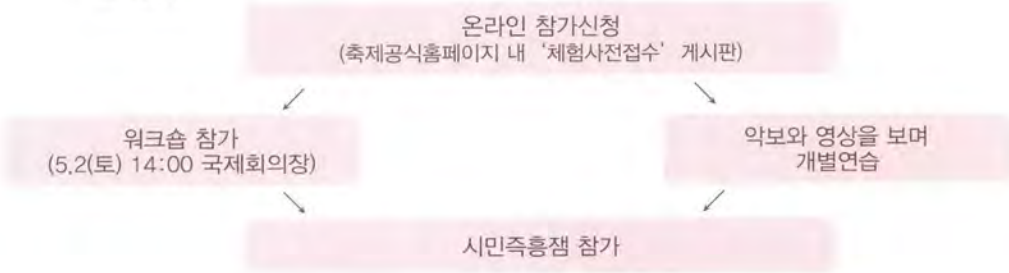
• 운영 방향

- 개막식의 메인 공연팀인 방타 타악기앙상블이 연주할 7-8곡 중 2곡을 시민들과 함께 연주하는 프로그램
- 방타 타악기앙상블이 시민들과 함께 합주할 곡 2곡을 미리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홈페이지 상에 해당 곡의 악보 및 연습영상을 게시하여 시민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함
- 4월 초, 해당 프로그램의 개요를 공표함과 동시에 시민참가자를 모집한 후 5월 초 워크숍을 마련하여 시민참가자들이 미리 연습하고 합을 맞춰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짐



• 참가자 모집

- 모집기간 : 2015. 4. 1(수) ~ 4.30(목)
- 모집대상 : 멜로디언, 색소폰, 하모니카 등 악기를 가지고 있는 누구나
- 모집인원 : 200명
- 참가방법



- 참여혜택 : 축제기념티셔츠,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실내공연 공식초청작 30% 할인

2) 연주하고 : 1호선 칸타빌레

① 기본방향

- 의정부역사와 의정부역 플랫폼을 무대로 삼아 플래시몹 형태의 오케스트라 게릴라 콘서트를 진행

② 운영 개요

- 일시 : 3월 20일(금) 18:00 / 3월 21일(토) 16:00
- 장소 : 의정부역사 내부, 의정부역 플랫폼
- 내용 : 효자중학교 음악중점반 학생들을 섭외하여 의정부역사 내부에서 1차, 의정부역 플랫폼에서 2차 플래시몹 공연을 진행함
- 참여인원 : 총 21명 (효자중학생 18명, 인솔교사 2명, 지휘교사 1명)
- 세부내용 : 외주업체를 통해 플래시몹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홍보 영상으로 활용함



3) 체험하고 : 뮤직터널M

① 기본방향

- 타일 위에 축제의 주제에 맞게 시민들이 그림을 그리고 해당 작품들을 도자기로 구워 축제장 인근에 설치, 전시함으로써 음악극축제를 영구히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함

②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9일(토)~17일(일) 10:00~17:00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뮤직터널M)
- 참가비: 사전접수 2,000원 현장접수 3,000원 (사전접수 기간 : 4/1수~4/30목)



4) 체험하고 : 로드스케치M

① 기본방향

- 아스팔트바닥을 도화지삼아 그림실력을 마음껏 뽐내보는 그림 난장판 프로젝트. 어린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자극하는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

②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9일(토)~17일(일) 10:00~17:00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로드스케치M)
- 내 용: 사무국에서 직접 다양한 색상의 분필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분필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아스팔트에 그림 그릴 여백이 없을 경우 물청소 진행(10일간 총2회 진행함)



5) 체험하고 : Make your M

① 기본방향

- 의정부음악극축제의 마스코트인 Mr. M을 다양한 모습의 종이인형 키트로 제작하여 전시장에서 오리고 붙이고 색칠하는 체험을 통해 음악극축제의 캐릭터를 기억하고 친근하게 연상될 수 있도록 기획

②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8일(금)~17일(토) 10:00~20:00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 내 용 : 다양한 모습의 Mr.M 종이인형을 제작하여 전시장에 부착함



6) 체험하고 : 시네마M

① 기본방향

- 야간에 음악극과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여 가족과 연인 등 시민들이 편하게 축제를 즐기고, 10일 간 지속되는 축제에 연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②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10일(일)~16일(토) 20:30 ~ 영화종료 시 까지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무대
- 내 용 : 미니콘서트와 그에 어울리는 뮤지컬영화를 함께 배치

③ 상영일정

5/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겨울왕국	비긴어게인	스쿨오브락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시카고	맘마미아

7) 체험하고 : 외주체험 프로그램

①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9일(토) ~ 5월 10일 (일) 10:00 - 18:00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체험마당)
- 참가단체 : 총 6개 단체

② 프로그램 리스트

입점일자	단체명	체험내용	체험비
	꼬매아트	Mr.M 카드지갑 만들기	3,000원
	재미있는체험	아크릴 캐릭터 소품 만들기	3,000원~8,000원
5. 9(토)	단청닷컴	전동비행기 만들기	5,000원~8,000원
	힐링플라워아트	압화소품 만들기	5,000원~10,000원
5.10(일)	메디공방	매듭을 이용한 소품 만들기	3,000원~8,000원
	미지아트	한지공예품 만들기	5,000원~10,000원

8) 사고팔고

① 기본방향

- 현재 의정부지역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플라마켓(해피마켓)팀을 초청하여 의정부 음악극축제 내에서 플라마켓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②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16일(토)~17일(일) 10:00~18:00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 (체험마당)
- 내 용 : 플라마켓 단체를 초청하여 이를 동안 아트 플라마켓을 운영하고, 발생한 수익은 전액 참가단체에 귀속



③ 입점업체 리스트

5.16(토)		5.17(일)
업체명 및 품목		
1	박경숙 (가방,얇치마,주방용품)	민평화 (핸드폰케이스, 렌즈캡홀더)
2	피정희 (비누꽃, 볼펜, 인테리어용품)	김나영 (유아레인코트, 패브릭소품)
3	오예순 (핸드메이드, 클러치백, 패브릭 소품)	오현진 (가족소품)
4	오현진 (가족소품)	감성팩토리 (핸드메이드가방, 파우치)
5	감성팩토리 (핸드메이드가방, 파우치)	서지현 (블랭킷,모자,스카프)
6	박상미 (주방장갑, 핸드타올, 식탁매트)	김명진 (LED조명, 키즈인테리어용품)
7	패브리코 (목걸이, 브로치, 패브릭악세사리)	최다인 (핸드메이드 악세사리 (팔찌,귀걸이))
8	조은유 (석고방향제, 손자수용품)	김원민 (미니캔들)
9	서지현 (블랭킷,모자,스카프)	우현진 (양모용품, 석고방향제)
10	김영지 (파우치, 쿠션 등 패브릭소품)	최현 (스톤)
11	김명진 (LED조명, 키즈인테리어용품)	박진영 (패브리)
12	최다인 (핸드메이드 악세사리)	강현주 (애견용품, 미아방지목걸이)
13	김원민 (미니캔들)	쁘리베베 (헤어악세사리)
14	김현주 (석고방향제,수세미,키홀더,가방)	찌그러진강통 (패브릭소품)
15	우현진 (양모용품, 석고방향제)	윤아맘 (헤어악세사리)
16	정진영 (파우치 등 패브릭 소품)	도로로팜(핸드메이드 의류)
17	허보포레 (니치향수, 소이캔들)	바니자니송 (리버티소품)
18	박진영 (패브릭)	초록엄지 (케이프, 주방타올)
19	김수정 (팬이, 레고)	클라리온 (석고방향제, 캔들)
20	강현주 (악세사리)	뽀공장 (헤어악세사리)
21	쁘리베베 (헤어악세사리)	엘리스모자 (레고모자)
22	찌그러진강통 (패브릭소품)	러브핑글 (헤어악세사리)
23	윤아맘 (헤어악세사리)	
24	도로로팜 (핸드메이드 의류)	
25	바니자니송 (리버티소품)	
26	초록엄지 (케이프, 주방타올)	
27	클라리온 (석고방향제, 캔들)	
28	뽀공장 (헤어악세사리)	
29	엘리스모자 (레고모자)	
30	엄다인 (도자기)	
31	러브핑글 (헤어악세사리)	

9) 맛보고

① 기본방향

- 공모를 통해 먹거리 업체를 선정하여 축제기간 동안 먹거리부스를 상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축제분위기 고양과 체류시간을 연장시키도록 유도

②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8일(금)~17일(토) / 주중(16:00~21:00) 주말(11:00~20:00)
- 장 소 : 분수무대, 전시장 앞
- 참 가 비 : 입장비 (현금 10만원 + 10만원 상당의 음식제공)
보증금 (현금 10만원)
- 제출서류 : 보건증, 사업자등록증, 협약서, 통장사본

③ 입점업체 리스트

NO	업체명	메뉴
1	꼬꼬닭이 물고온 떡볶이	떡볶이, 꼬치어묵
2	꽃솜사탕	솜사탕
3	꿈자	핫도그
4	다기랑	오짱, 호이또
5	버터구이 오징어	버터구이 오징어
6	소시지시대	컵스크림, 수제소시지
7	에패스	케밥, 터키아이스크림
8	부자유통	닭꼬치, 닭강정
9	츄러스 팩토리	롱츄러스, 미니츄러스
10	베르디	알감자, 탕수육



10) 놀라고 : 의리의고

① 기본방향

- 관내 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부고등학교의 특별한 졸업 코스튬 이벤트를 축제프로그램으로 기획함

②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16일(토)~17일(일) 13:00~19:00
- 장 소 : 협력마당
- 내 용 : 의정부고등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여하여 코스튬퍼레이드와 졸업사진 전시회를 진행하여 축제의 재미요소를 부각시키고, 참여학생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만들어줌
- 참여인원 : 총 31명 (참여학생 29명, 인솔교사 2명)
- 기타내용 : 의리의고 참여 학생들에게는 봉사시간, 1만원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함



11) 놀라고 : 이끄미 플래시몹

① 기본방향

- 의정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행복로와 의정부역광장에서 깜짝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이를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축제 사전홍보로 활용

② 운영 개요

- 일 시 : 4월 25일(토) 14:25
- 장 소 : 행복로, 의정부역광장
- 내 용 : 이끄미들과 천보중학교 댄스동아리 22명이 행복로와 의정부역광장에서 축제송에 맞춰 춤을 추는 플래시몹을 진행함
- 참여인원 : 총 43명

12) 놀라고 : 이끄미 유랑단

① 기본방향

- 축제기간동안 이끄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축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축제의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함

② 운영 개요

- 일시 : 5월 17일(일) 14:00 ~ 19:00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일대, 행복로
- 내용 : 이끄미 이벤트를 운영하여 관객에게 다가가 재미있는 게임을 제의하고 관객이 이기면 상품을 제공하고, 지면 벌칙을 주는 재미있는 프로그램
 - 게임 : 무작정 목찌빠, 무작정 손 싸름, 만보기 승부, 디비디비답, 도전99초, 훌쩍, 고백게임 등
 - 상품 : 기념품 등 간단한 상품
 - 벌칙 : 엉덩이로 축제 쓰기, 탄산음료 원샷, 진실게임-거짓말탐지기 등)



이끄미 유랑단



이끄미 플래시몹

4. 협력 프로그램

① 운영 개요

- 일 시 : 5월 9일 (토) ~ 5월 10일 (일), 5월 16일 (토) ~ 5월 17일 (일)
- 장 소 : 협력마당
- 참여인원 : 첫 주말 8개 단체, 두 번째 주말 6개 단체

② 프로그램 리스트

입점날짜	단체명	내용	비고
5.9 (토) ~ 5.10 (일)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 및 체험교육	
	유니세프	홍보 및 체험	
	경기북부 가정위탁 지원센터	홍보 및 체험, 기념품제공	
	아름다운가게	홍보 및 중고물품 교환	
	초록우산	홍보 및 체험	
	니콘카메라	홍보 및 체험, 사진인화	
	구몬학습	홍보 및 체험교육, 기념품 제공	
	성모병원	홍보 및 의료지원	
5.16(토) ~ 5.17(일)	구몬학습	홍보 및 체험교육, 기념품 제공	
	미나미짬빵	짬빵 및 농산물 판매	관내 사회적기업
	타로&사주	타로 및 사주 체험	관내단체
	샵포스쿨	프린팅 티셔츠 제작 및 천연화장품 판매	관내 사회적기업
	한국방송아카데미	메이크업 및 페이스페인팅 체험	관내단체
	성베드로병원	홍보 및 의료지원, 기념품제공	

5. 평가 및 발전과제

1) 예술교류 프로그램

• 성과

- 〈음악극살롱〉은 올해 처음 기획된 음악극창작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파티 프로그램으로 호스트를 비롯해 작곡가, 연출가, 기획자 등 총 14명이 참석하여 진행됨. 기대했던 것보다 대화의 밀도가 높고 진지했으며, 이런 모임에 대한 필요성에 다들 공감하고 있었음
- 올해는 홍보대사 대신 음악극 장르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예술가를 〈올해의 협력예술가〉로 위촉하여 직접적으로 관객의 공연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실제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음악극살롱〉의 경우 올해 처음 기획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았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매번 다양한 주제가 있어야 할 것임. 또한 향후 더 많은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음악극 창작자들의 허브로 잘 구축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
- 〈협력예술가〉의 경우 올해에 프리렉처만 진행했지만, 향후 기자간담회 참석, 인터뷰 진행 등 협력예술가의 활동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음

2) 전시미술 프로그램

• 성과

- 〈주제체험관〉은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노력했으며 원형전시장 내 그랜드피아노를 배치함으로써 올해 주제와 부합하는 콘텐츠를 구성하였고, 음악관의 경우 음악극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교육 측면을 부각하였음. 체험관에는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하여 〈Make your M〉 체험프로그램과 스탬프 찍기를 구성하여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았음. 주중에는 스쿨워크와 연계하여 학교의 단체관람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됨
- 올해 처음 시도하였던 〈야외설치미술〉은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보이게 하였음. 축제장 주변 나무에 핑크색 천을 감아 축제 상징성을 더했으며, 주차 부스도 재미있게 꾸며 관람객의 흥미를 자아냄. 또한 축제 곳곳에 Mr.M 캐릭터를 배치하여 더욱 밝은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분수무대 옆에 피아노 3대를 배치하여 올해 축제 주제를 떠올리게 하였음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주제체험관〉의 제일 큰 문제는 예산 부족임. 100평이 넘는 공간을 1,500만원으로 설치하기에 는 무리가 있음. 향후 좀 더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전시의 경우 미리 기획에 들어가 작업을 해야

시간에 쫓기지 않을 수 있음

- <아외설치미술>은 올해 예산이 적다보니 하려는 업체가 없어 전시업체와 묶어서 진행하게 됨. 내년에도 전시와 설치를 같은 업체로 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면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3) 시민참여 프로그램

• 성과

- <삶을 연주하다>는 개막식의 메인프로그램으로 활용되어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1호선 칸타빌레>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찾아가는 공연’과는 다르게 플래시몹 형태의 성격으로 차별화를 두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일상적인 공간에서 돌발적으로 벌어지는 공연을 통해 많은 의정부시민들이 즐거워하였으며, 의정부역을 이용하였던 타지역 시민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음
- <뮤직터널M>은 작년에 진행되었던 ‘뮤직월1004’ 프로젝트에 이어 사패산 터널 벽면을 전시장소로 승인받아 진행함. 예술의전당이 아닌 외부지역으로 확대하여 낙후된 도시의 공간을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음악극축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 설치함
- <로드스케치M>은 적은예산 대비 다수의 인원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높은 호응을 이끌어냄. 바닥 낙서를 통해 참여자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킴으로써 다양한 예술적 작품들이 탄생함. 이로 인해 로드스케치M은 체험프로그램이지만 설치미술의 성격도 띄며 스쿨워크와 연계하여 참여도를 높임
- <Make your M>은 주제체험관에서의 운영을 통해 체험관에 설치되어있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과 시너지효과를 내어 참가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고, 시민들이 만든 다양한 모습의 Mr.M을 전시관 벽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전시공간을 꾸미는 주체가 됨
- <사과팔고>는 의정부 내에서 활성화되어있는 ‘해피마켓’ 단체를 섭외하여 총 이를 동안 60여 개의 점포가 아트 플라마켓에 참여하였음. 고품질의 다양한 핸드메이드 악세사리 및 생활소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축제를 찾아주는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
- <맛보고>는 공모를 통해 메뉴가 겹치지 않는 먹거리업체 11팀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축제분위기 연출과 좀 더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 <놀라고>는 의정부 지역단체와 자원활동가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이끄미 플래시몹과 <이끄미 유랑단>의 경우에는 자원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축제 공연의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특히 <의리이고>는 의정부의 자원을 축제에서 적극 이용한 기획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SNS 전파를 통해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지역 외에서도 큰 호응을 얻음. 무엇보다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꾸민 참신한 기획으로서 참여자, 관람자들 모두 만족했던 인기 프로그램이었음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연주하고>에서 <1호선 칸타빌레>는 우선 학교 측과 사무국과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프로그램 진행 협조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진행되어 시간이 많이 낭비되었음. 초기에 경전철 칸타빌레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공간의 협소해 1호선으로 확대되고 이후 의정부역,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동부본부등과의 협조과정에서 의정부역 플랫폼에서 최종적으로 진행됨.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대한 대안방안 또한 미리 구상해야 함
- <체험하고>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담당인원이 부족하여 인원배치에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음. 평일시간대의 경우 각 프로그램을 오픈 및 마감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여 운영이 상당히 어려웠음. <로드스케치M>은 분필제작과정을 좀 더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 <사고팔고>는 점포 및 참여단체에 비하여 이용자 수가 적었음. 또한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축제 임박일까지 참여업체들의 변동이 계속일어나 정보파악 및 명단정리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업체 수를 전체적으로 줄여야하며 참여업체들의 돌발적인 이탈을 막기 위해 약간의 사무국에서 규제 및 제약을 뒤야할 필요성도 느껴짐
- <맛보고>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출이 높지 않았으며, 주중 운영에는 방문객 수를 예측하여 전체 먹거리 업체의 운영시간을 일괄적으로 맞추기 보다는 메뉴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점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할 것임
- <놀라고>는 참여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렸음. <이끼미유랑단>과 <이끼미플레이스톱> 모두 참여인원을 모집하는 것부터 난관이었음. 조기에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동아리나 단체를 섭외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음. <의리이고> 역시 예산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추가 진행비를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향후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함

4) 협력 프로그램

- 성과

- 예년보다 많은 수의 업체 및 단체를 선정하여 축제를 찾아주는 시민과 관객들에 보다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였음. 두 주말동안 각기 다른 단체들을 선정하여 단체 간의 축제참여 기획을 골고루 분배함. 다양한 성격의 콘텐츠를 체험함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음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의 참여율은 저조하였음.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보다 유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수가 많아 관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점이 있었다고 판단됨. 또한 축제방문자 수의 비해 너무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여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음
- 프로그램 구성 시 무료체험의 비중을 높이 가져가야하며, 필요에 따라 유료체험업체와 협의를 통해 일정금액을 주고 무료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함. 혹은 유료체험의 가격대 형성을 낮게 가져가야함. 프로그램 당 과도하게 많은 업체를 섭외하기보다는 축제성격과 부합하고 관객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3~4개 정도의 업체를 섭외하는 것이 효율적임. 또한 평일 시간대의 프로그램운명을 다시 한 번 재고 해봐야하며, 평일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보다 다양한 공연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넣어서 최소한의 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CHAPTER

IV.

홍보

- 
- 
- 01 | 언론홍보
 - 02 | 인쇄홍보물
 - 03 | 옥외홍보
 - 04 | 온라인홍보
 - 05 | 오프라인 홍보
 - 06 | 기념품 및 판촉물
 - 07 | 영상홍보물
 - 08 | 매체광고
 - 09 | 평가 및 발전 과제

1. 언론홍보

1) 목표

- 뉴스확산을 통한 축제 인지도 및 공신력 강화
- 축제 참여 독려 및 티켓구매 촉진
- 공연예술전문지와 축제전문지 보도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음악극 장르의 인지도 확산
- 축제 후 리뷰 생성

2) 전략

- 2015년 주제인 '삶을 연주하다' 를 풀어내 축제 스토리와 주제성 강조
- 공연예술전문지 대상으로 사전 인터뷰 · 칼럼, 기획기사 등 심도 있는 보도를 유도해 작품 호감도 및 신뢰도 향상
- 지역지 · 일간지 대상으로 개괄적인 축제소개 기사 및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보도, 일반 시민들의 관심 유발 및 참여 유도
- 메인 초청작품을 전면에 내세운 방송 보도 추진
- 매체별 · 기자별 맞춤 보도자료 제공
- 의정부시청 공보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3) 추진일정

일정	내용
12월	작품1차 텍스트 수령, 출입기자 파악, 언론홍보 전략 수립
1월	공연예술전문지 광고면 부킹, 공연관련 프로그램 방송 및 인터뷰 제안
2월	작품별 텍스트 마련
3월	라디오방송 티켓 프로모션 제안, 축제 프레스킷 작성
4월	기자간담회 개최, 1:1 기자미팅 및 주요 언론사 방문, 사전 행사 보도자료 발송
5월	기자 축제현장 방문 유도 및 의견, 방송 및 취재 관련 일정 및 인터뷰 조율
6월	전체 언론보도 스크랩

4) 매체별 추진내용

① 일간지 · 주간지

- 가장 주력해야할 매체 중 하나로 담당별, 기자별 맞춤 정보 제공
- 축제 전반적인 정보와 개별 작품 모두 강조
- 중앙 일간지 문화부 담당자와 시 주재기자 쌍방향 활용. 사회부 기자의 경우 작품별 접근보다 사전홍보 및 시민참여 위주로 노출

② 전문지

- 매체 특성에 맞는 개별 작품을 선택해 사전 프리뷰, 작품분석, 칼럼 등 전문성 있는 콘텐츠 보도를 이끌어냄
- 공연 후 리뷰기사 유도

③ TV 및 라디오 방송

- 축제 전반에 관한 이슈보다는 개별 작품 <말러메니아>와 관련해 2월부터 방송 제안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 <TV예술무대> 공연 중계 및 MBC 대표 교양프로그램 <문화사색> 보도, TBSseFM <1013 Main Street> 말러메니아 지휘자 인터뷰 등으로 이어짐
- <장일범의 가정음악>, <세상의 모든 음악> 등 음악 전문 라디오방송의 공연초대 프로모션을 실시해 방송 노출도를 높임
- 광화문 홍보 및 시 기자간담회와 같은 사전행사에 지역 케이블채널에 컨택해 노출빈도를 독려했으며, 개막 전 사전보도를 유도함
- 축제 기간 중 다양한 매체의 현장 취재를 진행했으며, 현장 스케치 외에도 집행위원장 · 총감독 · 사무국장 인터뷰 등이 함께 보도됨

5) 기자간담회

① 수도권 기자간담회

- 일 시 : 2015. 4. 15 (수) 11:00 ~ 13:00
- 장 소 : 한국의 집 소화당 (서울시 총무로 소재)
- 대 상 : 문화부 및 공연예술 전문지 기자 (약 15명)
- 내 용 : 문화담당 기자들을 한곳에 모아 축제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가능성을 높임
- 기자답례품 : 선물용 떡, <말러매니아> <사랑의 역사> 좌석교환권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11:00~11:05	기자간담회 참석자 소개 및 진행방향 설명 (소홍삼 행정감독)
11:05~11:10	인사말 (박형식 집행위원장)
11:10~11:40	축제 브리핑 - 2015 음악극축제 특징 및 방향 (이훈 총감독) - 2015 축제소개 (김지선 사무국장) - 공연 트레일러 상영 및 메인 공연작품 소개 (박정제 공연사업 팀장)
11:40~12:00	질의응답
12:00~13:00	오찬

- 내부참석자 : 박형식 집행위원장, 이훈 총감독, 소홍삼 행정감독, 김지선 사무국장, 박정제 공연사업팀장 외 홍보마케팅팀 3인 (총 8명)



수도권 기자간담회 현장

• 참석 언론

입점일자	매체명	체험내용
일간경제지	매일경제	전지현 차장
	서울경제	최수문 차장
연예스포츠	스포츠조선	김형우 부국장
중앙일간지	내일신문	송현경 기자
뉴스통신사	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뉴시스	조인우 기자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	줄리 김 잭슨 기자
공연예술전문지	월간객석	방주영 과장, 김호경 기자
	더뮤지컬	나윤정 기자
	한국연극	유정호 기자
온라인	플레이뉴스	박순영 기자, 문성식 기자
	코리아투데이	고영재 기자, 이한수 기자
	CIBS	이윤영 PD
	컬처원도우	배순민 기자
기타	Art & Culture	강익모 평론가
총 참석인원		18명

② 경기 문화부 기자 오찬

- 대상 : 경기지역 주요언론 문화부 기자
- 일시 : 2015. 4. 22.(수) 12:00-13:30
- 장소 : 사랑채 (경기 수원시 팔달구)
- 내용 : 경기지역 주요 문화부 기자들에게 축제 보도자료 및 홍보물 전달
- 참석 언론 기자 : 경기일보 류설아 기자, 경기신문 김장선 기자, 경인일보 공지영 기자, 중부일보 김동성 기자 (총4인)
- 내부 참석자 : 박형식 집행위원장, 소홍삼 행정감독, 배현 공연기획부 대리, 지영림 홍보팀원

③ 의정부시청 공보과 주최 기자간담회

- 대상 : 의정부시청 출입기자
- 일시 : 2015. 4. 27.(월) 11:00
- 장소 : 의정부시청 기자실, 서울식당
- 내용 : 시청 공보과에서 시청 홍보 활성화의 일환으로 주최한 간담회로 의정부시청 출입 기자들이 참석함
- 참석 언론 기자 : 의정부시청 출입기자 약 30여명
- 내부 참석자 : 의정부예술의전당 관계자 및 축제사무국 총감독 외 5명



기자간담회 현장

6) 보도자료 발송내역

구분	일자	내용
1	2014. 12. 24	2015 공식초청작 라인업 공개
2	2015. 1. 28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선정
3	2015. 3. 3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및 조기예매 50% 할인
4	2015. 3. 24	티켓 판매현황 및 특별티켓
5	2015. 3. 27	말러매니아 개별 보도자료
6	2015. 4. 10	올해의 협력예술가 장일범
7	2015. 4. 11	광화문광장에서 찾아가는 공연
8	2015. 4. 17	성모병원 찾아가는 공연
9	2015. 4. 27	행복로 이끄미 플래시몹
10	2015. 5. 6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
11	2015. 5. 10	개막식 현장
12	2015. 5. 14	폐막작 파리넬리
13	2015. 5. 19	폐막 및 결과보고
14	2015. 5. 27	음악극어워드 시상식
15	2015. 6. 11	뮤직터널M 완공

7) 보도현황

집계기간 : 2014. 12. 25 ~ 2015. 6. 25 (6개월)

• 언론유형별

구분	TV	라디오	중앙언론	지방언론	지역언론	전문지	주월간지	온라인	합계
횟수	16	15	39	89	90	8	11	71	339
비율	5%	4%	12%	26%	27%	2%	3%	21%	100%

• 보도형식별

구분	방송	지면	지면·온라인	온라인	합계
횟수	31	59	186	63	339

- 총 339건의 언론보도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보도성적을 거뒀으며 전년 보도실적(208건) 대비 약1.65배 가량 노출 빈도가 높아짐. 또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TV·라디오 방송 분야에서도 비교적 높은 보도성적을 거둠
- 지역에서 진행되는 축제이니만큼 경기도 언론과 의정부 지역언론에서 가장 많은 보도횟수를 보였으며 이어 온라인, 중앙언론 순으로 집계됨
- 언론보도 리스트 부록9(p.237) 참조

2. 인쇄물홍보

1) 제작개요

① 제작내역

분류	구분	인쇄시점	규격(mm)	수량	사양
포스터	메인포스터	3월 1주	360×510	5,000	스노우 150g
	말러매니아		360×510	2,000	스노우 150g
	파리넬리	4월 1주	360×510	2,000	스노우 150g
	사랑의 역사		360×510	600	아트지 150g
	소계			9,600	
리플렛	공동초청 제안	12월 3주	148×210	1,000	몽블랑 210g, 양면
	조기예매 홍보	2월 4주	148×210	2,000	스노우 180g, 양면, 유광코팅
	1차 홍보 리플렛	3월 4주	110×250	25,000	스노우 150g, 4단접지
	2차 가이드 리플렛	5월 1주	100×210	7,000	스노우 100g, 32P 중철 표지·뒷지 날개
	소계			35,000	
프로그램	말러매니아	5월 1주	180×248	500	표지:랑데부240g 내지:랑데부130g / 무선제본
	사랑의 역사			300	
	소계		800		
기타	연하장	12월 3주	210×206	500	랑데부 210g, 금별색, 접지
	절대티켓	3월 1주	155×75	100	스노우 200g
	좌석교환권 2중	3월 2주	155×75	1,000	스노우 200g
	홍보용 스티커	4월 1주	54×64	3,000	유광코팅
	대봉투	4월 2주	330×245	1,000	레자크(체크) 150g
	소봉투	3월 4주	120×260	2,000	모조지 100g, 자켓형
	초청장	4월 4주	210×205	700	랑데부 190g, 접지
	소계			8,300	
합계				53,700	

② 주요 홍보물 제작일정

구분			12				1				2			
			1	2	3	4	1	2	3	4	1	2	3	4
포스터	메인	업체선정												
		기획												
		디자인												
	작품별	인쇄												
		기획												
		디자인												
인쇄														
리플렛	공동초청	기획												
		디자인												
	조기에매	인쇄												
		기획												
		디자인												
		인쇄												
구분			3				4				5			
			1	2	3	4	1	2	3	4	1	2	3	4
리플렛	1차	기획												
		디자인												
		인쇄												
	2차	기획												
		디자인												
		인쇄												
기획														
프로 그램	말려 매니아	디자인												
		인쇄												
		기획												
	사랑의 역사	디자인												
		인쇄												
		기획												
디자인														
	인쇄													

2) BI 개발

① 기획의도

- 14회 동안 매년 축제 디자인이 변경되며 브랜드 이미지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결여돼 축제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음악극축제를 연상할 수 있는 BI를 개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음악극축제만의 대표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축제의 지속성, 일관성을 확보함
- 중장기적으로 관객들에게 각인될 수 있는 축제 브랜드 이미지로 전반적인 축제 이미지 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시너지 효과 창출에 기여

② 추진내역

-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5개의 업체에서 견적서를 의뢰한 후 2개의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내부평가를 통해 최종 업체를 선정함
- 포스터 및 각종 인쇄물에 들어갈 통일된 서체로 기성체를 사용하기 보다는 참신하고 새로운 폰트 디자인을 개발.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디테일이 추가되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타입 선정
- 유려한 곡선을 통해 음악극이 가지는 운율성과 율동감을 표현함. BI의 다양한 활용 및 통일성있는 변형을 위해 3종의 한글 BI 개발
- 제작된 BI와 캐릭터를 기반으로 2015 축제 메인 디자인 컨셉 및 도출



③ 추진일정

일정	내용
12월 1주	BI 개발 계획안 구상, 업체 리서치 및 견적서 수령
12월 2주	업체선정을 위한 디자인 샘플 수령
12월 3주	업체 선정 및 제작진행
1월 2주	1차 한글 시안 수령, 직원 의견 수렴 및 수정 진행
1월 4주	영문시안 제작 진행
2월 2주	최종 결과물 수령

3) 포스터

① 제작 방향

- 제작된 B를 메인 포스터 및 작품포스터에 활용함으로써 축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함.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통일된 이미지와 컨셉 유지
- 음악극축제 캐릭터 미스터엠(Mr.M)을 메인포스터에 활용해 축제 상징성을 강화시킴. 또한 검정 색이미지로 한정되었던 미스터엠에 색채를 입혀 보다 역동적인 캐릭터로 표현함. 축제를 연상시키는 오브제들을 포스터 곳곳에 비치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연출함과 동시에 디자인 활용도를 높임
- 작품을 대표할 수 있는 개별 작품 포스터 시안을 모두 제작해 대표이미지로 활용함. 온라인 웹전단 및 리플렛 등에 활용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말러매니아>, <파리넬리>, <사랑의 역사> 3종류만 포스터로 인쇄함

② 배포내역

- p.89 참고



4) 리플렛

① 공동초청 제안 리플렛

- 제작목적 : 해외작품 공동초청 제안
- 구성 : 앞면은 축제명, 축제기간, 축제 소개, 주요 연혁, 주제로 구성했으며 뒷면에는 2015년 공식초청작 주요 라인업 소개와 공동초청 제안 내용을 담음
- 배포내역 : 한국문화예술회관련협회 총회(2014. 12. 16) 시 문예회관 관계자들 대상으로 직접 배포

② 조기에매 홍보 리플렛

- 제작목적 : 티켓 오픈 및 조기에매 홍보를 통한 티켓판매 촉진
- 구성 : 조기에매 할인율을 전면에 고지해 집중도를 높였으며 실내공식초청작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절대티켓 내용을 안내함
- 배포내역 : 대학 관련학과, 연극 동아리, 관내 유관협의체 등 주요 타깃층을 대상으로 약 1300부 우편 발송함. 그 외 예술의전당, 시청, 대학로 등에 비치



공동초청 제안 리플렛



조기에매 홍보 리플렛

③ 1차 사전 리플렛

- 제작목적 : 가장 메인이 되는 사전 홍보물로, 공연을 비롯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집약해 축제를 알림
- 구성 : 축제 시간표, 공식초청작 및 자유참가작 소개, 시민참여프로그램, 티켓할인 등 축제 관련 주요 내용
- 배포내역
 - 관내비치 : 의정부예술의전당, 시청, 신세계의정부점, 관내 대학교, 음식점, 회룡역 등
 - 관외비치 : 수도권 주요공연장 38개(서울연극협회 용역), 서울·경기권 음악대학 등
 - 우편발송 : 경기북부지역 음악학원, 음악선생님 등 음악관련 단체 및 동호회, 한국프로듀서협회, 평론가 등 관계자 및 주요 타깃층 대상으로 우편발송 (약 2,800부)
 - 기 타 : 서울예술의전당 공연 종료 후 배포(400부), 찾아가는 공연·홍보부스 운영·광화문홍보 등 사전홍보 시 배포



리플렛 비치 사진



1차 사전 리플렛 시안

④ 2차 가이드 리플렛

- 제작목적 : 축제기간 동안 축제를 찾는 관람객에 무료 배포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으며 야외공연 등 전체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축제 관람을 돕는 데 힘씀
- 구성
 - 앞·뒷표지 날개형 구성으로 앞날개에는 전체 공연일정표를 넣고 뒷날개에는 찾아오시는 길, 축제장안내와 추천관광코스를 넣음으로써 직관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에 주력함
 - 영문가이드, 의정부시 관광 안내를 마련하여 외국인 관람객을 배려하고 의정부시 홍보에 기여
- 배포내역
 - 의정부예술의전당 주요 거치대 및 종합안내소, 심야식당 부스 등에 비치했으며 효율적인 수량 관리를 위해 주중, 주말 배포 수량을 나누어 전략적으로 소진함



가이드 리플렛 접지 방식

5) 프로그램북

- 매년 공연 전반을 간략하게 다룬 종합 프로그램북을 제작했으나, 올해는 종합 프로그램북 대신 개별 작품 프로그램북 2종을 제작함
- 종합 프로그램북은 전체적인 컨셉 및 포맷에 통일성을 위해 작품의 개괄적인 작품소개 위주로 콘텐츠가 수록되었으며 심도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프로그램북을 구매하는 관람객의 특성상 작품에 관한 풍부한 콘텐츠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개별 프로그램북을 제작함. 기존 종합 프로그램북 역할은 2차 가이드 리플렛이 대체함

- 국내 관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해외작 중에서도 수요가 많고 콘텐츠 양이 풍부한 <말러매니아>, <사랑의 역사>를 선정했으며, 사양 및 컨셉에 통일성을 부여함
- 공연사업팀에서 콘텐츠 구성 및 원고수급을 담당했으며, 홍보마케팅팀은 디자이너 및 인쇄소 커뮤니티 케이션, 제작일정 관리를 진행함

① 말러매니아

- 사양 : 72P, 무선제본, 예폭시
- 시놉시스, 작품소개를 비롯한 기본 정보부터 연출가 인터뷰 및 외부 원고, 무대 스케치, 말러 작품연보 및 해설 등 작품과 연관된 풍부한 콘텐츠를 모음
- 외부 원고는 총 3개로 작품 프리뷰(최은규 음악칼럼리스트), 말러와 알마의 생애(류태형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말러의 음악(최우정 TIMF양상블 예술감독) 글이 실려 작품에 관한 심도있는 텍스트를 제공함
- 활용내역 : 유료판매 (5,000원) 및 VIP 증정



<말러매니아> 프로그램북 시안

② 사랑의 역사

- 사양 : 40P, 무선제본, 예폭시
- 구성 : 공연소개 및 단체 소개 등
 - 원작소설가인 레지 조프레의 작품을 번역한 경험이 있는 백선희 번역가의 프리뷰 기고를 수록했으며, 공연 대본을 삽입해 작품 이해를 도움
- 활용내역 : 유료판매 (3,000원), VIP 및 테아트르 시네마 워크샵 참가자 증정, CJ 문화창조센터 제공



<사랑의 역사> 프로그램북 시안

6) 기타 인쇄물

① 연하장

- 축제 관계자들에게 새해인사를 전하고 2015년 축제 일정을 안내함
- 배포대상 : 공연예술관계자, 기자, 교수, 해외문화원, 공연단체 등 300여명

② 절대티켓 및 좌석교환권

- 티켓 운영 관련 실물권을 제작해 운영 효율을 도모함

③ 스티커

- 메인비주얼을 활용한 시각 스티커로 의정부우체국의 협조로 의정부 우체국에 접수된 소포에 스티커를 부착해 출고했으며 (2,000개), 기타 사무국 내 물품 부착, DM발송 부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

④ 초청장

- 개막작 <말러매니아> 및 개막식 정보를 실었으며, 뒷표지에 시간표를 명기함
- 배포대상 : 축제 집행위원, 자문위원, 시관계자, 공연예술관계자 등 500여명



연하장 시안



초청장 시안



절대티켓 시안 (앞, 뒤)



좌석교환권 시안 (말러매니아, 사랑의 역사)

3. 옥외홍보

1) 포스터

구분	시기	종류	수량	비고
게릴라 배포 (용역)	4/7	말러매니아	400	금오동, 호원동, 신곡동, 민락동
		파리넬리	400	
		사랑의 역사	400	
	4/24	메인포스터	1,600	금오동, 호원동 중앙로 주변, 녹양역 주변
		메인포스터	800	금오동, 호원동 중앙로 주변, 녹양역 주변
	5/2	말러매니아	400	
		파리넬리	400	
주민센터 15개	4월 2주	메인 및 작품포스터	50	의정부에 거주하는 이끄미 활용
시 지정벽보판	4/1~4/30	메인 및 작품포스터	320	(주)문화가족 운영
대학로 문화게시판	3/16~4/12	메인포스터	20	서울연극협회 운영 20개소 중 9개소 게시
	4/13~5/10	메인포스터, 사랑의 역사	40	
게릴라 배포	3/28	메인포스터	100	관내 주요 집객지, 직원 및 이끄미 배포
모범업소(음식점)	4월~5월	메인포스터	120	의정부예당 운영 게시대
마을버스	4월2주	메인포스터	200	의정부마을버스 지부 소속 버스 내부에 부착
서울·경기 음대게시판 (용역)	4월 말	말러매니아	200	하모니기획 배포
각종 사전행사 및 행사장 비치	-	메인 및 작품포스터	1,000	발대식, 찾아가는 공연 등 행사 및 축제기간 소진

- 이외에도 DM 발송 시 동봉, 아파트 게시판 게시, 이끄미를 통한 배부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

2) 현수막

① 홍보 현수막

분류	구분	계첩기간	규격(m)	수량	비고
전당 전용 계첩대	축제 메인시안	3/28 ~ 축제종료	1.6×1.8	20	전당예산 집행
	말러매니아	4/18 ~ 축제종료		10	-
	파리넬리			11	-
전당 외벽	축제 메인시안	3/23 ~ 축제종료	5×10	1	전당예산 집행
	말러/파리넬리	4/3 ~ 축제종료		1	
	공식초청작	4/22 ~ 축제종료		1	
	아외공연			1	
	기획프로그램	4/24 ~ 축제종료	1		
베르디 위	축제 타이틀	4/30 ~ 축제 종료	9×1.5	1	-
의정부시 지정계시대	축제 메인시안	3월 (계첩대별 상이)	5.7×0.7	12	(주)문화가족운영
		4월 (계첩대별 상이)		10	
시청 행정계시대	축제 메인시안	4/30 ~ 축제 종료	5.7×0.7	14	시청 건축과 광고물팀 협조공문
게릴라 현수막	축제 메인시안	5/4 ~ 축제종료	5×0.9	14	관내 주요 집객지 (애드플러스)
	파리넬리				
전당 MOU 체결 아파트	축제 메인시안	4/10 ~ 축제종료	5.2×0.9	6	MOU 체결기관 문구 삽입
JCI 미술협회	축제 메인시안	3/30 ~ 축제종료	4.6×0.8	1	-
경민대	축제 메인시안	4/1 ~ 축제종료	5×0.9	1	진입로 계첩
신한대	축제 메인시안	4/6 ~ 축제종료	7×0.9	2	정문, 호림관계첩
합계				107	

• **전당 전용 계첩대**

-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계첩대로 총 20개 운영
- 3월 말부터 축제 메인시안을 20개 계첩대에 모두 게시 했으며, 매체 수량의 한계로 개별작품은 개·폐막작만 게시함



효자증 계첩대



신촌 건널목 계첩대

• **외벽 현수막**

- 기존 개별 초청작품 위주의 현수막이 아닌 축제 전체 프로그램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함



메인시안



개·폐막작



실내초청작



아외초청작



기획프로그램



베르디 현수막 게시 모습



외벽 현수막 게시 모습

• 현수막 게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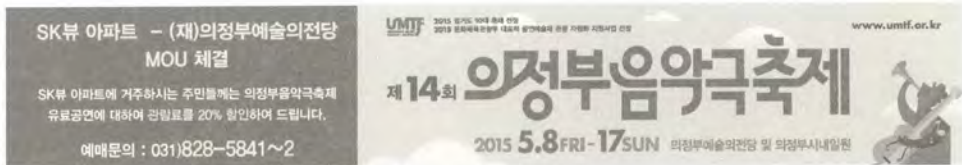
- 시 지정게시대는 의정부시의 위탁을 받은 (주)문화가족(www.paperm.co.kr)에서 운영하며 매월 1일~5일 추첨을 통해 유료 이용 가능
- 시 행정게시대는 시와 관련된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 게시대로 총 14개 게시대가 운영중임. 시청 도로과 광고물팀에 협조공문 처리를 통해 무료로 게시



시 지정 게시대 게시 모습

• MOU 아파트

- 의정부예술의전당과 MOU를 맺고있는 4개 아파트에 현수막 게시했으며, 현수막 제작 시 MOU 체결 관련 고정홍보문구를 삽입함



아파트 단지 현수막 시안



아파트단지 현수막 게시 사진

• 게릴라 현수막

- 행사 직전 축제 분위기 조성 및 티켓 판매 촉진을 위해 관내 주요 집객지에 게릴라 현수막을 게시함
- 게시위치 : 경찰서로타리, 동부역 앞, 안골 로타리, 태평로 로타리, 한전 로타리, 호원2동 사무소 앞, 흥선 로타리 등



태평로 로타리



동부역 앞

• 기타

- 축제 관련 협찬 · 협력처인 경민대, 신한대, JCI미술협회의 협조 하에 현수막을 게시함



JCI 미술협회 게첨대



경민대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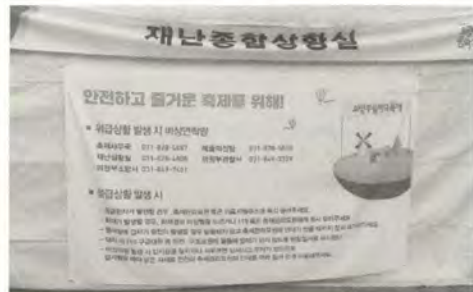
② 행사장 부스 현수막

구분	규격(m)	수량
상단부착	6×0.4	16
	5×0.4	4
	3×0.4	18
측면부착	3×1.8	1
합계		39

- 축제 야외공간 운영과 관련한 현수막으로 사방타공으로 마감처리함. 가로 사이즈를 실제 부스가로 사이즈와 너무 맞 게 제작해 고정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있었음. 추후 제작시 부스 가로규격을 고려해 보다 짧게 제작해야 할 것임



부스 현수막 기본 시안 (상단)



부스 현수막 부착 사진



주제막 활용 사진

③ 주제막

- 사전 행사 및 부대행사 진행과 관련한 현수막 제작

구분	규격(m)	수량	비고
이끄미발대식	11×0.9	1	의정부예당 국제회의장
협력예술가 위촉식	3.4×0.4	1	의정부예당 귀빈실 벽면 부착
〈사랑의 역사〉 워크샵	3.3×0.7	1	의정부예당 영상감상실 벽면 부착
음악극어워드 시상식	3.4×0.4	1	의정부예당 귀빈실 벽면 부착
광화문 행사	5×1.8	3	대기실 앞 부착 (행사내용 고지)
	6×0.4	2	부스 상단 부착용
	3×1.8	1	측면부착 (세월호 조의 표시)
기자간담회	3.5×0.7	1	테이블 부착
	5×0.7	1	백월용
합계		12	

3) 육교 현판

게시기간	규격	수량	설치장소	제작 · 시공
3/15~ 5/17	12m×1m	1	상록근린공원(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육교	돼지공사

- 의정부시청 건축과 광고물팀에 게시 협조공문 처리 후 게시함



현판 설치사진 (앞, 뒤)

4) 대중교통

분류	진행 일정	규격	수량	비고
경기버스	4/6 ~ 축제 종료	120×50cm	70대	버스외부 현수막 부착 평안운수 (1, 2, 3, 11번) 명진여객 (21, 25, 25-1번)
마을버스	4/15~축제 종료	360×510mm	100대	마을버스 내부 포스터 부착

① 경기버스

- KD운송그룹의 협조 하에 명진여객, 평안운수 소속 경기버스를 대상으로 교통광고를 진행함. 경기도 노선버스 외부에 홍보 현수막을 부착했으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현수막 제작비+인건비)에 효과적인 타겟 광고를 진행함관련 고정홍보문구를 삽입함

② 의정부 마을버스

- 의정부 마을버스 지부의 협조로 마을버스 100여대 내부에 축제 포스터를 부착함



버스 광고



가로등 배너 설치 사진

신세계 의정부 앞

5) 배너

① 가로등 배너

설치장소	진행 일정	규격(cm)	수량	위치	비고
의정부시내	4.18 ~	60×180	150조	서부역~시청~ 예술의전당~흥선광장, 행복로	돼지공사
의정부예당 내부	축제종료	70×250	8조		
신세계의정부점	4.25 ~	55×200	4조	의정부역-신세계 백화점 광장앞	신세계 거래 업체
합계			16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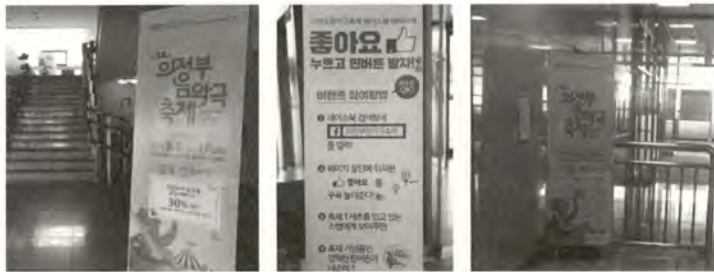
- 가로등배너의 매체 특성상 자세하고 세부적인 정보전달보다는 직관적인 메시지 전달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축제타이틀과 캐릭터, 핑크컬러 중심의 가로등 배너를 제작해 주목성을 높임
- 음악극축제를 상징하는 핑크색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의정부 시내 일대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음

② X배너

구분	설치장소	진행기간	수량	비고
축제 메인 배너	의정부시청	3.15~	2	
	퓨전문화관광 홍보관	4.1~	1	-
	의정부역사 내	3.20~	2	개찰구 부근
	농협5개소		5	
	경기북부여성회관	4.20~	1	전당 예산 집행
	도봉산		1	
삶을 연주하다 참가자 모집	전당 내부	4.10~	2	전당 교육사업 수강생 대상
찾아가는 공연용	찾아가는 공연시	각 행사 당일	4	광화문광장, 성모병원 등
야외공간 사이트 표시	전당 야외공간		6	-
이벤트	전당 야외공간	5.8 ~	2	코드네임핑크, 폐북이벤트
합계			26	



X배너 시안



배너 설치 사진



판넬 시안 (일부)

6) 판넬전시

- 내용 : 축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시 형태로 제공해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축제를 홍보함
- 제작개요

판넬규격(cm)	구조물수	판넬수	판넬디자인	제작·설치업체
120×80	12	36	김은총	플레이몽

- 4면으로 이뤄진 구조물 3개를 1세트로 하여 총 3세트를 제작했으며 축제 상징 및 주제, 축제 프로그램 소개, 자주 묻는 질문 등 축제를 소개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

- 전시일정

위치	진행기간	비고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로비	3.20 ~ 축제종료	-
의정부시청 2F 공보실 앞	3.20 ~ 4.20	철거 후 의정부예술의전당 로비 비치
회룡역 역사 안	4.3 ~ 4.30	설치공간 확보로 직사각형 설치

- 이외에도 여성단체협의회, 경기도청사 등 다양한 공간에 설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설치 및 해체 인력 부족으로 3곳에서만 진행함



시청 설치 사진



소극장 로비 설치사진



회룡역 설치 사진



7) 기타

구분	진행기간	규격(m)	수량	내용	비고
공기막조형물	3/31~5/17	1.8	1	미스터엠 캐릭터 모양으로 특수제작 (라이트기능 有)	대진애드 이벤트
라이트 별론	5/1~5/17	2.7	1	전당 전시장 건물 위	
차량랩핑	4/24~5/17	2.8×1.6	2	축제메인 / 대극장작품	한길애드
아외 종합안내판	5/7~5/17	3.57×2.05	1	장소별 주요프로그램 안내 (라이트기능 有)	
소극장 로비 포토월	4/23~5/17	3.57×2.05	1	축제 메인시안 및 라인업	
소극장 앞 아외 포토월	4/20~5/17		1	축제 메인시안 및 라인업	디지털 랑데뷰
합계			7		

• 공기막 조형물

- 축제 상징성 강화 및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작했으며 축제 전에는 소극장로비, 축제기간중에는 아외에 설치함. 또한 광화문 사전홍보, 이끄미플레이스 행사 진행 시에도 설치했는데, 많은 시민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냄. 미스터엠 동작을 따라하는 등 포토존으로서 역할 수행

• 라이트 별론

- 달빛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며 춤을 췄다는 미스터엠 스토리텔링에 착안하여 달을 형상화한 라이트별론을 제작해 전시장 건물 위에 설치함. 야간 프로그램이 확대된 만큼 야간에도 축제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음



라이트 별론



공기막 조형물



아외 종합안내판

4. 온라인홍보

1) 홈페이지

① 운영목적

- 축제 정보를 집약한 공간으로서 축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함

② 운영방향

- 모바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통신환경을 고려하여 모바일 페이지를 구축하여 모바일 접속자의 이용 편이를 높이고자 함
- 홈페이지 메인에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노출시키고 유튜브와 연결시켜 UMTF.TV 게시판을 신설하는 등 SNS 매체와의 연동 활성화

③ 제작 및 관리

- 제작업체 : 엔투스루션
- 추진일정

일정	내용
1월4주	제작업체 계약, 제작업체와 1차 컨셉 회의
2월2주	홈페이지 기획방향 전달 및 메인시안 작업
2월4주	메인 페이지 시안 확정, 서브페이지 시안 작업
3월1주	세부 원고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코딩 작업
3월2주	국문 홈페이지 1차 오픈 (3월 16일)
3월4주	국문 홈페이지 오류 수정 국문 홈페이지 2차 오픈용 원고 수급 및 전달
4월1주	국문 홈페이지 2차 오픈 (4월 6일) 모바일 홈페이지 기획방향 전달 및 메인, 서브페이지 시안작업
4월2주	모바일 홈페이지 세부 원고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코딩 작업 영문 홈페이지 원고 전달 및 홈페이지 코딩 작업
4월4주	모바일 홈페이지 오픈 (4월 22일) 영문 홈페이지 오픈 (4월 24일)
이후	프로그램 내용 수정 및 보완, 지속적인 축제뉴스 및 언론보도 자료 업데이트

④ 홈페이지 구성

- 국문 홈페이지 (http://www.umtf.or.kr)
- 메뉴구성 : 총 6개 대메뉴, 31개 소메뉴



국문홈페이지 세부 카테고리



홈페이지 화면

- 영문 홈페이지 (<http://2015eng.umtf.or.k>)

- 메뉴구성 : 총 4개 대메뉴, 10개 소메뉴



- 모바일 홈페이지 (<http://m.umtf.or.kr>)

- 메뉴구성 : 총 6개 대메뉴, 31개 소메뉴





모바일 페이지 시안

④ 홈페이지 접속통계 (2015년 6월 30일 기준)

- 2015년 총 방문자수 : 15,372명 / 월 평균 : 2,560명
- 2015년 총 페이지뷰 : 109,893회 / 월 평균 : 18,315.5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방문자수 (명)	1,009	2,011	3,282	2,977	3,441	2,652
페이지뷰 (회)	13,854	16,898	18,440	16,715	26,096	17,890

* 모바일 페이지 방문자 수는 시스템상의 문제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

2) 온라인 예매사이트

-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와 인터파크 티켓(ticket, interpark.com)을 통해 축제 유료공연 예매가 이루어졌으며, <말러매니아> 작품에 한해 클럽발코니(www.clubbalcony.com)에도 티켓예매가 진행됨
- 내용 및 디자인 면에서 완성도 높은 웹전단을 제작해 공연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
- 추진일정

일정	내용
12월~1월	각 공연단에 공식초청작 공연 정보 요청 및 수령
2월 2주	공연 정보 수령 및 웹 홍보물 원고 작성
2월 3주	웹전단 시안 디자인 작업
3월 1주	인터파크 및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 티켓 오픈
이후	일부 공연 정보 수정 및 할인 내역 수정 업데이트, 프로모션 진행

①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 국내 최대 규모의 티켓 예매사이트로 많은 회원 수와 방문자를 보유하고 있음
- 굿모닝티켓, 타깃 메일링, 하루티켓, 팝업 노출 등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신규 관객 저변을 넓히는데 도움을 줌



클럽발코니 내 <말러매니아> 메인배너 노출



인터파크 메인 팝업

②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 (www.uac.or.kr)

-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 예매 및 정보 확인 가능
-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예매 시 예매 수수료가 면제되며 회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등 티켓 구매를 독려함
- 스팟영상이 제작된 3월부터 홈페이지 메인에 스팟영상을 노출했으며 조기예매 할인 팝업, 체험 프로그램 모집 팝업 등의 홍보를 진행함
- 홈페이지 메인에 축제와 각 개별공연의 배너가 롤링되며 예매 페이지로 이동을 용이하게 함



〈말러매니아〉, 〈I ON THE SKY〉, 〈사랑의 역사〉 예매처 게시용 웹전단

3) 뉴스레터 및 축제통신

① 목적

- 축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메일링서비스 구독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축제 정보를 알림
- 유료 프로그램 및 사전참가 프로그램 홍보 톨로 활용
- 축제 준비 과정과 진행 상황을 기록함으로써 아카이브 역할 수행

② 전략

- 축제 사전 홍보 및 참여도 증진에 목적을 둔 콘텐츠 구성
- 개별공연 소개 및 할인안내를 통해 유료공연 예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
- 블로그, 유튜브,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콘텐츠 확장으로 보다 심도 있는 정보 전달

③ 운영 및 일정

- 발송 횟수 : 뉴스레터 8회, 축제통신 3회, 총 11회 발송
- 발송 대상
 - 뉴스레터 메일링 대상자(뉴스레터 구독신청자), 기존 이끄미, 자체DB : 3,172명
 - 의정부예술의전당 회원 등 메일링 대상자 약 31,572명
- 발송 일정 및 내용
 - 뉴스레터 : 3월은 격주, 4월은 매주 목요일 발송
 - 축제통신 : 이를 단위로 비슷한 공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격일 발행

구분	일정	내용
뉴스레터 9호	3월 5일	티켓오픈, 축제 메인포스터 공개, 사전이끄미 오리엔테이션 개최, 음악극어워드 공모
뉴스레터 10호	3월 20일	홈페이지 오픈 안내, 총감독 인사말, 야외공연 8개 작품 소개, 이끄미 모집, 기대평 이벤트(사랑의 역사 초대_PLAY DB 연계)
뉴스레터 11호	4월 2일	스팟영상 공개, 집행위원장 인사말, 착한티켓 전문가워크샵, 기대평 이벤트(말러매니아 초대)
뉴스레터 12호	4월 9일	1차리플렛 안내, '말러매니아' 소개, '살을 연주하다' 참가자 모집, '음악극어워드' 시민평가단 모집
뉴스레터 13호	4월 16일	찾아가는 공연 현장스케치, '파리넬리' 소개, 협력예술가 소개, 시네마M 소개
뉴스레터 14호	4월 23일	트레일러 공개, '사랑의 역사' 소개, 이끄미 발대식 현장스케치, 코드네임핑크 소개
뉴스레터 15호	4월 30일	1호선 칸타빌레 영상 공개, '도자두' 소개, 이끄미 플래시몹 현장스케치, 주제체험관 소개

뉴스레터 16호	5월 7일	2차리플렛 안내, 개·폐막식 소개, '노베첸토' 소개, '심야식당' 소개, 추후 축제 주요일정 안내
축제통신 1호	5월 10일	개막식 스케치, '말러매니아' 프리렉처&관객과의 대화 스케치, 음악극어워드 스케치, 추후 축제 주요일정 안내
축제통신 2호	5월 13일	주제체험관 스케치, '사랑의 역사' 관객과의 대화 스케치, 음악극살롱 스케치, 추후 축제 주요일정 안내
축제통신 3호	5월 16일	폐막콘서트 소개, 스쿨워크 소개, 포토스케치, 추후 축제 주요일정 안내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TICKET OPEN

일반석 50% / VIP석 30%

01 의정부 음악극축제 개막식
UMTF

축제 B1 메인 포스터를 공개합니다!

02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원 기관은
'자원활동가 사회'인
'모라엔터테인먼트' 개최

03 의정부음악극축제 최우수 작품상을 시상하는
음악극어워드 공모

공연다 축제를 즐길 뎀은 일인도 하네!
Theater Market 전시 판매 중!

뉴스레터 9호

01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식

02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식
사민이 만든 개막공연부터
환상적인 공중퍼포먼스까지

02 개막식 (말러매니아)
프리렉처(Pre-lecture)
& 관객과의 대화

03 의정부음악극축제 관공예이팅 프로그램
음악극어워드

축제통신 1호

4) SNS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① 운영목적

- 문화예술공연에 관심 있는 마니아층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젊은 층 전반에 축제 인지도 향상 도모
- 축제에 찾아온 관객들에게 축제와 연관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
- 입소문 마케팅의 수단이자 즉각적인 피드백 수단으로서 역할

② 운영방향

- 축제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 외에도 문화예술 연관 콘텐츠를 제공하여 유입률 상승을 도모함
- 전체적인 디자인 및 분위기는 메인 포스터 디자인을 활용해 통일감을 줌
- 공연 등 축제 프로그램에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는 수요층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강조한 블로그 신설
- 미디어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축제에 대한 다방면의 정보 전달
- 파급력이 가장 크며 광고비용이 저렴한 페이스북에 한해 광고를 집행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 노출량을 늘림

구분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컨셉	친근한 이미지 (여성적 어휘 사용)	열려있는 문의 창구 (중성적 어휘 사용)	전문성을 강조한 매거진형
제공정보	이미지 중심의 정보 전달 테마형 기획물 연재	단순 정보 공지	축제프로그램 관련 텍스트 중심 세부 정보 제공
운영전략	각종 이벤트 운영 및 페이스북 광고 집행	RT 기능을 이용한 운영	뉴스레터, 페이스북과 연계한 운영
대상	2-30대 청년층	2-30대 청년층	공연예술 마니아
URL	www.facebook.com/UIMTF	twitter.com/UMTFEST	blog.naver.com/UMTFEST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③ 성과

구분		2014년	2015년(1/2~6/30)
페이스북	게시글수	-	130
	좋아요	502	2,412
트위터	트윗	716	834
	팔로잉	1,301	1,330
	팔로워	977	1,004
블로그	게시글수	-	69
	방문자수	-	2,885
	페이지뷰	-	3,995

- 페이스북 좋아요 : 전년 대비 380% 증가

5) 유튜브

① 운영목적

-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 영상을 유포하고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함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유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축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② 운영방향

- 홈페이지에 유튜브 업로드 영상을 바로 감상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임
- 축제기간 공연 영상을 편집해 올림으로써 추후 아카이브로서의 기능 염두

③ 성과

구분	2014년	2015년 (1.2~6.30)	증가율
게시한 영상	2	20	900%
동영상 조회수	205	3,270	1,495%

6) 외국인 대상 홍보

-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K-Performance 서포터즈들을 초청하고 축제 관람후기를 SNS에 올려 외국인들에게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구분	내용	참여국가	참여인원	후기작성
5/9 (토)	축제 방문 및 체험 <말러매니아>, <빛 날다> 공연 관람	20개국	53명	45건
5/12(화)~13(수)	<사랑의 역사> 공연 관람	14개국	41명	32건
합계	-	20개국	94명	77건



K-performance 서포터즈



SNS 후기 화면

7) 기타 온라인 홍보

분류	구분	주소	진행기간	비고
로고 노출	안산거리극축제 홈페이지	www.ansanfest.com	-	3대축제 연합홍보
	수원연극축제 홈페이지	www.suwontheatre.or.kr	-	
배너 노출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www.ui4u.net	3월, 5월	일주일단위
	의정부시 페이스북	www.facebook.com/ hopecity	4/7~	메인헤더
	의정부시 블로그	blog.naver.com/hope_city	4/7~	
	고클래식	www.goclassic.co.kr	3/7~5/7	말러매니아 배너광고(유료)
뉴스 레터	클럽발코니 (발코니 프렌즈)	www.clubbalcony.com/ home/ library/ friends_list.aspx	4/23, 4/30 2회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일일소식	www.mcst.go.kr/web/ s_etc/ mail/mailService.jsp	5/13 발송	축제 및 도자두(공연)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러한 후원프로그램



이러한 후원프로그램



이러한 후원프로그램



5. 오프라인 홍보

① 운영전략

- 축제 기간 전, 의정부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공간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찾아가는 공연과 연계하여 축제를 홍보함
- 지역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천상병 예술제, 가족문화대축제 행사 시 공연 특별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축제 홍보뿐 아니라 티켓구매 촉진으로 이어지게 함

② 추진내용

구분	위치	일자	홍보내용	비고
홍보 부스 설치	성모병원 1층 로비	4/21	홍보물 및 판촉물 배포	찾아가는 공연
	의정부예당 전시장 앞	4/25	홍보물 및 판촉물 배포, <I on the sky> 특별할인 진행	천상병 예술제
	행복로 음수대 앞	5/2	홍보물 및 판촉물 배포	캐노피 설치
	의정부예당 소극장 앞	5/5	홍보물 및 판촉물 배포, <노베첸토> 특별할인 진행	가족문화대축제

- 배부 판촉물은 풍선, 부채로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으며 가족단위 관객 유입에 도움을 줌
- 특별할인 진행 시, 홍보물에 할인내용을 고지해 라벨 스티커를 부착했으며, POP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



가족문화 대축제 홍보부스



행복로 홍보부스

6. 기념품 및 판촉물

① 제작개요

- 축제를 방문한 관객들에게 축제참여를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념품 및 판촉물이 제작되었음
- 모든 기념품 및 판촉물은 축제의 아이덴티티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며, 축제캐릭터(미스터엠)와 축제 메인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디자인함
- 티셔츠, 에코백, 무릎담요, 버튼거울, 볼펜은 유료로 판매되었으며 풍선, 긴자루부채, 핀버튼은 판촉물로서 무료배부됨

② 제작내역

구분	품명	사양	규격	수량	판매가
기념품	티셔츠 (분홍, 검정)	칼라나염인쇄/ 20수	아동용, 90~110	1,000	7,000원
	크로스백	2도 인쇄	27×35cm	200	7,000원
	무릎담요	완제품 위 1도 인쇄	75×100cm	200	7,000원
	버튼거울 (4종)	전사	7×7cm	400	1,000원
	볼펜 (분홍, 하늘)	전사	1×14cm	1,000	500원
판촉물	풍선	1도 인쇄/ 막대 포함	-	4,000	-
	긴자루부채	전사/ 막대 포함	19cm	5,000	-
	핀버튼	전사	38mm	2,000	-
기타	링편치 손잡이 비닐백	1도 인쇄	30×40cm	500	-

③ 활용내역

품명	내용
티셔츠	검정색상 : 스태프용 / 분홍색상 : 자원활동가용 외 판매
풍선	오프라인 사전 홍보시 사용, 어린이들에게 좋은 반응
긴자루 부채	오프라인 사전 홍보시 사용, 성인들로부터 좋은 반응
캐릭터 핀버튼	설문조사, 음악극 주제체험관 미션완료, 축제 페이스북 구독시 무료 증정
링편치 손잡이 비닐백	기념품 판매 및 증정시 물품을 담아 제공
그 외 기념품	VIP 증정 및 판매



티셔츠



에코백



무릎담요



버튼거울



볼펜



풍선



긴자루 부채



핀버튼



링핀치 손잡이 비닐백

7. 영상홍보물

1) 제작내역

구분	러닝타임	완성시점	활용처	비고
스팟	40'	3월 4주	온라인 배포, 의정부역 매체광고 등	
	20'	4월 1주	남부터미널 매체광고	-
트레일러	5:05'	4월 2주	온라인 배포, 기자간담회 등 각종 행사	
1호선 칸타빌레	2:47'	4월3주	페이스북을 중심으로한 온라인 홍보	1회 촬영
이끄미 플래시몹	2:12'	5월 1주		1회 촬영
결과보고 영상	10:00'	7월 3주	결과보고회의 및 아카이브 자료	2회 촬영

- 제작목적 : 영상 및 이미지에 익숙한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홍보물을 제공하여 축제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 컨셉 : 2015년 메인비주얼 디자인 소스를 활용하여 통일된 컨셉 유지

2) 세부사항

① 스팟영상 (40' / 20')

- 축제의 기본 정보 및 주제,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는 30초 영상으로 축제와 공연 프로그램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함
- 전반적으로 역동적이고 축제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와 더불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축제적 이미지 전달



② 작품 트레일러 영상 (5:05')

- 30초 스팟영상의 긴 버전으로 개별 작품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함
- 공연 실황 영상을 통해 공연의 현장감을 전달하고 간략하게 작품을 설명한 자막을 추가하여 개별 공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함
- 매체 홍보 이외에도 기자간담회, 이끄미 발대식, 기타 전당 행사에서 영상을 상영하여 축제 작품을 소개하는 역할을 함



③ 1호선 칸타빌레 (2:47')

- 축제 사전 홍보 영상으로 의정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 의정부와의 연계성 고려
- 일상적인 역의 모습을 담은 화면 전개 후 공연영상, 시민반응, 공연 후 흠어지는 시민 등으로 화면 연출
- 영상편집을 위한 더빙용 연주음원을 녹음했으나, 현장 연주와의 싱크로가 맞지 않아 현장음원을 사용함



④ 이끄미 플래시몹 (2:15')

- 관내 주요 집객지인 의정부역 광장, 행복로에서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를 교차 편집함



⑤ 결과보고 영상

- 2015년 의정부음악축제에 행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영상

8. 매체광고

1) 지면광고

매체명	구분	소재	비고	비용
월간객석	2015-3월호	말러매니아		
	2015-4월호	말러매니아	전면1P 광고	
	2015-5월호	축제 라인업		
프리뷰	2015-3월호	말러매니아, 축제라인업	2P 우수광고	유료
	2015-4월호	말러매니아, 사랑의 역사	1P 분할	
더뮤지컬	2015-4월호	축제라인업	전면1P 광고	
클럽발코니	2015-4월호	말러매니아, 축제라인업	2P 우수광고	
e장애인신문	2015. 4. 4	메인 포스터	3면 게재	시청 협조
일간경기	2015. 4. 9	메인 이미지 가로배너형	1면 하단 게재	
아주경제	2015. 5. 8	메인 포스터	11면 게재	
지역정보화	2015-3·4월호	메인 포스터	전면 1P	무료
시사뉴스매거진	2015-5월호	메인 포스터		
행복소식	2015-5월호	축제 사진 및 정보	표지 및 스프레드 2P	
다담	2015-5월호	축제정보(한·중·영)	지역축제면 반절	
TIMF 프로그램북	-	말러매니아	전면1P	무료 (상호교환)
안산거리극축제 리플렛	-	메인 포스터	경기3대축제	
수원연극축제 리플렛	-	메인 포스터		

- 공연예술 관계자 및 마니아층이 주로 구독하는 공연예술전문지에 유료광고를 집행해 광고 효율을 높임
- 특히 클래식 관객들의 열독률이 높은 공연예술전문지에 <말러매니아> 광고를 단독으로 진행해 세밀한 타겟팅이 가능하도록 함. 광고와 더불어 각 매체에 보도를 독려해 매체별 전문가 기고 및 프리뷰 게재로 연계함
- 의정부시청 공보과의 협조로 3건의 지면광고를 집행함

- 의정부시 시정소식지인 <행복소식>,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발행하는 <지역정보화지> 등에 무료로 광고가 진행되었으며,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15,000부 배포되는 북촌가이드북 <다담>에 3개 국어로 축제 정보를 게재함
- 통영국제음악제 홍보대사인 TIMF양상블이 <말러매니아> 연주에 참여한 것을 연계해 통영국제음악제 프로그램북에 <말러매니아> 전면 광고를 게재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수원연극축제 홍보물에 각각 홍보이미지를 교환해 보다 지역적 홍보영역을 확장함



라인업 소개 광고시안

말러매니아 광고시안



행복소식 5월호 (특집면)



다담 5월호 (축제면)

2) 영상광고

① 의정부예술의전당 DID

- 의정부예술의전당 내 · 외부에 설치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모니터에 40초 스팟영상 송출
- 집행기간 : 2015. 4. 1 ~ 축제종료 시점

② 의정부역 맞이방 LED 전광판

- 의정부역 맞이방에 설치된 가로 4m, 세로 2m 규격의 LED전광판에 축제 홍보영상 (40s)을 송출함
- 집행내역

기간	광고내용	재생시간	설치대수	비고
4/16 ~ 5/15	축제 스팟영상	40초	1대	무료 (의정부예당 협력)



광고매체 위치



광고영상 송출모습

③ 서울 남부터미널 매체

- 서울 남부터미널의 휴게공간에서 송출되는 LED패널 디지털 매체에 축제 홍보스팟(20s)을 송출함
- 집행내역

기간	광고내용	재생시간	설치대수	비고
4/8 ~ 5/17	축제 스팟영상	20초 (5분당 1회)	3대	티켓바터 (좌석교환권)

3) 모바일광고 (더 콜통)

- 통화 전,후 광고를 보여주고 광고에 노출된 사용자에게 소정의 포인트를 보상하는 '더 콜통' 어플리케이션에 모바일 광고를 집행함
- 통화 종료 후 랜딩 팝업이 노출, 팝업은 축제 이행시이벤트, 14회 음악극축제 스팟영상 보기 두 가지로 구성되며 클릭시 각각 페이지로 즉시 연결
- 추진내역

광고시기	광고방식	비고
4/16 ~ 4/17	CPC(cost per click)	의정부 시청 예산 집행
4/18	CPM(cost per mille)	



더 콜통 어플리케이션



이벤트 진행 팝업

4) 기타

① 의정부시 세금고지서

- 의정부 시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타겟 광고로 의정부 시청 협조로 2회 진행됨

구분	홍보내용	집행시기	배포인원(명)	비고
자동차세	축제명, 기간, 장소, 프로그램, 문의처	12월 초	65,000	뒷면 게재
환경개선부담금	축제명,기간, 장소, 문의처, 캐릭터	3월 초	38,060	앞면 게재



자동차 고지서 (뒷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② 컵홀더

-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광고효과가 가능하며 음악극축제 상징 컬러를 활용함으로써 축제 정체성 확립
- 제작내역

출고일	사양	컬러	수량
2. 27	10/13oz	PANTONE 225C	10,000
3. 24	백색컵홀더 1도인쇄	PANTONE 206C	10,000
합계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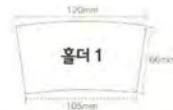
• 배포내역

- 의정부예술의전당 직영카페인 카페아르츠에 2.27부터 축제종료 시점까지 사용
- 관내 카페 비치 : 의정부시청 내 아롬드리카페, 신곡노인복지관 내 카페, 카페공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내 카페, 푸레주르 의정부시청점 등



제작 실사

10/13oz 컵홀더 / 10~13온스용
 재질 : 백색 홀더
 컬러 : PANTONE 225 C
 수량 : 1만개



시안

9. 평가 및 발전과제

1) 언론홍보

• 성과

- 축제 라인업이 확정된 12월 말 라인업 공개 보도자료로 시작으로 예년에 비해 빠른 언론홍보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6월 30일 기준 339건의 보도가 집계됨
- TV 방송 및 라디오 부분에서 풍부한 보도를 이끌어냈으며, 단순 뉴스 보도 외 개막작 중계, 축제 현장 스케치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이끌어냄
- 의정부시청 공보과의 협력으로 시 주재기자 간담회를 진행해 지방지 보도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둠
- 3회의 기자간담회 외에도 경향신문, 매일경제, KBS 문화부기자와 오찬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직접 찾아가 대면함으로써 전에 비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음
- 클럽발코니, 객석 등 공연예술전문지에 심층적인 보도를 유도했으며, 네이버캐스트 등 새로운 매체의 확장을 시도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음악극축제의 특성상 다양한 언론관계(문화부, 사회부(주재기자), 관광매체)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미흡했음. 언론사를 보다 세분화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크게 문화, 사회, 관광으로 큰 갈래를 나누어 성격에 맞는 보도자료 배포 및 아이템 제안을 한다면 보다 다채로운 언론보도로 이어질 것임
- 축제 자체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백화점식 보도가 대부분이었음. 보다 흥미로운 보도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이슈창출 및 매체별·기자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 방송 보도의 경우 영상소스 확보 및 퀄리티 미흡으로 인해 방영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원활한 방송보도를 위해 촬영 및 기록 부분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 또한 방송기자들을 위한 방송소스 DVD를 별도로 만들어 배포한다면, 방송보도 부분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성격이 같은 매체는 타깃도 비슷하므로 가급적 반복되는 내용의 기사를 피하고, 각기 다른 구성으로 기사가 보도되도록 유도하고 가능한 기자별 차별화된 보도자료를 제공해야 함
- 다양한 업무가 집중되는 3,4월에 작품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것 보다 축제 기획단계에서 미리 원고를 작성해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음

- 축제 개최 직전에만 기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닌 1년 내내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고 호의적 언론관계를 유지해야 함

2) 인쇄물 홍보

▪ 성과

- BI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각 인쇄물에 적용·관리함으로써 홍보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축제 브랜딩에 기여함
- 완성도 높은 메인비주얼 제작으로 관계자 및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미스터엠을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축제 정체성을 이어나감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개별작품 포스터 수량관리 부분에서 미흡했음. 사전 배포량이 많아 정작 축제 기간 중 <말러메니아>, <사랑의 역사> 포스터 수량 확보가 어려웠음. 인쇄물 제작 및 배포와 관련된 거시적인 안목의 계획 수립이 필요함
- 홍보물 제작 일정이 가장 많은 4월에 작업일정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작업량이 몰리는 시기일수록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합리화 해 산발적인 의견과 번복을 최소화하고 디자인 단계부터 완성도 있는 원고를 구상하고 제작단계에 착수한다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가능할 것임
- DM발송 및 단체 방문시 공연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이 없어 공격적인 홍보를 진행하지 못했음. 아울러 프로그램북을 제작하지 않았던 5개 개별 공연 홍보물에 관한 문의가 많았음. 실내 공연 마케팅에 보다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홍보물이 제작된다면 DM발송을 비롯해 각 대학 비치 등 효율적인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리라 판단됨

3) 옥외홍보

- 성과

- 지역 사회와의 연계로 200만원선의 적은 예산으로 경기버스 70대, 마을버스 100대 규모의 효율적인 버스 광고를 추진할 수 있었으며 (서울 간선버스외부광고 : 6대 기준 약 500만원), 의정부 신세계점 · 신한대 · 경민대 등의 협조로 홍보물을 게시함
- 야외 행사가 강화됨에 따라 야외용 종합 안내판, 야외장소 사이트 안내 배너등을 새롭게 제작해 야외 공간을 이용하는 관객들에게 축제 정보를 친절하게 알림
- 새롭게 시도된 미스터엠 공기막 조형물, 라이트별문, 판넬 전시 등 축제 상징물에 기반한 홍보물을 제작해 축제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함. 특히 미스터엠 공기막 조형물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미스터엠 동작을 따라하는 등 자연스럽게 축제 상징물에 대해 인지시키는 계기를 제공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버스 광고에 부착된 현수막을 비롯해 많은 홍보물 제작 시 디자인 요소를 살리려다 보니 가독성 및 가시성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음. 향후 홍보물 제작에 있어 메인 시안을 활용하는 것이 통일성 추구 및 전체 브랜딩을 위해 필요하지만, 옥외현수막의 매체 특성상 간단하고 가시성 높은 구성으로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음 (흰배경, 핑크색 폰트, 큰 글자)
- 다양한 공간에서 판넬전시를 진행해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하고자 했으나, 설치 및 해체에 따른 사무국 내 인력 부족으로 유동적인 운영이 불가능했음. 이에 대한 전당의 업무 협조 및 인력보강이 필요함

4) 온라인홍보

- 성과

- 변화되는 통신이용환경에 맞춰 모바일페이지를 새로 제작했으며 웹페이지 역시 텍스트 기반으로 제작하고 폰트사이즈를 키우는 등 가능한 한 웹표준을 준수함
-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노출시키고 세부메뉴로 유튜브 페이지 'UMTF, TV' 를 신설하는 등 SNS를 적극적으로 연계시켜 상생효과 도모
- SNS 성격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로 팔목할만한 온라인 홍보실적을 거둠. 블로그를 새로 오픈해 축제 프로그램과 관련해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했으며 트위터로 공연프로그램 30분 전에 알림 공지를 띄워 정보제공형에 주목적을 둠. 또한 적기의 페이스북 업로드와 기획형 포스트 작성, 의정부시, 응답하라 의정부 등 지역내 유명한 페이스북 페이지와 연계 홍보를 진행함 (페이스북 좋아요 수치 2,412로 전년대비 380% 상승)

-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축제 자체 DB를 통해 주기적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했으며, 날짜가 밀리는 것 없이 축제에 적극적인 정보수요층에 꾸준한 정보를 전달함
- 축제기간 중 이끄미 기자단을 활용해 축제 소식을 알리는 포스트를 작성했으며, 사진촬영, 실황 영상 편집 등 적절한 인력활용으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홈페이지 관련 야외공연 및 기획프로그램 확정이 늦어지고 변동이 잦아 운영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업무과정을 반복해야 했으며 홈페이지 개편이 2차례 이뤄져 업무소요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 페이지, 영문페이지 제작과 시기가 중첩됨, 변동이 잦거나 확정이 늦는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홈페이지에 누락시키거나 다른 방식으로 정보제공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임
-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대두됨에 따라 매체 운영 및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특히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관련해서는 적은 예산일지라도 광고를 지속적으로 집행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올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던 플래시몹 영상제작, 스토리텔링 게시물, 이벤트 등의 보완 및 발전이 요구됨

5) 오프라인홍보

• **성과**

- 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진행되었던 공연특별할인 이벤트는 실제 티켓 판매로 이어졌으며 축제와 더불어 개별 공연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었음
- 풍선, 부채 등의 판촉물에 대한 호응이 좋았으며 천상병예술제, 가족문화대축제와 연계해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애초에 더 많은 횟수의 오프라인 홍보를 계획했으나, 차량준비 및 부스 설치 인력의 문제로 홍보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적극적인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홍보부스 설치물을 구입하거나 타 팀과의 업무 협조가 필요함

6) 기념품 및 판촉물

• 성과

- 예코백, 무릎담요 등 기존에 없었던 기념품은 상품군의 다양성을 높였으며 특히 VIP 선물에 좋은 반응을 얻음. 볼펜, 버튼거울과 같이 저렴하지만 아기자기한 상품은 관람객 대상 판매에서 좋은 반응을 얻음
- 무료로 배부된 풍선, 부채 판촉물은 축제 이전뿐 아니라 축제 기간에도 적극 활용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예코백, 무릎담요, 티셔츠 판매가인 7,000원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기에는 다소 높은 가격이었다는 것으로 여겨짐. 수익성보다는 축제를 기념할 수 있는 상품을 대중화시킨다는 관점에서 판매가를 낮출 필요가 있음
- 기념품 판매 부스 부스를 늘릴수록 많은 인력 운영이 필요해 판매부스를 늘리기보다는 종합안내소에서 기념품판매를 알리는 POP를 제작하여 시민들에 눈에 띄게 꾸며보는 것도 좋을 듯함

7) 영상홍보물

• 성과

- 기획운영팀 프로그램과 연계해 홍보영상을 제작한 1호선 칸타빌레, 이끄미 플래시몹은 조회수, 주목도 면에서 큰 성과를 남겼으며, 의정부시의 10대~20대에게 음악극축제를 알릴 수 있었음
- 프로젝트 날다 영상팀(드론, 와이어캠 촬영), 시청 공보과 영상팀의 협조로 영상소스를 다량 확보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기획운영팀과 연계된 프로그램의 경우, 현장 실무자와 홍보 담당자의 이원화로 영상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 향후 보다 명확한 디렉션과 콘티, 돌발상황 예측 및 대비 등 보다 꼼꼼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지역 내 호응도 높은 커뮤니티와 연계해 영상을 배포한다면 높은 조회수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것임
- 좋은 영상 소스의 확보는 방송보도를 비롯해 장기적 관점에서 필수적임. 따라서 영상촬영 예산이 현 수준에서 증액되어야 할 것임

여 백

CHAPTER

V.

마케팅

- 
- 
- 01 | 티켓 및 집객
 - 02 | 마케팅
 - 03 | 프로모션
 - 04 | 후원 및 협찬
 - 05 | 평가 및 발전과제

1. 티켓 및 집객

1) 티켓 정책

① 가격 정책

- 축제기간동안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관람에 대한 가격 장벽을 낮춤

공연장	공연명	티켓가격				공연 횟수	관람연령
		R석	S석	A석	B석		
대극장	말러매니아	60,000원	50,000원	30,000원	20,000원	2	만7세이상
	파리넬리	60,000원	50,000원	30,000원	20,000원	2	만13세이상
	사랑의 역사	전석 30,000원				3	만18세이상
소극장	I on the sky	전석 20,000원				3	만7세이상
	하얀 눈썹 호랑이	전석 16,000원				2	48개월이상
	노베첸토	전석 20,000원				2	만7세이상
	도자두	전석 20,000원				2	만7세이상

② 할인 정책

- 기본 할인

할인명	할인율	대상	예매방법	비고
조기예매	50%	· 음악극축제 전 작품 구매자 · 1차:3/4~3/14까지 50%할인 · 2차:3/15~3/24까지 30%할인	전 예매처	-
학생할인 (문화패스)	30%	· 초·중·고등학생 할인 (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대학생할인	전 예매처	(하얀눈썹 호랑이제외) 본인만 해당
의정부예술의전당 유료회원	30%	· VIP, GOLD, MEMBER 회원	전 예매처	1인4매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무료회원	10%	·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예매 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인터넷 예매	1인4매
TIKI	10%	· 인터파크 유료회원	인터파크 예매	1인2매
NH 카드 NH BC 카드	20%	· 농협카드와 농협BC 카드 결제 시	전 예매처	-
KB카드	20%	· KB국민카드 결제 시	전 예매처	-

단체 할인	40% ~50%	· 20명이상 : 40% · 30명이상 : 50%	전화 · 사전 방문예매	-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30%	· 클럽발코니 유료회원 (말러매니아 한정)	인터파크 및 클럽발코니 예매	1인4매
다자녀카드	30%	· 다자녀카드 소지자	의정부예술의전당 인터넷예매	
문화누리카드	50%	· 한도내에서 결제가능	의정부예술의전당 인터넷예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0%	· 장애인 1~3급 (본인 및 동반1인) · 장애인 4~6급 (본인만 해당)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동반1인)	전 예매처	증빙서류 지참

• 내부 할인

할인명	할인율	대상	예매방법	비고
협력업체	30%	· 신세계백화점, 한국마사회, 농협, KB국민카드, 경민대, 신한대, 성베드로병원, 구성건축 회원 및 직원	전화, 사전방문 예매	-
직원할인	50%	·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축제사무국 직원		-
이꼬미할인	50%	· 축제 자원봉사자		1인4매
예술인할인	50%	· 축제참가예술인, 예술단체 및 예술인		본인만

③ 이색티켓 정책

• 절대티켓

품목	가격	내용	예매방법
절대티켓	10만원	· 축제 유료 7 작품 관람이 가능한 패키지 티켓 · 대극장 공연 R석 적용 · 공연 프로그램북 제공(말러매니아, 사랑의역사) · 협찬 도서 <구스타프 말러> (선착순) · 2015년 5월 7일까지 구매가능	전화 · 사전 방문예매

• 착한티켓

품목	해당 작품	내용	예매방법
착한티켓	말러매니아 사랑의 역사 I on the sky 도자두 (해외작 4작품)	· 의정부음악극축제와 연관이 있는 중고악기 및 불우이웃의 문화향수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기증하고 티켓 구매 · 4/1~4/20, 선착순 접수 · 수거된 중고물품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	전화 · 사전 방문예매

④ 인터파크 프로모션 할인

할인명	해당 작품	할인율	비고
하루티켓	사랑의 역사 도자두	40%	· 인터파크에 당일 공연 당일 예매 시 파격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서비스 · 5/12(화) 진행 · 좌석등급 당 각 20매(2회차 총 80석)
굿모닝 티켓	말러매니아(R석) 사랑의 역사	전석 50%	· 매일 오전 10시에 공연 할인 혜택 제공 · 5/9(토)~10(일) 진행
타깃 메일링	파리넬리 노베첸토	30%	· 6개 작품 특별 할인쿠폰 단독 메일 발송 · 최근2년 뮤지컬/연극/클래식/무용장르를 관람한 의정부시/양주시/남양주시/포천시 + 서울 강북지역 20~40대 100,000여명 · 3/31(월) 진행
	I on the sky 말러매니아 사랑의 역사 도자두	20%	



⑤ 예매

- 전화예매 및 일반예매 : 의정부예술의전당 홍보마케팅부 (수수료 없음)
- 단체 및 예술인할인, 프로모션, RSVP : 축제사무국 홍보마케팅팀
- 인터넷 예매
 -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 www.uac.or.kr(수수료 없음)
 - 인터파크 www.interpark.com (1544-1555)

2) 관객집객

① 축제 유·무료 관객 수

- 총 관객 수 : 98,225명 (유료 5,048명* / 무료 93,177명)
* 유료 5,048명 = 극장공연4,210명 + 전문가 워크샵23명 + 뮤직터널M 815명
- 유료점유율 56%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함

대분류	소분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극장공연	배정좌석 수	12,141	12,551	10,331	7,560
	관객점유객석 수	9,768	9,948	7,306	5,864
	유료관객 수	5,255	5,301	4,404	4,210
	무료관객 수	4,513	4,647	2,902	1,654
	객석점유율	80%	79%	71%	78%
	유료점유율	43%	42%	43%	56%
	전년 대비 유료증감률	-23%	-1%	+1%	+13%
축제전체	전체관객 집객 수	120,792	100,118	32,107	98,225
	전년 대비 증감률	+18%	-17%	-68%	+207%

* 유료점유율 = 유료관객 수 / 배정좌석 수, 객석점유율 = 관객점유객석 수 / 배정좌석 수

② 초청 작품별 유·무료 관객 수

- 작품별 평균 유료 점유율 : 62%
- 작품별 평균 객석 점유율 : 82%

작품명	배정 좌석	유료계	무료계	유료점유율	객석점유율
말러매니아	1,960	913	585	47%	76%
파리벨리	1,960	1,463	373	75%	94%
사랑의 역사	1,656	467	356	28%	50%
I on the sky	648	414	109	64%	81%
하얀 눈썹 호랑이	432	411	48	95%	106%*
노베첸토	432	331	72	77%	93%
도자두	432	211	111	49%	75%

* <하얀 눈썹 호랑이> 공연은 좌석 매진으로 현장에서 입석판매 진행 (선착순 20명)

③ 티켓 유형별 판매 현황

• 할인 유형별

- 할인유형별로는 1차 조기예매 할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명이상 단체할인, 직원할인이 그 뒤를 이었음
- 상위 3개 할인은 모두 50% 대의 할인율로 결과적으로 평균할인율이 높아지게 됨
- 절대티켓, 착한티켓 등 특별티켓도 높은 수요를 보였으나, 티켓 시스템의 운영상 초대 권증으로 찍히게 되어 하단의 표에는 집계되지 않음

할인 및 티켓유형	대극장						소극장	매 수	
	R	S	A	B	전석	계			
조기예매할인(30%)	21	14	5	6	6	52	28	80	(2.2%)
조기예매할인(50%)		114	76	54	31	613	337	950	(26.2%)
초중고학생할인(30%)	20	18	15	69	28	150	53	203	(5.6%)
학생단체할인(50%)	2	20	46	0	10	78	60	138	(3.8%)
장애인(50%)	10	3	5	1	2	21	48	69	(1.9%)
국가유공자(50%)	4	3	6	2	0	15	3	18	(0.5%)
NH카드(20%)	0	6	0	15	13	34	11	45	(1.2%)
KB국민카드(20%)	6	15	2	15	5	43	9	52	(1.4%)
예술의전당VIP회원(30%)	0	0	0	0	0	0	0	0	(0.0%)
직원할인(50%)	77	73	85	39	113	387	260	647	(17.9%)
문화누리(50%)	0	0	7	1	2	10	5	15	(0.4%)
문화사랑나눔(50%)	0	106	0	16	80	202	130	332	(9.2%)
다자녀카드(30%)	0	0	5	5	0	10	4	14	(0.4%)
신일유투빌아파트주민(20%)	0	0	0	3	0	3	0	3	(0.1%)
의정부시공무원(30%)	0	0	0	0	0	0	2	2	(0.1%)
단체30명(50%)	114	59	168	225	96	662	213	875	(24.2%)
단체20명(40%)	0	10	0	0	20	30	60	90	(2.5%)
하루티켓	1	0	0	0	3	4	0	4	(0.1%)
굿모닝 티켓	0	0	0	0	0	0	0	0	(0.0%)
이끄미할인	6	11	10	20	0	47	3	50	(1.4%)
예술인할인	3	3	5	3	11	25	8	33	(0.9%)
합계	599	452	430	474	420	2,386	1,234	3,620	(100%)

• 특별티켓 판매 현황

- 절대티켓 판매 수량 : 총 27매(189좌석) 판매 (전년도 절대티켓 판매수량 : 18매)
- 절대티켓 판매 수입 : 2,684,250원 (전년도 절대티켓 판매수입:1,779,550원)
- 착한티켓 : 신청자 22명, 수거물품 80여개 (도서, 클래식CD, 유모차, 커피포트, 실로폰 등)

2. 마케팅

1) 목표

- 마케팅 대상에게 공연, 주제체험관 관람, 체험 학습 등 다양한 축제프로그램 경험케 하고, 예술교육, 여가활동 등 단체 측의 요청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족시킴
- 다양한 그룹의 단체마케팅을 통해 유료객석 점유율 상승을 유도하고, 축제의 안정적인 수입목표 달성

2) 타겟 설정

① 작품별

공연명	세부 타겟	공동
말러매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권 음악대학(성악) 및 무용학과 · 서울,경기권 독어독문학과 · 서울,경기권 연극영화과 · 서울,경기권 예중,예고 음악,무용,연극과 	
파리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 시내 공연단체 및 동호회 · 서울,경기권 음악대학 및 뮤지컬학과 · 서울,경기권 예중,예고 음악,뮤지컬,연극과 · 관내 뮤지컬,연기학원 	· 예술의전당 전체회원
사랑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권 연극영화과 · 서울,경기권 스페인어과 · 멀티미디어,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학과 · 관내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관련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전당 아카데미 수강생 · 의정부시공무원 · 의정부시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노베첸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권 연극영화과 · 서울,경기권 음악대학(피아노) · 관내 연기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파크, 연극협회 회원 · 경기북부 · 의정부시민(아파트)
I on the s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권 연극영화과 · 의정부시 초,중,고등학교 · 의정부시 예체능관련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종교단체, 악기사, 병원 · 관내 예체능 관련학원
도자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권 불어불문학과 · 서울,경기권 연극영화과 · 의정부 시내 공연단체 및 동호회 	
하얀 눈썹 호랑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hool Week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공연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단체관람 유도 	

② 대상별

- 공연관계자 및 마니아 관객, 관련학과 학생
 - 해당공연의 구매확률이 높은 소비자집단에 효율적으로 접근. <말러매니아>, <사랑의 역사>, <도자두>는 공연예술마니아 및 관계자, 각 초청국의 해당언어권 관련학과 담당교수 및 학생을 타깃으로 함
- 일반 시민 및 가족단위
 - <파리넬리>, <I on the sky>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수 있는 장르의 공연으로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반 시민, 외국인을 대상으로 타깃 설정

3) 전략

① 대학, 대학원

- 의정부 및 인근지역 : 신흥대, 경민대, 대진대 전체학과 조교 및 지도교수
- 서울, 경기지역 : 성신여대, 서울여대, 중앙대, 세종대 등 (총 72곳)
- 방법 : 공문, 이메일, 홍보물 발송 개별

② 초,중,고등학교

- 의정부지역 : 예술중점학교, 공연장 근거리 학교
- 방법 : 공문 및 포스터 전단 발송 / 개별컨택

③ 유치원, 어린이집

- 의정부지역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 방법 : 공문 및 포스터 전단 발송

④ 관내기업

- 의정부지역 기업(중소기업)
- 방법 : 공문 및 제안서 발송 (문화회식 제안)

⑤ 문화예술 아카데미 수강생

- 의정부예술의전당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생, 문화예술대학 수강생(최근3년)
- 방법 : 공문 및 제안서 발송 / 개별 컨택

⑥ 관내 아파트 단지내 홍보

- 의정부시 : 단지 내 게시대 및 우편물홍보 무료사용가능 아파트
- 의정부 예술의전당 MOU체결된 아파트 단지내 게시대 공연소개자료 개첨
- 방법 : 홍보물(포스터,리플렛) 게시 및 배포

⑦ 단체관람

-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관내 기업 및 협의회, 종교단체, 예체능계열 학원 등
- 방법 : 홍보물(포스터,리플렛) 게시 및 배포 / 제안서 발송 / 축제브리핑

⑧ 예매처

- 기구매자 대상 타겟 메일링 : 2월24일 티켓오픈일, 4월초 발송

4) 추진내역

공연명	타겟	추진사항
말러 매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권 관련학과 대학생 (음악대학, 무용학과, 독어독문과, 연극영화과) · 서울, 경기권 예중, 예고 (음악, 무용, 연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지역 음대 게시판 포스터 및 리플렛 비치 · 관련학과 공연자료 및 리플렛 우편발송, 교강사 이메일 발송 · 평론가협회, 음악관련 협회 회원 대상 문자발송 · 서울 연극협회 회원대상 문자발송
파리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 시내 공연단체 및 동호회 · 서울, 경기권 음대 및 뮤지컬학과 · 서울, 경기권 예중, 예고 음악, 뮤지컬, 연극과 · 관내 뮤지컬, 연기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노소 모두 좋아할 수 있는장르의 공연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의정부여고, 의정부고총동창회, 신한대 평생교육원 등 단체 섭외
사랑의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권 관련학과 대학생 (연극영화과, 스페인어과, 멀티미디어,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학과) · 관내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관련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종사자 및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 서울 연극협회 회원대상 문자발송 · 공연 트레일러를 적극활용하여 네이버, 다음 카페 홍보진행 · 관련학과 공연자료 및 리플렛 우편발송, 교강사 이메일 발송
I on the s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권 연극영화과 · 의정부시 초·중·고등학교 · 의정부시 예체능관련 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날 대체제 행사진행시 현장구매자에 한해 50%할인 이벤트 진행 · 가족단위 관람객을 타겟으로 꿈다락 수강생 및 문화예술대학 주부 수강생 대상 문자발송 · 무용과 서커스 장르에 관심이 높은 무용단 및 지역 공연 단체 타겟 마케팅 진행

<p>하얀 눈썹 호랑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hool Week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공연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단체관람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시 교육청을 통한 의정부 소재 어린이 집, 초중고등학교 공문발송 · School Week와 연계하여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한 단체 섭외 진행 · 육아, 여성 관련 네이버, 다음 카페홍보 진행
<p>노베첸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권 관련학과 대학생 (연극영화과, 음악대학, 피아노) · 관내 연기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축제에 참가한 연극 및 음악단체 컨택 ·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노원구 등 인근지역 음악학원 대상 리플렛 및 공연 소개자료 우편발송 · 피아노, 재즈관련 네이버, 다음 카페홍보 진행 · 의정부시 교육청 설명회 시 스쿨워크 오후프로 그램과 연계하여 공연단체관람 제안
<p>도자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경기권 관련학과 대학생 (불어불문학과, 연극영화과) · 의정부 시내 공연단체 및 동호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축제에 참가했던 연극 단체 및 이끄미 대상 문자발송 · 관련학과 공연자료 우편발송, 교강사 이메일 발송 · 서울 연극협회 문자발송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예술의전당 유·무료 회원 · 인터파크 타겟메일링 · 의정부시 아파트 게시판 홍보 ·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체 · 의정부시 공무원 · 의정부시 기업 · 의정부시 초중고대학교 교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예술의전당 유·무료회원 대상 문자 및 뉴스레터 발송 · 의정부시 아파트 게시판 조기예매할인 안내문 부착 ·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체 직원대상 이메일 발송 · 관내 공무원 및 초중고대학교 교직원대상 축제리플렛 및 공연관람제안서 우편발송

5) 추진결과

• 단체티켓 판매 : 총 1,597매

- 한양대 관광학과, 청운대 무용학과, 숙명여대 아동문화컨텐츠학과 등 관련학과 대학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과 평론가협회, 연극협회, 공연예술단체의 공연예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한 마케팅이 주요한 성과를 보임
- 또한 어린이관람객 대상의 <하얀 눈썹 호랑이>는 오전 11시와 오후7시로 시간대를 편성하여 오전공연은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유도하였고, 오후공연의 경우 오전시간대 관람이 어려운 학생 및 워킹맘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였음

공연	단체	구매
말러매니아	TIMF양상블(34매), 경민대학교 교직원(35매), 구성건축사(200매) 말러를위한작은모임(13매), 성베드로병원(24매), 예원예술대학교 뮤지컬학과(25매), 청운대학교(62매), 한양대학교 관광학과(61매)	454매
파리넬리	경민대학교 교직원(33매), 꿈다락 수강생(30매), 성베드로병원(50매)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60매), 애드플러스(10매) 의정부시우체국(20매), 의정부여고, 의정부고 총동창회(54매) 한국 마사회 의정부지점(40매), 추병원(20매)	317매
사랑의 역사	경민대학교 교직원(10매), 국군 26사단(54매), 국군 5군단(23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 (10매), 돼지광고(15매), 성베드로병원(33매) 전문가워크샵 참가자(23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96매), 한길애드(10매)	263매
I on the sky	경민대학교 교직원(20매), 꿈다락 수강생(35매) 숙명여대 아동문화컨텐츠학과 (33매), 의정부시 무용단(30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30매), 한양대학교 관광학과(14매)	162매
하얀 눈썹 호랑이	파주금촌초등학교(69매), 양주백석초등학교(23매), 새시대어린이집(105매), 장애인종합복지관(18매)	215매
노베첸토	경민대학교 교직원(20매), 극단한네(10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30매), 추병원(30매)	90매
도자두	경민대학교 교직원(20매),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13매), 중부대학교 연영과(24명), 추병원(20매), 한림대학교 컨벤션 이벤트경영학과(19매)	96매
합계		1,597매

3. 프로모션

1) 온라인 초대이벤트

- 공연 초대이벤트를 통해 공연 노출을 높이고, 기대감을 조성함

매체	이벤트	기간	초대작품	초대일시	참여인원	초대인원
플레이DB	영상스크랩 & 기대평	3/17~3/31	사랑의 역사	5.12	15	5쌍
	도자두 관련 퀴즈	4/13~4/24	도자두	5.16	94	3쌍
네이버캐스트	기대평	4/17~4/23	말러매니아	5.8	92	5쌍
외환카드 예스컬처	사연작성 및 응모	5/4~5/10	사랑의 역사	5.12	-	5쌍
알라딘 (도서출판 마티)	도서 구매자 중 추첨	4/1~4/18	말러매니아	좌석교환권 증정		4쌍



2) 라디오 프로모션

- 클래식 음악채널 위주로 공연 초대이벤트를 진행함
- 각 프로그램별 5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공연 소개 및 이벤트 멘트를 송출해 광고효과를 도모함

방송사	프로그램	진행기간	초대작품	초대일시	초대인원
KBS 1FM	장일범의 가정음악	4/13~4/17	말러매니아	5/8	5쌍
	세상의 모든 음악	4/20~24			5쌍
SBS	케이윌의 대단한 라디오	4/20~24		5/9	5쌍
CBS	아름다운 당신에게	4/20~24			5쌍

3) 기타

① 삼성카드 코스트코 연계 할인 쿠폰

- 코스트코 의정부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삼성카드에서 제작한 할인 쿠폰으로 지역 내 외식, 영화, 미용 쿠폰 10종과 함께 봉투에 동봉되어 배포됨
- 쿠폰 제시 시 축제공연 30% 할인 및 카페아르츠 아메리카노 무료 제공
- 총 50,000부 제작되었으며 2월말부터 소진시까지 코스트코 의정부점에서 배포됨
- 환수율은 높지 않았으나, 축제 홍보물로 역할을 함



삼성카드 쿠폰 시안

② 국민카드 할인이벤트

- 협찬처인 KB국민은행 홈페이지 내 음악극축제 홍보물 노출
- KB국민카드 '전국 주요 공연 · 지역 축제, 최대 20% 할인' 이라는 내용으로 언론보도 시 언급됨



국민카드 이벤트 페이지

4. 후원 및 협찬

1) 후원

① 후원기관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의정부시,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 문화기관 : 베를린시, 캐나다아트카운슬, 퀘벡아트카운슬, 칠레아트카운슬

② 후원내용

- 문화체육관광부 : 2015 <대표적 공연예술축제 지원 사업>으로 1억원 지원
- 의정부시 : 의정부음악극축제 사업비 및 홍보 지원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공사 후원 로고 사용 및 외국인 홍보 서포터즈 지원
- 경기관광공사 : <경기도 10대 축제>로서 컨설팅 및 홍보 지원

2) 협찬

① 기업협찬

- 협찬금 49,000천원 유치로 전년(40,000천원) 대비 123% 상승
 - 현금협찬 : NH농협은행, 신세계백화점, KB국민카드, 경민대학교, 신한대학교,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점, 성베드로병원
 - 물품협찬 : 도서출판 마티(도서 20권), 이담북스(도서 10권)

② 협찬사 편익

- 공통사항 : 홈페이지 내 배너 노출,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협찬사 직원 할인 제공(30%)

구분	협찬 규모	인쇄물 내 비 노출	뉴스레터	프로그램북 광고면 제공	초대권
현금	100만원 이상		○		○
	300만원 이상	○	○		○
	500만원 이상	○	○	○	○
물품	500만원 미만		○		○
	500만원 이상	○	○	○	○

3) 파트너십

- 유사 축제 단체인 수원연극축제, 안산국제거리극축제와 함께 경기 3대 대표축제로 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5. 평가 및 발전과제

• 성과

-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평년보다 높은 유료객석 점유율과 공연수입을 나타냈으며 특별티켓 또한 작년대비 판매율이 상승함
- 〈하얀 눈썹 호랑이〉 공연의 경우 어린이집 및 학교 단체관람으로 가장 이른 시간에 전석 매진의 성과를 나타냈고, 사석 및 입석판매까지 이루어졌으며 〈파리넬리〉는 객석점유율 95%로 뜨거운 호응을 얻음
- 예년에 이어 안산, 수원축제와 연합 관계를 유지해 공동 홍보효과를 누림
- 전체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후원처를 개발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1차 조기예매 할인율을 50%로 책정해 티켓판매율은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평균할인율이 높아짐
- DM발송 및 단체방문 시 공연홍보에 필요한 홍보물이 없어 공격적인 홍보를 진행하지 못함
- 후원 및 협찬사는 행사가 임박해서 컨택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후원 및 협찬사에 어필할 수 있는 확실한 편익을 제공해야 함

여 백

CHAPTER

VI.

축제운영

- 
- 
- 01 | 축제 공간
 - 02 | 인력 운영
 - 03 | 물품 운영
 - 04 | 안전관리
 - 05 | 평가 및 발전 과제

1. 축제공간

1) 축제 공간 구성



MAP GUIDE ULJEONGBU MUSIC THEATRE FESTIVAL 2015

- ① 대극장
- ② 소극장
- ③ 뮤직터널
- ④ 전시장
- ⑤ 전시장앞
- ⑥ 협력마당
- ⑦ 야외무대
- ⑧ 체험마당
- ⑨ 분수무대
- ⑩ 로드스케치
- ① 종합안내소
- ② 의로지원센터

NO	장소명	프로그램
1	대극장	해외공식초청작 2작품, 국내공식초청작 1작품
2	소극장	해외공식초청작 2작품, 국내공식초청작 2작품
3	뮤직터널	뮤직터널M
4	전시장	주제체험관, Make your M
5	전시장앞	야외공연, 심야식당
6	협력마당	협력프로그램, 의리의고
7	야외무대	야외공연, 시네마M
8	체험마당	플리마켓, 외주체험
9	분수무대	야외공연, 심야식당, 피아노 for M
10	로드스케치	로드스케치M

2) 무대운영

① 대극장 및 소극장

• 운영 개요

- 축제사무국의 공연사업팀 책임 하에 대표소는 예술의전당 홍보마케팅부와 축제사무국 홍보마케팅팀, 하우스 및 분장실은 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의 협조로 운영되었음

• 세부 내용 및 특이 사항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예술의전당의 기존 하우스 운영체제를 이용하였으며, 운영 총괄은 공연기획부에서 담당하였음 · 대· 소극장에 따른 각각의 하우스 매니저와 의정부예술의전당 직원, 안내원, 자원활동가들이 각 위치에 배치되었으며, 관객서비스를 행하였음 · 하우스 오픈시간은 무대감독, 하우스매니저, 공연단체의 협의 하에 확정함 	
분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극장에 개인분장실 4개, 단체분장실 3개, 소극장에 개인분장실 2개, 단체분장실 2개가 갖추어져 있음 · 축제사무국 공연사업팀과 공연단체의 협의 하에 출연진들에게 분배하였음 · 분장실 열쇠는 무대기술부에서 관리하였으며, 식음료는 축제사무국에서 준비하였음 	
대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정부예술의전당 홍보마케팅부와 축제 사무국 홍보마케팅팀에서 운영함 · 공연 시작 1시간 전까지 1층 홍보마케팅부 예매처에서 티켓을 관리하였으며, 이후부터는 대소극장 대표소에서 티켓을 관리하였음 · 사전예약자 발권 및 현장발권은 예술의전당 홍보마케팅부에서, 초대권 관리는 축제사무국 홍보마케팅팀이 담당하여 운영하였음 · 대소극장 대표소는 미발권자가 모두 티켓을 찾아가갈 때까지 운영되었음 	
물품 보관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안내원과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운영되었음 ·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꽃, 음식물, 큰 짐 등을 보관하였음 	
대소극장 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 소극장 로비에서 기획홍보팀의 담당 아래 실내공연 1시간 전후하여 '기념품판매소', '설문조사데스크', '포토월' 등이 운영되었음 	
	기념품 판매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북과 기념품(티셔츠, 에코백, 볼펜 등)이 판매되었으며, 자원활동가 2~3명이 배치되었음
	설문조사 데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연관람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응답자에게 부채와 버튼을 나누어 주며 참여를 독려했음
	포토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공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안내 현수막을 소극장 로비에 게시대에 걸어 놓아 포토월로서 기능하게 하였음

② 야외공연

• 운영 개요

- 야외무대, 전시장앞, 분수무대 3곳을 야외공연을 위한 메인공간으로 운영함
- 공연의 특성과 시간적 맥락에 따라 소극장 로비(3작품 5회)와 전시장 안(2공연 4회)에도 공연을 배치하여 축제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노력을 하였음
- 야외공연 사이트 3곳의 조명, 영상, 악기렌탈은 '비전' 에서, 음향부분은 '현대음향' 에서 맡아 기기 렌탈, 설치 및 축제기간 중 운영을 담당하였음



야외 전경



야외무대 공연모습



전시장앞 공연모습



분수무대 공연모습



소극장로비 공연모습



전시장 안 공연모습

• 야외무대 세부 운영 내용

셋업 및 철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7일(목) 트러스 및 조명 설치 · 5월 8일(금) LED 영상판 및 음향 설치 · 5월 17일(일) 폐막콘서트 직후 철수
무대기술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간 전일 동안 음향, 조명감독이 상주하였음 · 음향과 조명콘솔을 한 곳으로 몰아 무대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함 · 하수에 무대감독과 음향모니터엔지니어가 상주하는 부스를 설치하였고, 출연자들은 주로 하수를 통해 등장하고, 상수로 퇴장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였음
출연자 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무대 뒤에 몽골부스 3개를 설치하여 출연자 대기실로 이용하였으며, 책상, 의자, 거울, 조명, 행거, 얼음물 등 기본 사항만 제공하였음 · 개막식, 폐막식과 같이 출연팀 및 인원이 많은 날은 예술의전당 내부 공간(합창, 무용, 지하1층 연습실)을 이용하여 임시 대기실로 운영하였음
자원봉사자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와 하수에 일정 인원의 자원봉사자를 대기시켜 무대전환(보면대 등 소도구 IN & OUT)과 대기실 관리의 업무를 일임하였음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실물 안내, 미아 안내 등 주요 안내방송을 야외무대의 음향시스템을 이용 · 메인무대인 만큼 사운드볼륨이 커서 타 사이트의 공연 및 리허설 진행을 방해할 수 있음. 이를 피해 스케줄링하는 것이 중요함 · 올해 초 무대 앞 조경잔디를 없애 관객석을 위한 공간을 크게 활용할 수 있었음 · 예년과 달리 관람의자를 대량 배치하여 관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매일 아침저녁으로 관람의자를 깔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음 · 무대의 특성상 주로 음악공연 위주로 프로그래밍 되긴 했지만, 주말 저녁의 경우 1시간 이상의 러닝타임을 가진 마당극류로 프로그래밍을 시도하여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음

• 전시장 앞 세부 운영 내용

셋업 및 철수	· 당일 셋업 및 철수
무대기술팀	· 첫 주말에는 음향 및 조명지원이 필요 없는 공연(《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으로 스케줄링 하였으며, 마지막 주말 양일간 음향팀 위주로 상주하였음 · 전시장앞 음향오퍼부스는 첫 주말에는 대신 개막식 〈삶을 연주하다〉 시민참여자를 위한 악기보관소로 이용하였음 · 5월 16일(토) 19:45에 〈랄랄라쇼〉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조명팀은 해당 공연 타임에만 들어와 무대운영을 함께했음
출연자대기실	· 몽골부스 2개를 설치하여 출연자 대기실로 이용하였으며, 책상, 의자, 거울, 조명, 행거, 얼음물 등 기본 사항만 제공하였음
자원봉사자 업무	· 사이트매니저와 함께 무대 셋업 및 철수작업, 대기실 관리, 관객질서 관리 및 통제 등을 도왔음
특이사항	· 전시장 앞은 분수무대와 달리 관객들이 축제장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대의 3면이 모두 트여있는 특성을 지님 · 이에 장시간 관극해야 하는 내러티브가 있는 공연보다 퍼포먼스 혹은 관객참여의 여백이 많은 작품들 위주로 배치하였음

• 분수무대 세부 운영 내용

셋업 및 철수	· 당일 셋업 및 철수
무대기술팀	· 주말 4일간 음향팀 위주로 상주하였음 · 5월 10일(일) 19:30에 〈블랙클라운〉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조명팀은 해당 공연 타임에만 들어와 무대운영을 함께했음
출연자대기실	· 몽골부스 2개를 설치하여 출연자 대기실로 이용하였으며, 출연팀이 많았던 첫째주 주말에, 캐노피 부스를 이용하여 임시 대기실을 추가로 운영함
자원봉사자 업무	· 사이트매니저와 함께 무대 셋업 및 철수작업, 대기실 관리, 관객질서 관리 및 통제 등을 도왔음
특이사항	· 낮 동안 그늘이 없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모객에 어려움을 겪었음. 예당 건물 바로 앞 그림자가 내려오는 좁은 공간을 관객석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무대 자체가 낮공연과 밤공연 때 조금씩 달라졌음 · 공연진행 중에는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Piano for M〉의 피아노사용과 분수가동을 중지시킴

• 기타 공연장소 세부 운영 내용

소극장로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낮에 축제장을 방문한 관람객을 위해(제랄다와 거인), 소극장 공연을 기다리는 관람객들을 위해(하늘소리 오카리나 앙상블), 소극장로비의 설치미술과 판넬 등 구조물을 이용하는 퍼포먼스(인어) 등의 공연들을 골라 소극장로비에 배치하였음 · 작년 말에 소극장로비에 입점한 카페와 관람객 혹은 손님들을 공유하며 윈윈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음
전시장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장을 이용했던 주제체험관 기획단계에서부터 전시장 안 공연을 염두하며 원형전시관을 기획하였음 · 원형전시관 안에 전시 된 그랜드 피아노를 이용한 클래식 삼중주 공연(트리오 폴림)을 기획하였으며, 의정부예술의전당 상주단체 예술무대산의 한뼘공연을 전시장 안에서 진행하였음

3) 페스티벌 하우스

-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및 물품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페스티벌 하우스를 신설, 축제운영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함
- 페스티벌 하우스는 축제기간 동안 사용되는 모든 대·소물품, 식권, 케이터링 등과 관련한 수량관리를 책임지며, 이끄미 출퇴근 일지관리 및 배치를 관장함
- 페스티벌하우스는 물품류의 관리 뿐만 아니라 각 현장에서의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상황전파 및 지원을 해주는 컨트롤타워의 기능 또한 일임함
- 사무국직원 1인이 페스티벌 하우스의 매니저로서 상근하였으며, 축제기간 전일 가장 빨리 열고 가장 늦게까지 운영되는 공간이었음

2. 인력 운영

1) 자원활동가(이끄미) 모집개요

① 모집분야

구분		역할 설명
기획운영팀	이끄미유랑단	기획프로그램(플래시몹, 이벤트 등) 기획 및 운영, 찾아가는 공연 진행
	프로그램운영	야외 공연 진행, 전시 진행, 기타 체험 행사 진행
	사무국운영	사무실 운영, 물품 관리 및 운영
	별동대	축제기간동안 전체파트 서포트
공연사업팀	통·번역지원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어 통·번역 업무
홍보마케팅팀	홍보일반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기자단	축제 기록 업무 (사진, 영상)

② 진행개요

		사전이끄미	이끄미
모집인원		36명 (공연사업 4 / 기획운영 19 / 홍보마케팅 13)	사전이끄미 포함 161명 (공연사업 12 / 기획운영 108 / 홍보마케팅 40)
모집 일정	접수기간	2015. 1. 28 (수) ~ 2. 16 (월)	2015. 3. 10 (화) ~ 4. 7 (화)
	사전인터뷰	2. 24 (화)	4. 10 (금) ~ 12 (일)
	최종발표	2. 25 (수)	4. 14 (화)
활동기간		3월 ~ 축제기간	축제기간 ※ 사전활동 가능한 일부인원 조기근무 실시
선발방법		· 서류심사 : 사무처 내부 심사 · 면접심사 : 담당업무 수행가능 여부 (통역업무)	
제공사항		식사(식권)제공, 자원활동가 유니폼, ID 카드, 봉사시간 확인서	
발대식 및 교육		2015. 3. 7 (토)	2015. 4. 11 (토)
해단식		2015. 5. 23 (토)	

2) 기획운영팀 자원활동가

① 기본방향

- 기획운영팀은 실내 공연을 제외한 축제의 전체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담당함
- 야외공연 공식초청작, 자유참가작, 음악극어워드, 기획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주제체험관, 설치미술, 찾아가는 공연, 협력업체, 개·폐막식, 페스티벌 하우스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역할

② 분야별 활동내용

사무국 운영	페스티벌 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스티벌 하우스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 · 사무국 운영 및 행정지원 / 축제 인력 및 물품 관리 / 식권관리 / 안내센터 / 이끄미 출·퇴근일지 관리 등
	종합 안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안내소에서 관람객들에게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안내 · 프로그램별 기본 내용 숙지/ 편의시설 안내/ 미아 보호 및 안내방송 요청
프로그램 운영	야외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셋업 및 철수작업 / 공연단체 관리 / 야외무대 관리 / 대기실 관리 / 진행보조 / 관객질서 관리 및 통제 / 야외무대 주변 질서 및 안전 관리 / 차량통제 및 안내 등
	음악극어워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셋업 및 철수 작업 / 공연단체 관리 / 객석 질서 관리 / 진행보조 등
	주제체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 동선 체크 / 도슨트 / 체험프로그램 관리 / 단체 관람객 시간 체크 등
	체험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장 부스, 책상, 의자 설치 및 철수 / 각 담당 행사 안내 / 진행 보조 등
	음악극살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 안내 / 활동 기록(숙기, 사진) / 진행 보조 등
별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기간동안 축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서포트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주어짐
이끄미 유량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분위기를 띄우는 이벤트 팀으로 축제기간동안 축제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관객들을 즐겁게 해주는 임무 · 시민과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소정의 기념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진행함

3) 공연사업팀 자원활동가

① 기본방향

- 공연사업팀은 국내·외공연단의 공연 및 입·출국 등 체류 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함
- 구체적인 역할로는 1개 공연단에 2~3명이 배치되어 안내 및 공연단을 위한 일상통역, 공연과 관련된 기술 통역의 역할 수행

② 의전통역 분야 활동내용

일정속지	· 해외공연단의 전체적 일정을 속지 · 공항입국·출국, 기술 회의, 셋업, 리허설, 공연, 예술감독 접견, 기자회견 등
공항입국 및 수속처리 (출국절차 동일)	· 공연단의 입국 시, 공항에서 맞이하여 예약된 차량으로 숙박시설까지 의전 · 차량 확인/ 영접장소 확인/ 입국시간 확인/ 수속절차 안내 및 확인/ 물품수송협조/ 차량안내/ 사무국 또는 숙소 안내
안내	· 의정부 지역 설명, 교통 및 간단한 관광정보 안내
의전통역	· 초청외국인사 및 공연단 수장 등의 미팅 시 동행, 안내 및 통역
기술통역	· 무대설치 시간과 공연 중, 무대, 조명, 음향 각 파트별로 1인 이상 배치하고, 야외 공연 시 현장보조를 위한 인원 2인 이상 배치
기타 진행 보조	· 공연 준비 기간과 공연 기간 중 분장실 물품 관리 혹은 공연단이 요청한 필요 물품 구매, 의상관리
공연관련	· 공연장 위치 및 공연장의 특성 파악(예: 공연장과 숙소 간 이동방법, 소요시간 등) · 공연진행시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거나, 기술통역자를 보조하여 공연을 진행

③ 기술통역 분야 활동내용

일정확인	· 입·출국일정 및 스태프 미팅시간, 리허설 및 셋업시간, 공연 시간 등 공연진행에 있어 소요 예상되는 모든 시간을 확인함
스태프회의	· 해외공연단 스태프와 축제 측의 기술스태프, 공연장 스태프와 함께 만나는 스태프회의에 참가해 의사소통의 문제가 없도록 원활한 관계를 맺어줌
셋업	· 무대 및 조명/음향이 설치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며, 사전에 무대용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리허설	· 공연단의 요구사항을 즉시 무대감독에게 전달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함
공연진행 및 해체	· 리허설에서 정해진 포지션에 따라 공연진행상 통역을 진행하며, 공연이 끝난 후 장비해체 시 의사전달을 담당함

4) 홍보마케팅팀 자원활동가

① 기본방향

- 축제시작 전부터 축제기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축제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
- 축제 포스터,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배포·비치하는 것 외에도 홍보부스 운영, 직접 거리로 나가 축제를 홍보하는 가두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이고미 기자단을 운영해 축제 기록 및 온라인 홍보를 효과적으로 진행함

② 분야별 활동내용

오프라인 홍보	인쇄물 배포	· 포스터, 전단 등 배포(학교, 주민센터, 음식점 등)
	홍보부스 운영	· 판촉물 및 홍보물 배부, 시민 이벤트 진행
	기념품 판매	· 축제 기간 중 종합안내소 및 공연장 로비에서 축제 기념품 판매 · 매일 업무 종료시 판매량과 수입금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
	종합안내소 운영	· 축제 기간 중 야외 종합안내소 부스에서 축제 정보 안내
온라인홍보	우편발송 작업	· 축제홍보물을 담은 각종 우편 발송 작업 협조
	게시물 작성	· 온라인이벤트, 뉴스레터, 각종 홍보내용 관련 온라인 사이트 홍보
기자단	언론스크랩	· 축제 신문기사,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 및 스크랩
		· 축제기간 내 축제 현장을 스케치한 블로그 포스트 작성 · 각종 행사 및 축제 현장 사진·영상 촬영 및 편집 (재택근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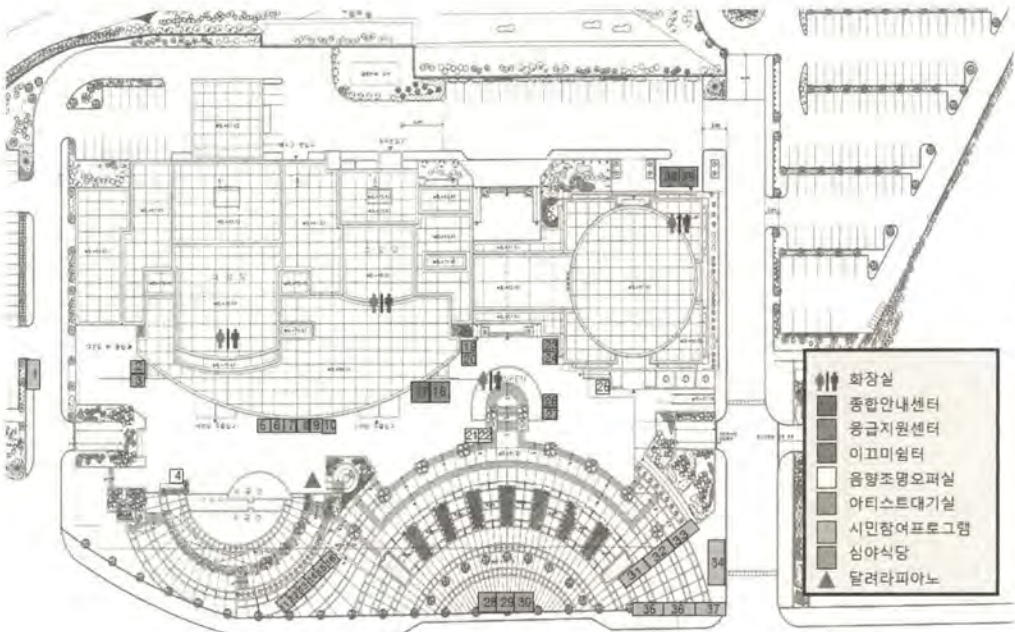
3. 물품 운영

1) 부스 및 물품

① 운영개요

- 올해 한층 확대된 야외행사를 위해 텐트 등 주요 물품을 전문업체로부터 렌탈하여 셋업과 철수 작업을 일임함
- 사전에 렌탈업체 DB를 수집하여 약 3~40여 업체의 1차 견적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격 및 조건을 비교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음 (최종선정 : 금오렌탈)
- 각 팀별 필요물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한 후 이를 취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물품렌탈을 진행함
- 셋업 : 2015. 05. 07(목) / 철수 : 2015.05.19 (월)

② 부스배치



No	5/9(토)~10(일)	5/11(월)~15(금)	5/16(토)/17(일)	비고
1		로드스케치M		3×6캐노피
2		분수무대-아티스트 대기실		3×3몽골
3				3×3몽골
4			분수무대-음향오퍼실	3×3몽골
5		심야식당-츄러스팩토리(롱츄러스, 미니츄러스)		3×3몽골
6		심야식당-다기랑(오짱, 호이또)		3×3몽골
7		심야식당-에페스(케밥, 터키아이스크림)		3×3몽골
8		심야식당-꼬물떡(떡볶이, 꼬치어묵)		3×3몽골
9		심야식당-곱자(핫도그)		3×3몽골
10		심야식당-부자유통(닭강정, 탕수육)		3×3몽골
11	한지공예품 만들기	-		3×3몽골
12	전동비행기 만들기	-		3×3몽골
13	메듭을 이용한 소품만들기	-	플리마켓	3×3몽골
14	아크릴 캐릭터 소품 만들기	-		3×3몽골
15	꽃누르미 압화체험	-		3×3몽골
16	Mr.M 카드지갑 만들기	-		3×3몽골
17		종합안내소		5×5몽골
18	의료지원센터 (의정부 성모병원)		의료지원센터 (성베드로병원)	5×5몽골
19		심야식당-소시지시대(수제소시지, 컵아이스크림)		3×3몽골
20		심야식당-Cafe Arts(캔맥주)		3×3몽골
21		아외무대-조명오퍼실		3×3몽골
22		아외무대-음향오퍼실		3×3몽골
23		전시장앞-아티스트대기실		3×3몽골
24			3×3몽골	
25	삶을 연주하다 악기보관소	전시장앞-음향오퍼실		3×3몽골
26		심야식당-꽃솜사탕, 버터구이 오징어		3×3몽골
27		심야식당-베르디(알감자, 탕수육)		3×3몽골
28				5×5몽골
29		아외무대-아티스트대기실		5×5몽골
30				5×5몽골
31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철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3×6캐노피
32	아름다운가게	철거	삼포스쿨	3×6캐노피
33	초록우산	철거	철거	3×6캐노피
34	니콘카메라	경기미용고	의리의고	3×6캐노피
35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철거	미나미짬뽕	3×6캐노피
36	구문학습	철거	한국방송아카데미	3×6캐노피
37	사랑의 장기기증	철거	타로&사주	3×6캐노피
38				5×5몽골
39		이코미 쉼터		5×5몽골

③ 부스 및 물품 배치 현황

No	장소	부스				테이블		플라스틱의자 (포차용)	접이식의자	막의자	전신거울	행거	인재책 (차단봉)	라바콘	릴선	멀티탭	아이스박스	LED 조명	경광봉	PE 펜스	이동형마이크	무전기
		몽골골 5×5	몽골골 3×3	캐노피 3×6	캐노피 3×3	1.8	1.2															
합계		7	24	10	6	131	40	516	40	80	10	13	10	10	20	30	18	33	20	4	2	15
1	종합안내소	1				4	4	20								1	1					
2	의료지원센터	1				4	4	20														
	이끄미쉼터	2				10	40			2	4					2	2					
3	분수무대		3			5	1	30		2	2					2	3					
4	전시장앞		3			5	1	30		2	2					2	3					
	야외무대 대기실	3				6	30		3	3						3	3					
5	야외무대 오퍼실		2			2	2	8								1	2					
	협력프로그램			6		12	12	60														
7	심야식당		10			27	36									5	10					
8	외주체험		6			24	96															
9	홍보부스				1	2	2	10									1					
10	뮤직터널M					6			50													
11	의리의고			1		4	4	32		1	2						2					
12	로드스케치M			1		2	4															
13	전시장					8						2										
14	페스티벌 하우스			2	5	10	10	100	40	30			8	10	20	30	2	6	20	4	2	15

2) 급식 및 식수

① 급식 운영개요

- 축제기간 동안 <남해>, <전주본가콩나물국밥>, <구태양정육점>, <나들목> 총 4개 식당을 급식장으로 운영함
- 이 외 소량의 도시락 운영 (주말 점심, 저녁 20~30개), 도시락 수요 : 262식(후반부 5일)

날짜	총수량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합계	1,027	14	33	64	127	182	86	32	53	99	40	74	91	132
스텝	658	14	32	53	114	99	33	18	33	84	24	67	11	76
자원봉사자	369		1	11	13	83	53	14	20	15	16	7	80	56

② 식수

- 예산 절감을 위해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흥복산 맑은 물 사업소에서 물 2,500개를 시청의 협조로 협찬 받음



4.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개요

① 행사규모

- 관람예상 인원 : 10일간 총 100,000명 (1일 최고 관람인원 : 약 3만명)
 - 1일 최고 관람시간대 : 18:00 ~ 22:00 (개막식, 폐막콘서트)
- 보험가입 : 가입액 약 3,000천원내

② 축제장소 및 시설물 관리자 임무와 관리조직

- 관리조직 : 총괄 책임자 : 이훈(총감독)

실내 공연장 안전관리		야외 축제장 안전관리 책임자	
총괄	축제사무국 : 소홍삼 부장	총괄	축제사무국 : 김지선 사무국장
	예술의전당 : 손신태 본부장		예술의전당 : 박병수 본부장
책임자	공연장 관람객 안전관리 정명원 (하우스매니저)	책임자	주차 및 행사장 시설물안전관리 송영상 부장 (행정지원부)
	공연장 무대 안전관리 한송헌 부장 (무대기술부)		야외무대 관람객 안전관리 윤석우실장 (경영전략실)
	전시장 안전관리 김호한 부장 (교육전시부)		환경정리 및 민원 관리 송종석 부장 (홍보마케팅)

③ 실내 공연장 안전관리

위치별 임무	책임 관리요원
행사진행 및 상황전파	소홍삼(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장) 정명원(하우스매니저)
무대 및 출연진 질서유지	신용철(대극장 무대감독) 이호준(소극장 무대감독)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박정제(축제사무국 공연사업팀장) 박성호(축제사무국 공연사업팀원)
전시장 안전 및 질서유지	김호한(예술의전당 교육전시부장)

④ 야외 축제장 안전관리

위치별 임무	책임 관리요원
행사진행 및 상황전파	김지선(축제사무국 사무국장)
출연진 안전 및 질서유지	김미정(축제사무국 기획운영팀원) 윤 용(축제사무국 기획운영팀원)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윤석우(예술의전당 경영전략실장) 김정운(축제사무국 기획운영팀원)

⑤ 현장 안전관리 배치 인력

- 안전관리 담당 자원봉사자
- 개 · 폐막식 약 20여명 배치, 평일(야간) 약 4~5명 배치
- 위치별 배치

위치별	인 원	안전관리요원
무대주변(출연자,내빈)	7~8	축제사무국 기획운영팀원 및 사이트매니저
무대주변(관람객)	20~30	예술의전당 공연기획팀원 및 자원활동가
무대주변(주변질서)	10~20	축제사무국 및 예술의전당 직원 및 자원활동가

- 현장 운영 총 인력 (208명)

구 분	연락번호		임무 및 위치
	핸드폰	무전호출부호	
축제사무국 직원	별도관리(9명)		출연진, 내빈 경호
자원활동가	* (160명)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사이트매니저	* (4명)		출연진 및 관람객 안전관리
의정부예술의전당	* (45명)		관람객 안전관리

⑥ 발생 유형별 담당업무

발생 유형별	조치사항	책임자
신고	의정부시청 당직실(828-2222) 의정부경찰서 상황실(828-3329) 의정부소방서 상황실(849-7451)	김지선 사무국장
협약·결정	"	김지선 사무국장
안내	무대방송시설 이용	송종석 부장 / 지영림
대피유도	무대방송시설 이용	이수용 차장 / 지영림
화재진압	안전관리요원 투입 자체 진화 후 의정부소방서(828-4693, 119)	김억태 차장 / 도향훈 차장
응급의료	의정부소방서 구급차 (849-7451) 의정부성모병원 (820-5200) 성베드로병원 (843-3393)	강안희 차장 / 김미정
행사지원 및 관람객통제	의정부시청 (이종호, 828-2152) 의정부경찰서 (849-3329) 의정부소방서 (849-7451)	송영상 부장 / 윤 용

⑦ 비상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 및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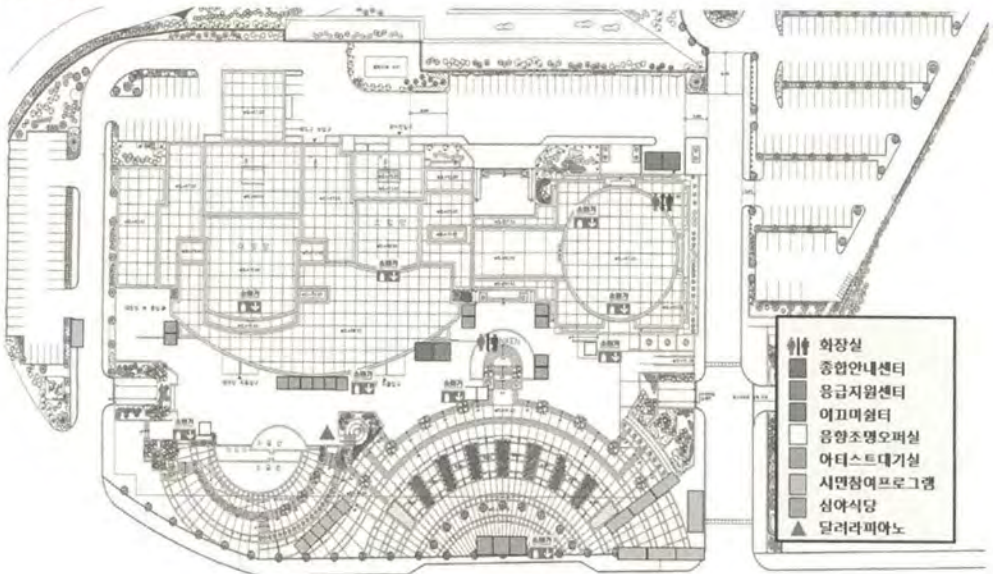
- 종합상황본부
 - 축제사무국 828-5887(김지선 사무국장), 예술의전당 828-5800(송영상부장)
 - 의정부시청 재난상황실 828-4800, 시청 문화체육관광과 828-2152(이종호 주무관)
- 의정부 경찰서 : 상황실(849-3329), 119구조대(849-7451)
 - 경찰서 : 5/9(토)~5/10(일), 5/16(토)~5/17(일) 경비교통과 8명 대기
- 의정부 소방서 : 849-7451
 - 소방서 : 5/9(토) 18:00~21:30 화재진압차량 1대, 대원 2명 대기
 - 나머지 일정 : 상시 대기
- 의료기관
 - 성모병원(820~5200, 노시정), 성베드로병원(843~3393, 이미진)
 - 5/09(토)~5/10(일) 12:00~17:00 성모병원(응급요원 10명) 현장 대기
 - 5/11(월)~5/15(금) 10:00~12:00 성베드로병원 현장 대기
 - 5/16(토)~5/17(일) 11:00~17:00 성베드로병원 현장 대기
 - 이외 시간대의 가벼운 상처는 축제사무국과 홍보마케팅부에서 치료가능
- 보험신고 : 삼성화재보험 (담당자 권순민)

2) 축제장소 및 시설물 여건

① 위치도



② 배치도



③ 메인무대(야외무대) 평면도



- 장소 및 시설물 안전점검 예정시기 : 2015년 5월 6일
- 야외무대설치 완료 후 트러스, 조명, 음향, 소화기, 안전펜스설치 등 안전여부 점검

3) 안전관리 관련 진행일지

일 자	내 용
2015-03-25	〈빛, 날다〉 야외 공연 불꽃행사 현장 점검 및 세부 진행사항 협의
2015-04-03	〈빛, 날다〉 야외 공연 단체 안전관리매뉴얼 수령
2015-04-17	제1회 의정부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 의정부시청재난종합상황실, 14:00 - 참석자 : 행정지원부 송영상 부장, 축제사무국 김지선 사무국장 참석 - 의정부음악극축제 안전관리관련 문화관광체육과 한상규팀장 발표
2015-04-18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이끄미발대식 - 일시 및 장소 : 14:00~16:00 국제회의장 - 이끄미 참석인원 : 80여명 - 교육내용 : 이끄미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2015-04-20	의정부시청 문화관광체육과 〈의정부음악극축제 기간 중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공문 접수 → 일자별 부스운영 계획 제출(4/22) 요청 의정부시청 문화관광체육과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안전관리 책임자 실명 공개〉 공문접수 → 축제현수막 및 전단지등 안전관리 책임자 성명·연락처 등 실명공개 요청

2015-04-23	의정부시청 안전총괄과 <제1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공문접수 → 통보내용 반영하여 계획안 수정
2015-04-28	의정부경찰서, 소방서 방문, 협조공문전달 및 실무자 업무협의 - 경찰서담당자 : 경비교통과 김남희 경장 (849-3257) - 의정부소방서담당자 : 현장대응단 김정호 소방교 (849-7413)
2015-05-01	의정부시청 문화관광체육과 <경기도10대축제 선정관련 2015년 지역축제 안전관리분야평가 계획알림> 공문접수 의정부소방서 <음악극축제 기간 소방력 지원계획> 공문접수 5/9(토)18:00~21:30 화재진압차량 1대 및 대원2명 현장파견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안전관리 운영계획(안) 최종내부결재
2015-05-0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보험가입(W2,963,000) - 대인 1인당 1억원, 대인 사고당 2억원, 대물 사고당 5천만, 시설 구내 치료비 1인당 1백만원, 시설 구내 치료비 사고당 3백만원
2015-05-06	음악극축제 안전관리 운영계획회의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00~11:00 예술의전당귀빈실 - 참석자 : 축제사무국 김지선사무국장, 불꽃담당 김미정 예술의전당 박병수, 손신태 본부장 및 각 부서장 총 10명 참석 현장점검 실시 14:00~15:00 야외무대 및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등 소방시설 및 관람객 안전시설 점검 참석자 : 축제사무국 김지선 사무국장, 김미정, 윤용 예술의전당 박병수 본부장, 송영상 행정지원부장, 한송헌 무대기술부장, 도향훈 차장, 이승원 대리, 정명원 하우스매니저
2015-05-07	경기도현장합동점검 실시 14:00~15:30 - 점검관 : 경기도 재난안전본부기동 안전점검담당 이병호 팀장, 윤영일/이상국 전문위원 총 3인 - 의정부시청: 안전총괄과 이승준 주무관, 문화관광체육과 이종호주무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양석배 - 의정부소방소재난안전과: 소방교임진호, 정현철 - 의정부예술의전당: 행정지원부 송영상부장, 도향훈차장, 이승원대리, 무대기술부한송헌부장, 축제사무국 이훈 총감독, 김지선사무국장, 김미정, 윤용
2015-05-08	의정부시청 안전총괄과 축제 안전관리 실태점검결과 알림 공문수령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수행 ① 대한산업안전협회경기북부 - 이동식 크레인 2대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증명서 발급 ② 누전차단기설치
2015-05-09	야외불꽃공연 대비 의정부소방서 현장지원 18:00~21:30 펌프차량1대, 대원2명
2015-05-17	폐막콘서트 대비 의정부경찰서 현장지원 18:00~21:30 경찰요원 9명

5. 평가 및 발전과제

1) 축제 공간

- 성과

- 야외공연 사이트를 3곳으로 늘리고 야외 체험 및 부대시설을 크게 늘리는 등 축제적인 분위기를 축제기간 내내 지속시킴
- 운영파트에 있어 올해 가장 차별화 되었던 점은 야외 프로그램의 질적 양적 확대와 페스티벌 하우스의 운영이었음. 페스티벌하우스는 축제 때 사용되는 모든 물품 수량관리, 인력 출퇴근 및 배치 등을 책임지기 위해 마련된 축제운영만을 위한 독립적인 공간이었음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전기용량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예년까지의 축제와 달리, 금년 축제에서는 전기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었음. 전기 문제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공간 등을 기획해 나갔어야 했는데, 선례가 없다보니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음. 야외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배선문제가 꼭 선결되어야 할 것임
- 야외공연 장소가 서로 근접해 있다 보니 사운드 통제에 어려움을 겪었음. 각 공연단체의 리허설 및 공연시간 조율이 타이트해 전당 외 외부 공간 확보가 필요함

2) 인력 운영

- 성과

- 각 팀별 사전이끄미의 활약이 돋보였음. 공연사업팀의 경우 올해 처음 시도했던 프로그램북 제작과 관련하여 자료 조사 및 통번역부분에 큰 역할을 했고, 홍보마케팅팀은 수년째 활동해 온 이끄미들이 지역 내 홍보 상당부분을 적극적으로 커버해 줌. 또한 기획운영팀의 경우 올해 대대적으로 시도하였던 사전 이벤트류(1호선 칸타빌레, 이끄미 플래시몹)와 자체제작 체험프로그램 준비에 있어 큰 공헌을 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야외 프로그램이 크게 확대 된 만큼 사무국직원이 해당 업무를 모두 수행해 내기에 큰 무리가 있어 축제기간 중 양 주말을 포함한 6일간 단기 스태프로 사이트 매니저를 고용하여 야외행사가 무사히 진행될 수 있었음. 향후에도 사이트 매니저 채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3) 물품 운영

• 성과

- 금년 야외프로그램이 대폭 늘어나 예술의전당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한계가 있어 전문 물품렌탈 업체를 이용하였음. 기존 진행업체와 다른 업체를 컨택, 현 시세 대비 200~300만원 가량을 절약하여 물품렌탈을 진행함
- 전당내의 물품사용을 최소화하여 물품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였으며, 상황에 맞게 물품을 즉시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끔 여분의 물품을 렌탈하여 돌발적인 상황에도 대처하였음. 축제기간동안 물품적으로 수량이나 품목보족의 문제가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음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물품을 관리 유지하는데 물품의 위치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물품 이동과정에서 분실 물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물품 운영과정에 해당물품 사용자가 물품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함
- 각 사이트의 공연팀 및 테크팀이 사전협의와 다르게 물품을 요구하거나 전기선을 배분하여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함. 돌발적으로 물품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연팀 및 테크팀과의 테크니컬라이더 정리를 문서로 정확하게 체크해야 할 것임

4) 안전관리

• 성과

-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관리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어 행사진행시 안전관리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씀. 경기도, 의정부시, 경찰서, 소방서, 예술의전당 전부서가 총 동원되어 긴밀하게 협조하고 사전 관리되어 큰 사고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 함

• 문제점 및 향후 발전전략

- 개막축하 메인공연이자 실외공연 공식초청작이었던 <빛, 날다> 공연진행에 있어 많은 난항이 있었음. 크레인을 이용한 공중퍼포먼스와 불꽃사용 등 화려한 공연이 관람객들의 기대를 한껏 보았으나, 도로 통제, 전당 앞 조명 암전, 불꽃 사용 등 고려 사항이 많았음
- 전당 내 각 부서들과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여 안전문제 대비에 힘썼으나, 불꽃 잔재 처리 등이 문제가 되어 관람객 중 한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함. 안전거리 확보 등에 있어 좀 더 보수적인 대비가 필요했음

여 백

CHAPTER

VII.

설문조사 분석결과

- 01 / 설문조사 개요
- 02 | 관객의 특성 분석결과
- 02 | 관객의 평가 분석결과
- 03 | 시사점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① 조사 설계

- 축제 기간 동안 설문장소를 실내와 야외로 이원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실내는 의정부예술의전당 대·소극장 로비에서 실내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야외에서는 야외공연을 비롯하여 축제분위기를 즐기고 있는 관람객들을 구분하여 2가지 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함

구분	실내 공연 관람자 설문조사	야외 행사 참가자 설문조사
조사 기간	축제 전 기간 (5월 9일(토) ~ 5월 17일(일))	
조사 장소	대극장 및 소극장 로비	야외무대 주변
설문 대상	19세 이상의 실내공연 관람자	19세 이상의 음악극축제 참가자
설문 표본	총 250부의 설문지 중 19세 미만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2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함	총 324부의 설문지 중 19세 미만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함

② 분석방법

- MS-Excel을 이용하여 1차적으로 자료의 유효성을 검증한 후,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을 실시함

2) 조사내용

① 공통조사항목(17문항)

- 공통조사항목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3문항을 비롯하여 정보원(1문항), 축제참여형태(3문항), 축제 참가동기(5문항), 축제평가(12문항), 만족도(3문항) 등 총 27문항임

구분	문항수	세부내용
인구통계학적 특성	3문항	성별, 연령, 거주지
정보원	1문항	TV라디오, SNS/홈페이지, 버스/지하철광고, 옥외홍보(포스터/현수막/배너), 언론(신문/온라인), 리플렛, 주위사람(구전), 기타
축제 참여형태	3문항	축제참가 횟수, 체류시간, 동반유형.

축제 참가동기	5문항	공연에 대한 관심, 공연예술에 대한 지식습득, 문화예술적 욕구충족, 색다른 경험, 즐거운 여가시간
축제평가	12문항	축제안내정보, 공연의 음악극 정체성, 공연의 예술적 수준, 축제프로그램, 축제진행, 축제공간, 야외공연, 화장실, 어린이/노약자/장애인시설, 휴식공간, 체험프로그램, 접근성/주차시설
만족도	3문항	전반적 만족, 재방문 의도, 추천의도

② 개별조사항목

- '실내 공연 관람자' 는 작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공연예술축제로서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총 22개의 설문지 문항을 별도로 설계하였음

구분	문항수	〈실내 공연 관람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음악극축제 성과	9문항	음악극과 관련한 독특한 공연예술 제공, 수준높은 공연예술 감상기회 제공, 교육프로그램 제공, 공연예술관련 정보를 얻는데 도움,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는데 도움, 최신 공연예술 트렌드 파악, 다른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관심유발, 다른 문화예술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 유발
음악극축제 역할	13문항	의정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 의정부를 문화예술적인 도시이미지로 변화, 의정부의 이미지를 축제분위기로 변화, 의정부의 이미지를 품격있는 현대문화 도시로 변화, 의정부의 이미지를 창조적인 문화의 도시로 변화,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함,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의정부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 국제적인 평판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 시민이 자긍심을 갖게하는 역할,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역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 '야외 행사 참가자' 는 주제체험관 평가, 지출비용 등을 중심으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함

구분	문항수	〈야외 행사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내용
주제체험관 평가	7문항	축제 캐릭터에 대해 알게 됨, 올해의 축제주제를 알게 됨, 의정부 음악극축제의 역사를 알게 됨, 왜 음악극축제가 생겼는지 알게 됨, 음악극이 무엇인지 알게 됨, 주제체험관은 재미있음, 주제체험관은 구성이 잘 됨
지출비용	6문항	교통비, 식음료비, 숙박비, 유희비, 쇼핑비, 기타

2. 관객의 특성 분석결과

1) 공통조사항목

①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실내공연 관람자 '20~30대/ 여성/ 의정부 · 서울'
 야외행사 참가자 '40대/ 여성/ 의정부 · 경기북부'

- 두 집단 모두 여성의 비율(각각 74.9%, 68.3%)이 높은 것은 일치하였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실내 공연 관람자가 의정부 외 서울지역 거주자가 많았으며 20~30대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남
- 야외 행사 참가자는 의정부와 경기북부 거주자가 대부분(84%)을 차지하였으며,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실내 공연 관람자(n_1)		야외 행사 참가자(n_2)	
성별 ($\sum n_1=203, \sum n_2=265$)	남성	51	(25.1%)	84	(31.7%)
	여성	152	(74.9%)	181	(68.3%)
연령 ($\sum n_1=195, \sum n_2=238$)	19세	2	(0.01%)	31	(13.2%)
	20대	64	(32.8%)	53	(22.2%)
	30대	65	(33.3%)	63	(26.5%)
	40대	51	(26.2%)	67	(28.1%)
	50대	13	(0.7%)	16	(6.6%)
	60대 이상	0	-	8	(3.4%)
거주지 ($\sum n_1=167, \sum n_2=178$)	의정부	87	(52.1%)	126	(70.8%)
	서울	44	(26.3%)	5	(2.8%)
	경기북부	20	(12.0%)	41	(23.1%)
	경기남부	12	(7.2%)	4	(2.2%)
	기타	4	(2.3%)	2	(1.1%)

주1) 빈도 및 비율(%)은 무응답 제외,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sum n$: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합

② 응답자의 정보획득 방법

실내공연 관람자 주위사람(구전) > SNS홈페이지 > 옥외홍보 > 버스광고
 야외행사 참가자 주위사람(구전) > 옥외홍보 > SNS홈페이지 > 리플렛

- 두 집단 모두 주위사람(구전)으로부터 음악극축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한 것으로 조사됨
- SNS/홈페이지와 버스광고가 실내공연 관람자에게 더 많이 노출된 반면, 야외 행사 참가자는 옥외홍보와 리플렛에서 더 많이 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남

		실내 공연 관람자(n_1) 야외 행사 참가자(n_2)			
정보원 ($\sum n_1=196, \sum n_2=307$)	TV/라디오	4		14	
	SNS/홈페이지	60	2순위	46	3순위
	버스/지하철 광고	11		26	4순위
	옥외홍보(포스터/ 현수막/배너)	56	3순위	49	2순위
	언론(신문/온라인)	6		15	
	리플렛	14	4순위	15	
	주위사람(구전)	86	1순위	104	1순위
	기타	10	(2.3%)	13	(1.1%)

주1) 빈도는 중복응답 수치임
 주2) $\sum n$: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합

③ 응답자의 축제참가 횟수

실내공연 관람자의 축제 참가횟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남

- 실내 공연 관람자가는 평균 1.80회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방문하였으며, 야외행사 참가자는 1.69회로 참가하여 실내공연 관람자의 참가횟수가 약간 높게 나타남

	실내 공연 관람자(n_1)		야외 행사 참가자(n_2)	
	평균값	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축제참가 횟수 ($\sum n_1=178, \sum n_2=215$)	1.80회	1.397	1.69회	1.127

주1) 평균 :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표준편차 :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표준편차,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④ 응답자의 동반유형

실내공연 관람자가 '혼자' 혹은 '단체관람' 비중이 높은 반면, 야외 행사 참가자는 '가족과 함께' 방문한 유형이 많음

- 야외 행사 참가자는 가족이나 친구/동료/애인을 동반하여 온 유형이 좀 더 높으며, 공연관람자는 혼자 혹은 단체관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실내 공연 관람자(n_1)				야외 행사 참가자(n_2)	
동반유형 ($\sum n_1=199, \sum n_2=228$)	혼자	20	(10.1%)	17	(7.5%)		
	가족과 함께	89	(44.7%)	123	(53.9%)		
	친구/동료/애인과 함께	81	(40.7%)	84	(36.8%)		
	단체관람	9	(4.5%)	4	(1.8%)		
	기타	-		-			

주1) 빈도는 중복응답 수치임

주2) $\sum n$: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합

⑤ 평균 체류시간

실내 공연 관람자 평균 4.09시간, 야외 행사 참가자 평균 3.42시간 체류

- '일평균 체류시간' 은 실내 공연 관람자가 4.09시간으로 야외 행사 참가자보다 더 오래 체류한 것으로 나타남
- 실내공연 관람자는 실내 공연시간 러닝타임이 60분~150분을 고려할 때 공연 외에 축제를 더 오래 즐기다 가는 것으로 보임

	실내공연 관람자(n=168)			야외행사 참가자(n=275)		
	평균 = 3.69시간			평균 = 3.42시간		
일평균 체류 시간	1시간	8	(4.1%)	1시간	41	(14.9%)
	2시간	43	(22.1%)	2시간	50	(18.2%)
	3시간	57	(29.2%)	3시간	71	(25.8%)
	4시간	40	(20.5%)	4시간	47	(17.1%)
	5시간	20	(10.3%)	5시간	29	(10.5%)
	6시간	27	(13.8%)	6시간 이상	37	(13.5%)

3. 관객의 평가 분석결과

1) 공통조사항목

① 축제 방문동기

실내공연 관람자는 색다른 경험을 위해 > 문화예술적 욕구충족을 위해
야외행사 참가자는 즐거운 여가시간을 위해 > 색다른 경험을 위해

- 실내공연 관람자는 음악극축제 방문 동기에 대하여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위해 > 문화예술적 욕구충족을 위해 >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순으로 나타남
- 야외행사 참가자는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위해 > 공연에 관심이 많아서 순으로 나타남

		실내 공연 관람자(n_1)		야외 행사 참가자(n_2)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공연에 관심이 많아서 ($\sum n_1=217, \sum n_2=302$)	그렇다	123 (56.7%)	3.60	210 (69.5%)	3.88	
	보통	76 (35.0%)		73 (24.2%)		
	그렇지 않다	18 (8.3%)		19 (6.3%)		
공연예술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sum n_1=216, \sum n_2=300$)	그렇다	108 (50.0%)	3.50	170 (56.7%)	3.64	
	보통	86 (39.8%)		103 (34.3%)		
	그렇지 않다	22 (10.2%)		27 (9.0%)		
문화예술적 욕구충족을 위해 ($\sum n_1=216, \sum n_2=299$)	그렇다	137 (63.4%)	3.71	201 (67.2%)	3.86	
	보통	65 (30.1%)		84 (28.1%)		
	그렇지 않다	14 (6.5%)		14 (4.7%)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위해 ($\sum n_1=215, \sum n_2=302$)	그렇다	137 (63.7%)	3.72	228 (75.5%)	4.00	
	보통	68 (31.7%)		56 (18.5%)		
	그렇지 않다	10 (4.6%)		18 (6.0%)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sum n_1=217, \sum n_2=305$)	그렇다	134 (61.8%)	3.64	253 (83.0%)	4.20	
	보통	62 (28.6%)		46 (15.1%)		
	그렇지 않다	21 (9.6%)		6 (1.9%)		

주1) 평균 : 5점 척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축제 평가

전반적으로 야외공연과 축제프로그램 구성, 축제 진행에 긍정적 어린이/장애인/노약자, 휴게시설, 주차장 등 시설적 측면 부정적

- 실내공연 관람자는 공연의 예술적 수준이 높았다고 응답한 반면, 야외행사 참가자는 축제 진행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는 평가를 높게 함
- 전체적으로 축제프로그램은 잘 구성되었고, 야외공연과 화장실에 대해 양 집단 모두 높게 평가하였음

		실내 공연 관람자(n_1)		야외 행사 참가자(n_2)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축제 안내정보가 잘 되어 있음 ($\sum n_1=215, \sum n_2=304$)	그렇다	115 (53.5%)	3.53	206 (67.7%)	3.85	
	보통	82 (38.1%)		85 (28.0%)		
	그렇지 않다	18 (8.4%)		13 (4.3%)		
실내공연은 음악극정체성에 적합함 ($\sum n_1=211, \sum n_2=298$)	그렇다	127 (60.2%)	3.67	212 (71.1%)	3.89	
	보통	75 (35.5%)		78 (26.2%)		
	그렇지 않다	9 (4.3%)		8 (2.7%)		
실내공연은 예술적 수준이 높음 ($\sum n_1=211, \sum n_2=294$)	그렇다	145 (68.7%)	3.83	211 (71.9%)	3.93	
	보통	58 (27.5%)		74 (25.3%)		
	그렇지 않다	8 (3.8%)		9 (2.8%)		
축제 프로그램은 잘 구성됨 ($\sum n_1=212, \sum n_2=303$)	그렇다	137 (64.6%)	3.75	224 (73.9%)	3.99	
	보통	67 (31.6%)		67 (22.1%)		
	그렇지 않다	8 (3.8%)		12 (4.0%)		
축제진행은 원활하게 운영됨 ($\sum n_1=212, \sum n_2=301$)	그렇다	131 (61.8%)	3.67	225 (74.8%)	3.99	
	보통	69 (32.5%)		65 (21.6%)		
	그렇지 않다	12 (5.7%)		11 (3.6%)		
축제공간은 청결하고 쾌적함 ($\sum n_1=214, \sum n_2=303$)	그렇다	140 (65.5%)	3.72	216 (71.3%)	3.95	
	보통	57 (26.6%)		74 (24.4%)		
	그렇지 않다	17 (7.9%)		13 (4.3%)		
야외 공연은 재미있음 ($\sum n_1=211, \sum n_2=300$)	그렇다	135 (64.0%)	3.81	233 (77.7%)	4.08	
	보통	68 (32.2%)		51 (17%)		
	그렇지 않다	8 (3.8%)		16 (5.3%)		

화장실은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함 ($\sum n_1 = 214$ $\sum n_2 = 301$)	그렇다	140	(65.4%)	3.73	221	(73.4%)	4.02
	보통	50	(23.4%)		68	(22.6%)	
	그렇지 않다	24	(11.2%)		12	(4.0%)	
어린이/노약자/장애인 시설이 준비됨 ($\sum n_1 = 214$ $\sum n_2 = 299$)	그렇다	98	(45.8%)	3.42	171	(57.2%)	3.70
	보통	90	(42.1%)		109	(36.5%)	
	그렇지 않다	26	(12.1%)		19	(6.3%)	
휴식공간(휴게실/벤치등)이 잘 되어 있음 ($\sum n_1 = 215$ $\sum n_2 = 303$)	그렇다	128	(59.5%)	3.60	185	(61.1%)	3.72
	보통	59	(27.4%)		86	(28.4%)	
	그렇지 않다	28	(13.1%)		32	(10.5%)	
체험프로그램은 재미있음 ($\sum n_1 = 213$ $\sum n_2 = 169$)	그렇다	122	(57.2%)	3.65	99	(58.6%)	3.72
	보통	76	(35.7%)		57	(33.7%)	
	그렇지 않다	15	(7.1%)		13	(7.7%)	
접근성과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함 ($\sum n_1 = 215$ $\sum n_2 = 285$)	그렇다	115	(53.5%)	3.52	163	(57.2%)	3.78
	보통	65	(30.2%)		102	(35.8%)	
	그렇지 않다	35	(16.3%)		20	(7.0%)	

주1) 평균 : 5점척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만족도

실내공연 참가자 재방문의도 > 추천의도 > 전반적 만족도
 야외행사 참가자 추천의도 > 재방문의도 > 전반적 만족도

-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을 때, 전체 3개 문항 모두 4점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줌
- 실내공연 관람자는 재방문의도가 높은 반면, 야외행사 참가자는 추천의도가 높게 나타남

		실내 공연 관람자(n_1)		야외 행사 참가자(n_2)		평균
		빈도	평균	빈도	평균	
축제 전반적 만족도 ($\sum n_1=210, \sum n_2=288$)	그렇다	160 (76.2%)	4.09	231 (80.2%)	4.08	
	보통	45 (21.4%)		52 (18.1%)		
	그렇지 않다	5 (2.4%)		5 (1.7%)		
축제 재방문 의도 ($\sum n_1=211, \sum n_2=290$)	그렇다	167 (79.1%)	4.22	226 (77.9%)	4.14	
	보통	39 (18.5%)		53 (18.3%)		
	그렇지 않다	5 (2.4%)		11 (3.7%)		
축제 추천의도 ($\sum n_1=210, \sum n_2=289$)	그렇다	161 (76.7%)	4.18	229 (79.2%)	4.16	
	보통	43 (20.5%)		53 (18.3%)		
	그렇지 않다	6 (2.8%)		7 (2.5%)		

주1) 평균 : 5점척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실내공연 관람자 개별조사항목

①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성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관심유발

-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을 제공하였다/ ~에 도움이 된다’ 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와 수준높은 공연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번 축제로 인해 다른 공연예술축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공연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응답이 가장 낮게 나와 프로그램 기획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항	척도	빈도	평균
음악극과 관련한 독특한 공연예술을 제공하였다	그렇다	150 (71.8%)	3.91
	보통	52 (24.9%)	
	그렇지 않다	7 (3.3%)	
	총 응답수	209	
수준높은 공연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렇다	152 (73.1%)	3.99
	보통	51 (24.5%)	
	그렇지 않다	5 (2.4%)	
	총 응답수	208	
공연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렇다	128 (60.9%)	3.75
	보통	71 (33.9%)	
	그렇지 않다	11 (5.2%)	
	총 응답수	210	
공연예술에 관련된 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	134 (64.1%)	3.78
	보통	60 (28.7%)	
	그렇지 않다	15 (7.2%)	
	총 응답수	209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는데 움이 되었다	그렇다	143 (68.4%)	3.84
	보통	58 (27.8%)	
	그렇지 않다	8 (3.8%)	
	총 응답수	209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렇다	161 (76.3%)	4.03
	보통	47 (29.2%)	
	그렇지 않다	3 (6.2%)	
	총 응답수	211	
최신 공연예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	그렇다	135 (64.6%)	3.82
	보통	61 (29.2%)	
	그렇지 않다	13 (6.2%)	
	총 응답수	209	
다른 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	156 (74.7%)	4.01
	보통	48 (23.0%)	
	그렇지 않다	5 (2.4%)	
	총 응답수	209	
다른 공연예술 활동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	152 (72.4%)	4.00
	보통	52 (24.8%)	
	그렇지 않다	6 (2.9%)	
	총 응답수	210	

주1) 평균 : 5점척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③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역할

의정부음악극축제로 인해 의정부를 문화예술적인 도시이미지로 변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 '나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질문에 음악극축제가 의정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문화적 축제분위기로 변화시키거나, 좀더 문화예술적인 도시이미지로 변화시킨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반면, 아직까지는 축제로 인해 국제적인 평판을 얻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는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문항	척도	빈도	평균
의정부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	그렇다	177 (83.9%)	4.22
	보통	30 (14.2%)	
	그렇지 않다	4 (1.9%)	
	총 응답수	211	
의정부를 좀 더 문화예술적인 도시이미지로 변화시키는 역할	그렇다	176 (83.0%)	4.18
	보통	30 (14.2%)	
	그렇지 않다	6 (2.8%)	
	총 응답수	212	
의정부의 이미지를 좀 더 문화적 축제분위기로 변화시키는 역할	그렇다	173 (82.0%)	4.21
	보통	35 (16.6%)	
	그렇지 않다	3 (1.4%)	
	총 응답수	211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	그렇다	151 (71.9%)	4.00
	보통	48 (22.9%)	
	그렇지 않다	11 (5.3%)	
	총 응답수	210	
시민들이 지역의 자긍심을 갖게하는 역할	그렇다	131 (61.5%)	3.83
	보통	69 (32.4%)	
	그렇지 않다	13 (6.1%)	
	총 응답수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역할	그렇다	146 (68.5%)	3.90
	보통	54 (25.4%)	
	그렇지 않다	13 (6.1%)	
	총 응답수	213	

의정부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	그렇다	158	(74.9%)	4.08
	보통	45	(21.3%)	
	그렇지 않다	8	(3.8%)	
	총 응답수	211		
의정부가 국제적인 평판은 얻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	그렇다	126	(59.4%)	3.70
	보통	57	(26.9%)	
	그렇지 않다	29	(13.7%)	
	총 응답수	212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그렇다	135	(63.4%)	3.83
	보통	64	(30.0%)	
	그렇지 않다	14	(6.6%)	
	총 응답수	213		

주1) 평균 : 5점척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야외 행사 참가자 개별분석

① 주제체험관 평가

주제체험관은 재미있었고, 구성이나 음악극에 대한 이해는 높였으나, 음악극축제의 배경과 역사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주제체험관에 대한 평가 중 주제체험관은 재미있었다(3.77)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뒤로 구성이 잘 되었고(3.74), 음악극이 무엇인지 알게되었다(3.69) 순으로 평가되었음
-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주제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음악극이 무엇이고, 왜 의정부에 음악극축제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배경과 역사에 대해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의 평가로 대체적으로 만족하였고, 특히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재미와 음악극에 대한 이해는 높아졌으나 아직까지 음악극축제의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는 전체 평가 중 낮게 나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문항	척도	빈도	평균
축제 캐릭터인 Mr.M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다	133 (47.2%)	3.38
	보통	94 (33.3%)	
	그렇지 않다	55 (19.5)	
	총 응답수	282	
올해의 축제주제(삶을 연주하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렇다	155 (54.8%)	3.58
	보통	95 (33.6%)	
	그렇지 않다	33 (11.7%)	
	총 응답수	283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역사를 알게 되었다	그렇다	143 (50.3%)	3.51
	보통	108 (38.0%)	
	그렇지 않다	33 (11.7%)	
	총 응답수	284	
의정부에 왜 음악극이 생겼는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	130 (45.9%)	3.37
	보통	102 (36.0%)	
	그렇지 않다	51 (18.1%)	
	총 응답수	283	
음악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렇다	172 (60.3%)	3.69
	보통	90 (31.6%)	
	그렇지 않다	23 (8.1%)	
	총 응답수	285	
주제체험관은 재미있었다	그렇다	177 (62.7%)	3.77
	보통	91 (32.3%)	
	그렇지 않다	14 (4.9%)	
	총 응답수	282	
주제체험관은 구성이 잘 짜여 있었다	그렇다	174 (61.7%)	3.74
	보통	94 (33.3%)	
	그렇지 않다	14 (5.0%)	
	총 응답수	282	

주1) 평균 : 5점척도,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평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② 총 지출비용

평균 지출비용은 29,224원으로 식음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함

- 전체 응답자 307명중 165명이 축제장에서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무응답 혹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총 165명의 응답자가 지불한 비용의 평균 지출비용은 29,224원으로 나타났으며, 적게는 1천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 소비하였음
- 전체적으로 식음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였고, 그 다음으로 기타(공연비와 체험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 숙박비는 전체 응답자 중 단 3명만이 4만원, 5만원, 14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였음

항목	야외행사 참가자(n=165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교통비 (주유비, 주차료, 대중교통비 등)	4,753원	11721.214	0원	120,000원
식음료비 (축제개최지에서 지출한 음식비, 음료비 등)	9,881원	10195.547	0원	40,000원
숙박비 (모텔, 민박, 펜션 등)	1,393원	11939.735	0원	140,000원
유형비 (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노래방, 술값 등)	1,812원	10531.529	0원	120,000원
쇼핑비 (축제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 등)	3,345원	13111.926	0원	150,000원
기타 (공연비, 체험비, 입장료 등)	7,860원	22355.470	0원	150,000원
총 지출 비용	29,224원	42375.702	1,000원	330,000원

주1) 평균 :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평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표준편차 : 무응답을 제외한 총 응답수의 표준편차,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4. 시사점

① 실내 극장공연과 야외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티켓 구분

- 실내극장공연은 의정부지역 외 서울지역 거주자가 많았으나 야외 축제 프로그램에서는 경기북부 거주자가 많았음. 티켓 대상별 홍보내용을 구분하여 적절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야 할 것임
- 실내공연관람자는 SNS, 홈페이지와 버스광고에 더 많이 노출된 반면, 야외행사참가자는 옥외홍보와 리플릿에서 더 많이 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나 홍보비 예산 배분과 홍보물 배포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임

② 시민참여 확대 및 축제성 강화

- 올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예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설치미술, 먹거리 부스 등 축제성을 강화한 결과 전체적으로 축제장 내 체류시간이 늘어났음
- 실내공연 관람자나 야외행사 참가자 모두 축제 참가동기가 '색다른 경험' 과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기위해' 가 높아 이들이 기대한 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체적으로 야외공연이나 실내공연, 축제프로그램에는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휴식공간, 접근성/주차장에 대한 평가는 가장 낮게 나타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③ 시민이나 외부인이 인식하는 음악극축제의 브랜드

-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의정부의 도시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문화예술적인 도시이미지, 축제분위기의 이미지로 변화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직까지 음악극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미비하지만 향후 축제를 통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음악극축제를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예술축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 음악극축제를 통해 폭 넓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CHAPTER

부록

- 
- 01 | 사진으로 본 축제마당
 - 02 | 음악극 살롱
 - 03 | 전문가 워크숍
 - 04 | 관객과의 대화
 - 05 | 프리렉처
 - 06 | 주제체험관
 - 07 | 자문집행위원회 회의록
 - 08 | 관람객 평가 설문지
 - 09 | 언론 보도 리스트

여 백

| 부록 1 |

사진으로 본 축제마당



개막식





| 부록 1 |

사진으로 본 축제마당

공식초청작

개막작 | **말러매니아**



공식초청작
I on the 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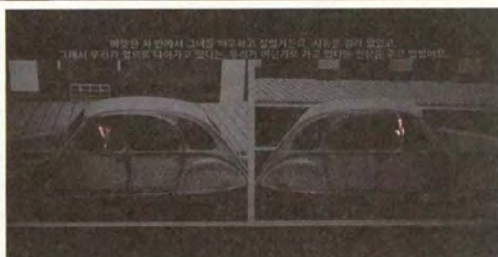


공식초청작

하얀 눈썹 호랑이



공식초청작
사랑의 역사



| 부록 1 |

사진으로 본 축제마당

공식초청작

노베첸토



공식초청작

도자두 :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



| 부록 1 |

사진으로 본 축제마당

공식초청작

폐막작 | **파리넬리**



공식참가작 & 자유참가작
야외공연



사진으로 본 축제마당





공연프로그램

찾아가는 공연



공연프로그램
음악극어워드



시민참여 프로그램





예술교류 프로그램



폐막콘서트



부록2. 음악극살롱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
- 날짜 : 2015년 5월 12일(화)
- 시간 : 17:00 ~ 19:30
- 참석자 : 권호성, 노선락, 조용신, 최우정, 황호준, 현수정 외 9명

[현수정 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현수정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 뮤지컬 연극 강의와 한국 M음악극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살롱 주제는 <음악극창작자의 삶>입니다. 음악극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다르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음악극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먼저 나누어 봅시다.** 국내의 음악극을 먼저 얘기하다보면 서로 다른 음악극의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서로 하고 계신 음악극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품이나 하셨던 작업을 먼저 이야기 해주세요.

[이용주 연출가] 저는 음악극 카르멘 연출가 이용주입니다. **아내가 음악 작곡가이고 저는 드라마 연출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텍스트가 아닌 실용적인 것들을 배우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거리공연이나 실질적으로 많은 악기와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악기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는 이 악기 하나하나에 모든 배우들이 다 생기겠지 라는 꿈으로 음악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조용신 예술감독] 저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은 실용적인 요소가 갖든 상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들을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에는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창작자로서 길을 걷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했고 그런 점에서 서양의 고전을 텍스트로 삼기는 했지만 저만의 액터 뮤지션을 창작하기 위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것들이나 시간적인 것과 같이 현실적인 것들에 부딪혀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현수정 교수] 뮤지컬이라는 것은 혁신성을 가질 수 있는 장르이자 상업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고 정형화된 뮤지컬도 많이 있지만 새롭게 혁신적으로 시도될 수 있는 뮤지컬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액터뮤지션십 뮤지컬은 뮤지컬에서 새롭게 시도되었던 것이었고, 또 기존 작품을 이것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브로드웨이의 뮤지컬과는 또 색다른 면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적인 부분의 리스크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호성 연출가] 60년대 생인 저의 학창시절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항상 함께였습니다. 또 아버지가 항상 부르시던 노래와 녹음기를 통해 들려오는 노래가 저에게 서양음악을 접하는 최초의 계기였습니다. 무슨 뜻이었는지 알아듣진 못했지만 알 수 없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연극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지은 쇼앤라이프 홍보팀장] 우리나라가 뮤지컬이나 많은 거리극 축제가 있지만 의정부음악극축제 같은 경우는 그것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홍보인 만큼 주변에서 음악극에 관해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음악극이 포함할 수 있는 장르자체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비중이 어느 정도 까지여야 음악극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최우정 작곡가] 실험적인 프로젝트부터 오페라하우스작품까지 아우르며 서구의 전통적인 음악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을 포함하는 것을 음악극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시아의 모든 전통적인 것들도 음악극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연주 작곡가] 음악극이란 이름을 붙일 때 이름에 따라 홍보방법을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고민을 합니다. 원래 연극에 관심이 많았다고 보단 공연이 너무 좋아 이런 공연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부터 음악극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공연을 하다 보니 이런 것을 음악극이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극은 출발자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딱 정의를 내리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적인 면을 가지고 무대를 연출하는 이유는 여러 요소들과 음악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졌을 때 더욱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락 작곡가]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간 ‘의정부사랑가’, ‘11마리 고양이’ 작곡을 했었는데요. 합창이 주가 되는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기존의 뮤지컬은 주연이 주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아닌 합창이 주가 되어 발상자체가 다른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음악극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연주자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배우들이 하는 연기적인 요소보다는 음악적인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음악이 가장 우선되고 잘 들리게 연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창조물들이 나오고, 계속 그러한 요구들이 있으면 작곡가, 연출가들이 새롭고 신선한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수정 교수] 음악극이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 공연 패러다임에서 앞서가는 장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국에서도 대본, 대사 중심 보다는 시청각적인 퍼포먼스 시도를 많이 하고, 유럽은 포스트드라마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음악극은 사실 음악만 혼자 쓸 수는 없고 음악이 있으면 춤이나 보여지는 부분들 극적인 것들이 같이 가다보니 앞서가는 장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황호준 작곡가]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창작하면서 고려하는 부분은 출연하는 배우가 어떤 가창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섭외되는 연주자들이 누구인가. 국악이나 기타나 피아노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많이 했구요. 무대에서 실제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연기적 특성, 이러한 부분이 제가 고려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겪었던 부분은 뮤지컬계, 오페라계, 창극계 등 고유성을 보유하기 위해 경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계에 걸쳐 있는 것들을 음악극이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음악극을 기존의 오페라 양식이 아닌 개인의 창작 욕망의 돌파구로서 바그너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유럽에서는 개인 창작자 중심의 창작 역사를 지닌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음악극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음악극이라는 것이 연주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없었어요. 태초의 모든 음악극에는 극적인 요소들이 동반한 것이기 때문에 음악 자체가 사실 음악극이었어요. 음악이라는 것이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가 극적요소를 지닙니다. 다만 기악 연주

곡이 특화 되서 연주곡 자체가 따로 독립되었던 거죠.

실제로 창작자들은 음악극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지 라는 고민은 하지 않아요. 공연에 맞추어서 최적의 공연을 만들어 가다 보면 무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악극이라는 용어 자체를 뮤지컬, 오페라 이런 것처럼 정형화된 것으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에서 탈피하고 음악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확장된 정의의 음악극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정립하려는 시도보다는 실험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분야로서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신나라 작곡가] 저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합니다. 작곡을 하다 보면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가진 드라마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이 소리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 접근했던 매체가 영상입니다. 이를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을 때, 무대라는 장소에서 살아 숨 쉬고 활동적이고 격동적인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극적인 요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서 제가 직접 무용을 하면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소리를 듣고 몸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즉 소리가 움직임을 표현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음악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존의 텍스트 보다는 창작 텍스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을 어떻게 소리로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추구하고 싶은 음악극입니다. 청각적인 사운드를 시각적인 이미지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정 교수] 네,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경계성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잘 짚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극을 베이스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클래식을 베이스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뮤지컬에서 출발하신 분도 계신데요, 소리를 하시는 최용석 대표님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바닥소리 대표] 저는 판소리를 하는 최용석이라고 합니다. 판소리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혼자 해야 합니다. 극이라는 것이 10년 전만해도 판소리를 극화하는 것이었어요. 소리도 거의 그 소리를 그대로 내고 가락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서 소리에 붙여 만드는 것을 8년 했습니다. 소리를 붙여보고 공연을 다녀보고 했지만 소리판 자체만으로 지원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판소리로 처음 만들었던 작품이 '닭들의 꿈, 날다' 이고 이를 통해 상도 받았습니. 창작 판소리 뮤지컬, 판소리, 소리, 국악 뮤지컬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판소리로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갖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리고 관객들과 나눌 것 인가를 생각했어요. 그때그때 나름의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이름을 붙였어요.

[김민정 바닥소리 기획팀장] 음악극의 정체성을 보고 말할 때 수용자 매개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음악극, 판소리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러한 용어를 썼을 때 수용자들은 본인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대중적인 것으로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이 된 이후에 음악극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고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음악극이라는 용어가 정형화된 정체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음악극과는 달라 라는 거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수의 사람들이나 단체가 하나의 예술적인 지향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개성과 다양성, 각각의 작업을 하는데 음악으로 학술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계가 확실하진 않지만 수용자가 매개자로서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수정 교수] 창작자로서의 삶이라는 부분과 수용자들의 요구, 제작 환경 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어떤 점이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최종적으로 음악극 축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민 연출가] 이번에 노베첸토라는 작품으로 초청받아 의정부음악극축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음악극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유념하며 만든 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점은 피아니스트랑 작업을 하게 된 점입니다. 만드는 입장에서 음악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황호준 작곡가] 각자 알아서 정보를 얻지만, 이런 네트워크 통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다른 방법을 가진 창작자와의 교류를 통해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일적인 관계로써 사교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와서 고민도 같이 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숙 쇼앤라이프 기획팀장] 저는 공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주인이 되서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들 그런 의미의 음악극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기존에는 멀티미디어와 같은 특이한 작품들이 많았는데 음악이 먼저인 작곡가 작사가들이 중점이 되는 작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 소재로 창작 음악극을 만들거나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권호성 연출가] 대부분의 축제에선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것을 얻길 바랍니다. 의정부 축제하면 아는 사람은 아는데 뭐가 있었지 라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우정 작곡가] 작곡가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텍스트인 공연을 많이 하지만 음악극이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만 살아남아서 제작이 되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만들어진 뮤지컬 말고 연출가나 작곡가가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이지은 쇼앤라이프 홍보팀장] 제가 느끼는 공연 축제들이 거의 다 해외에서 얼마나 가져오고 얼마나 지출하실 건가를 중요시 합니다. 공연을 의정부에서 보는 것도 좋았지만 국내 창작품들을 의정부에서 다시 봤던 것이 더 고마웠어요. 또 음악극어워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창작자들이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렵게 공연을 만들어 공연을 올렸는데 관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아 매우 아쉬웠습니다.

[김지선 의정부음악극축제 사무국장] 사실 저희는 음악극 어워드를 굉장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 하다 보니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어워드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어워드의 규모를 키워 국내 창작단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음악극이라는 컨텐트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연 예술 축제로서 수준높은 작품

을 가져와서 신선함을 주되 야외에서는 축제성을 강조해 시민들과 함께 즐기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 청소년 음악극 지원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극 살롱을 통해 창작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앞으로 축제기획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살롱에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쪼록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3. 전문가 워크숍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영상감상실, 대극장
- 날짜 : 2015년 5월 13일(금)
- 시간 : 13:30 ~ 15:00

(대극장 무대에서 약10분간 작품 시연 후)

[아트디렉터] 저희 단체의 기술총괄감독인 루이스 알카에다입니다. 무대 위로 이동한 뒤, 기술총감독님께서 어떻게 공연을 진행하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이동)

[기술총괄감독] 저희가 3부작으로 떼아뜨로 시네마에서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앞, 뒤로 스크린이 2개가 있습니다. 바닥에도 장치가 되어 있어서 소품의 전환이나 움직임이 잘 구현되게 되어있습니다. 트러스 위에는 조명 장치도 달려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계적인 장치와 수동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개의 스크린 사이 공간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공간입니다. 바닥에 보면 사이클처럼 자전거 체인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무대 장치 변환 시연)

[기술총괄감독] 양쪽 사이드에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앞쪽 스크린에는 조명을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공연을 가도 무대 위 트러스 구조물은 항상 설치한 뒤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 뒤쪽에 무대감독이 배우들의 등퇴장을 통제하고, 장면에 맞는 소품이 정위치에 자리할 수 있도록 수동으로 조절합니다.

[아트디렉터] : 작품시연에서 보셨듯이, 아예 화면에서 배우들이 등장하지 않고 영상만 나오고 있을 때에는 재빨리 스크린을 올려서 배우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크린 변환 및 소품 이동 시연, 트러스 내부로 이동)

[기술총괄감독] 지금 이 공간이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 공간입니다. 조명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비추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정확한 표현을 구현하기 위해 하루 10시간 가량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대 뒤로 이동)

[기술총괄감독] 무대 뒤는 소품이나 배우들이 대기하는 장소이기도 해서 프로젝터를 상부 바텐에 고정시켜서 스크린에 화면을 투사시키고, 이를 통해 무대 뒤에서 움직이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저희는 항상 고정된 세트를 들고 다니고 무게는 대략 2000kg정도 됩니다.

[아트디렉터] 다시 객석으로 가서, 남자 주인공의 설명과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객석으로 이동)

[배우] 여러분들과 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떼아프로 시네마의 작품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는지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사랑의 역사>에 중점을 두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감독이 진행한 것은 원작 소설에 대한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본이라고 말하는데, 한쪽에는 지문과 영상화면에 대한 설명 혹은 스케치가, 다른 한쪽에는 대사가 적혀있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우들의 경우 교본을 보면, 왼쪽에 비토리오(아트 디렉터)가 만들어 온 스케치를 참고하여 장면이 구성되는지 알 수 있는데, 배우와 연출이 모여 2번 정도의 회의를 통해 각각의 장면을 어떻게 완성할지 토의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대 위 연습단계로 이동합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무대 위에서 직접 본 트러스와 똑같은 크기의 공간 위에 그림을 그려놓고 연습을 진행합니다. 공연에서 보는 영상이 완성되기 전에, 미리 예상하고 연습을 시작해서 동선을 만들어 갑니다. 이 말은 즉, 그냥 상상을 통해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관객들이 객석에서 보는 영상이 없이 상상에 의존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생각한대로 움직임을 완성해갑니다. 하나하나 진행되는 영상을 보지 않고 머리 속으로 그려놓고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이 작품의 장면 리허설을 2회에 걸쳐 연습과 수정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는 실제로 보여지는 영상이나 효과들이 보여지기 전입니다. 단순히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암기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 후 화면의 이미지들이 도착하게 되면, 상상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천천히 진행되는데요, 왜냐하면 배우가 연기하는 동선과 영상이 정밀하게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이미지 혹은 스케치로 존재하는 이미지만으로 준비를 하다보면 실제 영상과의 차이 때문에 다시 새롭게 장면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계속 수정을 하거나 아예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 이미지들이 확정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배우와 스크린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연다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들은 배우들이 카메라로 찍은 모습들을 기초로 하여 제작하는데 이는 배우가 현실적인 움직임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초현실적인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영상이 구현하는 이미지와 배우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포지션, 세밀한 움직임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또는 배우들이 정지된 상태라든지 이미지가 정지된 상태도 구현해내고, 이런 효과는 기술총괄감독이 구현해줍니다.

그렇게 이미지가 펼쳐지고 위치나 자세를 잡게 되면 실제 작품이 진행됩니다. 각 장면 장면마다 나서어서 장면을 완성하면 하나의 작품이라는 연속성을 만들게 됩니다. 장면의 전환과 이에 수반되는 소품, 배우의 움직임을 구성합니다. 배우의 연기뿐만 아니라 장면 장면이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무대의 연기'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명이 꺼졌을 때는 배우 없이 이미지만, 조명이 켜지면 배우들이 연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불이 꺼지고 이미지가 보여 질때에도 배우와 연기는 쉬임없이 다음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장면연결이 완성되면, 공연과 똑같은 형태로 완성이 됩니다. 그제서야 배우들은 각각 맡은 캐릭터를 분석한다든지, 심리적, 물리적 접근을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초연을 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배우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이 단순히 몸으로만 표현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 장면마다 조용하게 확실하게 연기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장면에서는 대사도 많고 움직임도 많아야 합니다. 또한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준비과정이 천천히 진행되지만, 무대 위에서는 빠르게 진행됩니다. 공연을 진행하다보면 준비과정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투어를 다니면서, 공연을 거듭하면서, 어떤 장면을 보완하고 장면들의 연결을 조율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아트디렉터] 〈사랑의역사〉는 한 강간범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를 자신의 것,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 흑백영상을 이용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순간적인 장면 전환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작품은 영화, 문학, 만화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작품입니다. 이런 친숙한 요소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떠올랐습니다. 시나리오의 장면 장면마다 카메라 앵글이 어떻게 포커스를 맞추고 이동을 할 것인지를 구상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경우는 관객들이 숨어서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마치 이 남자주인공이 행하는 폭력과 범죄에 대한 증인, 개입하지 않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지붕위에서 거리위에서 남자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되게 화면을 전환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남자배우가 다양한 자세, 포즈를 취하면서 카메라 앵글의 변환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렇게 떼아프로 시네마에서 만들고 있는 작품들이 멀티미디어 측면에서 다양한 앵글로 표현되도록 만드는 것이 저를 비롯한 저희 팀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 뒤 스크린에 정확하게 어떤 영상이 들어가고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상하면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합니다. 장면 장면의 이미지를 먼저 구성하고 이미지들을 어떻게 영상으로 연결시킬지 고민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길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는 애니메이션 부분, 스케치 부분, 3D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요한 2명의 스태프가 있는데, 한 명은 노세이라(감독역할)인데 멀티미디어의 관점에서 작품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조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조언을 통해 작품이 수정 보완 될 수 있게 이끌어갑니다. 저희 작품은 영화하고는 다른 장르입니다. 두 개의 스크린을 통해서 펼쳐지고 두 개의 영상을 조화시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합의 과정은 배우에 의해서 완성해나갑니다. 앵글의 움직임, 장면의 변화는 배우의 역량에 맡겨 변화시킵니다. 저희 작품은 영화처럼 영상을 재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각 순간순간 정지, 재생을 반복합니다. 또한 조명이나 음향하고의 결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각각의 악기들이 정확한 소리를 내서 좋은 음악이 되는 것처럼 각각의 파트가 명확하게 움직여서 완성해나갑니다. 다른 1명의 중요한 스태프는 미르코라는 프로그래머인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영상이나 자막의 전환을 구현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정확하게 다른 기술요소가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모두의 협업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객들이 보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저희 작품은 아주 생생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작품입니다. 〈사랑의역사〉 초연 때하고 현재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공연을 거듭할수록 장면의 수정, 연결의 수정이 추가되어 변경되어 갑니다. 이런 부분이 영화와 연극이 결합하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지만, 저희 작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 여기 모인 관객들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예술입니다. 또한 저희 예술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음악 부분

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직접 지휘하면서 배우들이나 화면의 움직임이 보다 역동적으로 표현되게 준비합니다. 단 하나의 장면을 위해서 5곡을 준비하여 선택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한 번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거듭하면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음악을 선정할 정도로 음악은 우리 작품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품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하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저희도 굉장히 접근하기 난해했었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고자하는 목표와 열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없을 때에는 목표를 향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작품에 대해 혹은 과정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앞 뒤 스크린, 가운데 조명 까지 3개의 빛이 있는데 충돌은 없는지 궁금하고, 정확한 타이밍과 기술에 맞춰 연기하다보면 몰입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감정선을 유지하는지, 제작 기금은 어떻게 충당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총괄감독] 3개의 빛들이 서로 다른 위치를 비추고 있습니다. 전면 스크린은 스크린 높이, 측면과 상부의 조명은 스크린 상단에, 프로젝터 영상은 스크린보다 상단에서 쏘기 때문에 중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나 조명의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아트디렉터] 이런 조명과 프로젝터의 결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은 보여지고 어떤 것은 안 보여지게 하는 저희 노하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흑백이기 때문에 전면 스크린에 흰색 영상을, 후면 스크린에 검정색 영상을 투과시키면 트러스 뒤에서는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전면 스크린에 검정색 영상과 백색 이미지가 결합되면 빈 공간을 계산해서 이동해야만 합니다. 이는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무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능숙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작품은 여자배우와 남자배우의 역할이 매우 대조적입니다. 남자배우는 작품이 진행되는 내내 대사를 말해야하고 동선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운 포지션이나 자세도 익혀서 구현해야하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관객들에게 티를 내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장면 전환 중에 정확한 포지션과 다음 장면을 시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소위 말하는 라이브로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의 이동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표현과 신체움직임의 변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배우는 완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여자배우의 대사가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오로지 몸짓으로만 정서를 잘 표현해야만 합니다. 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지만, 관객들이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약속된 움직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트디렉터] 세 번째 질문은 매우 어려운데요, 한국의 상황은 잘 모르지만 칠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작품을 완성시키기까지 2년이 걸렸지만, 작품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기금을 끌어오거나 투어공연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팀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많은 단체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칠레에서 기금을 주었고, 프랑스, 에딘버러 페스티벌, 스웨덴 연기학교, 벨기에에서도 조금씩 지원을 받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참가자] 현재 애니메이션과 연극, 영화와 연극이 결합하는 형태는 매우 흔한 장르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영상이 아닌 연기를 결합시키면서, 배우의 역할은 축소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배우] 저희가 이런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9년이라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 찾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순간순간 작품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극 작품같은 경우 무대요소들을 전환하는데 시간소요가 있는데, 바로바로 흐름이 끊기지 않은 채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사용에 있어서 영화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면서 영화와는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극의 고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조명과 음향들을 저희 고유의 방법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트디렉터] 기술적인 부분(멀티미디어)의 활용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배우나 창작자들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것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 연극이라는 것이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몇 달 안에 새로운 작품을 할 것 같은데, 신작에서는 스크린으로 막지 않고 무대 뒤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토라고 할 만한 것은 두려워 하지 말고 대범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찾고 구현해내자입니다. 저희 3부작의 첫 번째 <신 상그레>때는 논란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걸 연극이 아니다 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극이 맞다 아니다 라고 제약을 둔다면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술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우] 사실 저희 작품은 매우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때아프로 시네마가 초점을 두는 것은 그저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뿐입니다. 작품 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배우입니다. 전체 공연에서 영상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배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술이든 멀티미디어든 존재합니다.

[아트디렉터] 사실 예전의 경우, 촛불만 밝히고 배우에게만 집중하는 작품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처럼 현대에서 여러 기술을 활용하는 작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다 없다가 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가자] 기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미디어 시대에서 연극의 역할이라던지 변별력이 있는지에 의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트디렉터]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때아프로 시네마에 대해서 비판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관객들이 작품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부록4. 관객과의 대화

1. 관객과의 대화 – 말러매니아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날짜 : 2015년 5월 8일(금)
- 시간 : 공연 종료 후 60분간 진행

[사회자] 오늘 공연 전 연출가에게 “관객들은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극장에 오곤 하는데, 말러매니아를 보러오는 관객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라고 짧게 질문했고 연출가의 대답은 “마음속의 이야기를 따라가십시오, 말러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관객여러분들도 자유롭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 연출가와 세트디자이너, 여배우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석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무대 위에 엄청 많은 비유와 상징을 넣어놓고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연출가] 말러와 관한 많은 자료에 보면 물 위에 오두막이 있고, 사과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도그노와 니체도 등장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꼴라쥬’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고 자신의 삶과 연관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떠올리고 연상할 수 있으면 되고, 전문지식이 없어도 그냥 음악극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작품을 통해 말러의 시대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당시의 모습들 가운데서도 현실과 전이되는 요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을 통해 말러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관객들이 자신의 머리 속에 이야기 혹은 영화를 틀어놓고, 자신의 영화를 따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보기를 바랍니다.

[질문자] 세트디자이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세트는 합체와 해체를 반복하고, 오케스트라는 개방과 폐쇄를 반복합니다. 이는 말러의 교향곡들과 짓고 부수고 허무는 작업들이 어떤 연관이 있기에 설정하였는지, 세트와의 연관성도 궁금합니다. 또한 물이라는 매개가 단순히 호수를 표현하는지 궁금합니다.

[세트디자이너] 말하자면 저는 말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모은다고 생각하고, 말러의 삶에 있는 요소들을 하나의 숲에 넣고 꿰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꿰이다보면 가장 중요한 엑시스만 남게 되는 것이구요. 그런 시각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제가 엑시스, 핵심이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러의 시기는 긴장되고 흥미진진한 시기입니다. 모더니즘 시대로 전환하는, 격동적이고 새로운 싹이 트는 듯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적 전환을 위해 무언가를 부수고 새로운 시대가 완성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출가] 물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은 실제로 말러가 작곡을 했던 오두막 주변의 호수를 상징합니다. 말러는 수영을 좋아했고, 물을 통해 새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물은 삶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대지의 노래만 보더라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고별을 보면 더 이상 모더니즘적 표현을 위해 싸우지 않고 투쟁하지 않기로 결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낭만주의도 모더니즘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음악, 자신만의 음악에 집중하기 합니다. 이 노래를 쓰면서 본인의 운명을 인지했는데, 이 상태에서 말러는 잃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초연적인, 초월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모습과 가장 원시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스페인어로 '알마' 는 영혼인데, 말러의 삶을 보면, 알마가 말러에게 영혼을 준 것일까요, 아니면 말러에게 영향을 받은 영혼일까요? 또한 1910년 뉴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배우 1] 저는 모든 관계가 그러하듯, 알마와 말러의 관계도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 2] 1910년 알마는 회고록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한 시기이고, 1911년 말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말러는 병들었고 알마가 배신해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지만 모른 척하고 더욱 더 헌신합니다. 정작 알마가 말러를 필요로 했던 시기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 선물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 말러와 알마의 다중적인 모습을 매체로 표현한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대사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활용한 매체들이 포화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진은 왜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연출가] 맞는 말씀입니다. 비디오나 사진은 공연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지가 너무 커지면 배우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공연의 맥락에서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말러의 삶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족적이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문서화된 순간순간들이 말러의 삶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진을 활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러의 삶을 기록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미로 무대는 관객과 소통하지만, 무대와 굉장히 멀리 떨어진 관객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 멀리 있는 관객이 볼 수 없는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질문자]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러의 삶에 있어서 여러 장면으로 풀러주화하기 위해서 말러와 알마가 여러 명의 배우를 통해 표현하였는데 이는 천재 예술가들이 보여주는 자아분열과 같아 보였는데 이것이 의도된 건지? 어린 알마와 늙은 말러가 무용을 하는데, 단순한 춤이 아니라 요가 같은 모습도 있어 보이는데 안무를 만드는데 어떤 부분에 집중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연출가] 맞습니다. 분열된 자아를 표현한 것도 맞습니다. 프로이트가 말러에게 상담진료를 하기를 권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진료를 받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고 어린 모습과 권위적이고 권력에 집착하는 모습, 자신을 거인으로 바라보는 망상에 이르기까지 강해보이지만 상처받기 쉽고 예민한 자아들을 보여줍니다. 배우들은 말러의 모습을 투영하고 투사해주고 있습니다.

알마는 어리지만 매우 영리하고 재능있는 여자였습니다. 작곡을 공부하였고, 니체를 이해할 정도로 똑똑하고, 외모 또한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이런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더 많은 남자와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남자는 가부장적이고 선입견이 강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버리고,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보필하는 현모양처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알마는 20세기 초반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를 함께 만들고 경험하기를, 태동하는 예술가들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열망이 있고 매력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늙은 말러는 새로운 예술가이기도 했고, 선생이기도 합니다. 함께 호흡하고 함께

무언가를 완성해나가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문자] 주로 무대 위에 알마가 많이 등장하는데, 중년의 알마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알마의 일생을 통해 등장 했을텐데 가장 사랑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지휘자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색다른 연주, 편곡을 위해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말러가 연구한 모습들을 담고 싶었을 텐데,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연주를 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연기자] 아마 코코슈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시절을 함께 했고, 사실 알마는 80세때 코코슈카를 보고 싶어했고 만날 수도 있었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코코슈카에게 남아있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높고, 추해진 현재의 모습에 충격을 줄까하여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마는 작곡가나 건축가, 화가, 작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술분야에 다 섭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자] 굉장히 좋은 관찰입니다. 말러의 곡을 무대에 올릴 때 가장 중요시한건 말러의 정신세계의 구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편곡에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말러는 교향곡을 매우 큰 규모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규모뿐만이 아니라 악기에 대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으로 말러의 가곡에 조금 더 집중하였습니다. 간간히 나오는 교향곡과 가곡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이 엄청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향곡과 가곡을 같이 보여줄 때 어떤 편성이 필요한가 고민이 됐습니다. 오늘 무대에서 보여준 16인조 앙상블은 말러가 원래 구현했던 교향곡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16명이 새로운 시도나 퍼포먼스를 하면, 음악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가곡을 부르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도도 걸어내고 실내악 같은 소편성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말러의 심리, 세계관을 표현하고 싶었고, 퍼포먼스나 새로운 시도는 그런 표현을 방해한다고 하여 배버렸습니다.

[질문자] 말러와 알마의 관계가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매체에 변용되어 있는데, 오늘 공연 제목은 <말러매니아>인데 알마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말러매니아>인지 궁금합니다. 알마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는데, 혹시 알마에 대해 너무 긍정적 이상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출자] 알마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말러매니아>를 홍보하면서 기사마다 알마만이 너무 부각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마의 사진이 너무 많이 노출되어 모두가 알마가 주인공이 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구스타프 말러의 이야기가 맞고, '알마의 이야기' 라는 표현은 홍보의 결과로 생각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말러매니아>가 아니라 <알마매니아>처럼 보입니다. 독일에서는 전혀 이런 반응이 아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홍보에 대한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알마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가 있죠. 매우 긍정적인 표현과 비판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극을 올리기 전에, 남편과 함께 알마에 대한 자서전 혹은 전기를 읽었습니다. 저는 매우 적대적인 글을 읽었고, 남편은 알마에 대해 우호적인 자서전을 읽고 같이 공연을 구성했습니다.

[질문자] 음악극자체가 한국에서 생소한 장르인데, 가수들이 연기를 하다보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러매니아>라는 제목을 딱 보면, 이 공연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말러를 좋아하는 '말러리안' 인 것입니다. 말러의 음악들을 대부분 섭렵해서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겁니다. 소프라노가

등을 돌리고 노래하거나 바리톤이 원광을 부르면서 굉장히 가볍게 연출을 했는데, 극이 나타내는 것도 중요한데 음악적 성취와의 합의, 타협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가수들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출가] 저희가 음악극이라고 했을 때, 음악극이기는 하지만 음악만 중심이 되고 여타 나머지는 장식, 구성품이 되는 컨셉은 아닙니다. 무대에서 사용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동등하게 균형잡힌 형태로 보여지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고, 균형을 이루기를 바랬습니다. 일부로 음악을 축소시키거나 부각시키지 않고 균형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이고 영감을 주는 질문을 해주신 관객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오늘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관객과의 대화 – 사랑의 역사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날짜 : 2014년 5월 12일(화)
- 시간 : 공연 종료 후 40분간 진행

[사회자] 관객 분들과 대화를 나누기에 앞서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극이라고 해서 아주 많은 장면들에 데생이 나오는데, 아트디렉터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컨셉을 잡고 스케치를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아트 디렉터] 이 작품은 프랑스 소설가 레지 조프레의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선택한 것은 때아프로 시네마의 총감독이자 창립자인 후안 카를로스 자갈입니다. 저희 작품은 주인공 남자의 관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인공의 생각, 감정들이 기술적인 부분들과 결합하여 표현되고, 여러 분은 그런 장면 장면을 감상하신 겁니다. 작품의 잔인함, 폭력성, 극단적인 표현들이 바로 작품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각각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흑백이라는 표현을 선택하였습니다. 때아프로 시네마에는 3가지 멀티미디어 작품이 있고, 〈사랑의 역사〉는 3부작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배우들이 두 개의 스크린 사이에서 연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때아프로 시네마의 독창적인 표현법입니다. 문학, 영화와 연극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때아프로 시네마는 연극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한계들을 문학과 영화의 기법을 차용해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이동, 심리 표현들은 마치 만화와 같다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 작품 잘 보았습니다. 배우들의 에너지 소비가 많을 것 같아 하루에 한번 정도밖에 공연을 못할 것 같은데, 체력적인 부분은 어떤지 궁금하고 칠레에서의 공연에 대한 반응이 궁금합니다.

[배우] 저희는 지금까지 약 120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여러 번 공연을 통해 어떻게 리듬을 지켜나갈지 익숙해 있어서 어려움은 없고, 내일도 2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반응이 다양합니다. 그 반응이 관객들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가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이지만, 남자가 보여주는 남성우월주의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칠레는 남성우월적 사회이다 보니,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작품에서 보여주는 성폭력과 같은 범죄행위를 과장되게 표현하는데 내용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들어내기도 합니다. 관객반응은 수용자에 따라 편차가 물론 존재하겠지만, 저희는 작품을 통해 현재 사회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질문자] 연기자가 있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게 보았습니다. 원작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지만, 보는 내내 궁금했던 점이 강간범을 고소하는 강경책을 썼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폭력에 대해서는 무기력해졌는데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 사실은 저도 이런 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사건이 등장하기에 상상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칠레의 남성우월적인 성향들로 소소한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배우로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직접적인 상상을 통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연기하기 전까지 칠레에 성폭력, 폭행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캐릭터 분석을 위해 통계자료를 접하고 나서야 칠레의 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 배우, 연출들의 도움을 통해 가능하였습니다. 많은 노출이나 파격적인 표현들이 있었지만, 물론 어려운 역할이었으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자]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른 작품을 보기는 했는데, 움직임, 동선, 영상 등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영상이 이미 그려진 영상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심지어 대사량도 굉장히 많고, 지금껏 많은 공연을 진행했는데, 배우 혹은 기술팀에서 기억나는 실수 에피소드가 있는지 궁금하고, 완벽한 공연을 위해 특별히 주의하거나 원칙으로 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총괄감독] 저희 작품은 살아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명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합니다. 사실 연습을 엄청 많이 합니다. 매일 10시간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을 준비하는데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작품의 특성상 영상은 진행되기 때문에 실수나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습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트 디렉터] 조금 더 보충하자면,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연주를 위해 각각의 파트에서 조화를 이루고 완벽하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연을 보면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것 같지만, 테크니션들이 영상을 재생, 정지를 반복하면서 배우와의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했듯 연습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노력들이 관객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관객들이 보기 원하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차기작에 관련된 것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요?

[배우] 다음 작품은 칠레 작가의 소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이야기 하는 소녀〉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에 소녀가 이야기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은 오늘 보셨던 작품과 전혀 다르지만 흥미롭고 멋진 작품입니다.

[아트디렉터] 흑백 화면이 아닌 컬러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자] 장면 연출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하였지만, 평면적이지 않고 입체적 표현, 특히나 현실적 표현과 초현실적 표현이 공존하는데 이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트디렉터] 현실과 초현실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주인공이 생각 혹은 상상하는 부분과 실제 현실에서 움직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하고 폭력적인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겠죠. 남자 배우가 자신의 세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의 경우에도, 주인공 소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부분에서는 초현실적인 표현이 나타납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지만, 초현실적 표현들은 배우의 사고를 구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예술이란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거짓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자] 칠레에서 페아프로 시네마의 전용극장이 있는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은 다소 큰 것 같은데 극장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배우] 2003년 말부터 소유하게 된 극장이 있습니다. 극장에서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통해 촬영했지만 확장된 영상을 통해 스크린에 보여지기 때문에 의정부같이 큰 대극장에서 공연을 하는 것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트디렉터] 페아프로 시네마의 경우에는 칠레뿐만이 아닌 세계 곳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칠레에서만 공연을 한다면 생계, 생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 남자배우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관객의 입장에서는 멀티미디어극이 굉장히 풍성하고 신기한 장면이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통제된 상황, 몰입하거나 감정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전통적인 연극을 할 때와 멀티미디어극을 연기 할 때의 배우로서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 일단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일반적인 연극을 만드는 것에 비해 매우 느립니다. 먼저 작품을 하기 위해서 배울 것들도 많이 필요하구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종종 위험하기도 합니다. 작품을 촬영하기 위해서 위험하거나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세나 위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위치를 기억하고 나서야 연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신체 움직임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과정자체가 천천히 진행되고, 많은 공연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게 됩니다.

[사회자] 오늘 참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록5. 프리렉처

- 강의명 : 해설이 있는 말러매니아
- 강 사 : 올해의 협력예술가 장일범
- 장 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일 시 : 2015년 5월 8일(금) 20:00~20:10

구스타프 말러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습니다. 2000년, 2011년 말러 탄생 150주년, 말러 서거 100주년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말러의 심포니를 연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즘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주요 레파토리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러는 부르트너와 바그너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이면서 당대 최고의 지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일 전통과 모더니즘의 가교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작곡가입니다.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가 2012년에 재개관을 하면서 오페라가 아닌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러매니아>였습니다. 창의적인 시도로 정평이 있는 극단 니코 앤 네이게이터스를 통해서 이 작품을 공동제작했고, 말러의 삶을 10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말러의 빈에서의 마지막 10년 간의 모습, 특히 부인 알마를 통해서 말러의 삶을 반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말러가 지휘자로서 당대 최고의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시작됐죠. 말러는 빈의 왕국오페라극장의 상임지휘자 지금 빈오페라극장극장의 상임지휘자를 맡으면서 아주 전폭적으로 이 오페라계를 새롭게 재편을 해나갔습니다. 33개의 새로운 오페라를 제작하게 만들었고, 66개의 새로운 프로덕션을 만들어내면서 빈의 오페라무대를 완전히 바꿔 놓았고, 음악계와 예술계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음악계와 예술계의 산업에 중심에 있었던 여자가 알마였던 겁니다. 나이 차이는 많이 났지만 42세가 되었던 구스타프 말러는 알마에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 구스타프 클림트러던가 로코슈가와 같은 다양한 사람들과 이미 친분과 교류를 나누고 있었고, 또 알렉산드르 제블르니스키의 음악적인 제자이기도 했던 알마는 처음에는 구스타프 말러를 만나기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바쁘고 수많은 여성싱어들이 말러를 만나고 싶어했고 또 오페라 무대에서 살고 싶어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만날 필요 없다' 라고 했으나 만나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 빠져들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902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러매니아는 중년여인의 독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러 사후의 중년 알마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극을 보시면 말러도 분신을 포함해서 여러 명이 등장하고, 알마도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 심리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잘 살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가 니콜라 험펠은 이 작품이 알마의 독백으로 시작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마는 말러라는 이 복잡한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해서 가장 잘 풀어줄 수 있는 실마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빈에서 같이했던, 또 뉴욕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10년에 불과하지만 그 10년이 그야말로 말러의 작품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말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알마는 50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

터 브루튀스와 1915년에 결혼도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5년 후에 또 이혼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구스타프 말러의 비망록을 쓰게 되면서 구스타프 말러의 이야기들을 글로 써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이 작품에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비망록이 되었습니다.

말러의 교향곡 4번 3악장 루헤거울 평안하게가 이 체임버 악단 편곡버전으로 흐르면서 괴로워하는 남성 무용수의 몸짓이 펼쳐집니다. 반유대 정서속에서도 빈의 음악계를 휩쓴 명지휘자이자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러의 곁에는 인생의 동반자인 알마가 있게 되는데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지휘자로서 작곡가로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기자들은 반유대주의를 내세우면서 굉장히 공격하기도 했지만 말러는 아주 승승장구 하게 됩니다. 지휘자로서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는데 또 작곡가로 서는 굉장히 이 음악이 시끄럽다, 또 너무 길다 이런 평가를 당대 평론가나 기자들에게 받게 되는데도, 말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파트타임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오페라를 하지 않는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장대한 작품들과 가곡을 써내게 됩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교향곡뿐만 아니라 가곡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심에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곡들은 말러가 쓴 가곡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황하는 젊은이 노래를 비롯해서 어린이의 이상한 꿈 피리, 젊은 날의 가곡과 노래, 또 000속에 기상나팔과 같은 작품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말러가 교향곡과 가곡을 결코 다른 장르로 보지 않고 같은 흐름 속에서 동일선상 속에서 파악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또 오케스트레이션이 있는 가곡을 쓰게 되고, 이 교향곡 속에도 가곡이나 민요의 멜로디가 있는 곡을 쓰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말러와 알마가 두 사람만의 창작의 공간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이너니히에 있는 베르테제 호수에 1907년에 살게 되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 호수이고(무대 위 오브제를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오두막집입니다. 이 오두막집에서 말러는 5번, 6번, 7번 그리고 8번까지 교향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말러의 인생에서 굉장히 쓰라린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2명의 딸 중 마이어가 세상을 뜨게 되어 말러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알마는 말러가 너무나 잘나가고 또한 바쁜 것에 대해, 그리고 자신도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는데 살롱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자꾸 존재가 나약해짐을 느끼고 바토비우티우스를 비롯한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귀고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말러는 심장병이 도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계에 아버지도 누나도 모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나 걱정하는 나머지 말러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런 모습도 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러는 그녀를 위해서 교향곡 8번을 헌정하게 되고요, 말러의 대지의 노래를 쓰면서 9번 교향곡을 쓰면 작곡가는 죽는다는 징크스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막아보려 했는데, 괜찮길래 9번을 썼더니 결국 9번을 쓰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말러의 말년을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1910년에 뉴욕카네기홀에서 우소니의 비극적인 자장가를 초연한 다음, 그 다음해에 1911년 2월부터 열이 40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결국 그해 5월에 빈으로 돌아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유언에 따라 빈에 있는 00묘지에 묻히게 되는데요, 이때 알마는 의사의 유언에 따라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고 대신 제자인 부르노 발터,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가 이곳에 함께하면서 말러의 운명을 슬퍼했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도 없이 세상을 떠나간,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흙 속으로 간 구스타프 말러의 이야기

마지막 10년 빈에서의 이야기 파란만장한 그리고 심리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과 다양한 가곡과 교향악 속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리의 교향곡 5번의 4악장 아다지에도 이곡도 어떻게 쓰이는지, 또 우리가 해석할 때는 말리가 말마에게 준 사랑의 연애편지이고, 그것이 결혼으로 이끌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마가 많은 사람들과 자유분방하게 연애하는 장면에서 이 작품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쓰이는 말리의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오늘 최고의 극단과 또 최고의 팀프 앙상블과 함께 이 멋진 작품을 100분동안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 강연명 : 해설이 있는 파리넬리
- 강사 : 올해의 협력예술가 장일범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 일시 : 2015년 5월 16일(토) 17:00~17:10

파리넬리는 바로크 시대뿐만이 아니라 전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가수 중에 한명이었습니다. 아주 빠른 테크닉과 아름다운 음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바로크시대의 성악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넬리는 이탈리아 남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살바토레)도 작곡가였고 형(리카르도 브로스키)도 작곡가였습니다. 파리넬리의 본명은 까를로 브로스키인데 어려서부터 노래를 무척 잘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에 성악적인 관습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중 깨끗한 목소리로 노래를 매우 잘하는 아이를 발탁해서 카스트라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카스트라토란 어린 시절 천사 같고 예쁜 목소리를 유지하기 위해 거세를 하는 건데 대신에 몸이 성장해서 폐활량이 늘어나도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천사역을 소화하기 위해, 최고의 미를 추구하기 위한 장치가 카스트라토였습니다. 이를 로마 교황청에서도 용인을 했고, 1년에 무려 4000여명에 이르는 카스트라토를 이탈리아에서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전 유럽에 이탈리아의 카스트라토들이 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카스트라토들이 탄생하게 된 것은 카스트라토로서 성공한 아이들은 집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 중에서 이런 카스트라토들이 나오기도 했고, 그중 중 대표적인 예가 세네시노라고 하는 카스트라토였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파넬리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이 아이의 성악레슨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포도밭을 2개나 팔았고, 그 결과 명성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이탈리아 것이어야 한다, 이탈리아말로 되어야 한다는 당시의 믿음 때문에 이탈리아 싱어들이 전 유럽으로 진출하여 각국의 궁정과 극장들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해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까를로 브로스키, 파리넬리였습니다. 파리나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파리넬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파리넬리는 카스트라토로서 이탈리아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그 당시 성악선생님이 니콜라 포르보나였습니다. 포르보나가 파리넬리를 데리고 여러 나라를 다니고, 이 때 형도 함께 여정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동생의 멋진 목소리가 너무나 아까워서 이 아이를 카스트라토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카스트라토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독일 뮌헨으로 가서 대성공을 거두고, 또 네덜란드로 가서 빅히트를 하게 됩니다.

당시 성악, 오페라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런던으로 가서, 그 런던은 바로크 시대의 최고의 작곡가 - 이탈리아에서 청년시절에 유학을 했던 - 헨델이 오페라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헨델은 영국의 왕립극장에서 성공한 작곡가로서, 리날도를 시작으로 큰 성공을 하고 있었고, 리날도에서 나온 음악이 바로 그 유명한 '울게하소서' 입니다. 헨델의 곡들이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었고, 당시 영국은 헨델이 소속되어 있는 왕립극장과 오멜라 노빌리티라고 하는 사립극장이 라이벌관계에 있었습니다. 니콜라 포르포나가 이 오멜라 노빌리티의 지휘자이자 작곡가를 맡고 있어서 파리넬리가 거기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파리넬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니까 여성관객들이 무척 좋아하면서 미치는 관객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여성관객들이 'one 갓 one 파리넬리' 곧 신도 하나고 파리넬리도 하나다, 그 정도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카스트라토를 흔히 여성의 역할을 소화하는 남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성의 역할을 부른 가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카스트라토들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신성한 목소리를 내기에 히어로(영웅), 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웅장스럽고 모든 것을 제압할 수 있는 남성의 역할, 카스트라토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시장의 엔터테인먼트로 전락했지만 파리넬리처럼 성공한 카스트라토는 엄청난 부를 쌓아가면서 영국까지 진출을 해서 자신의 형, 리카르도의 오페라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빠르보나의 노래를 부르다 파리넬리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형의 노래가 테크닉적으로 매우 훌륭하고 화려하지만, 가볍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헨델이 작곡한 곡들은 너무나 기품이 있고 테크닉적으로도 훌륭해서 헨델의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데 자신의 독창회 때, 라이벌 극장에서 헨델의 레파토리를 부르는 놀라운 일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자 굉장히 야유를 받았지만, 파리넬리가 워낙 빼어나게 헨델의 노래를 소화해 내자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 지며 나중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헨델도 파리넬리에게 감동을 받은 장면을 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파리넬리는 스페인으로도 진출하여 스페인왕궁의 궁정가수가 되면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파리넬리라는 오페라계에 역사적인 캐릭터, 카스트라토라서 가능했던 일이었고, 카스트라토는 1870년에 이탈리아에서 금지가 됩니다. 마지막 카스트라토는 알레산드로 모레스키였습니다. 이 카스트라토의 목소리는 지금 음반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를 들어보면, 가장 낮은 파트가 테너의 하이파트와 같은, 즉 남성으로서 대단히 높은 목소리를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천상의 존재였던 카스트라토, 인륜에 위배되는 점 때문에 결국 금지가 되었고, 나중에 교황청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최고의 수출품이었던 카스트라토, 18세기 오페라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또 꿈과 같은 그런 무대를 만들어냈었는데요, 우리 시대의 카스트라토는 없습니다. 하지만 팔세토를 내는 카운터테너가 있지요. 카운터테너의 최고봉인 루이스 초이의 정말 화려한 음성으로 이 파리넬리가 불렀던 보이스테크닉을 여러분 모두 누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영화를 보셨다면, 이제는 뮤지컬을 보실 차례입니다.

부록6. 주제체험관

1. 음악극이란?

음악극이란 연극과 음악, 그리고 무용이 가능한 한 밀접하게 결합된 연주형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로는 오페라, 오페레타, 발레, 뮤지컬, 록 등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하겠으며, 나아가서는 한국의 민속이나 개척기 이후의 창작 등도 음악극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유신애교

Music drama, 극음악이라고 하며 리하르트 바그너가 그의 책 《오페라와 극 Oper und Drama》(1859)에서 처음 소개했고, 원래는 단순히 '극'이라고만 언급 되어 있다. 이 새로운 작품 양식은 극적인 전개에 완벽한 표현을 위해 음악과 더불어 민족 신화를 광범위하게 상징적인 형식으로 존경하는 민족적인 열망을 대중적으로 표현하기를 의도하고 있다.

— 리하르트 바그너

음악이라는 요소가 극의 중요한 일부로서 극과 대등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악극이다.

— 김성태

음악극은 음악을 극으로 표현하며, 언어나 설화를 의미와 음향의 2가지 코드로 취급하여 순수한 기악적 음향으로 극적 상태를 추구하는 장르를 말한다.

— 김성태

음악극은 기존 오페라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졌다. 독일의 오페라는 19세기 바그너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를 갖게 되었는데 이를 오페라와 구별하기 위해 '음악극'이라고 부른다.

— 김성태

음악극은 동시대성을 가지고 여러 장르의 결합이며 빠른 속도 변화와 나가는 열린 장르이다.

— 천우경

음악극은 여러 장르로 체계된다. '오페라 보다 극에 가깝다.', '연극이나 드라마가 아닌', '혼합양식은 아닌가', '하지만 음악극은 정밀한 개념이 아니다.'

— 김우진

음악극의 핵심은 하나의 원형으로 작용하는 '정신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것이 덧붙여지는 신화적 서사양식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음악극은 근원적 '정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되고 연결되며 통일체를 구성하는 유기적 발전이다.

— 김민기

동시대의 연극이 음악극이다.

— 시라영

음악극은 동시대성을 가지고 여러 장르의 결합이며 빠른 속도 변화와 나가는 열린 장르이다.

— 천우경

음악극은 여러 장르로 체계된다. '오페라 보다 극에 가깝다.', '연극이나 드라마가 아닌', '혼합양식은 아닌가', '하지만 음악극은 정밀한 개념이 아니다.'

— 김우진



음악극 창시자 바그너

1813년 5월,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출생한 음악극의 창시자 바그너 그는 뛰어난 작곡 능력이 있었지만 초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게다가 혁명의 참거야에 불기는 신화가 되어 망명생활을 하기도 하였는데도, 그 기간 동안 바그너는 기존의 오페라 양식에 모순을 느끼며 본인만의 독특한 세계를 구축한다. 극과 음악의 총합을 주장한 바그너, 그의 열정을 통해 음악극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바그너도 초기에는 위대한 고전적 오페라를 모방했다.



광명 생활을 하면서 그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생각의 기쁨에 집중했던 기존의 오페라에 모순을 느끼게 되면서 극이 음악적 행위를 볼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사와 무대에서 보여 지는 것의 본질은 음악에 의해 표현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려면 음악은 아니라 내용, 무용, 의상, 무대장치 등 모든 부분들이 융합되어야 했다.

바그너는 기존의 대본이 진부하다고 지적하면서,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부수적이고 불분명한 형용사 순간들이나 민위적인 언어 표현 등을 모두 없애고 두문자(二文字)를 사용하여 감정의 순수한 순간으로 압축한 문학적 표현의 선율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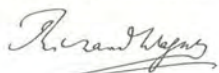
바그너는 무엇보다도 언어의 문제가 해결되 이텔리아 오페라에 대항할 독일 오페라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다. "이탈리아어 언어가 너무 수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독일어의 상대 구조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노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탈리아어 말고는 다른 어떤 언어도 모음들을 사용해도 더욱 감각적인 쾌락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그너는 이탈리아 오페라가 기본 구조로 삼았던 '카바레/세라타타'의 구분을 없애고, '무도동(Leitmotiv)'와 '무한선율(Unendliche Melodie)'을 발전시켰다.

'무도동'은 특정 인물이나 특정 장면이 되었을 때 나타날 때 그 인물이나 장면은 상징하는 선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만들어진 기법이다. 무리안와 레지타타의 본래가 사라지지만 이 무한선율은 둘은 사생활을 비로움도 도취상태에 빠지게 한다.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이런 무한선율의 특성이 극의 내용과 가장 잘 부합하는 드라마다.



리하르트 바그너 Wilhelm Richard Wagner



바그너의 삶

1813.5.22	독일 라이프치히	출생
1832	베를린	최초 부친인 헨스도르프(Heinrich) 작곡
1834	독일 라이프치히	제1차인 (Die Fiere) 작곡
1836	제1차인 (Die Fiere) 작곡	제1차인 (Die Fiere) 작곡
1837	대도원사 이사	대도원사 이사
1840	프랑스 파리	가극 상연으로 인한 불행에 도피
1841	(이탈리아)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1842	독일 뒤를스텐	인양하는 대영도인 (Die Fliegende Holländer) 완성
1843	(이탈리아) 베네치아	베네치아 베네치아
1844	인양하는 대영도인 (Die Fliegende Holländer) 초연	인양하는 대영도인 (Die Fliegende Holländer) 초연
1845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47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49	스위스 취치	취치에 정착하여 국외로 망명
1849-1858	인양하는 대영도인	취치 인양하는 대영도인 (Das Rheingold) (Die Walküre) (1849) 오페라의 3부작(Operntrilogie) 완성. 1851년 4월 19일 3부작의 완결을 위하여 베를린으로 망명
1859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과 뒤를스텐 (Tristan und Isolde) 완성
1861	독일 뮌헨	독일 뮌헨
1862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63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64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65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66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67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68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69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0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1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2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3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4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5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6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7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8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79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0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1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2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3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4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5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6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7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8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89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0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1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2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3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4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5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6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7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8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899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1900	독일 뒤를스텐	독일 뒤를스텐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



극장 제작 배경

1850년대에 바그너는 4부작 (니벨룽겐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를 공연할 극장을 물색했다. 그때 그는 고정적으로 오페라를 공연하는 극장을 만들어 고대 그리스 디오니소스 축제와 같은 음악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

1870년 4월 바그너는 아내 코지마와 함께 바이로이트를 방문했다. 그가 바이로이트에 매력을 느낀 이유는 우선 조용하고 한적한 소도시였기 때문이다. 일상적 번잡함을 추월 할아래고 오로지 음악에만 심취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



바이로이트에는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변강벽 극장(Marktaeifliches Opernhaus)이 있었다. 음성이 뛰어나고 무대가 넓은 극장이었다. 바그너 축제를 유치하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바이로이트 시의회에선 변강벽 극장을 이용해서 쓰라고 내놓았다. 하지만 오페스트라 피트가 18세기 바로크 오페라에 맞게 크게 설계된 것이어서 대관식 오페스트라를 필요로 하는 바그너 오페라엔 맞지 않았다. 결국 바이로이트의 지방 유지들이 축제 극장 신축을 도우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 당시 루트비히 2세와 얽여지게 된 바그너는 1871년 봄 베를린을 방문해 비스마르크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했으나 별 소식이 없었다. 그는 기금 마련을 위해 각 지역을 돌지만

큰 금액을 모으지 못하였다. 상심한 바그너는 어쩔 수 없이 옛 후원자 루트비히 2세를 찾아가 긴급 지원을 요청할 하여 극장 제작비를 지원받아 1876년에 완공하게 된다.

극장 구조

바이로이트 축제극장은 정면 파사드만 전향적인 19세기말 형식이고 나머지 외벽은 화려한 장식 없이 벽돌로 되어 있다. 대신 내장시설, 특히 무대 상반부는 최신 설비로 제작되었다.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 완공 후 사람들 대부분이 극장 값지 않다 라고 했다.



"앗 시리아의 대적해 같다" 코지마바그너 아내. "뿐이 내 개 달린 거대한 나벨룽-구조" 나체 "유물론 시대 조각상" 스토리텔링 "정화 시설이아기 보다는 동물 같다" 로만 울방



죽은 비스마치가 있었던 기존의 극장과는 다르게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은 죽은 오페라나 야에 얽여 모든 사람들이 청동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살아는 시야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객석 의자를 지그재그로 배치했고 경사도도 높였다. 또한 무대에 완전히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 공연 사상 처음으로 공연 도중 객석의 조명을 완전히 소등한 극장이었다.



바그너는 무대가 넓고 깊은 곳에 오페스트라를 배치하여, 청중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도록 하고 때로는 지휘자도 무대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오페스트라의 줄이 돌면 루트비히 친정에서 반향되는 간접음 객석에 전달되고 무대 위에 있는 가수의 소리는 직접음이 의해 명확히 전달되는 방법을 써서, 자신이 표현하는 음악과 문학이 결합하는 악극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지휘대에서 무대 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여섯 개의 계단 위에 아홉 줄로 악기를 배치했다. 지휘자와 합쳐질수록 낮은 위치에서 연주한다. 맨 앞줄의 왼쪽은 체라이올린, 오른쪽은 체바이올린, 3-4줄은 비올라, 5줄은 첼로, 콘트라베이스는 첼로 양쪽에 배치했다. 다음에 육관악기와 트롬. 맨 아래쪽에 금관악기와 타악기를 배치했다. 하지만 건사 때문에 지휘자와 단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잘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지휘자를 보면 관객은 '교를 신자들이 밀려 있다. 오페스트라 단원들을 위한 요지동이다. 녹색 불이 커지면 미울 높고 따듯하다. 노란색 불은 휴닝을 해리는 신호다.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객석 조명이 꺼지고 공연이 곧 시작된다. 조용히 하라는 얘기다.

2. 의정부음악극축제 소개



3. 기타 지시문



'음악극'
어디까지 들어보셨나요?

독일의 오페라 작곡가 바그너가 음악뿐 아니라 극의 내용, 무용, 의상, 무대장치 등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을 "뮤직드라마(Musickdrama)"라고 정의하며 음악극이 비롯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정부일까요? 의정부는 경계의 도시에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꽃 피운 도시로 음악극의 탄생과 발전의 모습이 의정부와 무척 닮아있습니다. 기존 대립의 전통 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발전시켰던 음악극처럼, 의정부 또한 음악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팔색조 매력을 가진 음악극에 대해 파헤쳐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14년,
그 시간을 말하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지금까지 14회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나라의 공연들이 매년 의정부에 방문하여 관객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요! 공연 외에도 아외공연, 체험프로그램, 음악극어워드, 전시, 예술교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즐거운 축제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14년 간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일상 속에서 마주한 피아노 for M!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나 열린 악기로 예술놀이터를 만들고, 따로 또 같이 연주하며 예술가와 시민들의 공연장을 만드네! 축제 기간 내내 분수무대에서 피아노를 마음껏 치기도 하고, 즐거운 공연도 펼쳐질 체험 프로그램! 전시 관람객에게 좋은 공연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체험이 가능합니다. 나만의 삶을 연주해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피아노 for M은 신, 그림을 통해 직접 피아노를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 14년 10월 10일 - 11일)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심내 공식초창작이 궁금하다고요?

주제관은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심내 공식초창작기(심내해리초창작인 4학년, 국내초창작인 3학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개막작 (심내해리, 40)부터 (도구두디디와 고고의 가디반), (하얀 눈발 호랑이), (노베렌도), (I on the sky), (사방의 역사), 그리고 폐막작인 (피라미드)까지 공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작품 특징을 살린 포토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 축제 주제인 "살을 연주하다" 테마에 맞게 그랜드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어 전시장에서 연주할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고 하네요! 바로 지금 확인해 보세요!



축제 상징

의정부음악극축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저! Mr.M 입니다! 그 외에도 축제 컬러인 핑크색, 음악극 등이 있는데요. 의정부음악극축제를 대표하는 상징이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전세계 음악극은 모두 모여라!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는 전세계의 다양한 음악극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4년 동안 방문한 국가들, 유럽국가부터 아시아국가까지 특색있는 공연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지금 의정부 음악극축제에 초청되었던 작품들을 국가별로 만나볼까요?



축제를 체험하자!

눈으로 보는 전시가 아닌 직접 체험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전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Mr.M과 함께 하는 포토존으로 가득한 체험관.

Make your M

올 여름은 물론이요 오는 14년 11월 14일(수)까지 Mr.M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음악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청은 14년 10월 10일 - 11일

14년 10월 10일 - 11일 14시 00분 - 15시 00분

Make with stamp

의정부음악극축제 주제를 주제로 한 스탬프를 직접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 14년 10월 10일 - 11일)



의정부음악극축제를 소개합니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매년 5월, 문화의 도시 의정부에서 펼쳐지는 국제공연예술축제입니다. 2002년 제1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개최 이래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국내외 우수 단체인 실내극 및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가극 등 세대의 차이를 아우르는 음악극을 선보이는 공연예술축제라고 할 수 있죠. 2019년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관객들을 찾아갈 올해 축제에서는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국내외 다양한 음악극들을 소개, 발굴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외공연과 다채로운 체험, 전시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tory of Mr.M

Mr.M은 음악극/영화/무용을 접하는 전 연령대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캐릭터입니다. 14년 10월 10일 - 11일 14시 00분 - 15시 00분 동안 의정부에서 펼쳐지는 '14년 10월 10일 - 11일 14시 00분 - 15시 00분' 기간 동안 Mr.M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4년 10월 10일 - 11일 14시 00분 - 15시 00분 동안 의정부에서 펼쳐지는 '14년 10월 10일 - 11일 14시 00분 - 15시 00분' 기간 동안 Mr.M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4년 10월 10일 - 11일 14시 00분 - 15시 00분 동안 의정부에서 펼쳐지는 '14년 10월 10일 - 11일 14시 00분 - 15시 00분' 기간 동안 Mr.M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록7. 자문위원회 회의록

- 장소 : 의정부예술의전당 영상감상실
- 날짜 : 2015년 3월 5일(목)
- 시간 : 10:30 ~ 12:00
- 참석자 : 집행위원장, 총감독 등 사무국 직원 8명, 자문위원 총 14명

[홍철욱 수원문화재단 축제기획단장] 의정부음악극축제와 마찬가지로 수원국제연극제도 올해부터 명칭을 변경해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라인업까지 확정되어 부지런한 추진력이 부럽다. 올해 축제가 기대된다.

[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 소장] 로고와 포스터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다. 글로벌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로 전국적으로 봐도 탐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갈수록 쉽지 않은 작품들로 축제가 어렵게 가는 느낌이다. 음악극축제는 개/폐막작에 의존해 홍보되는 경향이 있다. 시민축제가 보단 예술전문축제라는 인상을 받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과 멀어지는 일이다. 문화적 불모지였던 의정부에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에 음악극축제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개막 즉흥잼콘서트를 빨리 확정시켜 주력 홍보 수단으로 삼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수범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 핵심은 공연예술+축제이다. 예술성과 대중성을 같이 안고 가야 하는데 작년에 환골탈태하려 했으나 세월호 때문에 축소/취소된 부분이 있어 올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을 끌어 들여 예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양한 아마추어 단체 등에 경쟁을 붙여 무대에 서게 해주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이재원 원주 다이나믹페스티벌 총감독] 음악극축제가 국내에서 유일하다고 하여 오리지널리티를 가진다고 봤을 때 의정부의 정체성은 과연 이 축제에 들어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개/폐막식도 자체제작이 아니라 갖고 오는 것이다 보니 이 축제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무언가 표현할 수 있는 주제공연이 반드시 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요즘 어린이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참 많다. 부속으로 어린이음악극축제 같은 것을 기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미래세대에게 음악이라는 친구를 주면서 축제를 장수시키는 데 기여하려면 이런 킬러 콘텐츠가 필요해 보인다.

[오용수 경기관광공사 본부장] 제1고객인 의정부시민에게는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가장 먼저다. 라인업 작품들이 시민에 다가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SNS 매체 등을 통해 작품 하나하나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그냥 '축제'에 대한 흥미로 오는 분들에게는 먹거리 등 기획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극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겠다. 관광객의 경우 장기적 시야로 봤을 때 '음악극축제' 자체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 여러 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매스컴 투어나 여행사의 테마투어가 있다. 미리 조사해 제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손상원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예술성만 추구했다는 의견이 있지만 완성도 있는 작품을 찾으려면 어쩔 수 없다. 의정부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공연)이 없으면 오지 않아 예술성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내 유일한 음악극축제인 만큼 새로운 예술가들이 이곳을 통해 출발하고 창작의 터가 되는 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서우석 서울시립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음악극축제는 예술의 불모지에서 예술성 있는 축제를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역설적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그 간극을 극복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보인다. 음악극살롱이 예술가들을 위한 장 마련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보통 삼삼오오 모여 담소 나누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계획이 마련돼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면 아주 좋을 것 같다. 타 축제에서 SNS를 통한 홍보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미디어 관계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없었는데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대중성에 대한 문제는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프라이드'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술적인 축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정원 신한대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교수] 말러메니아 같은 경우 TIMF 앙상블이 나오는 만큼 3월에 진행 되는 통영국제음악제와 연계해서 프로모션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본다.

[홍철욱 수원문화재단 축제기획단장] 훌륭한 작품을 보면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는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핵심적 요소인 '예술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음악극축제에서 이전에 시민참여 주제공연을 제작한 바 있지만 완성도도 부족하고 보는 입장에서 쉽지 않았다. 때문에 완성도 높고 작품성 있는 것으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

[윤종연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개막 프로그램 '삶을 연주하다'는 기발한 프로그램으로 보이나 준비단계에서 힘이 실리지 않은 느낌이다.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 설치미술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음악극축제이다 보니 '소리'도 설치미술에 넣어 사운드 아트 등을 기획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오순환 용인대 문화관광학과 교수] 에든버러에 가니 사람을 들뜨게 하는 건 거리, 극장공연은 생각해야 하는 작품 / 가볍게 즐기는 공연으로 갈린다. 생각해야 하는 작품은 끈들이 가야 이해할 수 있고, 일반 인에겐 어렵지만 하다. 철저히 영역을 나누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에든버러의 성공요인인 것 같다.

[송대섭 홍익대 미술대학 교수] 시민프로그램이 없다면 '축제'라는 단어도 빠져야 하고 '의정부'라는 단어도 빠져야 한다. 단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기획프로그램일 뿐이다. 대중성이 차단되어 있는 부분은 반드시 돌파가 필요하다. 공모를 통해 일반인의 접근을 높이자. 상금이 아니라 악기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획이 가능하다고 본다.

[양원모 경기문화재단 문예지원팀장] 우리나라 학부형은 예술적 가치보다 교육적 가치를 더 중시 여긴다. 곧 교육적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극 사전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세계에 음악극 사전이 있다면 수고를 들여 번역 등을 해보면 될 것이고, 없다면 여기서 최초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 중에 한 중요한 파트로 의정부음악극축제의 15년 연보를 넣어 소개하자. 그 시대상을 읽으며 시대 동력을 읽고 주요 예술가를 소개하는 등의 기능을 하면 좋겠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체험관 도슨트는 대상(연령)별로 수준을 맞춰 내용을 달리 하면 방문객이 크게 만족할 것이다. 음악극살롱은 아주 좋은 기획으로 보인다. 음악극살롱이 음악극 사전을 제작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원 신한대 글로벌관광경영학과 교수] 이런 예술성 있는 축제가 있다는 것에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지만 그와는 별개로 '나와는 상관 없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편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해 보인다. 대학 공연예술학자들은 보통 1년에 2번씩 공연을 올린다. 이런 단체에 무대를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진배 의정부예술의전당 2대 사장 /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회장] 역시 질문은 하나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문제다. 의정부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걸 찾아왔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 첫 회 준비할 때부터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들어왔다. 끝없는 고민이 될 것이다. 첫 취지는 작품성 있는 음악극을 소개하는 것 등에 있었다. 예술이 발전한 문화에서는 고급예술이 편하고 쉽다. 문화 수준이 낮은 곳에서 예술이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되는 거다. 우리의 목표는 고급예술을 어려워하지 않고 편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초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수준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예술영화관에 사람들이 찬다. 그게 매니아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다. 작품들이 너무 어렵다고 애초에 매니아만 노린다는 식으로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수준은 높다. 전문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관객과의 대화 : 많은 공연들에서 다 하지만 다른 축제에서와 달리 음악극축제에서 가장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부산국제영화제도 이렇지 않다. 이번에 다시 그 심도 있는 대화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해외에서 오는 연출가를 썩히지 말자. 신문 방송에 출연을 시키든 워크숍을 마련하든 대한민국 공연예술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포스터의 미스터리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검정색이었던 예전과 달리 밝아지고 춤도 추고 경쾌해진 것 같다. 좋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민은 애 키우기와 같다. 수준의 고저를 떠나 익숙해져야 내 영역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이훈] 예술성을 낮춰서 대중성을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겠다. 예술성을 갖고 있으면서 축제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 예술에 가깝게 접근하게 하고, 프린지를 보러 온 사람들이 전당으로 들어오고, 공연을 볼 수 있는. 예술이 놀이로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축제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부록8. 관람객 평가 설문지

의정부음악극축제 설문조사(아외 행사 참가자 대상용)

1.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보셨거나 혹은 보실 예정인 실내 초청공연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① 말러애니아 ② 사랑의 역사 ③ I on the sky ④ 도자두
 ⑤ 파리넬리 ⑥ 노베첸토 ⑦ 하얀눈썹호랑이

2.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보셨거나 혹은 보실 예정인 아외 초청공연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① 스트리트 서커스 ②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③ 밋, 날다 ④ 더 체어
 ⑤ 팔팔라쇼 ⑥ 퇴근 후에 ⑦ 반대편 신사 ⑧ 당나귀 그림자 재판

3. 귀하가 이번 축제에서 참여했거나 참여할 예정인 활동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아외 공연(프린지) ② 시네마M(심야영화제) ③ 주체체험관 ④ 관객과의 대화
 ⑤ 체험프로그램(분필아트로드) ⑥ 유적터널M(타일그리기체험) ⑦ 먹거리 ⑧ 풀리마켓
 ⑨ 시민참여프로그램(삶을연주하다) ⑩ 기타 ()

4. 참가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대로	매우 그대로
1	공연에 관심이 많아서	1	2	3	4	5
2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1	2	3	4	5
3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해	1	2	3	4	5
4	새롭고 색다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1	2	3	4	5
5	즐거워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1	2	3	4	5

5. 축제에 관한 평가입니다. 번호에 체크해 주십시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대로	매우 그대로
1	축제 안내경보가 잘 되어 있었다.	1	2	3	4	5
2	실내공연은 음악극 정체성에 적합하였다.	1	2	3	4	5
3	실내공연은 예술적 수준이 높았다.	1	2	3	4	5
4	축제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었다.	1	2	3	4	5
5	축제진행은 원활하게 운영되었다.	1	2	3	4	5
6	축제 공간은 경쾌하고 쾌적했다.	1	2	3	4	5
7	아외 공연은 재미있었다.	1	2	3	4	5
8	화장실은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리했다.	1	2	3	4	5
9	어린이/노약자/장애인 시설이 준비되었다.	1	2	3	4	5
10	휴식공간(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었다.	1	2	3	4	5
11	체험프로그램은 재미있었다	1	2	3	4	5

12	접근성과 주차시설 이용은 편리했다.	1	2	3	4	5
----	---------------------	---	---	---	---	---

6. 다음은 주제체험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축제 캐릭터인 Mr. M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2	3	4	5
2	올해의 축제주제(삶을 연주하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1	2	3	4	5
3	의정부 음악극축제의 역사를 알게 있었다	1	2	3	4	5
4	의정부에 왜 음악극이 생겼는지 알게 되었다	1	2	3	4	5
5	음악극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1	2	3	4	5
6	전시체험관은 재미있었다	1	2	3	4	5
8	전시체험관은 구성이 잘 짜여져 있었다	1	2	3	4	5

7. 다음은 전체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의정부음악극축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2	내년에도 이 축제를 방문할 것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에게 이 축제를 추천할 것이다	1	2	3	4	5

8. 하루 평균 축제장에 머문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약 () 시간

9. 본 축제에서 지출하신(지출하실) 비용은 얼마입니까? 본인 포함하여 ()명 지출

교통비 (주유비, 주차료, 대중교통요금 등)	원	유희비(축제장 밖에서 지출한 관람료, 노래방, 술값 등)	원
식음료(축제 개최지에서 지출한 음식값, 음료비 등)	원	쇼핑비 (축제 기념품, 특산품 구입비 등)	원
숙박비(모텔, 민박, 펜션 등)	원	기타(공연비, 체험비, 입장료 등)	원

10. 다음은 응답에 참여하시는 귀하의 인구사회통계적 특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 세	참가회수	을해모화()회
정 보 원 (모두표시)	① TV·라디오 ② SNS/호페이지 ③ 버스/지하철광고 ④ 옥외홍보(포스터/점수막/배너)	⑤ 언론(신문/온라인) ⑥ 리플릿 ⑦ 주위사람(구전) ⑧ 기타(구체적:)			
동행유형	① 혼자 ② 가족과 함께 ③ 친구/동료/애인과 함께 ④ 단체관광 ⑤ 기타 ()				
거 주 지	() 특별(광역시) () 구, 또는 () 도 () 시				

의정부음악극축제 설문조사(실내공연 관람자 대상응)

1. 귀하의 축제 참여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움	매우 그려움
1	공연에 관심이 많아서	1	2	3	4	5
2	공연예술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	1	2	3	4	5
3	문화예술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1	2	3	4	5
4	새롭고 색다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1	2	3	4	5
5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1	2	3	4	5

2. 의정부음악극축제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움	매우 그려움
1	축제 안내 정보가 잘 되어 있다.	1	2	3	4	5
2	공연은 음악극 경제성에 적합하였다.	1	2	3	4	5
3	공연은 예술적 수준이 높았다.	1	2	3	4	5
4	축제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었다	1	2	3	4	5
5	축제진행은 원활하게 운영되었다.	1	2	3	4	5
6	축제 공간은 경결하고 쾌적했다.	1	2	3	4	5
7	아이 공연은 재미있었다.	1	2	3	4	5
8	화장실은 깨끗하고 이용하기 편리했다.	1	2	3	4	5
9	어린이/노약자/장애인 시설이 준비되었다.	1	2	3	4	5
10	휴식공간(휴게실, 벤치 등)이 잘 되어 있었다.	1	2	3	4	5
11	체험프로그램은 재미있었다	1	2	3	4	5
12	접근성과 주차시설 이용은 편리했다.	1	2	3	4	5

3.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극축제는 ~을 제공하였다. / ~에 도움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려움	매우 그려움
1	음악극과 관련한 독특한 공연예술을 제공하였다	1	2	3	4	5
2	수준높은 공연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	2	3	4	5
3	공연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1	2	3	4	5

4	공연예술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5	문화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6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	2	3	4	5
7	최신 공연예술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8	다른 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5
9	다른 문화예술 활동에도 참여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	3	4	5

4.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역할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대로	매우 그렇음
1	의정부의 이미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	1	2	3	4	5
2	의정부를 좀 더 문화예술적인 도시이미지로 변화시키는 역할	1	2	3	4	5
3	의정부의 이미지를 좀 더 문화적 축제분위기로 변화시키는 역할	1	2	3	4	5
4	의정부의 이미지를 좀 더 품격있는 현대문화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역할	1	2	3	4	5
5	의정부의 이미지를 좀 더 창조적인 문화의 도시로 변화시키는 역할	1	2	3	4	5
6	시민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	1	2	3	4	5
7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게 하는 역할	1	2	3	4	5
8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역할	1	2	3	4	5
9	의정부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	1	2	3	4	5
10	의정부가 국제적인 평판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	1	2	3	4	5
11	의정부 시민이 지역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역할	1	2	3	4	5
12	지역의 문화예술인을 양성하는 역할	1	2	3	4	5
13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1	2	3	4	5

5. 축제에 대한 전체적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대로	매우 그렇음
1	의정부 음악극축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2	내년에도 이 축제를 방문할 것이다	1	2	3	4	5
3	다른 사람에게 이 축제를 추천할 것이다	1	2	3	4	5

6. 하루 평균 축제장에 머문 시간은 몇 시간 입니까? 약 () 시간

7.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 별	① 남	② 여	연 령	() 세	참가회수	올해 포함()회
정 보 원	① TV·라디오 ② 인터넷 ③ 버스광고 ④ 옥외홍보(포스터/현수막/배너) (모두표시) ⑤ 지면(신문·잡지) ⑥ 리플릿 ⑦ 주위사람 소개 ⑧ 기타 (구체적:)					
동반유형	① 혼자 ② 가족과 함께 ③ 친구/동료/애인과 함께 ④ 단체관광 ⑤ 기타 ()					
교육수준	① 중졸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 졸업(전문대 포함) ④ 대학원 졸업					
연 가 구	① 2천만원 미만 ② 2천~4천만원미만 ③ 4천~6천만원미만					
소득수준	① 6천~8천만원미만 ② 8천만원 이상					
거 주 지	() 특별(광역시) () 구, 또는 () 도 () 시					
e-mail						

| 부록 9 |

언론보도 리스트



의정부, 음악극축제

1. TV (16건)

NO	보도날짜	언론사	프로그램	내용
1	2015-01-28	KBS	뉴스광장 (경인)	2015년 이 공연 기다려진다
2	2015-01-28	KBS	뉴스9 (경인)	2015년 이 공연 기다려진다
3	2015-04-16	C&M우리방송	CH1 NEWS	의정부음악극축제 알리기에 나서
4	2015-04-16	의정부공감TV	시정뉴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광화문 홍보 및 거리공연
5	2015-04-23	OBS	경인세상	의정부음악극축제, 다음달 8일 개막
6	2015-04-29	C&M우리방송	CH1 NEWS	[의정부시] 음악과 극의 향연, 오는 5월 8일 막 올라
7	2015-04-30	KBS	뉴스9 (경인)	풍성한축제 '짜릿한 감동'
8	2015-05-01	KBS	뉴스광장 (경인)	풍성한축제 '짜릿한 감동'
9	2015-05-04	MBC	문화사색	[문화&이슈 금주의단신]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10	2015-05-06	SBS	뉴스 > 라이프	[FunFun 문화현장] [의정부 음악극축제 / 8일 ~ 17일 / 의정부 예술의 전당 등]
11	2015-05-08	KBS	사회	[단신뉴스] 의정부 음악극 축제 개막
12	2015-05-13	C&M우리방송	우리뉴스	[의정부시] 의정부음악극축제 화려한 막 올라
13	2015-05-15	의정부공감TV	시정뉴스	제 581회 시정뉴스
14	2015-05-18	MBC	문화사색	[문화트렌드X] 음악극 <말러매니아>
15	2015-05-19	MBC	TV예술무대	117회 - 음악극 <말러매니아>
16	2015-06-05	CJ헬로비전	우리동네 보고서	[우리동네 보고서] 35회 의정부시 음악극축제



2015-01-28 [문화N경인] 2015년 이 공연 기다려진다



<앵커 멘트>

올해는 어떤 멋진 공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충격적인 연출로 시선을 사로잡는 무용극과 천재 작곡가를 집중 탐구하는 음악극과 클래식 공연 등 기대되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이번주 문화인 경인은, 올해 경기 인천지역에서 펼쳐지는 놓치기 아까운 화제작들을 소개합니다. 송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략)

클래식 음악계의 영원한 화두 구스타프 말러. 이 천재 작곡가의 삶을 음악극으로 풀어낸 '말러메니아'입니다. 아시아 초연으로 오는 5월 의정부 국제음악축제의 개막작으로 선보입니다.

(후략)



〈앵커 멘트〉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화사한 5월, 경기도가 자랑하는 대표축제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수원 연극제,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올해는 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불만한 주요 작품들, 송명훈 기자가 미리 소개합니다.

〈리포트〉

(중략)

(영원한 안식,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카스트라토의 비극적 운명을 담은 국내 창작뮤지컬 '파리넬리'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초청한 폐막작입니다. 올해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삶을 연주한다' 는 주제 아래 '말러 매니아', '사랑의 역사' 등 국내외 50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인터뷰〉 박형식(의정부 예술의전당 사장) : "예술 장르만 가지고 공연을 위주로 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의 한 번 5월에 쏟아지는 풍성한 문화 잔치, 그 짜릿한 축제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2015-05-13 [의정부시] 의정부음악극축제 화려한 막 올라



의정부음악극축제 화려한 막 올라



의정부음악극축제 화려한 막 올라



김은영 **제1회 정기제 / 의정부 흥민들**



이훈 **음악극 /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6개국 80여회 공연 열려



박정식 **시당 / 의정부음악극축제**



아외거리공연도 풍성하게 마련



상하위 / 한도
음악극축제 그림도 구경도 하면서 다양한 그림이 많이 그려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다른 문화도 하고 있어서요. 여기 너무 재미있어요



권사 / 마약
많은 음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문화를 쉽게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앵커멘트〉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지난 9일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들이 주인공이자 관객이 되는 시민밀착형 공연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병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중에게 익숙한 노래가 어린이들의 합창으로 무대에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악기를 가져와 함께 연주하는 즉흥잼 콘서트입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모인 150여명의 시민들이 일주일간 연습을 통해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식 무대를 꾸민 겁니다.

〈중략〉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아외 거리공연도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관객이 주인공이 돼 퍼레이드와 공연 전시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와 스트리트 서커스, 댄스매직 퍼포먼스 등 40여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였습니다.

int, 박동빈 / 서울 용산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재밌고 보고 즐기고 먹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좋았던거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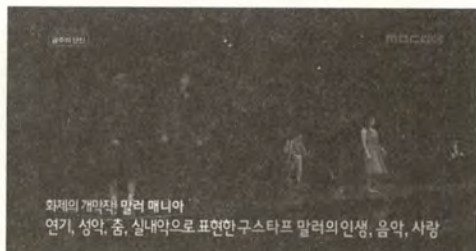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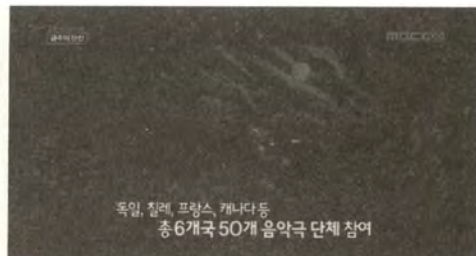
〈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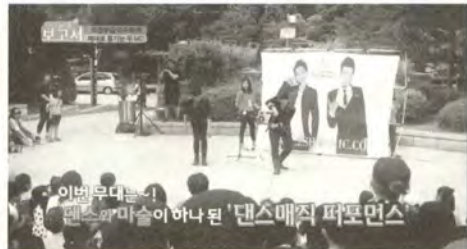
2015-05-06 [FunFun 문화현장] 의정부 음악극축제



2015-05-04 [문화사색] 문화&이슈 금주의단신-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2015-06-05 [우리동네 보고서] 35회 의정부시 음악극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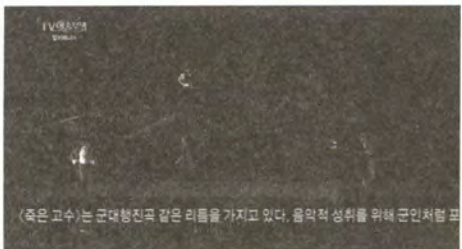
MBC

2015-05-18 [문화사색] 문화트렌드X - 음악극 <말러매니아>



MBC

2015-05-19 [TV예술무대] 117회 - 음악극 <말러매니아>



2. 라디오 (15건)

NO	보도날짜	언론사	프로그램	내용
1	2015-01-29	경기방송	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2	2015-04-16	경기방송	뉴스	"우리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음악극축제 5월 개막
3	2015-04-29	tbs eFM	1013 Main Street	지휘자 Moritz Gnann 인터뷰
4	2015-04-13			
5	2015-04-14			
6	2015-04-15		장일범의 가정음악	〈말러매니아〉 공연 초대 이벤트
7	2015-04-16			
8	2015-04-17			
9	2015-04-20	KBS 1FM		
10	2015-04-21			
11	2015-04-22		세상의 모든음악	〈말러매니아〉 공연 초대 이벤트
12	2015-04-23			
13	2015-04-24			
14	2015-05-14	경기방송	클릭경기북부	의정부음악극축제 현장 스케치
15	2015-05-14	경인방송	뉴스플러스	[웰컴투 경기북부] 5월 14일 〈의정부 음악극 축제〉 현장

3. 중앙언론 (39건)

NO	보도날짜	언론사	내용
1	2015-01-29	아주경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문광부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2	2015-01-29	천지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문체부로부터 1억원 지원
3	2015-01-29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2년연속 관광자원사업 선정
4	2015-03-05	아주경제	의정부음악극축제 온라인 티켓 판매 '시작'
5	2015-03-06	매일일보	의정부 국제음악극 초청작 관람표 판매 시작
6	2015-03-10	서울문화투데이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오는 5월 8일 개최
7	2015-03-26	파이낸셜뉴스	돌아온 연극·음악극 축제의 계절
8	2015-03-27	코리아타임즈	AROUND TOWN
9	2015-04-01	한겨레	중고물품 기증하세요 음악극 티켓 줍니다

10	2015-04-03	코리아타임즈	AROUND TOWN
11	2015-04-03	한국일보	봄은 클래식 봄
12	2015-04-13	내일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 알리기 나서
13	2015-04-15	서울문화투데이	의정부음악극축제, 축제로 축제 알리기 나서
14	2015-04-16	내일신문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음악극축제
15	2015-04-16	문화일보	음악으로 연주하는 우리의 삶, 나의 삶
16	2015-04-16	서울경제	선율에 담은 '인생 이야기' 들어보세요
17	2015-04-16	천지일보	[경기-의정부시]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일 개최
18	2015-04-17	아시아투데이	말라부터 파리넬리까지 음악극으로 즐겨볼까
19	2015-04-18	아시아경제	[문화 캘린더] 말라'에서 '파리넬리'까지...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20	2015-04-20	세계일보	올해로 14주년을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내달 8~17일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과... (단신기사)
21	2015-04-20	스포츠서울	"삶을 연주하다" 다음달 8~17일 의정부음악극축제
22	2015-04-20	여행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23	2015-04-23	헤럴드경제	의정부음악극축제, 5월의 의정부를 예술과 음악으로 흥뽐 적신다
24	2015-04-24	아시아일보	경기도 10대 축제'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25	2015-04-27	국민일보	대사보다 드라마틱한 선율.. 축제의 계절 5월, 음악극의 유희에 빠져보자
26	2015-04-27	아시아타임즈	의정부시, 음악·예술로 물든다 - 음악극축제 내달 개막,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선보
27	2015-04-28	스포츠조선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17일 개최
28	2015-04-28	아시아타임즈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일 개최
29	2015-04-29	매일일보	5월 8일~17일,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30	2015-04-29	서울문화투데이	'삶' 한편의 교향곡에 비유 <의정부음악극축제>
31	2015-04-29	아시아타임즈	의정부음악극축제, 예술 혼으로 5월 흥뽐 적신다
32	2015-04-29	한겨레	사랑과 애증, 고뇌.. 말라 '인생 교향곡'
33	2015-04-30	서울일보	봄의 도시 핑크빛으로 물들이다
34	2015-04-30	서울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35	2015-05-01	코리아타임즈	Classical Concerts Pop & Jazz Big Tickets Museums Plays & Musicals Dance
36	2015-05-06	매일경제	성공한 지역축제 찾아온 베를린 오페라
37	2015-05-06	파이낸셜뉴스	우수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한다..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38	2015-05-08	경향신문	교향곡과 함께 펼쳐지는 말라의 '사랑과 전쟁' ...
39	2015-05-20	서울문화투데이	의정부음악극축제 폐막

한겨레

2015년 04월 02일 목요일 012면 수도권

중고물품 기증하세요 음악극 티켓 줍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150장 제공 '말러마니아' 등 초청작품 관람

"중고 물품 기증하고 음악극 공연 관람하세요."

경기도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는 5월8-17일 열리는 축제에서 총 150장의 '착한 티켓'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중고 물품은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악기나 음악 관련 도서, 음반 등과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생활잡화 등으로 20일까지 축제 누리집(www.umf.or.kr)에서 접수한다. 기증받은 물품은 모두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된다.

착한 티켓으로는 개막작인 <말러마니아>나 <사랑의 역사> 등 국의 초청 4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10만원

에 공식 초청작 7편을 모두 볼 수 있는 '절대 티켓'도 판매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인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삶을 연주하다'란 주제로 6개국 35개 단체가 80여차례 공연에 나선다. 개막작인 독일 작품 <말러마니아>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성악가와 무용수,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연극과 클래식의 만남이 돋보인다. 8-9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폐막작은 가수 고유진과 성악가 루이스 초이가 캐스팅돼 화제를 모은 국내 창작뮤지컬 <파리넬리>가 선정돼 16-17일 무대에 오른다. 의정부음악극축제 관계자는 "가격 장벽을 낮춰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특별티켓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ria@hani.co.kr

파이낸셜 뉴스

The financial news

2015년 3월 26일 목요일 문화 29면

돌아온 연극·음악극 축제의 계절

내달4일부터 서울연극제 한국 근현대사 다룬 작품 공연 5월엔 의정부음악극축제 국내의 다양한 작품 만날 기회

한국의 근현대사와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삶이 무대 위로 옮겨진다. 올해 각각 36회와 14회를 맞은 서울연극제와 의정부음악극축제를 통해이다. 일제강점기부터 민주화를 지나 현재까지, 구스타프 말러부터 파리넬리까지 시대와 예술가를 무대 위에 총망라한다.

서울연극제는 '연극인 시대의 정신적 화망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 30여편의 프로그램 가운데 공식 참가작 7편은 연극계의 슬로건에 걸맞게 일제강점기부터 민주와 투쟁기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뚜렷한 작품들로 선정했다.

민중 사회·정치에 무관심하던 청년이 시 간여향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 만나게 되는 '불평불만' (4월 23일-5월 3일 대학로자유극장)이 1920년대의 돈을 연다. 이어 1923년 권동제지전에서 역술하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작 '말러마니아'

막심당한 조선인을 기리며 일본 제국주의의 이면성을 고발하는 '불의노래' (5월 3-9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1940년대 공을 안고 만주로 떠난 젊은이들의 역사와식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만주전선' (4월 4-15일 대학로자유극장), 6-25 전쟁을 배경으로 현대사회에서도 유의미한 경쟁사회의 단면을 그린 '백합' (4월 4-12일 동양예술극장)까지 한국의 근대사를 아우른다.

'동·중기 보낸 예고부고장' (4월 23-25일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부터는 한국 현대사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 작품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 이념과 사랑이 대립하는 가운데 지대한

사랑을 했던 한 남자를 통해 사랑이 진정한 가치임을 상기시킨다. '돌아온다' (4월 16-26일 동양예술극장)는 현대의 불거진 가족의 모습을 통해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사는 청춘들의 화려했고 상처를 담은 '봄은 간다' (5월 7-17일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가 연극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삶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삶을 음악극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개막작 '말러마니아(Mahlermania)' (5월 8-9일),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고향, 그의 아내 알마 원들러와의 사랑에 그린다. 말러의 대표작인 '대지의 노래' 등 클래식 연주극의 편성을 아낌없이 연기, 성악, 무용이 영상물을 이룬다. 폐막작으로 무대에 오르는 창작뮤지컬 '파리넬리' (5월 16-17일)도 이번 축제의 절정이라 볼 수 있다. 자세한 남자 소프라노인 카스트로파 파리넬리의 화려한 실의 이면을 그린 작품으로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뮤지컬 우수작품으로 선정돼 호평을 받았다.

이혜재 기자

문화일보

음악으로 연주하는 우리의 삶, 나의 삶

내일 8일 의정부 음악극축제

올해로 14주년을 맞는 의정부 음악극축제가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삶을 연주하다'를 주제로 예술가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을 공연과 전시 등으로 표현한다. 개막작은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그의 아내 알마 쾰러의 인생 여정을 담은 음악극 '말러메니아'로 5월 8, 9일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폐막작은 흔히 파리넬리로 알려진 카스트라노(가세린 남성 소프라노)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국내 창작 뮤지컬 '파리넬리'(5월 16~17일)다.

무대예술과 멀티미디어, 고전 만화 등을

2015년 04월 16일 목요일 023면 문화/교육

함한 장르의 멀티미디어극 '사랑의 역사'(5월 12~13일)도 기대된다. 프랑스 소설가 레조프레의 동명 소설을 무대로 옮긴 것으로 한 남자의 비틀어진 사랑, 집착과 광기, 이로 인해 파멸로 치닫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앞쪽과 뒤쪽에 설치된 스크린을 이용한 배우의 연기는 마치 인물들이 만화 속 캐릭터인 것처럼 표현된다. 바흐의 음악을 배경으로 한 무극극 '아이 온 더 스카이'(1 on the sky-가나디 퀘벡), 어린이 국악 뮤지컬 '하얀 눈썹 호랑이'(한국), 재즈 피아니스트 파올로와 배우

조란수가 하모니를 이루는 '노베첸토' (한국),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올리브로 두 남자의 기다림을 유머러스하게 담아낸 '도자두: 디와 고도의 기다림'(프랑스)도 무대에 오른다.

말러메니아(5월 8일)와 사랑의 역사(5월 12일)는 공연 후 배우, 스태프와 대화하는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은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www.umtf.or.kr)를 참고하면 된다.

최현미 기자 chm@

경향신문

2015년 05월 08일 금요일 022면 문화

의정부음악극축제 오늘 개막

교향곡과 함께 펼쳐지는 말러의 '사랑과 전쟁'

14회째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5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에는 6주에 걸쳐 15개 단계를 공식주최작으로 펼친다. <말러메니아>와 같은 또 자유형가극과 이와관련까지 포함하면 모두 80여종의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개막작으로 공연되는 <말러메니아>는 8~9월까 주축을 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활약하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그의 아내 알마의 이야기를 배우와 성악가,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로 표현한다. 연기, 성악, 무용,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공연이다. 독일의 베를린 도이체 오페라극장과 공연한다. "나코 엔 더 내르케네이스"가 팔려 서거 100주년(10/11)에 맞춰 재치된 작품으로 한국에서는 첫 공연이다.

말러의 알마의 사랑과 갈등이라는 줄거리와 함께 알마의 주축같은 음악들이 거의 실없이 흘러나온다는 점이 이 음악극의 매력으로 손꼽힌다. 교향곡 1번의 3악장에서 기꺼이 물러나지는 콘트라베이스, 이어지는 세속의 영지시, 또 서정미의 베이스로 손꼽히는 교향곡 5번의 느린 4악장 등을 '작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한국에 한국의 TMAP앙상블과 리아비로 선보인다. 교향곡 외에 가곡도 10여곡 연주된다. <명왕성은 끝없는 노래> 중 "그녀의 결혼식"과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중 "나는 아이들이 잠깐 반으로 늘러 나갔고"과 <생각하지>, <위계로 가는> 중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 등 말러의 가곡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틱한 곡들이다.



창작 극단 '헤이브르 시네마'가 선보이는 <사랑의 역사>(12~13일)도 이번 축제의 기대작 가운데 하나다. '헤이브르 시네마'는 연희, 예니메이션, 사진, 음악 등 총체적으로 활용하는 멀티미디어극을 구사한다. <사랑의 역사>는 프랑스 소설가 레조프레의 동명소설을 연극과 영상이 결합된 무대로 옮겨놓고 있다. 캐나다 퀘벡의 '가나디노 피아니노'가 내한해 선보이는 <1 on the sky>(10일)는 5명의 배우들이 무대를 둘러싼 신화언어로 극을 이끌어간다. 마임과 여극, 버라이어티, 서커스, 무용 등이 결합된 음악극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있다.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 바흐의 음악을 배경으로 사울하는 정도 흥미롭다. 프랑스 2인극 단 '도자두'는 시위정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림>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1 on the sky>(16~17일)를 공연한다. 불리디미르(디디와 예스트라)라고 '고도' '고도'라는 인물을 하얏팅이 기다리는 신세계이다. 삶의 의로움과 권태, 그런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희정정 두 배우의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한다. 국악뮤지컬집단 '타무'의 <하얀 눈썹 호랑이>는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다. 극단 '가미'가 선보이는 음악극 <노베첸토>(14일) 이번 축제의 폐막작으로 공연되는 창작 뮤지컬 <파리넬리>(16~17일)도 기대작으로 꼽힌다.

문화수 선임기자 se2her@kookje.com

개막작 '말러메니아' 한국서 초연 성악·연기·춤·오케스트라 앙상블 참여 말러극 '사랑의 역사'도 눈길

서울문화투데이

2015년 5월 17일 수요일 Local Culture 15면



▲ 연극 '사랑의 역사'와 함께 음악극을 관람하는 시민들

의정부음악극축제, 화려한 피날레

10만 시민 참여로 모두 하나 된 축제의 장 마련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이하 축제)는 5월 8일부터 17일 헤이브르시네마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5일 개막부터 열흘 동안 진행한 클래식 음악극 축제는 총 6개국 50여작을 80여회 공연을 선보이며 40여종의 전시·체험·시연이 프로그램에 마련해 어느 때 보다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전체 관람객 약 10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극장공연 7개 작품의 평균 객석 점유율은 약 85%. 일부 공연의 경우 객석을 기록했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그의 아내 알마의 인생여정을 담은 개막작 <말러메니아>는 연기, 무용,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결합된 무대는 음악극의 정점을 보여줬다.

가세린 소프라노 카스트라노의 드라마틱한 삶을 유적한 탕무시극 <파리넬리>는 85%라는 높은 객석 점유율로 막을 내렸다.

또한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거대한 시민들의 놀고 귀를 사로잡으며 흥성을 불러일으킨다.

단순히 공연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관객에게 예술을 보다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예술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감독의 협력예술가'로 5일 열흘 동안 공연한 가·세아 공연단 10년 역사를 재검토하며 개막했으며, 축제 참가 극단 '헤이브르 시네마'를 통해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를 '작은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진행하는 예술가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9일 진행된 개막식 주례공연은 사전 선물을 통해 10만 시민 200여명이 자신의 악기를 가져와 함께 연주하는 즉흥 연주회로 열성적으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같은 대응에 진솔한 공연 '마미의 삶'과 음악극축제 준비 노력인 '추억의 축제' 및 선보이며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

아울러 축제현역에 펼쳐진 피아노를 자유롭게 연주하는 '피아노 For Me', 피아노 그림을 그려 사생활 터놓을 장려하는 '뮤지컬로 그려본 나의 삶'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관객의 참여를 유도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폐막작 <파리넬리>의 주인공 '파리넬리'와 유지를 더해 '가미'가 가세린의 무대를 선사해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날 헤이브르시네마는 축하공연 뿐 아니라 대안 축제 주제를 발표하고 개막작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연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관객에게 예술을 보다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예술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계은 기자 jeon@kookje.com

세계일보

2015년 04월 20일 월요일 025면 문화



올해로 14주년을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내달 8~17일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 시나 곳곳에서 열린다. 올해는 '삶을 연주하다'라는 주제 아래 예술가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을 공연·전시·체험으로 표현한다. 개막작으로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아내 알마 쉰들러의 인생을 담은 독일 음악극 '말러메니아'(사진)가 내달 8~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Asia Times

2015년 04월 27일 월요일
015면 사회



시프렛 우쿨렐레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미

의정부시, 음악·예술로 물든다

음악극축제 내달 개막,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선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된 '대외 공연예술제'이자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된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신)가 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였다.

우쿨렐레 연주단체 '시프렛 우쿨렐레'가 참여한 이번 공연은 장기기증 확산 캠페인 오프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장기기증 캠페인에 뜻을 함께 하는 한편 음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공연은 임원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매웠으며 대중에게 익숙한 'Top of the World'를 포함한 총 8곡이 연주돼 의정부 성

모병원에서 밝고 경쾌한 선율을 선사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이후 출간되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온 집에는 잠깐 외에도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병원을 지속적으로 공연을 개최해 문화융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4월 29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 성모의료병원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호갑 기자(hk@ksil.com.k)

내일신문

2015년 04월 19일 목요일 020면 전체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음악극축제

5월 8-17일
개막작 '말러메니아'

'삶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5월 8일-17일까지 개최된다. 총 6개국 60여 명의 공연이 10일 동안 의정부 일대에서 펼쳐진다.

독립 제작자으로는 국내 창작뮤지컬 '파리넬리'가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들의 경우 '음악의 힘에 예술가' 장영범 음악감독의 예술이 미연대 관객들의 이목을 높이고자 한다.

이 외에도 영성예술의 영기 페이

희 공연이 예정돼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독일 작품인 개막작 '말러메니아'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살리기,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와 필살봉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KMF필살봉이 연주에 참여한다.

또한 올해는 아와 시가 공연과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들을 강화, 시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개막식 주제공연인 '삶을 연주하다'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즉흥연주 콘서트로 시민 100명과 함께 연주, '시민이 만드는 개막식'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프코 시현의 멀티미디어극 '사랑의 역사', 제2회 마니스트브 배우의 앙상블이 선보이는 '노베레토', 어린이 국악뮤지컬 '희안 논쟁 모임'이 등의 작품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www.festival.or.kr

매일일보

2015년 03월 06일 금요일
015면 종합

의정부 국제음악극 초청작 관람료 판매 시작

14일까지 예매 50% 할인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집행위원회는 올해 축제에 초청된 7개 작품의 관람료 판매를 시작했다. 4일 밝혔다.

14일까지 예매하면 관람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8천~3만원에 국내의 초청작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표는 인터파크와 의정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올해로 14회째인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는 5월 8~1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국내외 7편이 초청됐다. 개막작은 독일 작품인 '말러메니아'(Mahlermania)로 8~9일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성악가와 무용수, 오케스트

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연극과 클래식의 만남이 돋보인다.

페막작은 국내 창작뮤지컬 '파리넬리'(Farinelli)가 선정됐다. 16~17일 무대에 오른다.

가수 고유진과 성악가 루이스 조이가 캐스팅돼 화제가 됐다. 내년 1월 서울에서 초연되며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에도 감동이 전달된다.

표를 예매하면 말러메니아와 파리넬리 같은 대작을 1만~3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 집행위원회는 10만원에 7개 작품을 모두 볼 수 있는 '절대 티켓'을 준비했다.

도시 '구스타프 말러'와 축제 프로그램 북을 함께 주며 6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좋은 좌석까지 먼저 고를 수 있다.

의정부-안세한 기자 an5079@

‘의정부 음악극페스티벌’ 8일 개막

성공한 지역축제 찾아온 베를린 오페라

1901년 가을, 작곡가 말러(1860~1911)는 당혹하고 아팠다. 어린 딸마(1879~1964)에게 반한다. 작곡을 배우려 찾아온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데 겨울 악흔식을 올린다. 당대 최고 미인으로 꼽히던 딸마는 수많은 구혼자들을 외면하고 19세 나 연상인 말러를 선택했다. 속도 위주로 아이까지 낳았지만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남편이 성골 가도를 달리는 동안 젊은 아내의 소외감을 느낀다. 외로움에 지친 딸마는 결국 휴양지에서 만난 젊은 건축가 빌터 그로피우스와 이혼한 사람을 시작한다. 딸마는 아내의 외도에 절망했다. 그의 음악이 고독하고 허무하며 겸세적인 이유다.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극장 음악극 ‘말러메니아’가 그의 불행한 인생과 음악을 무대에 풀어놓는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작으로 8일 관객을 맞는다. 이 작품은 2011년 말러 서거 100주년과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극장 재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공연됐다. 혁신적이고 신선하며 상상력 넘치는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무엇보다 말러의 생애와 음악이 완벽하게 결합한 드라마였다. 말러는 생전에 “내가 작곡한 걸은 내 삶 전체의 과정이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다면 내 삶 전체가 뻗어 드려나 보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의 작품과 인생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아내에 대한 병적인 사랑과 예술가의 고뇌,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이 잘게 깔려 있다. 이 음악극에 쓰인 작품은 교향곡 4번 3악장, 가곡집 ‘빙하라는 젊은이의 노래’ 중 ‘그녀의 집은 식’, ‘그녀의 피란 두는이’, 교향곡 1번 3악장, 가곡집 ‘젊은 남의 노래’ 중 ‘강한 상상력’, ‘추억’, ‘자만’, 가곡집 ‘여인의 이상한 편지’ 중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 울리는 곳’, 교향곡 5번 4악장 등. 16점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극장 음악극 ‘말러메니아’

도이치 오페라극장 음악극 ‘말러 메니아’ 개막작 공연
폐막작엔 ‘파리넬리’ 등
35개 단체 80회 공연 펼쳐

“TIMP 앙상블”이 연주한다. 그 선율에 맞춰 나이든 딸마가 젊은 남을 회상하면서 음악극이 시작된다. 날카롭고 열정적인 예술가 말러에 대한 아내의 사랑과 열구가 복잡미묘하게 펼쳐진다.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 주제 ‘살을 연주하다’에 꼭 맞는 작품이다.

이번에 삶을 음악으로 풀어놓는 음악극 80여회가 관객과 만난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

6개국 35개 단체가 무대에 오른다. 칠레 공연 단체 페이프로시네마의 공연 ‘사랑의 역사’(12~13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가 주목할 만하다. 관객과 접촉이 많은 사랑의 변주곡을 영상과 무대의 결합으로 보여 준다. 2013년 에딘버러페스티벌 공식초청작으로 문화적 상상력과 멀티미디어를 동원해 독특하고 감각적인 공연을 펼친다. 프랑스 소설가 레지 프르레의 동명 소설 무대로 옮겼으며 성과 휴배, 비행아인 사랑을 감명하게 다룬다. 폐막작은 창작뮤지컬 ‘파리넬리’(16~1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키스트리토(개세린 가수 파리넬리의 화려한 살 뒤에 숨겨진 내면의 고통을 담은 작품이다. 음악평론가 장일병이 폐막작과 개막작 공연 10분 전에 해설을 펼친다. (031)828-5855 정지현 기자

서울일보

2015년 04월 30일 목요일 003면 종합

봄의 도시 핑크빛으로 물들이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캠퍼 플래시몹 진행 눈길

〈의정부=박성연 기자〉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장은 박성연(가)가 지난 25일 의정부 행복로와 의정부역사 앞 신세재박물관 광장에서 축제 홍보를 위한 캠퍼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한 이날 플래시몹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의정부음악극축제를 알리고 축제 전 불협(Boxen-Up)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획됐으며 축제 자원활동가 ‘이리디’, 의정부 천보중학교 밴드 동아리 ‘JOKER’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정부음악극축제의 공식 색사인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공식 축

제송인 ‘우리들의 축제’에 맞춰 율동을 선보였으며, 미리 연습한 안무로 일사분란한 동작을 연출해 행복로와 의정부역을 찾은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음악극축제 이훈 총감독은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상징인 핑크색과 축제송을 시민분들께 소개할 좋은 자리가 될 것 같다”며 “축제 자원활동가들과 의정부 문화 동아리가 합심해 선보인 이번 플래시몹이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오는 5월 8



일부터 17일까지 율동과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입원에서 개최되며, 이번 플래시몹 연출을 맡은 홍

보 영상은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17일 개최!

7월14일 2015-04-28 17:51 | 기사입력 | 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표 공연예술제'이자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의정부음악극축제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4회째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변화를 담아낸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올해 테마는 '살을 연주하다' 한 편의 교향곡에도 비유할 수 있는 '살'을 주제로 예술가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다룬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을 통해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발라데리아

이번 축제에는 프랑스, 독일, 캐나다, 칠레 등 총 6개국에서 50개 단체가 참가, 80여 회의 공연을 펼쳐, 의정부음악극축제가 명실 공히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개막작이자 가장 큰 기대작으로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그의 아내 알마 인틀러의 인상 여정을 담은 독일 음악극 '발라데리아' 5월 8~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폐막작은 이른바 파리날리로 알려진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성 소프라노 가수)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국내 창작 뮤지컬 '파리날리(5월 16~17일)'다.

(중략)

한편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실외 공연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산의 상당액이 이월되면서 올해는 보다 다양한 실내외 공연과 행사가 치러지게 됐다. 또한 축제의 메인 색상으로 '핑크색'을 선정, 전용 서체, 단스, 캐릭터 'Mr. M(미스터엠)'을 탄생시켜 상징성도 강화했다. 이로써 향후 의정부시의 이미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이준 총감독(한양대 교수)은 "올해는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 아래 예술가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을 공연과 전시, 체험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면서 "모든 사람이 음악과 춤의 무대에서 즐거움과 감동으로 얻는 대중 문화예술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www.urmf.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우 여행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공연전세] [문화컨텐츠]말러에서 파래,라까지...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기사입력 2015.05.08 17:51 | 기사입력 2015.04.28 17:51

한국영상신문, 그 이면에 25% 전직전 0원



[이대]국제 조만시 기자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살을 연주하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펼쳐는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의정부 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칠레, 폴란드 등 총 6개국 50여 단체와 80여 공연이 펼쳐진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개막작은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음악의 다른 발라데리아이다. 개막작은 작곡가작 '발라데리아' 이외에도 프랑스 소프라노 작곡으로 한 알마 인틀러의 '사랑의 역사: 바흐의 피아노곡과 함께 펼쳐진 음악성이 펼쳐지는 '아마도 더 스카이 on the sky', '고도를 기다리며'를 모티브로 한 '도자구 디아와 고도의 기다림', 국문찬과 조만시의 조화가 돋보이는 '노베천보' 어린이 국악뮤지컬 '한인 문명 초월!' 등 다채로운 음악극 및 이와 이벤트를 준비했다.

파이낸셜뉴스
The financial news

우수 공연 콘텐츠 유동 활성화한다...'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출처: 이대원 기자 | 입력: 2015.05.08 | 12:20 | 수정: 2015.05.08 11:20

우수 공연 콘텐츠의 유동을 활성화하는 2015 음악극연극, 뮤지컬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가 오는 8월 의정부에 열린다.

이 프로젝트는 (사)한국공연문화지원회, (재)의정부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문화재단이 공동주최하고 의정부음악극축제협약위원회가 주관한다.

출처 처음으로 시행하는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는 우수 콘텐츠 보유할 공연 제작사와 문화위원의 역할을 통한 창작자 지원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한 추진이다. 본 사업은 막대한 초기비용을 기획사와 문화위원이 부담함으로써 제작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유동구조를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올해에 같은 연이 추진 음악극 및 대중극 제작 지원이 공표가 진행됨으로써 총 5억원 규모의 예산이 산정됐다. 이의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일에 맞추어 열리는 기획 프로젝트이전에는 전국 문화위원과 (사)한국공연문화지원회 지원금이 참가한다.

No.	구분	분야	작품명	기획사
1	초연	뮤지컬	더 라이어트	(주)문화공공소 상상마루
2		음악극	로이 캐롤스트라	문화기획 일각우음
3		뮤지컬	제니	MJ 김피니
4	재연(업그레이드)	뮤지컬	카모니	MJ 김피니
5		뮤지컬	호기수	(주)이대원기획
6		연극	빛, 열이나	생생극단 제발자전거
7		뮤지컬	백승의 열매	김정피니
8		뮤지컬	이가사	아시아문화재단(주)
9		뮤지컬	천도초보	(주)문화공공소 상상마루

▲ 2015 음악극(연극, 뮤지컬)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선정 작품

date@fnnews.com 이대원 기자



말러부터 파리넬리까지 음악극으로 즐겨볼까

기사출처 | 2015-04-17 09:07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17일 열려

아시아투데이 전해준 기자 = 의정부음악극축제가 내달 8~17일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개막작으로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그의 아내 알마 안글라와 인생 여정을 담은 독일 음악극 '말러네이'가 다음달 8~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개막작은 이혼비 파리넬리로 알려진 키스레라로(이세원) 남성 소프라노(가수) 카를로 보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국내 창작 뮤지컬 '파리넬리'(5월 16~17일)다.

이번 축제에서 가장 주목할 또 하나의 작품으로는 일레지 몰티미에르극 '사랑의 역사'(5월 12~13일)가 꼽힌다. 프랑스 소설가 제자 조프레의 동명 소설을 무대로 유년 이 연극은 한 남자와 비둘기인 사랑, 그리고 절정 파열로 치달는 집착과 열거를 담은 작품이다. 스크린을 이용해 2와 3D를 넘나드는 특징적 연출이 돋보인다.

이외에 바흐의 음악을 배경으로 한 무연극 '아이 온 더 스카이'(I on the sky 캐나다 퀘벡), 여한이 국악뮤지컬 '하얀 노닐 홍영아'(한국), 자드 파이나스트 카운트와 배우 조만수가 권역한 카툰 니콜 이우는 '노베렐로'(한국),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모티브로 두 남자의 기다림을 의상스럽게 담아낸 '도지두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프랑스)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지난해 세출호 참가로 실외 공연을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예산의 상당액이 이월되면서 올해는 보다 다양한 실내외 공연과 행사가 치러지게 된다.

sulmerian@asiatoday.co.kr

한글은 국내, 모바일 앱은 아시아투데이

헤럴드코프

의정부음악극축제, 5월의 의정부를 예술과 음악으로 흥쁘게 만든다

2015-04-23 08:03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한 기자] 2015년 문화관광진흥부가 선정한 '대표 공연예술제'이자 '열기'도 10대 축제인 의정부음악극축제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예술의전당 대극장과 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 일대에서 개최된다.

해년 새로운 주제로 변화를 꾀하는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올해 주제는 '살을 연구하다'이다. 한 칸의 교향곡에 비유할 수 있는 '살'을 주제로 예술가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퀘벡, 칠레 등 총 6개국 50개 단체의 80회 공연이 예정돼, 여가활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이혼비로 선율로 표현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가장 '음악극다운' 작품을 엄선해 음악과 극이 하나되는 무대로 관객은 물론 예술계에 자극과 영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국악극 '말러네이(말러Maleria, 독일), 5.8~5.9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이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음악을 그린, 무용수, 12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국어로 만든 작품으로 IMF앙상블이 연주해 참여한다.

재민극과 더불어 축제와 접목을 상징하는 공연적으로는 창작뮤지컬 '파리넬리' 5.16~5.17,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이 무대에 올라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 두 작품은 '올해의 협력예술가'로 선정된 음악평론가의 공연인 10분 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친밀하고 폭넓게 다가갈 예정이다.

미치에도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랑스 드라마틱 연극예술을 활용한 독일식 연출이 돋보이는 말티미에르극 <사랑의 역사(사랑)>, 바흐의 피아노곡과 함께 섬세한 움직임이 펼쳐지는 <On the sky(캐나다 퀘벡)>, 고도를 기다리며를 모티브로 두 남자의 기다림을 의상스럽게 담아낸 '도지두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프랑스)'을 비롯하여, 자드파이나스트 카운트와 배우 조만수의 조화가 돋보이는 <노베렐로(한국)>, 여한이 국악뮤지컬 <하얀 노닐 홍영아>까지 국내외 대극장은 음악극의 향연이 이어져 5월의 의정부를 예술과 음악으로 흥쁘게 만든다.

올해 축제는 극장 공연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야외 거리예술작품이 대폭 확대됐다.

음악극이 실내에서만 공연된다는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야외 도시초청작을 선보일 것이며 이를 통해 음악극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야외공연장소, 장르가 잇는 음악콘서트, 선진예술가 앙상블을 위한 음악극어워드 뮤지컬 배우 센터 - 무이스 초미와 함께하는 공연콘서트 등 음악극축제를 위한 리미트를 넘긴 음악과 극을 소개할 한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개막식 주례공연인 '살을 연구하다'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콘서트다. 시민 100여명이 각자 자신의 삶에 있는 리코더와 함께 연주, 협연의 음악회를 가져와 함께 연주해 시민이 만드는 개막식을 만들어낼 예정이다.

아울러 1500여명의 시민이 팀을 꾸려 이혼 리얼 액에 부작하는 '뮤직테일M'을 비롯해 이혼 리얼 시간으로 화제가 된 의정부고 코스를 리얼이도, 관내 중학교 오케스트라반 학생이 참가하는 '말러시' 연주 레시옹 등 '호스트 컨트리' 등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예술 프로젝트들도 눈길을 끈다.

이 중 의정부음악극축제 총감독인 '살아있다'로 모든 이들에게 가장 귀한 이야기이며 흥분스럽고 울리는 '살을 연구하다'를 주제로 예술가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을 공연과 전시, 체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이혼비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음악과 춤의 무대에서 즐거움과 감동을 얻을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올해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극장 공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진행되는 일부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유료비 상환의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공연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는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www.umk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ph@heraldcorp.com

4. 지방언론 (89건)

NO	보도날짜	언론사	내용
1	2014-12-26	경기신문	예술가 치열·애뜻한 삶 다룬 작품 꾸민다
2	2014-12-26	경기타임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개막작'말러메니아'
3	2014-12-29	경인일보	음악과 함께 흐르는 드라마틱 예술가 삶
4	2015-01-28	신아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대표 공연예술제'에 2년 연속 선정
5	2015-01-28	충청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문체부 대표 공연예술제에 선정
6	2015-01-29	경기일보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 '우뚝'
7	2015-01-29	경양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관광자원사업지원대상선정
8	2015-01-29	경인투데이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9	2015-01-29	신아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대표 공연예술제'에
10	2015-01-29	현대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대표적 공연예술제' 선정
11	2015-01-30	경기도민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영예
12	2015-01-30	경기매일신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13	2015-01-30	경기신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선정
14	2015-01-30	매일신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15	2015-01-30	수도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16	2015-01-30	우리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17	2015-01-30	일간경기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18	2015-02-03	중부일보	[문화계 소식]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19	2015-02-03	중부일보	2월 첫째주 유익한 문화계소식
20	2015-03-04	경기신문	미리 예매하면 혜택 쏟아져요
21	2015-03-04	신아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초청작 관람표 판매
22	2015-03-04	일간경기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초청작 관람표 판매 시작
23	2015-03-05	시대일보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 오픈'
24	2015-03-05	신아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초청작 관람표 판매
25	2015-03-05	원뉴스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26	2015-03-05	현대일보	의정부예술의 전당, 파격적 할인 티켓오픈 공연예술 진입장벽 ↓ 시민들 문화접근성 ↑
27	2015-03-06	경기일보	클릭 한번으로 뮤지컬 '파리넬리' 1만원의 행복

28	2015-03-06	내외일보	혁신적인 '말러' 만나는 절호의 기회
29	2015-03-08	경인일보	5월열릴의정부음악극축제... 14일까지티켓예매엔 '반값'
30	2015-03-09	경인종합일보	의정부 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31	2015-03-10	경기일보	"직원들 아이디어·경험 마음껏 펼치도록 판 깔아줘야"
32	2015-03-10	경기일보	[경기문화 대담] 박형식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
33	2015-03-10	인천일보	화려한 '음악 성찬' 마음껏 즐길 기회
34	2015-03-11	경인투데이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조기예매 특별할인
35	2015-03-13	경인종합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30~50% 할인판매
36	2015-03-13	인천일보	관객 맞춤 '특색 극장' 구축한다
37	2015-03-29	경양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38	2015-03-30	경인종합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판매 순항 높은 판매율 기록 조기예매 효과 ↑
39	2015-03-30	경인투데이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40	2015-03-30	매일신보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판매 순항
41	2015-03-30	신아일보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판매 '순항'
42	2015-03-30	일간경기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
43	2015-03-31	경인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착한티켓' ...중고악기증편좌석선물
44	2015-04-01	경인일보	삶은 음악이 되고... 음악은 삶이 된다
45	2015-04-04	e장애인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46	2015-04-14	인천일보	음악극축제 장일범 협력예술가 위촉
47	2015-04-14	충부일보	[문화계 소식] 장일범 음악평론가
48	2015-04-14	현대일보	친숙한 클래식 전문해설가한테 듣는 이야기
49	2015-04-16	한강일보	구스타프 말러의 삶을 연주하다 '음악극 <말러매니아>'
50	2015-04-17	경기매일신문	음악과 함께하는 5월 의정부 '의정부음악극축제'
51	2015-04-22	경양일보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최
52	2015-04-22	일간경기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
53	2015-04-23	경기신문	경쾌한 음악선물로 환자 마음까지 힐링
54	2015-04-23	일간경기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55	2015-04-24	경기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예술의 전당 등 시내 일원서
56	2015-04-27	경기인터넷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57	2015-04-27	경기일보	오월이 오면... '감성 총만' 의정부로 오세요
58	2015-04-27	경인종합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찾아가는 공연 성황

59	2015-04-27	내외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60	2015-04-27	수도일보	성모병원에 아름다운 선율 선사
61	2015-04-27	시대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찾아가는 공연 개최
62	2015-04-27	우리일보	의정부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샤프렛우쿨렐레' 장기인증 확산 캠페인
63	2015-04-27	일간경기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64	2015-04-27	한성일보	5월 8일~17일,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65	2015-04-27	현대일보	예술과 음악으로 삶을 연주하다'
66	2015-04-28	경기일보	"함께 어울려 체험하고 즐기는, 음악놀이터 기대하세요"
67	2015-04-28	매일신보	5월8일~17일,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68	2015-04-28	수도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69	2015-04-28	신아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일~17일 개최"
70	2015-04-28	일간경기	함께 즐길 '의정부음악극축제' 보러 오세요
71	2015-04-28	중부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정부음악극축제'로 명칭 변경하고 개막 준비
72	2015-04-29	경기도정신문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73	2015-04-29	경인종합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74	2015-04-29	내외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깜짝 플래시몹 진행
75	2015-04-29	우리일보	의정부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다
76	2015-04-30	시대일보	봄의 의정부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다!
77	2015-05-04	경기신문	의정부 5월, 음악으로 물들다
78	2015-05-04	중부일보	음악극으로 되돌아본 예술가의 삶' 의정부음악극축제 오는 8일 개막
79	2015-05-04	중부일보	의정부음악극 축제' 이훈 감독,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음악극을 만들겠다"
80	2015-05-06	경인일보	매력 있는 캐릭터, 미성으로 채우다
81	2015-05-08	경기신문	2015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오늘 활짝
82	2015-05-08	인천일보	다양한 연주로 들려주는 희로애락 우리 삶 이야기
83	2015-05-14	경기일보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
84	2015-05-15	경기일보	[주말 캘린더] 창작뮤지컬 '파리넬리' 공연 외
85	2015-05-21	현대일보	음악으로 10만관객 하나로 소통하다
86	2015-05-27	인천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음악극어워드시상식
87	2015-06-14	인천일보	사패산터널 '뮤지터널'로 새단장
88	2015-06-15	경기일보	의정부 사패산터널이 달라졌어요
89	2015-06-15	경인일보	한조각 한조각... 1500명 의정부시민 합작품



말러메니아

■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말러메니아 등 라인업 공개
내년 5월8일부터 열흘동안



노베켄토

예술가 치열·애뜻한 삶 다른 작품 꾸민다

경기도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돋움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2015년에는 음악을 통해 예술가들의 치열하면서도 애뜻한 삶을 표현한 작품들로 꾸며진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25일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2015년 공식초청작 라인업을 공개했다.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내년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되는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곁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묻고 삶을 위로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어느 해 보다 가장 ‘음악극다운’ 작품들을 엄선해 음악과 극이 하나 되는 완벽한 무대로 관객은 물론 예술계에 자극과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개막작

‘말러메니아’(Mahlermania, 독일).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성악가,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연극과 클래식 만남의 돋보이는 걸작이다. 말러의 삶과 고통, 사랑이 100분짜리 풍환적인 시로 표현되며, 말러의 대표작인 ‘대지의 노래’를 비롯한 교향곡과 가곡들이 환상적인 하모니로 극 전반에 생명력을 부여한다.(5월 8~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개막작과 더불어 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폐막작으로는 창작뮤지컬 ‘파리넬리’가 선정됐다. 여성도 남성도 아닌 카스트라토의 삶을 살아야 했던 성악가 파리넬리의 이야기를 뮤지컬화한 이 작품은 지난 6월 시범공연을 통해 호평을 받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창작뮤지컬 우수작품 제작 지원 선정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개막전

부터 고유진, 루이스초어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은 공연은 당대 최고의 카스트라토의 노래를 완벽하게 재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5월 16~1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이와 함께, 무대와 영상을 절묘하게 결합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아온 ‘태아르르 시네마(Teatro Cinema-질레)’의 최신판 ‘사랑의 역사’(Historia de Amor)와 캐나다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단체인 다이나모 씨어터의 ‘I on the sky’, 클래식과 재즈를 연극과 결합한 음악극 ‘노베켄토’와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의 두 캐릭터 디디와 고고의 모티브 만들어진 ‘도자두: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 등이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통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역목원기자 pkw09@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대표 공연예술제’에

2년 연속 선정... 국비 1억원 확보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공자원과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공연예술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공자원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지난해

에 이어 2년 연속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되며 국비 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경기도가 선정한 2015년 경기도 10대 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축제 관계자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이라는 유일한 장르 특장점 축제로서 지난 13년간 품격 있는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

기북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했다”며 “2015년 축제 역사 예술성과 축제성을 조화시켜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며, 독일, 프랑스, 칠레, 캐나다 제백을 비롯한 총 5개국 60여개 작품이 관객들과 만난다.

의정부/김남일 기자 brkim@shinailbo.co.kr

<5월 8-17일>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내년도 초청작 6편 공개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는 치열하고도 매력적인 예술가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축제위원회는 내년 5월 8-17일까지 열릴 동안 '삶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음악극축제의 공식초청작 6편을 공개했다. 개막작으로 '말리매니아', 폐막작으로 '파리넬라'를 선보인다.



▲ 독일 '말리매니아'
 ◀ 프랑스 '도자두:디도와 고고의 기다림'



음악과 함께 흐르는 드라마틱 예술가 삶

'말리매니아(Mahlermania, 독일)'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리의 음악을 생악기,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말리와 그의 아내 알마 쉰들리의 인생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말리의 삶과 고통, 알마와의 사랑을 한 편의 100분짜리 몽환적인 시로 표현했다.

말리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대지의 노래'를 비롯한 교향곡과 가곡들이 극전반을 이끈다.

음악극 창작작업을 통해 국제적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독일 단체 Nico & the Navigators와 베를린 도이지 오페라극장이 공동 제작했으며 한국 공연에서는 통일국제음악제 상주 연주단체인 TMF 앙상블이 참여한다.

창작뮤지컬 '파리넬라'는 거세된 남자 소프라노, 여성도 남성도 아닌 키스트라토의 삶을 살아야 했던 성악가 파리넬라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파리넬라라는 키스트라토가 아닌 인간 카를로 브로스키의 삶과 친상의 목소리 뒤에 숨은 어떤 이야기가 무대 위에

서 웅장하게 펼쳐진다. 지난 6월 서범공연을 통해 호평을 받았으며 고유진, 루이스조이름 캐스팅해 화제가 됐다.

이밖에 캐나다 극단의 '아이 온 더 스카이'(I on the sky), 칠레의 '사랑의 역사'(Historia de Amor), 한국의 '노베첸토'(Novacentro), 프랑스의 '도자두

인생·고뇌 담은 '말리매니아'

'파리넬라' 개·폐막작 선정

캐나다·칠레·프랑스작 등 다양

디도와 고고의 '가다림' 등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는 공식초청작 외에도 프린지공연, 신진예술가 양성을 위한 음악극어워드 등 음악극과 극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출기자 zuk@kyeongin.com

현대일보

2015년 01월 29일 목요일 002면 종합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지역의 공연예술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지난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대표적 공연예술제' 선정

2년연속 선정, 문체부로부터 국비 1억원 지원받아

에 이어 2년 연속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되며 국비 1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경기도가 선정할 2015년 경기도 10대 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서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축제 관계자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이라는 유일한 장르특징형 축제로서 지난 13년간 품격 있는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했다"며 "2015년 축제 역시 예술성과 축제성을 조화시켜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제14회를 맞이하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되며 독일, 프랑스, 칠레, 캐나다 퀘벡을 비롯한 총 5개국 60여개 작품을 비롯한 만년 예정이다.

의정부신문 기자 hghm35@naver.com

경기매일

2015년 01월 30일 금요일 010면 지방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화사업 지원대상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1억원 지원받아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역의 공연예술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관

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했으며 국비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경기도가 선정할 2015년 경기도

10대 축제로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성장가능성도 보여졌다.

축제관계자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이라는 장르 특장형 축제로서 지난 13년간 품격 있는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했다"며 "2015년 축제 역시 예술성과 축제성을 조화시켜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

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14회를 맞이하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8일부터 17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되며 독일, 프랑스, 칠레, 캐나다 퀘벡을 비롯한 총 5개국 60개의 다양한 작품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의정부 = 박민준 기자

경기신문

2015년 01월 30일 금요일 012면 문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선정

2년 연속 공연 선정 국비 지원

의정부에서 열리던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공연예술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올해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1년을 넘는 축제 축제는 10~17일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며 독일, 프랑스, 칠레 등 5개국 60여개 작품을 선보인다.

축제 관계자는 "축제는 지난 13년 간 품격 있는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했다"며 "2015년 축제 역시 예술성과 축제성을 조화시켜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7월30일 = 이광수 기자 k200@

경기도민일보

2015년 01월 30일 금요일 003면 종합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열리고 있는 모습.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영예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선정 국비 지원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공연예술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의 공연예술축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돼 국비 1억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경기도가 선정할 2015년 경기도 10대 축제에 이름을 올리며 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축제 관계자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이라는 유일한 장르 특장형 축제로서 지난 13년간 품격 있는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했다"며 "2015년 축제 역시 예술성과 축제성을 조화시켜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14회를 맞이하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되며 독일, 프랑스, 칠레, 캐나다 퀘벡을 비롯한 총 5개국 60여개 작품을 비롯한 만년 예정이다.

의정부 = 이광수 기자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비 1억원 지원받아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지역의 공연예술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됐으며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경기도가 선정한 '2015년 경기도 10대 축제'로서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서 성장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축제 관계자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이라는 장르 특정한 축제로서 지난 13년간 품격 있는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

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며, "2015년 축제 역시 예술성과 축제성을 조화시켜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14회를 맞이하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8일부터 17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되어 독일, 프랑스, 칠레, 캐나다 제작을 비롯한 총 5개국 60개의 다양한 작품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배 기자 ibk@sdilbo.com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억원 지원받아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부터 지역의 공연예술제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대표적 공연예술제로 선정됐으며 국비 1억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경기도가 선정한 '2015년 경기도 10대 축제'로서 성장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축제 관계자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이라는 장르 특정한 축제로서 지난 13년간 품격 있는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북부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했다"며, "2015년 축제 역시 예술성과 축제성을 조화시켜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제14회를 맞이하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오는 5월8일부터 17일까지 총 10일간 개최되며 독일, 프랑스, 칠레, 캐나다 제작을 비롯한 총 5개국 60개의 다양한 작품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정배 기자 ibk@nqan.com

의정부음악극축제 초청작 관람표 판매

14일까지 예매 50% 할인... 10만원에 7개 작품 관람도

경기도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가 4일 인터파크와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오픈을 시작했다.

올해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파격적인 조기예매 할인을 제 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4일까지 예매를 서두르면 50%의 조기예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객들은 최저 8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음악극 '말러메니아'나 뮤지컬 '파리넬리'와 같은 대작을 1만원에서 3만원 선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개막작인 '말러메니아'(Mahlermania, 독일)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성악가,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말러메니아라는 공연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말러를 위한, 말러에 의한, 말러의 이야기로 이미 수많은 평론가 및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이고, 신선하며, 상상력 넘치는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TIMF앙상블이 연주에 참여하며, 오리지널 배우들과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 낸다.

폐막작은 뮤지컬 '파리넬리'가 선정

됐다. 거세된 남자 소프라노 '파리넬리'의 이야기를 뮤지컬화 한 것으로 16인조 오케스트라, 21명의 배우, 20명의 대규모 합창단의 웅장한 무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가수 고유진, 성악가 투이스초이기가 주인공 '파리넬리'로 분해 18세기 유럽을 뒤돌아본 최고 의 오메라 가수의 삶을 펼쳐내 2015년 의정부음악극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축제집행위원회는 특별 티켓인 10만원 '집대티켓'을 준비했다.

'집대티켓'은 유료 공식초청작 7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서 '구스타프 말러(도서를 판 마티)', 축제 프로그램북으로 구성된다.

약 60% 할인된 금액에 좋은 좌석까지 선점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와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www.umf.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기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 '의정부음악극축제'로 축제 명칭을 갱신하였으며 5월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정복/김병진 기자 brkim@shinilbo.com

경기신문

미리 예매하면 혜택 쏟아져요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 오픈
14일까지 예매시 반값 할인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가 4일 오후 2시 인터파크와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오픈을 시작했다. 올해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파격적인 조기예매 할인을 제공한다. 오는 14일까지 예매를 서두르면 50%의 조기예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객들은 최저 8천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또 특별 티켓인 10만원 '절대티켓'도 준비됐다. '절대티켓'은 유료 공식초청작 7작품을

2015년 03월 05일 목요일 012면 문화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서 '구스타프 말러'(도서출판 마티), 축제 프로그램북으로 구성된다. 약 60% 할인된 금액에 좋은 좌석까지 선점할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전당 홈페이지(www.uac.or.kr)와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할 수 있다. (예매 문의: 031-828-5841~2)
한편,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기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 '의정부음악극축제'로 축제 명칭을 간소화했으며,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열린다. /김정선기자 kjs76@

인천일보

2015년 03월 10일 화요일 015면 문화

화려한 '음악 성찬' 마음껏 즐길 기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예매 개시

축제집행위원회는 인터파크와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 오픈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축제에 오는 14일까지 예매를 서두르면 50%의 조기예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객들은 최저 8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음악극 '말리넨리아', 뮤지컬 '파리넬리'와 같은 대극을 1만원에서 3만원 선에서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말리넨리아(Malherman's 독막)'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적 성취가, 무용수, 10인조 오케스트라와 영상팀이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TMAP 영상팀이 연주에 참여하며 오리지널 배우들과 환상적인 히로니를 만들어 낼 예정이다.

패키지로는 뮤지컬 '파리넬리'가 선정됐다. 거대한 남자 소프라노 '파리넬리'의 이야기를 뮤지컬의 한 것으로 10인조 오케스트라, 2인칭의 배우, 2명의 대우로 합창단의 웅장한 무대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가수 고요진, 성악가 루이스초이가 주연인 '파리넬리'로 동장래 18세가 유망한 뒤 흔들렸던 최고의 오케스트라 가수의 삶을 펼쳐진 2015년 의정부음악극축제의 테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2013년 에덴리퍼 레스피에에 공식 초



정된 '사랑의 역사(Historia de Amor, 현재)', 파격적인 문화적인 영상과 상세한 움직임은 자랑하는 'I on the sky(에디나 퀘비)', 두 남자의 기다림을 역설스럽게 담아낸 '도자두 :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Dos Deas, Zine acie, 프랑스)',이 해외 공식초청작으로 관객들의 만나다. 국내 공식초청작으로는 왕래식과 재즈를 만나고 결합한 창작극 '노래 편도'와 어린이 국악뮤지컬 '하얀 눈썹 호랑이'가 선정되어 음악과 삶의 변연은 보여준다.

축제 집행위원회는 특별 티켓인 10만원 절대티켓을 준비했다. 절대티켓은 유료 공식초청작 7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서 '구스타프 말러'(도서출판 마티), 축제 프로그램북으로 구성된다. 약 60% 할인된 금액에 좋은 좌석까지 선점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매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와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www.uac.or.kr)에 공개된 예정이다. 031-828-5841~2 /김정선기자 kjs76@incheonilbo.com

시대일보

2015년 03월 05일 목요일 016면 문화 스포츠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 오픈'

오는 5월 8일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총 10일간 개최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인터파크와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오픈을 시작했다.

올해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파격적인 조기예매 할인을 제공한다. 오는 14일까지 예매를 서두르면 50%의 조기예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객들은 최저 8천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음악극 '말리넨리아', 뮤지컬 '파리넬리'와 같은 대극을 1만원에서 3만원 선에서 관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말리넨리아(Malherman's 독막)'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적 성취가, 무용수, 10인조 오케스트라와 영상팀이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말리넨리아라는 공연제목에 유망한 음악의 이야기를 대우로 만든 작품이다. 가수 고요진, 성악가 루이스초이가 주연인 '말리넨리아'로 동장래 18세가 유망한 뒤 흔들렸던 최고의 오케스트라 가수의 삶을 펼쳐진 2015년 의정부음악극축제의 테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2013년 에덴리퍼 레스피에에 공식 초



정된 '사랑의 역사(Historia de Amor, 현재)', 파격적인 문화적인 영상과 상세한 움직임은 자랑하는 'I on the sky(에디나 퀘비)', 두 남자의 기다림을 역설스럽게 담아낸 '도자두 :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Dos a Deus, Zine acie, 프랑스)',이 해외 공식초청작으로 관객들의 만나다. 국내 공식초청작으로는 왕래식과 재즈를 만나고 결합한 창작극 '노래 편도'와 어린이 국악뮤지컬 '하얀 눈썹 호랑이'가 선정되어 음악과 삶의 변연은 보여준다.

축제 집행위원회는 특별 티켓인 10만원 절대티켓을 준비했다. 절대티켓은 유료 공식초청작 7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서 '구스타프 말러'(도서출판 마티), 축제 프로그램북으로 구성된다. 약 60% 할인된 금액에 좋은 좌석까지 선점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매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와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www.uac.or.kr)에 공개된 예정이다. (티켓예매 문의: 031-828-5841~2)
한편, 올해도 14일간 열리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기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 '의정부음악극축제'로 축제 명칭을 간소화했으며,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김정선기자 kjs76@sdilbo.co.kr

일간경기

2015년 03월 05일 목요일 006면 문화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초청작 관람표 판매 시작

14일까지 예매 50% 할인... 10만원에 7개 작품 관람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집행위원회는 올해 축제에 초청된 7개 작품의 관람표 판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14일까지 예매하면 관람표의 50%를 할인이 된다. 8천~3만원에 국내외 초청작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표는 인터파크와 의정부 예술

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올해로 14회째인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는 5월 8~1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국내외 7편이 초청됐다. 개막작은 독일 작품인 '말러니아(Mahlermania)'로 8~9일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성악가와 무용수,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연극과 클래식 의 만남이 돋보인다.

폐막작은 국내 창작뮤지컬 '파리넬리(Farinelli)'가 선정됐다. 16~17일 무대에 오른다.

가수 고유진과 성악가 루이스 초이 가 캐스팅돼 화제가 됐다. 내년 1월 서울에서 초연되며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에도 감동이 전달된다.

표를 예매하면 말러니아와 파리넬리 같은 대극을 1만~3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 집행위원회는 10만원에 7개 작품을 모두 볼 수 있는 '절대 티켓'을 준비했다.

도시 '구스타프 말러'와 축제 프로그램 북을 함께 구매 6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좋은 가격까지 먼저 고를 수 있다.

조영욱 기자 jyw@kja.com

경기일보

2015년 03월 06일 금요일 016면 문화

클릭 한번으로 뮤지컬 '파리넬리' 1만원의 행복

뮤지컬 <파리넬리>와 같은 대극을 1만원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오는 5월 8~17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개최 예정인 '제 14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통해서이다.

제14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는 인터파크www.interpark.com과 의정부예술의전당www.azadea.com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예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50% 할인 등 가격적인 조기에 매력

을 뽐내며, 공연 일정표www.umtf.or.kr를 미리 확인하고 관람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이번 축제와 공연작은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성악가, 무용수, 10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개막작 <말러니아(Mahlermania)>, 가수 고유진과 성악가 루이스 초이 가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폐막작 뮤지컬 <파리넬리>, 2013년 에디버의 페스타당에 공식 초청된 <사랑의 역사(Historia de Amor)>, 따뜻한 문화적인 형상과 섬세한 움직임을 자랑하는 <I, on the sky>, 두 남자의 기다림을 익살스럽게 담아낸 <도자두 :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Dos à Deux, 2ème acte)> 등이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해 14일까지 예매하면 50% 할인 혜택을 적용 받아 최저 8천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같은 날 15~24일 30% 할인 혜택을 주는 2차 조기에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10만원에 유료 공식초청작 7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고 해 <구스타프 말러(도시출판 마티)>와 축제 프로그램북까지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절대티켓'도 판매한다.

관객들은 "축제인 만큼 티 달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작품을 저렴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황철기 기자

의정부예술의전당서 5월 '음악극축제' 14일까지 조기 예매 티켓 할인 이벤트



경인일보

2015년 03월 31일 화 016면 문화

의정부음악극축제 '착한티켓'

중고악기 기증 텐 좌석 선물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는 올해 축제에 '착한티켓'을 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고악기나 소의계층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기증하면 공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중고물품은 오는 4월 1~20일 축제 홈페이지(www.umtf.or.kr)에서 접수한다. 기증받은 물품은 모두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된다.

이와 함께 집행위원회는 10만 원에 공식초청작 7편을 모두 볼 수 있는 '절대티켓'도 판매하고 있다. 올해로 14회째인 의정부음악극 축제는 5월 8~1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국내외 7편이 초청됐다. 개막작은 독일 작품인 '말러니아(Mahlermania)'로 8~9일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의정부/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

新日日報

2015년 03월 05일 목요일 007면 메트로 / 수도권

의정부음악극축제 초청작 관람표 판매

14일까지 예매 50% 할인... 10만원에 7개 작품 관람도

경기도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가 4일 인터파크와 의정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 예매를 시작했다.

올해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가격적인 조기에 할인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14일까지 예매를 서두르면 50%의 조기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객들은 최저 8000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음악극 '말러니아'나 뮤지컬 '파리넬리'와 같은 대극을 10만원에서 3만 원에까지 관람할 수 있는 '절대티켓'이 주목된다.

개막작인 '말러니아(Mahlermania)'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성악가, 무용수, 10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이다. 말러니아이라는 공연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말러를 위한, 말러에 의한, 말러의 이야기로 이미 수많은 원형이 있고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이고, 신선하며, 상상력 넘치는 공연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TBS방영을 앞두고 있어, 오리지널 배우들과 완성적인 화면을 만들어 낸다.

폐막작은 뮤지컬 '파리넬리'가 선정

됐다. 국제적인 남자 소프라노 '파리넬리'의 이야기를 뮤지컬화 한 것으로 16인조 오케스트라, 21명의 배우, 20명의 대규모 합창단의 웅장한 무대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가수 고유진, 성악가 루이스 초이가 주인공 '파리넬리'로 분해 18세기 유럽을 뒤흔들었던 최고의 오케스트라 가수의 삶을 펼쳐냈다. 2015년 의정부음악극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축제집행위원회는 특별 티켓인 10만원 '절대티켓'을 준비했다.

'절대티켓'은 유료 공식초청작 7개 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시 '구스타프 말러'도사출판 '마티', 축제 프로그램북으로 구성 된다.

약 60% 할인된 금액에 좋은 좌석까지 신청할 수 있는 '1차 2석'의 효과도 입증될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mtf.or.kr)와 인터파크www.interpark.com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www.umtf.or.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 축제는 기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에서 '의정부음악극축제'로 축제 명칭을 간소화했으며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찰수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의정부/김영남 기자 brim@inbalbo.com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판매 순항 높은 판매율 기록 조기예매 효과 ↑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순조로운 티켓판매율을 보이며 성공적인 축제를 예고하고 있다. <사진>

29일 축제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티켓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축제가 40여일 남았음에도 어린이 공연의 경우 80%, 뮤지컬 파리넬리는 50% 이상의 티켓판매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순조로운 티켓판매는 파격적인 조기예매 할인혜택과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프로그래밍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축제집행위원회는 관객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연령과 장르를 고려해 라인업을 구성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기예매 기간 동안 50% 파격 할인율을 제공해 판매 가능좌석 7000석 중 약 2500석을 판매했다. 또한 축제집행위원회는 저렴한 가격정책 외에도 축제다움을 실현하는 '절대티켓', '착한티켓'과 같은 축제 특별티켓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절대티켓은 유료 공식초청형



작 7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서 구스타프 말러(도서출판 마티), 축제 프로그램북을 함께 증정한다.
입재신 기자/jonghapnews.com

매일일보

2015년 03월 06일 금요일 015면 종합

의정부 국제음악극 초청작 관람표 판매 시작

14일까지 예매 50% 할인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집행위원회는 올해 축제에 초청된 7개 작품의 관람표 판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14일까지 예매하면 관람료의 50%를 할인해 준다. 8천~3만원에 국내외 초청작을 관람할 수 있다.

관람표는 인터파크와 의정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올해로 14회째인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는 5월 8~17일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국내외 7편이 초청됐다. 개막작은 독일 작품인 '말라메니아'(Mahlemania)로 8~9일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을 성악가와 무용수, 오케스트

라 앙상블이 곡으로 만든 작품으로 연극과 클래식의 만남이 돋보인다.

페냐락은 국내 창작뮤지컬 '파리넬리'(Farinelli)가 선정됐다. 16~17일 무대에 오른다.

가수 고유진과 성악가 루이스 초이가 캐스팅돼 화제가 됐다. 내년 1월 서울에서 초연되며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에도 감동이 전달된다.

표를 예매하면 말라메니아와 파리넬리 같은 대작을 1만~3만원에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축제 집행위원회는 10만원에 7개 작품을 모두 볼 수 있는 '절대티켓'을 준비했다.

도서 '구스타프 말러'와 축제 프로그램 북을 함께 주며 60%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좋은 좌석까지 먼저 고를 수 있다.

의정신문-인재신 기자 an5079@

일간경기

2015년 03월 30일 월요일 006면 문화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

기본 좋은 출발... 조기예매 효과 ↑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순조로운 티켓판매율을 보이며 성공적인 축제를 예고하고 있다.

27일 축제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티켓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축제가 40여일 남았음에도 어린이 공연의 경우 80%, 뮤지컬 '파리넬리'는 50% 이상의 티켓판매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순조로운 티켓판매는 파격적인 조기예매 할인혜택과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프로그래밍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축제집행위원회는 관객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연령과 장르를 고려해 라인업을 구성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기예매 기간 동안 50% 파격 할인율을 제공해 판매 가능좌석 7,000석 중 약 2,500석을 판매했다. 또한 축제집행위원회는 저렴한 가격정책 외에도 축제다움을 실현하는 '절대티켓', '착한티켓'과 같은 축제 특별티켓제도를 마련해 적극적인 관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절대티켓'은 유료 공식초청형 7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서 '구스타프 말러(도서출판 마티)', 축제 프로그램북을 함께 증정한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해외 유명 작부터 대중성을 확보한 뮤지컬

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약 6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여기에 좋은 좌석까지 선점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집에 있는 중고물품을 기증하고 티켓을 구매하는 '착한티켓'도 눈길을 끈다. 착한티켓으로 관람이 가능한 공연은 해외초청작 4개 작품으로 티켓 구입을 희망하는 관객은 음악극축제와 연관이 있는 중고악기 등 불우이웃 문화향수증진에 도움 되는 물품을 기부하고 공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4월 1일부터 20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받으며, 모금된 중고물품은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된다.

축제 관계자는 "공연예술축제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관객개발이다. '리뷰' '축제'를 통해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공연예술에 보다 쉽게 다가가고, 이를 통해 문화욕심의 가치의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축제 특별티켓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예매 및 특별티켓제도 안내는 의정부음악극축제(www.umtf.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영목 기자 yw@gen.co.kr





○장일범 음악평론가가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협력예술가'로 위촉됐다. 의정부음악극제 집행위원회는 최근 의정부예술의전당 퀸실에서 장 평론가를 협력예술가로 임명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박형식 집행위원장은 "장일범 음악평론가는 음악애호가인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인지도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의정부음악극제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대중에게도 지명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진 배경을 밝혔다. 장 음악평론가는 "의정부음악극제가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불심안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제는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개황, 총 6개국 25개 단체 80여의 공연이 예정됐으며, 공연 외에도 다채로운 체험 및 시간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높은 판매율 기록하며 기본 좋은 출발... 조기에매 효과 1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순조로운 티켓판매율을 보이며 성공적인 축제를 예고하고 있다.

27일 축제 관계자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높은 티켓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축제가 40여일 남았음에도 어린이 공연의 경우 80%, 뮤지컬 <파리벨리>는 50% 이상의 티켓 판매가 완료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순조로운 티켓판매는 과학적인 조기에매 할인혜택과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다채로운 프로그래밍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축제집행위원회는 관객들이 빠질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연말과 장려를 고려해 라인을업을 구성했으며,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조기에매 기간 동안 50%까지 할인율을 제공해 판매 가능좌석 7,000석은 약 2,500석만 판매했다.

또한 축제집행위원회는 저렴한 가격정책 외에도 축제다움을 실현하는 '질대티켓', '죽한티켓'과 같은 축제 특색티켓도 판매를 적극 추진한 관례를 소개했다.

'질대티켓'은 유료 공연 초청 왕좌 7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시 '구스 타프 알레(도시출판 마티)', '죽해 프로그래밍'을 함께 제공한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 유명 작부터 대중성을 확보한 유

지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약 60%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며, 여기에 좋은 좌석까지 선점할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적 공연예술단체'로 선정되어 '죽한티켓', '죽한티켓'에 선정되었다.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축제는 총 6개국 25개 단체 80여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극장 공연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야외 거리예술작품이 대폭 확대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진태 기자

친숙한 클래식 전문해설가한테 듣는 이야기

제14회 의정부음악극제 집행위원회 임원들이 30일 의정부예술의전당 퀸실에서 음악평론가 장일범을 협력예술가로 위촉·위촉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음악극제는 협력예술가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축제이상을 만들고, 이를 통해 관객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일범 음악평론가는 위촉식에서 음악의 매력에 대해 의정부음악극제 전문성을 높이면서 대중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의정부음악극제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대중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진 배경을 밝혔다.

장일범 음악평론가는 "의정부음악극제가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불심안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제는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개황, 총 6개국 25개 단체 80여의 공연이 예정됐으며, 공연 외에도 다채로운 체험 및 시간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정부음악극제 집행위, 장일범 음악평론가 협력예술가로 위촉
명쾌한 해설...음악극 축제 전문성 + 대중 지명도 향상 기여 기대



장일범 음악평론가에게는 협력예술가로, 축제와 함께 '죽한티켓', '죽한티켓'과 같은 축제 특색티켓도 판매를 적극 추진한 관례를 소개했다.

'죽한티켓'은 유료 공연 초청 왕좌 7작품을 모두 관람할 수 있는 패키지 티켓으로 도시 '구스 타프 알레(도시출판 마티)', '죽해 프로그래밍'을 함께 제공한다.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 유명 작부터 대중성을 확보한 유

의정부예술의 전당, 파격적 할인 티켓عون

공연예술 진입장벽 ↓ 시민들 문화접근성 ↑

의정부예술의전당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공연하는 제14회 의정부음악극제를 앞둔 30일, 음악평론가 장일범을 협력예술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제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25개 단체 80여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극장 공연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야외 거리예술작품이 대폭 확대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나, 폐막작 파리볼레로 비롯한 7개 작품이 공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의정부음악극제 운영에 대한 기대를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장일범 음악평론가는 위촉식에서 음악의 매력에 대해 의정부음악극제 전문성을 높이면서 대중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의정부음악극제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대중에게도 사랑을 받고 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신진 배경을 밝혔다.

이진태 기자

함께 즐길 '의정부음악극축제' 보러 오세요

내달 8일~17일, 야외거리예술작품 대폭 확대

음악극 매니아와 의정부시민 모두 함께 즐기며 될 의정부음악극제가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인행음 의정부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음악극 축제는 의정부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 거리예술작품을 대폭 확대해 더욱 풍성한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음악극이라는 장르를 정형화하지 않고서 있는 프로그램들 통해 의정부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 공연예술축제,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의정부음악극제는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 총 6개국 50개 단체의 80회 공연이 마련된다.

한편, 제14회 의정부음악극제는 (현)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음악극제 집행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의정부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 신한대학교, 김원대학교, 삼배드로병원 등이 협찬해 개최된다.

조영민 기자 jyw@gan.co.kr

경기매일

2015년 04월 17일 금요일
016면 문화

음악과 함께하는 5월 의정부 '의정부음악극축제'

올해로 14회를 맞은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오는 5월8일~17일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 시내 일대에서 펼쳐진다.

'살을 연주하다'가 주제다. 주제에 맞춰 예술가·우리·나의 차열한 삶과 인생 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전체적으로 구성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퀘벡, 칠레 등 총 6개국 50개 작품이 80여회 공연된다.

특히 작곡가 구스타프 말리의 삶과 고뇌를 연주한 음악극 '말라메니아'(독일)가 개막작으로 준비돼 있다. 파리넬리의 화려한 삶 속에 숨겨진 내면의 이야기를 담은 '파리넬리'(한국)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두 작품은 '올해의 협력예술가'로 뽑힌 음악평론가 장일범의 10분 해설과 함께 한다.

상대 극장 공식 초청작은 '말라메니아'·'파리넬리'를 포함해 모두 6편이다.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멀티미디어극 '사랑의 역사'(칠레), 하늘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이언 더스카이(On the

sky)', 어린이 눈높이 국악뮤지컬 '하얀 눈썹 호랑이'(한국), 천재 피아니스트 노베첸토 이야기 '노베첸토'(한국),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모티브로 한 2인극 '도자두·디다와 고도의 기다림'(프랑스) 등이다.

공식 초청작뿐만 아니라, 30개 작품이 준비된 자유참가작, 새로운 음악극 개발 및 신진 예술가 육성을 위한 음악극어워드, 뮤지컬 배우 바다·루스 초이와 협제하는 갈라 콘서트도 준비됐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개막식 주제공연인 '살을 연주하다'는 시민들과 함께 하는 즉흥 팽 콘서트다. 시민 100여 명이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간단한 악기를 가져와 함께 연주한다. 이 외에도 '로드스케이프' 'Mr. M 선발대회' '스쿨뮤직' 등 시민참여를 권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주최하고 의정부음악극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한다.

인천일보

2015년 04월 14일 화요일
012면 사람들



음악극축제 장일범 협력예술가 위촉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집행위원장 박형식)는 지난 10일 음악평론가 장일범씨를 협력예술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장일범 음악평론가는 음악예호가는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높은 인지도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대중에게도 지명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정 배경을 전했다.

장일범 음악평론가는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전문 해설가로,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진행자로 알려져 있으며 올해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는 협력예술가로 활동하며 축제의 개·폐막작인 말라메니아와 파리넬리 공연전 10분 해설을 진행한다.

이영우·김성운 기자 sking15@incheonilbo.com

일간경기

2015년 04월 23일 목요일 006면 문화

의정부음악극축제 "살을 연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적 공연예술제'

금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표 공연예술제'이자 경기도 10대 축제인 의정부음악극축제가 내달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의 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매년 새로운 주제로 변화를 펼쳐내는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올해 주제는 "살을 연주하다"이다. 한 편의 교향곡에 비유할 수 있는 '살을 주제로 예술가의 삶,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퀘벡, 칠레 등 총 6개국 50개 단체의 80회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를 아릅다운 선율로 표현한 작품들을 풍성하게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가장 '음악극다운' 작품들을 엄선하



여 음악과 극이 하나 되는 완벽한 무대로 관객은 물론 예술계에 자극과 뜨거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은 개막작 <말라메니아(Mahlermania, 독일)>(5.8~5.9,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이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리의 삶과 음악을 성악가,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TIMF 앙상블이 연주에 참여한다. 개막작과 더불어 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폐막작으로는 창작뮤지컬 <파리넬리>(5.16~5.17,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가 무대에 올라 흥장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 두 작품은 '올해의 협력예술가' 장일범 음악평론가의 공연전 10분 해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친질하고 폭넓게 다가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극장 공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상당의 체험비를 받는다. 자세한 공연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는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www.uma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명욱 기자 jw@gen.co.kr

예술과 음악으로 '삶을 연주하다'

제14회 의정부 음악극축제

YEONGJU MUSIC
THEATRE FESTIVAL

내달8~17일까지 일주일간 개최
총 67개국 50개작품 80회 공연
파리넬라 등 완성도 높은 작품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시민이 주인공' 풍성한 프로그램 진행

고교생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2015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일주일간 일제히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67개국 50개작품 80회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축제는 '시민이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민이 주인공'이란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민이 주인공'이란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삶을 연주하다'이다. 이번 축제는 '시민이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민이 주인공'이란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민이 주인공'이란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축제의 주제는 '삶을 연주하다'이다. 이번 축제는 '시민이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민이 주인공'이란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민이 주인공'이란 주제로,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경인종합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30~50% 할인판매

의정부예술의전당(축제위원장 박병식)은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주제: 삶을 연주하다) 관람 티켓을 조기예매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이는 많은 시민들이 공연예술축제를 부

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로 오는 14일까지 예매할 경우, 50%의 조기예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객들은 8천 원~3만 원 할인 가격에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다. **특히 음악극 <말러메니아>나 뮤지컬 <**

2015년 03월 13일 금요일 015면 문화 파리넬라)와 같은 대작을 1만원에서 3만 원 선에서 관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차 조기예매 특별할인기간과 할인율은 4일까지 50% 특별할인이 되며, 2차는 3월 15일부터 3월 24일까지 30% 특별할인하며 관람티켓구입은 의정부예술의전당 031-828-5841-2과 인터파크를 통해 가능하다.

입점서 기사/jonghapnews.com

5월8~17일,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개최하고 홍보 나서

음악극 매니아와 의정부시민 모두 함께 즐기게 될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삶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 음악극축제는 의정부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 거리예술작품을 대폭 확대해 더욱 풍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음악극이라는 장르특성형 축제로서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 공연예술축제,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 총 6개국 50개 단

체의 80회 공연이 마련된다.

5월8일과 9일 이틀 동안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하게 될 개막작 말러 매니아(Mahlermania, 독일)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음악을 성악가,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TIM앙상블이 연주에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5월16일과 17일 공연하게 될 폐막작 파리넬리는 신이 내린 천사의 목소리로 일러진 카스트라트 파리넬리의 아름답고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내면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로 웅장한 무대가 기대되고 있다.

올해 축제는 극장 공연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야외 거리예술작품을 대폭 확대했다. 음악극이 실내에서만 공연된다는 일반적 통념에서 벗

어나, 올해 처음으로 야외 공식초청작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음악극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하는 한편,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도 야간뮤지컬영화상영, 장르가 있는 음악콘서트, 신진예술가 양성을 위한 음악극어워드, 유제컬 배우 바다, 루이스 초이와 함께하는 페막콘서트 등 음악극축제에 걸맞은 음악과 극을 소재로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시민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주제공연 '삶을 연주하다'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즉흥성 콘서트로 시민 100여 명이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리코더와 멜로디언, 탬버린 등 악기를 가져와 함께 연주함으로써 시민이 만드는 개막식이 예상되고 있다.

에 그림을 그려 터널벽에 부착하는 뮤직터널M을 비롯해 이색 졸업사진으로 화제가 된 의정부고등학교 코스를 퍼레이드, 관내 중학교 오케스트라반 학생들이 펼치는 클래식 연주 플래시몹 1호선 칸타빌레 등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도 불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극장 공연 프로그램 외에는 무료로 진행되며, 일부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는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공연 일정 및 프로그램은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www.umf.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의정부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배달민시 등이 후원하고 농협의회정부시지부, 신세계의정부부점, 국민카드, 신한대학교, 경인대학교, 성베드로병원 등이 협찬해 개최된다.

의정부/황호 기자

의정부음악극축제, 찾아가는 공연 개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아름다운 선율 선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표 공연예술제'이자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된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가 지난 2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였다.

우쿨렐레 연주단체 '시프렛 우쿨렐레'가 참여한 이번 공연은 장기기증산 캠페인 오픈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장기기증 캠페인에 뜻을 함께 하는 헌신 음악가들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공연은 임원환자, 보호자, 지매주인 등 100여명이 자리를 패였으며 대중에게 익숙한 'Top of the world'를 포함한 총 8곡이 연주돼 의정



무 성모병원에 맑고 경쾌한 선율을 선사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이훈 총감독은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공간 외에도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병원에 지속적으로 공연을 개최해 문화공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명래기자 mrlae@sidelbo.co.kr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일~17일 개최"

안병용 시장 "품격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음악극 매니아와 의정부시민 모두 함께 즐기게 될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삶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 음악극축제는 의정부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 거리예술작품을 대폭 확대해 더욱 풍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음악극이라는 장르특성형 축제로서 품격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 공연예술축제,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며 올해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 총 6개국 50개 단체의 80회 공연이 마련된다.

다음달 8일과 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하게 될 개막작 말러매니아(Mahlermania, 독일)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음악을 성악가,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TIM앙상블이 연주에 참여한다.

16일과 17일 공연하게 될 폐막작 파리넬리는 신이 내린 천사의 목소리로 일러진 카스트라트 파리넬리의 아름답고 화려한 삶 뒤에 숨겨진 내면의 이

아기를 담은 뮤지컬로 웅장한 무대가 기대된다.

올해 축제는 극장 공연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야외 거리예술작품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 처음으로 야외 공식초청작을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음악극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한다.

시민맞춤형 프로그램으로는 개막식 주제공연 '삶을 연주하다'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즉흥성 콘서트로 시민 100여 명이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리코더와 멜로디언, 탬버린 등 악기를 가져와 함께 연주한다.

아울러 1500여명의 시민이 타일 에 그림을 그려 터널벽에 부착하는 뮤직터널M을 비롯해 이색 졸업사진으로 화제가 된 의정부고등학교 코스를 퍼레이드, 관내 중학교 오케스트라반 학생들이 펼치는 클래식 연주 플래시몹 1호선 칸타빌레 등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가 주최주관하고 의정부시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배달민시 등이 후원하고 농협의회정부시지부, 신세계의정부부점, 국민카드, 신한대학교, 경인대학교, 성베드로병원 등이 협찬한다.

의정부/김병남 기자 bnmkim@shinilbo.co.kr

의정부 **국제**음악극축제, 시민 중심 변신

알기 쉬운 이름으로 개명
개·폐막 축제의 정체성 강화
참여형 체험프로그램도 다채

의정부시 대표축제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가 '의정부음악극축제'로 이름을 간소화하고 많은 변화를 추진한다.
(재)의정부예술의전당이 주최하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이라는 유일한 장르특정형 축제로 이미 차별성을 확보했다. 이에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

공연예술제' 및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됐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음악극축제에서 '국제'란 단어를 빼 시민들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간소화했지만 국제적인 축제라는 데마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독일, 칠레, 캐나다, 프랑스 등 총 6개국에서 세계적인 유명한 15작품을 공식초청해 국제적인 볼거리가 풍성하다.

다음달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축제는 그간 축제와는 달리 야외 거리에예술작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개·폐막 축제의 정

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한 축제의 메인 색상으로 '핑크색'을 선정, 전용 셔츠, 댄스, 캐릭터 'Mr. M(미스터엠)'을 탄생시켜 상징성도 강화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공연예술계 및 대외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으나, 의정부 시민들에게 인지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축제는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주인이 돼 예술적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재구기자

우리일보

2015년 04월 27일 월요일
005면 일과사람들



의정부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샤롯데 우쿨렐레' 장기기증 확산 캠페인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표 공연예술제'이자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된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가 지난 2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였다. 우쿨렐레 연주단체 '샤롯데 우쿨렐레'가 참여한 이번 공연은 장기기증 확산 캠페인 오프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장기기증 캠페인에 뜻을 함께 하는 한편 음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공연은 입원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등 1000여명이 자리를 매웠으며 대중에게 익숙한 'Top of the world'를 포함해 총 8곡이 연주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밝고 경쾌한 선율을 선사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이준 총감독은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공간 외에도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병원에 지속적으로 공연을 개최해 문화융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4월 29일 오후 6시 30분의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김영관기자

내외일보

2015년 04월 27일 월요일
006면 지역

의정부음악극축제,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개최

'샤롯데 우쿨렐레' 참여로 장기기증 확산 캠페인도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표 공연예술제'이자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된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가 지난 2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였다.

우쿨렐레 연주단체 '샤롯데 우쿨렐레'가 참여한 이번 공연은 장기기증확산 캠페인 오프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기기증 캠페인에 뜻을 함께 하는 한편 음악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30분간 진행된 이날 공연은 입원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매웠으며 대중에게 익숙한 'Top of the world'를 포함해 총 8곡이 연주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밝고 경쾌한 선율을 선사했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오는 5월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이날 29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황민호 기자 hmh@naewoelbo.com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시장, 기간간담회 개최 홍보 나서

음악극 메디아와 의정부시민 모두 함께 즐기게 될 의정부음악극제가 '삶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다들달 2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개최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27일 기간간담회를 통해 "음악극 축제는 의정부시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의 거리예술극광물 대극 광대를 더욱 활성화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음악극이라는 장르특성을 충실히 살려 흥겨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표 공연예술축제,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의정부음악극

제는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시내 일원에서 개최되며 공연은 독일, 프랑스, 캐나다, 칠레 등 총 6개국 50개 단체의 80회 공연이 마련된다.

오는 5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하게 될 개막작 말레나(아리아)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레의 삶과 음악을 실마리, 무용수, 16인조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IMF 앙상블이 연주에 참여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5월 18일과 17일 공연하게 될 개막작 파란별리는 신이 내린 천사의 목소리로 알려진 카스트라로 파란별리의 아홉달고 한



의정부 시장 안병용이 축제 내연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로 등장한 무대가 기대되고 있다.

플로 축제는 국민 공연 뿐 아니라 시민들께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야외 거리예술극광물을 대폭 확대했다.

음악극이 실내에서만 공연한다는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야외 공연장소를 선정했으며 이를 통해 음악극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하는 한편, 더욱 흥성된 볼거리를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진뮤지컬영화 상영, 공연이 있는 음악콘서트, 신진예술가 양성을 위한 음악극어워드, 무례를 배우 바다, 무이스 조아와 함께하는 피아니스트 등 음악극축제에 걸맞는 음악과 극을 소재로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임재선 기자/longhnews.com

내외일보

2015년 04월 29일 수요일 007면 지역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 플래시몹 진행

의정부음악극축제(김행위발장 박형식이 지난 25일 의정부 흥복로와 의정부역사 앞 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 축제 홍보를 위한 개막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플래시몹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의정부음악극축제를 알리고 축제 전 불협(Boom-Lip) 분위기 조성 위해 기획됐으며 축제 자원활동가 이기희, 의정부 천보중학교 댄스동아리 'JOKER'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의정부/황인호 기자 hmh@newsoelbo.com

우리일보

2015년 04월 29일 수요일 005면 일러사람들

의정부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다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 플래시몹 진행



의정부음악극축제 자원활동가 이기희와 천보중학교 댄스동아리 'JOKER'가 의정부 흥복로에서 축제 홍보를 위한 개막 플래시몹을 펼쳤다. 의정부음악극축제(김행위 발장 박형식이 지난 25일 의정부 흥복로와 의정부역사 앞 신세계백화점 광장에서 축제 홍보를 위한 개막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이날 플래시몹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의정부음악극축제를 알리고 축제 전 불협(Boom-Lip)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축제 자원활동가 이기희, 의정부 천보중학교 댄스동아리 'JOKER' 등 총 4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의정부음악극축제의 공식 핵심인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공식 축제송인 '우리들의 축제'에 맞춰 윙글을 선보였으며, 이

런 연습만으로도 일상화한 동작을 연출해 행복크리와 의정부역사를 찾은 시민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의정부축제 이준 총감독은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상징인 핑크색과 축제송을 시민분들께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축제 자원 활동가들과 의정부 축제 자원봉사자가 한심해 선보인 이번 플래시몹이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1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 곳곳에서 개최되며, 이번 플래시몹 현장을 담은 홍보 영상은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의정부/김정민 기자

중부일보

2015년 04월 28일 화요일 011면 사람들

의정부음악극축제 기자 간담회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7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의정부음악극축제'에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시장은 축제를 통해 의정부시의 예술적·문화적 도시 브랜드 형성 및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어울려 체험하고 즐기는, 음악놀이터 기대하세요”



이훈 이정부 음악극축제 총감독

“음악극 축제는 ‘살을 연두르다’란 주제에 맞춰 예술성을 바탕으로 정을 높이고 놀이성 및 일상성을 강화해 대중성과 축제성을 높여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달 8일부터 17일까지 이정부 예술의전당과 이정부시 앞문에서 열리는 제14회 이정부 음악극 축제 총 감독을 맡은 이훈 총감독(50)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연주하고 체험하고 먹고 놀이해야 즐기는 축제라는 축제로 기획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개막식의 과감한 놀이를 시민들이 직접 가지고 온 악기로 연주하는 팀 콘서트기 펼칠 것이다. 또 의정부예술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음악극과 관련된 강연을 상연해 가족과 연인 등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연 전 정보와 정편이 있는 이훈 콘서트도 마련했다. 이밖에 이정부 예술의전당 배극에 환원로 신나게 그림을

그리는 난생전 크로케트와 유채화도 기획했다. “유채화는 축제기간 동안을 주제로 해서 1점 1곡에 시민이 그린 그림을 타블로 만들어 대부분 시베리아 대륙에 부채화 타블로를 넣고 아름다운 예술적 공간으로 만드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8일 개막... 놀이일탈성 강화 콘서트-뮤지컬 등 시민참여 확대 공연·예술+관광 국제형 축제로 추진

그는 그동안 의정부 음악극축제 대중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올 축제를 예술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많은 조사와 검토, 재고도 필히 거쳐 의정부 음악극 축제의 비전을 이어나갈 계획으로 각급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공연극을 보다 쉽게 이해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공연전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와 공연 뒤 공연해설부 감독, 관객이 함께 대화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그는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가 될 때에 가 관객에게 참여되지 않고 회원권 구매로 국제지향적 각종 축제에서 국제관 유치할 때에 ‘축제는’며 음악극 축제 특색인 ‘국제’를 생략한 배움을 말했다. “의정부 음악극 축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전국 문화예술 축제’로 선정됐다. 그는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는 2015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13회부터 17회까지 개최되며, 4월 29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 성모병원앞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부 기자 jib@sudbillo.com

수도일보

성모병원에 아름다운 선을 선사

의정부음악극축제, 샤프렛 우쿨렐레 공연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한 ‘대표 공연예술제’이자 ‘경기 도 10대 축제’에 선정된 경기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지난 2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였다.

우쿨렐레 연주단체 ‘샤프렛 우쿨렐레’가 참여한 이번 공연은 장기기증확산 캠페인 오프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장기기증 캠페인에 뜻을 함께 하는 행선 음악가를 통해 환자과 보호자들을 위로

하고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30년간 진행된 이번 공연은 임원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매웠으며 대중에게 익숙한 ‘Top of the world’를 포함해 총 8곡이 연주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맑고 경쾌한 선율을 선사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이훈 총감독은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공연을 선



보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묻지는 공간 외에도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병원에 지속적으로 공연을 개최해 문화예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

부음악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4월 29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 성모병원앞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부 기자 jib@sudbillo.com

경인종합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찾아가는 공연 성황

의정부성모병원서 샤프렛 우쿨렐레 선보여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 한 ‘대표 공연예술제’이자 ‘경기 도 10대 축제’에 선정된 의정부 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가 지난 2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였다. <사진>

27일 성모병원 홍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우쿨렐레 연주단체 ‘샤프렛 우쿨렐레’가 참여한 이번 공연은 장기기증확산 캠페인 오프닝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며 “장기기증 캠페인에 뜻을 함께 하는 행선 음악가를 통해 환자과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 30년간 진행된 공연은 임원환자, 보호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자리를 매웠으며 대중에게 익숙한 ‘Top of the world’를 포함해 총 8곡이 연주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맑고 경쾌한 선율을 선사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이훈 총감독은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찾아가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며 “사람들이 많이 묻지는 공간 외에도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병원에 지속적으로 공연을 개최해 문화예술을 도모하고



자 한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올해로 14회를 맞는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며, 오는

29일 오후 6시 30분 의정부 성모병원앞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재신문 기자/jonghnews.com



음악극으로 되돌아본 예술가의 삶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8-17일 의정부예술의전당서

전국 유일의 음악극 축제로 경기도 북부 지역 문화 축제의 자존심이자 대표 축제로 손꼽히고 있는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 일원에서 개최된다.

매년 새로운 주제로 변화를 꾀해오는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올해 주제는 '삶을 연주하다'로, 한 편의 교향곡에 비유할 수 있는 '삶'을 주제로 예술가의 삶, 우리들의 삶, 나라의 삶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을 통해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독일, 프랑스, 캐나다 록 밴드, 할레 등 총 6개국 50개 단체인 80여 개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감독연인 실의 미야기유키가 연출한 선율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 보다 가장 음악극다운 작품들을 엄선, 음악과 극이 하나되는 완벽하게 제대로 관객은 물론, 예술계에 자극과 도전을 할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작인 독일 작품의 '말라미니아'는 작곡가 루스토프 밀러의 삶과 음악의 생애, 무용수, 16위트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이 극으로 만든 작품으로 T.M.F. 앙상블이 연출이 참여하며 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페리작으로서는 장미지휘관 '파리넬리'가 무용과 음악 융합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외에도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탄탄한 드라마와 영상예술을 활용한 독창적 연출이 돋보이는 캐나다극 '사랑의 역사'(영역), 미국의 피아니스트와 함께 성서한 움직임이 펼쳐지는 'I on the sky'(제니디 루비), '고도를 기다

리미'를 모티브로 두 남자의 기다림을 역설스럽게 담아낸 '도자두: 디디와 고도의 기다림'(르판스) 등을 선보인다. 또 페르시아니스트 라울산과 배우 조판수의 조화가 돋보이는 '노베르토', 어린이 국악뮤지컬 '백인 눈썹 호랑이'까지 국내외 다채로운 음악극의 향연이 이어진다.

작곡가 말러 인생 조명한
오페라 '말라미니아' 개막작 선정
장작뮤지컬 '파리넬리' 개막작
시인 100여명 리코더 등 연주

올해 축제는 23일 공연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여인 거리예술작업을 대폭 확대했다.

음악극이 실용적이면 공연한다는 일변적 태도에서 벗어나, 올해 처음으로 '여인'의 공식초청작'을 선정했으며 아베를 음악극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도모하고 더욱 융성한 불거리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야간뮤지컬형상연, 장르가 있는 음악콘서트, 신진예술가 양성을 위한 음악극아카데미, 뮤지컬 배우 '배드' '뮤지스 오이'와 함께하는 배미콘서트 등 '음악극'이란 타이틀에 걸맞은 음악과 극을 소재로 한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시민명칭형 프로그램인 '삶을 연주하다'는 시민 100여명이 각자 자신의 삶에 있는 리코더와 멜로디언, 첼로, 바이올린 등 악

제14회 의정부음악극 축제 일정표

일차	장소	공연(연극/뮤지컬)	시간
5.8(일)	대극장	말라미니아(독일)	오후 7시
	대극장	말라미니아	오후 7시
	소극장	I on the sky	오후 7시~8시
5.9(월)	전시장 앞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이와유대	캐릭터	오후 8시
5.10(화)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분수무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5.11(수)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대극장	사랑의 역사(독일)	오후 8시
	소극장	희한 순환(영국/한국)	오후 11시~오후 1시
5.12(목)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대극장	사랑의 역사	오후 8시~9시
	소극장	희한 순환	오후 11시~오후 1시
5.13(금)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대극장	사랑의 역사	오후 8시~9시
	소극장	노베르토(한국)	오후 8시~9시
5.14(토)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대극장	파리넬리(한국)	오후 8시
	소극장	도자두(프랑스)	오후 11시~오후 1시
5.16(일)	전시장 앞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5.17(월)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분수무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5.17(화)	대극장	파리넬리	오후 8시
	소극장	도자두	오후 11시~오후 1시
	전시장 앞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5.17(수)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5.17(목)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분수무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5.17(금)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5.17(토)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5.17(일)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5.17(월)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합박미당	행복으로 가라	오후 11시~오후 1시
	이와유대	이와유대	오후 8시~9시



말라미니아



디 세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훈 의정부음악극축제 감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위원, 전국 70여개 축제 컨설팅 및 자문위원 등을 거친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가 전국 유일의 음악극 축제인 제14회 의정부 음악극 축제'의 지휘봉을 잡았다. 이 감독을 통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의 지원사업' 지정과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된 의정부 음악극 축제 준비과정의 에피소드와 더욱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다.

“다양한 연령대 즐기도록 했다”

“올해 의정부 음악극 축제 특징은, ‘올해 축제는 예술성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것을 넘어 시민이 만들고, 직접 축제에 체험할 있는 재미있는 축제로 만드는 것에 주력했다. 공연 마니아에게는 신선한 문화적 자극을, 시민들에게는 축제적 경험과 풍부한 즐길 거리를 제공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작품들도 구성돼 있는데 계획 당시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음악극이라는 장르가 생소한 사람도 많을 텐데, 음악극은 간단히 말해 ‘음악과 스토리의 만남’이다. 현대 공연예술의 경향 중 하나가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복합되고 있다는 점인데, 음악극은 이러한 추세에 앞맞은 콘텐츠라 할 수 있다. 올해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공연을 배치했다.”

“축제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음악극 축제는 그날와도 즐겁고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지만, 미리 좋은 공연을 예약하고 오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다. 축제장에서 는 수채화관람을 통해 ‘음악극이 무엇인지’

‘왜 의정부에 음악극이 있는지’ ‘올해 주제가 삶’을 연주한다’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아이들은 터일 에 그림을 그리고 배악에 마음껏 눈필로 낙서를 할 수도 있다. 어른들은 맛있는 맥주와 소시지와 함께 수준 높은 야외 공연을 볼 수 있다.”

“의정부음악극 축제의 비전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정부음악극 축제는 2030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다. ‘예술이 놀이가 되는 축제’로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더 좋은 축제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축제다. 시민의 아이디어와 자발적인 지원봉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재미있는 축제, 예술성 높은 축제, 행복한 축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김동성기자

16·17일 의정부음악극축제 폐막작 뮤지컬 '파리넬리'

신이 내린 천상의 목소리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감독위원장 박형식) 일기가 뜨겁다. 개막 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의 지원사업'으로 지정 받고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더니, 지난 8일 개막식에는 역대 최대 인원인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17일 폐막을 앞둔 가운데 이 일기를 만끽할 수 있는 작품을 추천한다.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며 폐막작으로 선정된 창작뮤지컬 <파리넬리>다.



주인공 더블캐스팅 루이스초이·고유진
가창·연기력 갖춘 21명 출연진 흥분해
나를 울게하소서 등 음악 완성도 높여

<파리넬리>는 18세기 바로크시대 최고의 카스트라토(남성기) 이전에 고환을 제거한 남성 소프라노인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한다. 2014년 한국문화예술회관의 창작뮤지컬 시범공연지원, 2015년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선정작으로 지난 10월까지 유니버설 아트센터에서 상연했다.

영화는 어린 시절 신의 뜻을 가장한 권력 앞에 거세당한 파리넬리와 작곡가인 열 리카르가 함께 유럽 무대를 누비며 '천상의 목소리'로 사랑받지만, 인간으로서의 육체적·정신적 '결핍'에 의해 감동을 겪다가 음악으로 극복한다는 스토리다.

뮤지컬로 재창조된 파리넬리의 이야기 역시 흥미롭다. 다만 무대극인 만큼 영화보다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의 축을 '완전한 음악을 추구하는 예술인에 집중했다. 주인공에 더블 캐스팅된 카운터테너 루이스초이와 대장가수인 고유진이 노래와 연기를 멋지게 소화한다.

기세등등한 선택할 수 없었던,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자 남자로서의 갈등을 등장한 협정과 강박한 조영 등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10인조 오페스트라의 연주와 20명의 합창단이 공연 내내 선사하는 음악은 오페라 형식의 뮤지컬을 완성, 관객을 때려시기에 충분하다. 파리넬리의 대표곡인 <나를 울게 하소서>가 영화 이상의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도, '예 허벌' '신은 왜 나를' '오 파리넬리' 등의 뮤지컬 넘버들은 막이 내린 후까지 머릿속을 맴돌 정도로 매력적이다. 가창력과 연기력을 고루 갖춘 21명의 흥분한 출연진은 뮤지컬을 탄탄하게 만든 일등공신이다.

이 작품은 오는 16~17일 오후 5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폐막작으로 만날 수 있다. 관람료 2~6만 원. #설미기자



음악으로 10만관객 하나로 소통하다

일출간의 의정부음악극축제 대단원의 막 내리

시민들의 눈과 귀 사로잡으며 '음악극의 정점' 보여줘

제1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8일부터 열릴 동안 10만 관객을 유치할 공연이 성료이며, 축제장의 진성·재현·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 풍성한 축제의 향을 만끽하기(가) 관측을 흥망의도까지 끌어내고

17일 배양본시드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삶을 연재해라라는 주제 아래 음악극 완성도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며, 개인·정신부터 주제를 받았던 제1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작곡가 쿠스타프 빌러와 그의 아내 알

마의 인생여정을 담은 개작작 빌러메니아가 인기, 무용, 오케스트라 앙상블이 결합된 무대는 음악극의 정점을 보여줬으며, 높은 예술적 완성도로 공연예술계 주요 인사 및 관객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또, 지역별 소프라노, 카스트라노의 드라미틱한 삶을 뮤지컬로 탄생시킨 메이크업과 리얼리즘을 도입해라는 높은 예술적 완성도를 통해, 젊은 기행관들의 인기를 모았고 아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거리공연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흥망완영거리로

선사했다.

제1회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의미 있는 시도 중 하나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축제라는 의미를 띠었다는 것이다. 지난 9일 진행된 개막의 주례공연은 사전 상정을 통해 모인 시민 500여명이 자신의 안기를 가져와 함께 연주하는 즉흥성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어둠에서 지속한 개인 마법의 세계 음악극축제 공식 노래인 우리들의 축제를 선보이며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며, 축제장 안팎에 설치된 미디어를 자유롭게 연주하는 피아노 R&M, 타악에 그림을 그려서 새삼스럽게 놀음 장식하는 퍼퓸터널링 등 시민들이 예술적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의 마켓이 낱인 17일에는 평택의 파레올리와 주안공 원아소아와 뮤지컬 다배 배다가 펼친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축하공연은 공연이 다년 축적 무대를 선보이며 개막장을 열었다는 마티모든 등 다채로운 공연 축제를 기대하고 열거하는 시간으로 꾸며뒀을 내렸다.

제1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이후 흥망완영을 통해 축제는 약 10만 명의 관객과 함께 예술가의 삶, 사랑, 무리의 삶을 공연·체험·전시로 선보이는 기회를 가졌다며 15회를 맞은 내년 유치는 15회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풍성한 축제가 되도록 준비 중이며, 축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는 한편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축제의 공감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최부: 김광기 기자 hgum36@naver.com



경기신문

2015년 05월 08일 금요일 012면 문화

'2015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오늘 활짝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와 의정부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지회가 공동주최하고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 음악극(연극·뮤지컬)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가 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 기획 PT행사는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한 공연 제작사와 문예회관의 매칭을 통한 창작 작품 발굴 및 유통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장르에 상관없이 '초연 창작

작품' 및 '재창작 재연 작품'의 공모가 진행됐으며, 총 9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초연작은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의 뮤지컬 '더 파이아트', 문화기획 함박우슴의 음악극 '오! 캐롤스트라', MJ 컴퍼니의 뮤지컬 '씨니'와 '하모니', 재연작은 아이엔컬처의 뮤지컬 '로기수', 생생극단 세발자전거의 연극 '밥 할머니', 집컴퍼니의 뮤지컬 '복순이 할배', '아시아브트지컨텐츠의 뮤지컬 '아가사',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의 뮤지컬 '캣조르바'다. /김정선기자 kjs76@

우리시의 상징과 자랑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제공

한조각 한조각... 1500명 의정부시민 합작품

사패산 '뮤직터널' 완공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는 의정부 사패산터널 벽면에 시민 1천 500명이 그린 타일 그림을 전시하는 '뮤직터널'을 완공했다. 뮤직터널은 지난달 개최된 제14

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속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직접 타일 위에 그린 그림을 도자기에 구워 터널 벽면에 장식해 지난 11일 완공됐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낙후된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

시에 시민들이 생활 예술을 꽃피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현재 터널의 일부뿐만 타일 벽화가 조성됐지만, 장기적으로 완성해 시의 새로운 문화예술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유은홍기자 yooec86@kyeongin.com

경기일보

의정부 사패산터널이 달라졌어요

시민들 타일 그림으로 '뮤직터널' 변신

의정부의 사패산터널이 시민들의 손길을 통해 '뮤직터널'로 변신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위원장 박형식)는 최근 지난 5월 개최한 축제를 통해 접수 받은 시민 1천 500여 명의 타일 그림을 사패산터널에 부착했다.

사패산터널은 의정부예술의전당 뒤편과 북한산둘레길 등산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50m 길이의 터널로 많은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그러나 회색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터널 내부는 어둡고 칙칙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축제 집행위원회는 시민들의 타일 그림으로 터널 벽면을 장식하는 프로젝트 '뮤직터널M'을 진행, 시민이 손바닥만한 타일 위에 직접 그린 타일을 도자기를 굽듯이 소성시켜 부착한 것이다.

축제 관계자는 "지역의 낙후된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시민들이 생활 예술을 꽃피



울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며 "현재 터널의 일부뿐만 타일벽화가 조성돼 있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완성해 시의 새로운 문화예술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류설이기자

5. 지역언론 (90건)

NO	보도날짜	언론사	내용
1	2014-12-26	경기북부포커스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라인업 공개
2	2014-12-27	경원일보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라인업 공개
3	2015-01-28	의정부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화 사업' 선정
4	2015-01-28	한복신문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라인업 공개 - 감동 선율로 표현한 '삶의 이야기'
5	2015-01-29	HBC 한복방송	의정부시, 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6	2015-01-29	의양신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관광자원사업지원대상선정
7	2015-01-30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국가 관광자원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
8	2015-01-30	경원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9	2015-01-30	의양동연합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선정
10	2015-02-13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국비 1억원 받아
11	2015-03-04	HBC 한복방송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공연
12	2015-03-04	경기북부포커스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13	2015-03-04	경원일보	의정부예술의전당,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14	2015-03-04	의양신문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 초청작 티켓 오픈
15	2015-03-04	의정부뉴스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16	2015-03-05	의양동연합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17	2015-03-09	경기북부시민신문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3월14일까지 50% 조기예매 할인
18	2015-03-09	경기북부포커스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19	2015-03-11	경원일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조기예매 특별할인
20	2015-03-11	의양신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조기예매 특별할인
21	2015-03-11	의정부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티켓 특별할인
22	2015-03-12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조기예매 특별 할인
23	2015-03-25	경원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독일 '말러매니아' 공연
24	2015-03-26	경기북부시민신문	구스타프 말러의 삶을 연주하다. '음악극 <말러매니아>'
25	2015-03-26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예술의전당,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작 말러매니아 무대에
26	2015-03-27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27	2015-03-27	의양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28	2015-03-28	HBC 한복방송	의정부시,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최
29	2015-03-29	의양동연합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판매 순항
30	2015-03-30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31	2015-03-30	경원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32	2015-04-02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33	2015-04-12	경원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서울 한복판서 본격적인 축제 알리기에 나서
34	2015-04-12	경원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올해의 협력예술가' 로 장일범 음악평론가 위촉
35	2015-04-12	의정부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서울 한복판서 축제 알리기 나서
36	2015-04-13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올해의 협력예술가' 로 장일범 음악평론가 위촉
37	2015-04-13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서울 한복판서 본격적인 축제 알리기에 나서
38	2015-04-13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서울 한복판서 본격적인 축제 알리기에 나서
39	2015-04-13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올해의 협력예술가로 장일범 음악평론가 위촉
40	2015-04-16	이슈앤티폴연합신보	음악과 함께하는 5월 의정부... '의정부음악극축제'
41	2015-04-18	의양동연합뉴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오픈준비 완료
42	2015-04-22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개최
43	2015-04-22	의양신문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
44	2015-04-23	경기북부포커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무대에
45	2015-04-23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찾아가는 공연 개최
46	2015-04-23	경원일보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개최
47	2015-04-23	경원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개최
48	2015-04-25	의양동연합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성모병원 공연
49	2015-04-25	의양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개최
50	2015-04-26	HBC 한복방송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재 기자간담회 개최
51	2015-04-26	의정부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6개국 · 50개작품 선정
52	2015-04-27	경기북부시민신문	봄의 의정부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다!
53	2015-04-27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찾아가는 공연 개최
54	2015-04-27	경기북부포커스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팡파르'
55	2015-04-27	의양신문	5월8일~17일,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및 의정부시
56	2015-04-27	한복방송	안병용 의정부시장, 주재 기자간담회 개최
57	2015-04-28	경기북부시민신문	5월8일~17일,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58	2015-04-28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음악극축제 깜짝 플래시몹 진행, 행복로, 신세계백화점앞 광장서
59	2015-04-28	경기북부포커스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브리핑 열고 의정부음악극축제 홍보나서
60	2015-04-28	경원일보	안병용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개최하고 음악극축제 홍보에 나서
61	2015-04-28	경원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깜짝 플래시몹 진행
62	2015-04-28	경원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 성모병원서 찾아가는 공연 개최
63	2015-04-28	의양동연합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개막
64	2015-04-28	의양신문	봄의 의정부를 핑크빛으로 물들이다! 의정부음악극축제 깜짝 플래시몹 진행
65	2015-04-28	의정부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행복로 깜짝 플래시몹 진행
66	2015-04-30	경기북부시민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깜짝 플래시몹 진행
67	2015-04-30	한북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일 팡파르
68	2015-05-07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예술의전당,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개최
69	2015-05-07	경원일보	의정부예술의전당, 2015 음악극(연극, 뮤지컬)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개최
70	2015-05-07	의양동연합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초청작품 소개 영상
71	2015-05-07	의양동연합뉴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 카운트
72	2015-05-08	경기북부시민신문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 카운트!
73	2015-05-11	경기북부시민신문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 성료
74	2015-05-11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예술의전당,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개최
75	2015-05-11	경원일보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 카운트
76	2015-05-11	의양동연합뉴스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화려한 개막
77	2015-05-11	의정부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역정치인 외면 아쉬워
78	2015-05-15	경기북부시민신문	화제의 뮤지컬 <파리넬리> 의정부음악극축제 폐막작으로 무대 올라
79	2015-05-15	의정부뉴스	'파리넬리' 의정부음악극축제 폐막작 무대 올라
80	2015-05-16	의양동연합뉴스	화제의 뮤지컬 <파리넬리> 의정부음악극축제 폐막작으로 무대 올라
81	2015-05-17	경원일보	화제의 뮤지컬 '파리넬리', 의정부음악극축제 폐막작 무대 올라
82	2015-05-18	경기북부포커스	화제의 뮤지컬 '파리넬리', 의정부음악극축제 폐막작 무대 올라
83	2015-05-19	경원일보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84	2015-05-20	경기북부시민신문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대단원 막을 내리다
85	2015-05-20	의정부뉴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대단원 막 내려
86	2015-05-21	경기북부포커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평균 객석점유율 80%로 대단원의 막 내려 '성공'

87	2015-05-30	한복신문	10만 관객 동원... 평균 객석 점유율 80%
88	2015-06-01	경기북부시민신문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음악극어워드> 시상식 개최
89	2015-06-12	경기북부포커스	의정부 사패산터널, 벽면 의정부시민들 직접그린 뮤직터널 시공 완료
90	2015-06-12	경원일보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화색빛 사패산터널에 타일그림 시공

6. 전문지 (8건)

NO	보도날짜	언론사	내용
1	2015-03월호	객석	구스타프 말러의 걱정적 삶을 노래하다 '말러매니아'
2	2015-04월호	클럽발코니	드라마틱한 말러의 인생, 연기하고 노래하다
3	2015-04월호	클럽발코니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와 아름다운 선율의 앙상블! 2015 의정부 음악극축제
4	2015-05월호	객석	음악극 '말러매니아' 말러의 음악 속에 담긴 알마의 흔적
5	2015-05월호	더무브	삶을 연주하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6	2015-05월호	더뮤지컬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열흘간의 즐거운 예술 체험
7	2015-06월호	객석	생명력의 원천 음악극 '말러매니아'
8	2015-06월호	더뮤지컬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성료

7. 주 · 월간지 (11건)

NO	보도날짜	언론사	내용
1	2015-03-18	한경BUNINESS	의정부 음악극 축제, 초창작 티켓 오픈
2	2015-04-04	시사HN	그러니까 '말러 메들리' 음악극 <말러매니아>
3	2015-05-01	시사HN	이번 황금연휴에 '컬처 도넛'은 어떠세요?
4	2015-03월호	행복소식	의정부음악극축제 자원활동가(이끄미) 모집
5	2015-03월호	행복소식	뮤직터널M, 삶을연주하다 시민 참여자 모집
6	2015-04월호	마리끌레르	역동적인 움직임에 담은 판타지 - I on the sky
7	2015-05월호	KTX 매거진	의정부시-의정부음악극축제
8	2015-05월호	시사뉴스매거진	의정부음악극축제 총감독 한양대 이훈 교수- 음악에 색을 입히고, 삶을 연주하는 축제다운 축제
9	2015-05월호	전원생활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10	2015-05월호	행복소식	5월의 행사 -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11	2015-봄호	글로벌의정	봄 문턱에서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열려

GAEKSUK INFO

객석 멤버십 회원들의 공연예술 소식



구스타프 말라의 걱정적 삶을 노래하다
'말라매니아'

5월 8일 (금) 오후 8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5월 9일 (토) 오후 7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구스타프 말라의 삶과 음악 세계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오는 5월, 제14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개막작으로 무대에 오른다. '말라매니아'라는 공연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말라를 위한, 말라에 의한, 말라의 이야기를 담은 이번 공연은 이미 수많은 평론가와 전문가들로부터 혁신적이고 신선하며 상상력 넘치는 공연이라는 평을 받은 바 있다.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음악극 창작을 통해 유럽 곳곳의 명소와 축제에서 공연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고 있는 극단 니코 앤 더 네비게이터스가 공동 제작한 것으로,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의 재계관과 말라 서거 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기념비적 작품이기도 하다.

말라와 그의 아내 말마의 인생 여정을 그의 음악과 함께 그려낸 관객으로 하여금 창작의 고뇌와 자기모순으로 고통받은 말라의 일생으로 안내할 이 작품에서는 연기·성악·무용·클래식 음악을 아우르는 다양한 예술적 역량과 그 시도를 보여준다. 무대 위에는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을 연기하는 두 명의 말라와 두 명의 말마가 등장해 그들의 이야기를 감각적으로 펼쳐내고, 말라의 대표작인 '대지의 노래' '거인'을 비롯한 교향곡과 가곡이 연주되며 그의 삶 자체를 보여줄 것이다. 한편, 무대 왼쪽에는 영상을 투사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어 관객은 연주자의 모습이 원히 들여다보이는 이 공간에서 말라의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이 만들어지는 창작의 근원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번 한국 공연에서는 통영국제음악제 홍보대사인 TIMF 양성불이 오리지널 배우들과 허모니를 만들어낼 예정이다. 배우들 중 아나 루이제 레케는 단체 미카치네 발레탄츠에서 최우수신인상에 노미네이트되었고, 아내도래 클라이스트는 독일 영화제 수상작 'ThreeDrei'를 비롯한 유수의 영화에 출연했다. 미국인 무용수 프랭크 윌런스는 폴 메카르니와 함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투어 공연을 통해 데뷔했다. 국내 '말라리안'의 기대를 모은 이번 '말라매니아'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객석'의 공연수첩

'객석' 기자들이 직접 뛰어다닌 공연 현장

② 생명력의 원천

음악극 '말러메니아'
5월 8~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말하고자 하는 비가 분명한 작품은 요소가 많아야 산만하지 않다. 연출진과 피로며 모두 작품의 목적에 동의하고, 서로의 생각을 완전히 이해하면 무대 위 장치와 행위는 이유를 지닌다. 음악·미술·무용 등 여러 장르가 오묘해, 조명, 이미지와 물것 등 다양한 질감과 결합해도 어수선한 느낌 없이 하나의 정서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다면, 모든 요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의 개막 공연으로 펼쳐진 음악극 '말러메니아'는 눈이 바쁜 공연이었다. 객석에서 바라볼 때 오른쪽에는, 속이 보이는 구조물을 배치했고 오케스트라가 들어앉았다. 구조물의 끝면에는 이따

금 말러의 영원성을 상징하는 돌결 영상을 비쳤다. 왼쪽에는, 말러가 실제로 작업했던 공간인 오두막과 호수를 재현했다. 비교적 큰 크기의 오두막은 해체와 결합을 수없이 반복했고, '물'은 여러 장면에서 상징화되었다. 중앙 뒤편은 이중 구조로 위와 아래가 구분되어 출연진의 동선을 입체화하고, 뒤의 벽면에는 무대 위 상황을 순간순간 포착한 사진과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영상을 비쳤다. 젊은 일미와 나이든 말마가 한 무대에 공존하며 말러 삶의 조각을 잇고, 메조소프라노 바리톤과 배우 무용수가 시대적 변화와 개인의 감정을 다채롭게 그려나갔다.

'말러메니아'는 연출가 니콜라 윌렐, 무대디자이너 올리버 프로스케 부부가 1998년 설립한 독일 극단 니코앤 더 네비게이터스의 작품이다. 윌렐은 이번 공연을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출연자는 작품의 작

이저 연출이다"라고 말했다. "창작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방법론을 지닌다. 모든 작품은 빈방에서 시작된다. 나는 출연자들에게 구체적이면서 모순적인 임무를 부여한다. 만약 행복이 주재라면,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운동을 해보라고 하는 식이다. 출연자들이 움직임과 감정에 의문을 갖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 압제적인 캐릭터가 완성된다"라는 그녀의 말은 작품 속 모든 개체가 생동감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마지막 곡으로 '대지의 노래 중 '고별'이 메조소프라노와 바리톤의 음색으로 찬란하게 울려 퍼졌다. 말러가 일생 동안 느낀 감정의 덩어리가 한데 뒤섞여 흩어졌다. 연주를 맡은 팀프 앙상블은 섬세한 딸림으로 울림을 만들었다. 작품이 끝난 뒤, 온통 어질러진 무대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움직임이 남았다.

김효경



역동적인 움직임에 담은 판타지

화려한 움직임과 섬세한 표정 연기로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식의 연극을 선보여온 캐나다 출신의 극단 디아니모 씨어터가 한국을 찾는다. 그들이 선보일 공연은 비호의 음악을 배경 삼아 어떠한 순간에도 늘 존재하는 하늘의 다채로운 모습을 표현해낸 연극 <I on the Sky>다. 작품의 분위기와 무대 구성이 환상적이라 소중한 사람과 함께 감상한다면 더욱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겠다.

일시 및 장소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031-628-5841

mc writer/남지원·김주희(피쳐 어시스턴트) editor/김지은



음악에 색을 입히고, 삶을 연주하는 축제다운 축제...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생각하다



1 _ May 2015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 상류의 특성상 관람 시 필요비용이 높아 고급예술문화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에게 멀어져 있는 예술을 공론화하고 그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의정부예술의전당 건설 1주년과 함께 개최 되었다. 시민들과 함께 예술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축제 계획 초기에는 주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공연예술을 다루는 축제가기 때문에 음악을 배개로 하면서 보다 다채로운 장르를 망라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중 인기가 급상승 하던 뮤지컬이 대중적이라는 점에서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는 좀 더 예술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축제를 구성하고자 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음악극이라는 장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말은 생소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음악극의 시초는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가 음악, 무용, 극시 등을 모아 종합예술을 제창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대체로 음악극이라 하면 브로드웨이와 같은 뮤지컬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좀 더 외연이 넓은 개념이다.

극 전개와 이해에 음악이 주요한 창작 요소로 쓰인 서사를 포함하는 공연예술을 음악극이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연극, 오페라, 무용, 뮤지컬, 멀티미디어 공연, 한국형 창작극 등 모든 장르를 아우르며 각종 공연예술이 어우러져 이혼 감독은 이것을 간단히 말해 ‘음악과 스토리의 만남’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에서는 박은호가 시와 성악, 악단을 총칭해 종합예술로 만들었던 것을 뮤지컬 드라마라 하였고 현재 의정부음악극축제가 본 장르를 시도하고 있는 유일한 주체이다.

유기적 협력, 독립적 행보... 원동력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의정부예술의전당 1주년과 함께

창건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독립된 음악극축제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축제 전담 사무국이 따로 있어 축제행정 전반을 사무국 속에서 맡고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축제전문 사무국이 1년 동안 축제를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1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행사를 이끌어오는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작년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역축제들이 대부분이 중단되었지만 집행위원회를 통해 주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갖추고 있었던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무조건적인 중단보다 추모 성격을 가진 공연을 통해 국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한편, 축제의 크기를 축소해 실내 공연을 제외한 야외·기타 공연은 취소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슬픔에 빠져 있던 시민들에게 작지만 진심스런 위로를 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런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무대에 올리는 작품들은 주로 해외의 문제작이나 대작들이다. 그리고 공연사업팀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직접 섭외를 한다. 이혼 감독은 언제나 세계적으로 예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찾는 것에 주력한다고 한다.

입맛 따라 가는 예술이 아닌 예술의 상향평준화

이혼 감독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문제작들이나 대작들을 초청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축제의 대중적인 성격을 크게 키워나가는 것이 숙제이지만 예술의 수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함께 관련 지식을 나누고 공부해나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도입한 제도가 프리레쳐(Pre-Lecture System, 사전강의) 시스템입니다. 극이 시작되기 전에 협력 예술가의 설명을 듣고 함께 대화하면서 이해를 돕

는 것이죠.” 라고 말한다. 또한 공연 후에는 관객과의 대화 플랫폼 해외아티스트 및 제작진들과 함께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국내 작품 중에서도 보석 같은 작품을 찾는다. 올해는 파리텔리가 국내작으로 무대에 오르며,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야외공연을 공식으로 초청해 수준 높은 작품들이 공연될 예정이다. 이러한 공연의 섭외는 공연사업팀을 중심으로 전체 사무국이 의논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다.

안 와본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오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음악극이 매우 흥미로운 종합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음악극축제의 주 방문객은 권업계 종사자나 마니아층이었다. 음악극축제는 올해 경기도 10대 축제로 선정되어 정책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잘 알려져 있어 초청된 해외극단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올해로 14번째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음악극축제를 잘 모르는 대중이 있고, 음악극에 대해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어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훈 감독은 용이한 접근성과 예술에 대한 보다 쉬운 이해를 도모해왔다.

이훈 감독은 이를 위해 음악과 콘텐츠의 만남을 궁극한 플랫폼으로 잡고 지난해 처음으로 의정부예술의전당 전시장에 주제체험관을 설치해 음악극의 역사와 의정부 음악극의 유래, 음악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의정부음악극축제만

의 개성과 특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이훈 감독이 시도한 주제체험관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견학을 오는 학생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주말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기간설점과는 달리 평일에도 동시에 공연을 진행하는 스쿨 위크(school week)도 새롭게 시도했다. 일반인 방문객도 중요하지만 커기는 꿈나무들이 예술을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훈 감독의 바람이 깃든 기획이다.

올해는 한 층 더 발전시켜 도슨트(docent) 제도를 도입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고 여기에 신물이 있는 퀴즈를 마련해 관객 참여를 극대화 시킬 예정이다. 특히 최근에 지역에 좀 더 안착하는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있어 시민이 관람자가 아닌 참여자로 시민 기여도가 높은 축제를 만드는데 역시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축제를 위해 시민들과 전문 예술단체가 함께 연주하는 즉흥콘서트를 소재로 다양한 증진거리를 기획해 시민일착형 축제를 표방하고 있다.

또 정기공연에서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티켓 가격에 대한 부담도 여러 방법으로 줄였다. 공식초청작 유료공연 7작품, 공연 관련 도서, 축제 프로그램북이 함께 제공되는 '절대티켓'은 25만원의 혜택을 10만원에 제공해 60%의 할인혜택을 준다.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하는 '착한티켓'은 중고물품을 기증해 해외초청작을 관람할 수 있게 해준다. 이음마져 착한 '착한티켓'은 예술경영 컨퍼런스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한 기록한 아이디어이다.



3. May 2015

또 학생이나 의정부예술의전당 회원, 단체 관람 시에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공연예술은 고급문화라는 편견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짐작할 만하다.

축제에 색을 입히다

"예전의 의정부는 회색입니다. 딱딱하고 삭막한 느낌이 있고, 축제는 축제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꼭 갖춰야 하는 축제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축제 자체가 가지는 놀이성, 지역을 잘 반영하는 스토리를 넣은 장소성, 함께하는 대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 말 그대로 축제는 축히의 의미와 제사가 가지는 신성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막과 폐막이라는 의례 의식이 말해줍니다. 이 모든 요소가 융화될 때 진정한 축제가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색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이훈 감독은 축제의 상징색깔을 핑크색으로 확정하여 상징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미스티M'이라는 독자적인 캐릭터도 확정하였다. 흔적 큰 절음으로 걷는 모양의 '미스티M'은 여러 악기 연주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춤추는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색채들은 결코 원색의 날카로움이 없다. 마을의 집들도 사람들도 부드러운 색을 띄며 함께 어울린다. 예술이라는 것이 더 이상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대중시대에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날이 오길 염원하는 이훈 감독의 희망과 날아있다.



1 취재 이동미 기자 · 사진 김택훈 기자

깊은 뿌리, 무성한 잎을 가진 건강한 축제

이훈 감독은 무엇보다 의정부음악극축제에서 예술이 가진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보다 많은 사람과 즐기는 것, 그것이 의정부음악극 축제의 목적인 것이다.

"축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인스턴트식품을 먹으면 몸집이 거대하고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체력을 다지는 과정을 꼭 거쳐야 좋은 축제, 건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훈 감독의 이 이야기는 차고 넘치는 지금의 지역축제들이 가지는 문화적 돌아보게 한다. 요즘 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는 두셋 이상이다. 하지만 과연 내실 있고 알찬 축제는 얼마나 될까? 단기간에 열거설기 기획안을 거쳐 관객 끌어 모으기에 급급한 축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그 소분난 잔칫집에 다녀온 이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건강하지 못한 축제는 장수하지 못한다. 의정부 지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며 14년째 이어오는 이 음악극축제가 깊은 뿌리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정부음악극 축제의 정체성과 상징성: 규혁가는 것. 이훈 감독은 축제의 독자적인 서체와 분홍의 '미스티M'이 고정된 이미지를 만들어 사람들이 음악극축제와 연관시켜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훈 감독은 2030년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단기간에 부디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거듭나는 축제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오메다, 부용, 연극... 이러한 단어 첫 처음 들었을 때 혹자는 웅장한 무대를, 비싼 티켓 값, 난해한 극 해석을 생각한지 모른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이미 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이러한 편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축제이다. 삶을 연주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로워 질 수 있는지를 아직 모른다면 삶을 함께하는 좋은 사람들과 의정부음악극 축제에서 마음 놓고 즐겨보지. 그 과정에서 예술이 어느새 날아가 된다. F

Feature

말리 케타이



드라마틱한 말리의 인생, 연기하고 노래하다

지난해 연극배우 박정자가 클래식과 영웅 낭독이 어우러지는 낭독극서를 열어 화제를 모은데 이어, 올해 1월 서울버브코합주단의 공연에선 영화배우 존 말코비치가 슈니트케의 피아노 협주곡이 연주되는 동안 시바토의 소설을 낭독하며 각별한 감동을 전했다. 오는 5월,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개막작으로 무대에 오르는 '말리 케타이'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최근 공연계에 있고 있는 새로운 경향과 청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구스타프 말리는 그의 음악과 삶을 밀접하게 연관시킨 작곡가일 뿐 아니라 실 자체도 서극히 드라마틱해서 그의 인생은 연극이나 영화의 소재로 다루기에 매우 적절하다. 클리블랜드의 (말리)를 비롯해 브루스 베라스포드 감독의 (마법의 선부) 등 말리와 그의 무인 언어의 이야기를 다룬 독특한 영화가 많은 것도 그의 삶 자체가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담고 있기 때문일 듯하다.

또한 말리의 음악 그 자체도 드라마틱한 힘으로 가득하다. 사실 말리의 교향곡은 애초에 극음악으로 적혀진 것이 아닌 순수 기악악곡에도 불구하고, 단적인 작품에 사용되는 일이 많다. 로리스 베자르의 발레와 장-루이 공연된 발레 (스노우화이트)의 음악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도 말리 음악이 지닌 특유의 극적인 힘 덕분이다.

오는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된 '말리 케타이'는 말리 음악에 담긴 극적인 힘과 말리의 인생이 주는 각별한 감동의 한데 어우러진 말리의 삶과 음악 모두에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각별한 작품이다.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 극장 재개관 시 말리 사거 100주기를 주모하여 기획된 '말리 케타이' (19일, 영상물로 출시되고)는 오페라 역사에서 아직 한 번도 공연된 적이 없다.

이번 공연에선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극장(Deutsche Oper Berlin)이 작품을 공동 제작한 독일 단체 '니코 앤 네비게이터'(Nico & the Navigators)가 직접 대안극 노랑에서는 리코로 '말리 케타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어서 각별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주는 독일국제음악제 상주 연주단체이자 연대음악 제작에 정력이 나갔든 TMR 앙상블이 맡아한다. '말리 케타이' 실존 말리의 음악이 단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각별하다. 말리의 교향곡이 흐르는 가운데 배우들의 연기가 펼쳐지는 가하면 중간-중간 말리의 '마리의 노래'를 비롯해 '말리'라는 실존의 노래 등의 가곡들을 배우들이 직접한 시점에서 노래하여 말리 음악이 주는 극적인 감동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실 말리의 작품들은 그의 자서전이라 해도 좋을 만큼 그가 젊은 삶의 고향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에 말리의 인생과 그의 음악을 엮어낸 '말리 케타이'는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실존의 아픔을 담은 '말리 케타이'는 실존의 노래, 빛의 추종을 쫓던 듯한 젊은 아이들, 그녀는 '모래' 장이 말리의 사랑과 고향이 담긴 생생한 인생 여정 무렵에 펼쳐지는 말리 음악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할 것이다. 약 100분간 진행되는 '말리 케타이'를 마무리하는 곡은 '말리' (마리의 노래) 중 '이별'이다. (마리의 노래) 전 (6)의 마지막 곡이기도 한 '이별'은 빛의 율령과 독특한 화성이 사용돼 감동적인 여운을 남기는 곡이다. 이렇듯 말리 자신이 이 작품을 건넨 것처럼 다룬 것도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곡이 될 만한 여운을 남긴 이별이란 사실에 공감하게 될 것 같다. ('말리 케타이', 5월 8-9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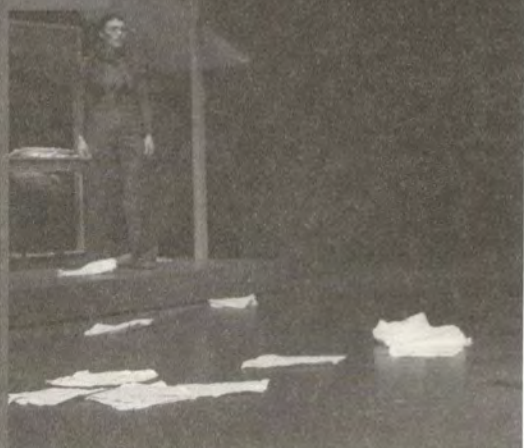
글 ■ 연극 평론가 김지현

MONTHLY FOCUS ②

음악극 '말러매니아'

말러의 음악 속에 담긴 알마의 흔적

음악극으로 재현하는 말러의 삶과 고뇌, 그리고 알마와의 사랑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는 2012년 재개관하면서 오페라가 아닌 독특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베를린에서 채롭고 창의적 시도로 정평이 난 극단 니코 덴 네비게이터스와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말리의 삶을 100분이라는 시간에 녹여낸 음악극 '말리에나'였다.

빈 슈타츠오페의 상임지휘자로 비제의 '커크맨', 차이콥스키의 '스케이드의 여왕' 등 수많은 오페라의 오스트리아 초연을 지휘할 정도로 신작 상연에 적극적이던 말리는 동시대 음악에도 관심이 많은 지휘자였다. 지휘자로서 찬사를 받으며 바쁘게 살았던 말리가 빈 사교계에서 스캔들로 유명한 지적인 여인 알마를 만나게 된 건 그의 인생에 커다란 사건이었고, 이 작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두 명의 말리, 한 명의 알마가 공존하는 무대

'말리에나'는 중년 여인의 독백으로 시작된다. 그녀는 말리 사후 중년의 알마다. 연출가 니콜라 뤼셀은 이 작품을 알마의 독백으로 진행하는 이유를 "알마는 말리라는 복잡한 인간의 내면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살아리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자서전과 일기를 읽으면서 알마가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알마가 말리와 함께한 시간은 10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알마는 말리의 인생에서 절대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말리가 죽은 뒤 알마는 말리가 인생 동안 남긴 모든 작품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향간에서는 그녀가 말리의 작품을 소유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말리 교향곡 4번 3악장 '평안하게'가 체임버 악단 편곡 버전으로 흐르면서 괴로워하는 남성 무용수의 몸짓이 펼쳐진다. 반유체 경시 속에 서도 빈의 음악계를 휩쓴 맹지휘자이자 작곡가 구스타프 말리 곁에는 인생의 동반자 알마 말리가 있었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지휘자로서, 작곡가로서 입지를 굳어가는 말리와 달리 알마는 허무와 우울감에 점점 지쳐간다. 결국 알마는 말리보다 젊고 성공한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바우하우스의 발터 그로피우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알마의 행동은 말리를 질망에 빠뜨린다.

말리는 스스로를 확대하면서 작업에 더욱 몰두한다. 첫 장면은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는 중년의 알마와 괴로워하는 말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분위기가 변해 젊은 말리와 알마가 등장하고, '망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마리온' 음정으로 부르는 '그녀의 결혼식 날이 울러 퍼지면서 두 사람은 결혼한다. 교향곡 1번 3악장의 '출리니, 존?'의 테마에 맞춰 한 쌍의 젊은 청춘 남녀가 같은 길을 반복해 여행한다. 처음엔 보통 '쁘르기도, 이후 반복될수록 점점 빨라지면서 이들은 인생의 환희를 느낀다. 말리와 알마의 좋았던 시절, 행복한 시간이다. 하지만 결혼 전에도 인기가 많던 알마의 인기는 결혼 후에도 계속된다. 말리는 알마를 혼자 독자지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

는다.

'붉은 날의 가곡과 노래' 중 메조소프라노의 음성으로 '강한 상상력과 '주연' 그리고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후광'이 흐르며 알마는 건축가 빌터 그로미우스를 비롯한 다양한 남자와 만나고 연애도 한다. 말리는 이를 알고 괴로워한다. 가슴속에 큰 상처를 입은 말리. 심장이 좋지 않던 그는 이 일로 상상방이 실제로 악화되기도 했다. 중년의 알마가 나오면서 셰르비아 출신 메조소프라노에게 외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어려움에 대해 묻는다. 오스트리아에서 재코인으로, 유대인으로, 늑 이방인으로 살아온 말리의 인생과 같다고 할까. '붉은 날의 가곡과 노래' 속 '자발'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속 '기상나팔이 마린은 음성으로 흐른다. 교향곡이 중요하게 등장하지만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붉은 날의 가곡과 노래'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와 같은 가곡을 중심으로 곡이 전개되는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악가들의 적은 표현력 때문이다.

일기 많은 일마 옆에는 눈 남자들이 있다.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

아름다운 트럼펫 소리 울리는 곳, 위케르트 가곡 중 '나는 세상에서 잊혀지고'가 흐르는 동안 뉴욕에 사는 중년의 알마가 등장해 화가 오스카 코코슈카와의 연애담을 회상한다. 젊은 알마는 애정과 욕망의 상징인 사과를 먹기도 한다. 과연 언제 나올까 궁금하던 말리 교향곡 5번의 4악장 '이다지에도'가 이때 등장한다. 실내악단의 연주가 아닌 피아노 독주다. 원래 알마에 대한 말리의 음악적 연애편지로 알려진 이 곡은, 여기서는 피아노 솔로로 연주되면서 자유분방하면서 개방적인 바람둥이 알마의 모습을 그리낸다. 말리는 괴로워한다.

피날레는 '대지의 노래' 중 '고별'로 마린과 메조소프라노가 함께 부른다. 구스타프 말리에게 깊은 상처와 영감을 안겨준 뮤즈 알마는 결국 그의 곁을 떠난다.

니코 엔 디 네비게이터스의 나팔과 휘펄의 연출, 베를린 도이치 오퍼의 상임지휘자이자 '말리메니아' 초연 지휘자인 모리츠 그만이 지휘를 맡고 단단한 실력의 TIMF양성분이 이번엔 연주를 맡는다. 연출가 휘펄은 말리의 예술가로서 고뇌와 사랑의 실패로 인한 고통을 다루는



중 '그녀의 알마와 '난' 자주 그들이 잠깐 밖에 나갔다고 생각했다가 흐르고 이어 교향곡 1번의 3악장이 다시 흐른다. 대마는 아주 즐거운 민요풍에서 카바레풍으로 바뀐다. 붉은 이상을 입은 알마는 말리와 오두막길을 지으며 즐겁고도 자유분방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1908년부터 1910년까지 말리와 알마가 오스트리아 바이에르니그에 있는 피르테르레 호수 인근에서 살았고, 몸가 바르 옆에 있는 작은 집에서 작곡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 오두막은 말리가 '대지의 노래'를 작곡하고 여행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번엔 떠나서 여행은 앞서 물이 떠난 여행과는 전혀 다르다. 두 사람은 웃는 얼굴 대신 시름이 가득하다. 같이 있으면서 고독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조의 교향곡 1번 3악장으로 들려준다.

명황하는 젊은이의 노래 중 마린은 부르는 '그녀의 과한 두 눈이, 마린과 메조소프라노가 함께 부르는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

이 작품에 대해 '말리와 스무 살 어린 알마의 관계는 어떤 면에서 말리가 살던 시대를 비유적으로 잘 보여준다. 나이가 많은 말리는 낭만적이고 전통적인 부부관계를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 음악 작업에 몰두하며 알마와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다. 알마는 해방의 기쁨과 개방적 사고를 갖고 작곡에 대한 열정을 발견한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공존한 것 자체가 그 당시 음악의 파도기적 양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말리는 시대적 변화와 모순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5월 8일과 9일, 의정부 음악극 축제의 개막작으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지는 '말리메니아'. 나이가 많고 적은 두 명의 말리와 알마, 성악가와 무용수, 연기자 제임비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오르는 이 작품을 통해 말리의 음악에 알마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다.

▶ 장일범(음악감독) 사진 Antonella Tavascio / Falk Wierzen / Thomas Aulin

PREVIEW 글 나윤정 사진제공 의정부음악극축제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열흘간의 즐거운 예술 체험

다채로운 음악극의 변주

2002년 첫 시작을 알린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어느덧 14회를 맞이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국내 유일의 음악극 축제로 국내외 다양한 음악극을 소개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실용 연주하다'를 주제로, 클래식, 재즈, 오페라, 무용 등 다채로운 예술 장르와 결합한 음악극의 변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5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독일, 칠레,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총 6개국 50개 단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식 초청작은 열다섯 편. 그중 의정부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일곱 편으로,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을 그린 독일 니콜 헨 더 네비게이터의 《알리메니오》, 한 남자의 배틀어린 사랑을 알티미다극으로 표현한 칠레 페이프로 사테마의 《사랑의 역사》, 바흐의 음악을 배경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캐나다 디아나오 시에타의 《On The Sky》, 《고도를 기다리며》를 모티브로 만든 프랑스 도자두의 《도자두: 디고와 고고의 기타방》 등이 있다. 국내 초청작에는 카스트리토의 비극적 운명을 그린 니콜 처의 《피리엘라》, 어린이를 위한 판소리 음악극인 창작집단 타루의 《하얀 눈밭 호랑이》, 현재 피아니스트 노베렌토의 이야기를 다룬 국 단 거미의 《노베렌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의 여덟 편의 공식 초청작은 정형화된 무대가 아닌 야외 곳곳에서 관객을 맞이한다. 관객이 직접 피리어드, 공연,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술무대 선의 (이성현 나라의 멜리스), LED 빛으로 공중 퍼포먼스를 펼치는 프로젝트 날다의 《날, 날다》, 의자를 활용해 거리

무용을 선보이는 프로젝트 '의자'의 《The Chair》, 낮은 수레에서 퍼포먼스를 펼치는 음악극 날다의 《알리메니오》, 마당놀이와 신명을 담은 예술마당 살만의 《의근후에》, 유쾌한 코미디형극인 인형극 연구소 인스의 《보리밭 신사》, C.M. 부일란트의 소설 '남나귀 그림자'에 대한 재민,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예술창작공간 콤이엔드의 《당나귀 그림자 재민》, 서커스 코미디의 친수를 느낄 수 있는 일본 국영 거리예술가 다이스케의 《스트리트 서커스》 등이 각기 다른 개성으로 야외 공연만의 특별한 매력을 선사한다.



MUST SEE

《사랑의 역사》

실례 극단(테이프로 시네마의 멀티미디어극, 프랑스 소설가 레지조프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참치 파멜로 시몬은 한 남자의 빼앗긴 사랑을 무대예술, 영화, 애니메이션, 사진 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연극과 영화 기법을 결합해 2D와 3D를 넘나드는 독창적인 연출이 인상적이며, 무대에 실리는 스크린을 이용한 배우들의 연기가 마치 역동적인 안무를 보는 듯한 느낌을 전한다. 2013년 에버러페스티벌 공식초청작. 5월 12일-14일, 익산문화예술의전당 대극장



《말러매니아》

독일의 혁신적인 극단 니오엔 더 테이케이트스와 베를린 도이차 오페라극장이 말러 시가 100주기를 추모하며 공동 제작한 음악극.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고뇌를 그의 음악과 함께 연기, 찬양, 무용으로 다채롭게 풀어냈다. 작곡가의 인생과 음악이 어우러져 전하는 드라마틱한 감동이 매력적인 작품. 아시아 초연인 이번 무대에서는 통일교재음악제 상주 연주 단체인 TMAP 합성합이 합연해 음악극의 매력을 더한다. 5월 12-14일, 익산문화예술의전당 대극장



《I ON The Sky》

캐나다 퀘벡의 다이나모 시네마의 무용극. 시커스, 리듬체조, 무용을 전공한 다섯 명의 배우가 모여 풍부한 연극적 표현을 보여준다.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 바흐의 음악을 배경으로 삶의 회로음악을 화려하고 역동적인 움직임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오가며 펼쳐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따뜻한 울림을 전한다. 5월 12-14일, 익산문화예술의전당 대극장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축제

축제를 즐기는 방법은 공연뿐만이 아니다. 의정부음악극축제의 예술 교류, 전시 미술, 시민 참여 프로그램 또한 일체로 준비돼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끈다. 그중 예술 교류 프로그램은 음악극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다.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사랑의 역사》의 공연 단체인 테이프로 시네마가 무대예술과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제작 방법 노하우를 공유하고, 《말러매니아》와 《사랑의 역사》 관객을 위한 '프리 레저'와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된다. 공연 시작 전, 축제 축제의 협력 예술가인 정일범 음악평론가가 말러와 파르셀리에 대한 이야기로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연 종료 후에는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관객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나눌 예정이다. 전시 미술 프로그램에는 현형색색으로 꾸며진 피아노로 설치 미술과 음악 체험을 동시에 즐기는 '피아노 for M', 의정부음악극축제를 상징하는 설치 미술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와 설치 미술' 등이 마련된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에는 '비긴 어게인', '오페라의 유령', '맘미 미야' 등 음악극과 관련된 영화를 마이무대에서 상영하는 '시네마 M'을 비롯해 공연장 바닥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는 '난징판 프로젝트' '로 드스케치 M',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개막식 '살롱 연주하다' 등이 마련돼 축제의 흥을 더한다. 이렇듯 다채로운 축제의 현장은, 걷는 것만으로도 흥만한 예술적 체험을 선사할 것이다.



NEXT STAY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개막식. 축제 전 시민 속을 탐험자처럼 오일, 그들이 직접 소성하고 있는 악기를 가져와 개막식의 마지막 음악을 함께 연주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 콘서트만 안람, 전하는 개막식의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직접 그린 타일을 도자기로 구워 사해산 타일에 영구히 전하는 예술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는 음악극 축제를 주제로 제공된 타일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그 타일은 축제 후 도자기로 구워져 사해산 타일에 장식된다. 2천 명의 손길로 탄생한 타일의 예술적인 변신을 기대해 보자.

봄 문턱에서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열려

따뜻한 봄기운과 함께 화려한 공연이 우리 곁에 돌아왔다. 올해 14번째를 맞은 의정부음악극 축제는 '삶을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감동적인 삶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다양한 음악극을 즐길 수 있는 45개의 작품을 갖고 찾아왔다. 세계무대에서 검증받은 음악극에서부터 신진예술가의 신선한 감각까지 엿볼 수 있는 음악세계를 만나보자.

홍 소 라 자유기교가



의정부음악극축제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시 일대에서 세계무대에서 검증된 거친 최신행의 음악극 및 신진예술가들의 신선한 작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야외공연, 그밖에도 워크숍, 음악극어워드, 관객과의 대화 등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음악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공연작으로 5월 16~17일에는 HJ컴체(주)의 '뮤지컬 파리넬리 (Musical Fanneli)'가 공연된다. 이 작품은 파리넬리 불린 카스트 라토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뮤지컬로, 동명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18세기 바로크시대 최고의 카스트라토로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지만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춰진 슬픈 이면과 비극적 운명을 이야기한다.

5월 14일에는 극단거미의 '노베첸토(Novecento)'가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연주회와 연극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극으로, 이탈리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알레산드로 바리코의 모놀로그 희곡 《노베첸토》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1900년대 초 꿈의 대륙 미국으로 가는 이민선 버지니아호에서 태어나 평생 배 위에서 살며 자신만의 음악을 연주한 천재 피아니스트 '노베첸토'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마음을 흔드는 피아노 선율과 함께 감동적인 노베첸토의 삶을 이야기하며, 관객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묻고 우리의 삶에 위로를 전한다. 5월 12일에는 '하얀 눈썹 호랑이(The Tiger with White Eyebrows)'가 무대에 오른다. 하얀 눈썹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호랑이의 이야기를 그린 이 작품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일장 서고 있는 국악유치합창단 타루가 들려주는 호응학생을 위한 판소리 음악극이다. 부채를 들고 나타난 다섯 명의 소리꾼은 구수한 판소리, 익살스러운 재담과 시릴스러운 동작으로 감칠맛 나는 연기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전통 악기와 서양 악기,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생동감 있는 음악을 들려주며 관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것이다.

해외초청작도 공연되는데, 5월 8~9일에는 '알라메니아

(Mahlermania) 가 무대에 오른다. 독일에서 새로운 시도로 정평이 난 극단 니코 앤 네비게이터스와 독일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극장이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아내 알마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작곡으로 표현한 말러의 과도한 집착에서부터 후기 낭만파와 모더니즘 시대의 경계에 선 말러 자신의 감정을 그의 가곡과 교향곡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5월 12~13일에는 '사랑의 역사(História de Amor)' 가 대극장 무대에 선다. 프랑스 소설가 레지 조프레의 동명소설을 무대로 옮겨 연극과 영화적 기법에 무대와 기술을 결합하여 만든 연극 '사랑의 역사'는 한 남자의 비뚤어진 사랑, 그리고 파멸로 치닫는 집착과 광기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사랑에 대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터무니없고도 비뚤어진 형태를 표현함으로써 현대사회에서 점점 퇴색되어가는 사랑의 숭고함을 재조명한다.

5월 9~10일에는 'I on the sky' 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서커스, 리듬체조, 무용수 출신의 5명의 배우가 모여 한 무대 위에 오른다. 무대의 뒤로는 하늘빛과 구름의 모양을 통해 사람의 심리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아크로바틱, 무용, 연기를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 바흐의 음악을 배경으로 화려한 움직임과 다이내믹한 표현을 통해 한 인생의 최로매락을 표현해내고, 문학적 은유와 물리적 표현을 한 작품 안에 담아낸다.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뮤지컬의 향연

성남아트센터가 연극 '취미의 방'을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앙상블시어터 무대에 올린다. 작품은 일본의 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아파트에는 취미활동에 꼭 빠진 4명의 남자



가 산다. 내과 의사인 '아마노', 정신과 의사인 '가네다', 자동차 세일즈맨 '마츠사와',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도이'로 이들은 취미를 찾는 것이 취미다. 이들은 '취미의 방'이란 동호회를 만드는데, 이번 공연에서 '아마노' 역으로 서범석과 김진수가 무대에 오른다. '가네다' 역으로는 최진석과 남문철이 함께한다. 김늘메와 최대철은 '미츠사와' 역을 연기한다. '도이' 역은 지일주와 안재영이 맡는다. '경말' 역으로는 박민정이 무대에 오른다.

2009년부터 시작해 한 가수를 추모하는 단일 공연으로서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최장기, 최대 규모로 대중음악 콘서트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김광석 다시부르기)가 4월 25일 경기도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개최된다. 가창력으로 똘신 스윗소로우, 에디킴, 정동하 등 최고의 출연진을 자랑한다. 특별 출연진 배철수, 황정민, 이금희와 함께 꾸이는 무대다. '김광석 다시부르기'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열정을 깨우는 무대이자, 대중 가수들의 예술혼을 일깨우는 작업으로 다시 재조명 되고 있다. 특히 이번 고양 공연은 김광석을 추억하는 수많은 선후배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이는 뜻 깊은 무대가 될 예정이다.

제목	일시	장소	문의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파라벨리	5. 16 오후 5시/5, 17 오후 5시	의정부예술의전당 소극장	031-828-5841~2
-노베천도	5. 14 오후 3시, 8시		
-희안 눈썹 호랑이	5. 12 오후 7시		
-말러만니아 (Mahlermania)	5. 8 오후 8시/5. 9 오후 7시		
-사랑의 역사 (História de Amor)	5. 12 오후 8시/5. 13 오후 4시		
-I on the sky	5. 9 오후 2시, 5시/5. 10 오후 3시	성남아트센터앙상블시어터	031-783-8000
-도자두 : 디다와 고고의 기다림	5. 16 오후 8시/5. 17 오후 3시		
연극 만원 시리즈 '취미의 방'	4. 17 ~ 19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1577-7766
로빈훤	4. 19 ~ 5. 25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김광석 다시부르기	4. 25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031-481-4000
지킬 앤 하이드	5. 9 ~ 10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032-427-8401
바람이 불어오는 곳	4. 24 ~ 4. 26		
세시봉 콘서트	5. 23		

8. 온라인 (71건)

NO	보도날짜	언론사	내용
1	2014-12-25	굿푸드뉴스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라인업 공개
2	2014-12-26	연합뉴스	내년 5월 의정부국제음악극 개막작 '말러매니아'
3	2014-12-29	뉴스컬처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라인업 발표
4	2014-12-30	정컬처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 축제, 개막작 '말러매니아' 부터 폐막작 '파리넬리'까지 작품 공개
5	2015-01-28	연합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문체부 대표 공연예술제에 선정
6	2015-01-29	뉴스웨이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7	2015-01-29	뉴시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대표 관광자원사업' 선정
8	2015-01-29	동양뉴스통신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9	2015-01-29	서울뉴스통신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10	2015-01-29	이뉴스투데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문화관광부 관광자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11	2015-01-30	원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지원대상에 선정
12	2015-01-30	한국NGO신문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문체부 지원사업대상
13	2015-01-31	뉴스퀵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2015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선정
14	2015-02-05	weekly@ 예술경영	2015년 상반기 주요 문화예술지원사업 총정리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15	2015-02-10	정컬처	광기와 집착으로 빛은 사랑의 변주곡, '사랑의 역사'
16	2015-03-04	경기인터넷뉴스	의정부예술전당,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17	2015-03-04	국제뉴스	2015 의정부, 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18	2015-03-04	뉴스페이지	"국내외 대작들을 반값에" ... '의정부음악극축제' 조기에매 혜택
19	2015-03-04	서울뉴스통신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초청작 티켓 오픈
20	2015-03-04	연합뉴스	의정부 국제음악극 축제 초청작 관람표 판매 시작
21	2015-03-04	이뉴스투데이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공식 초청작 티켓 오픈
22	2015-03-04	정컬처	'삶을 연주하다' 의정부음악극축제, 10만원 '절대티켓'을 잡아라!
23	2015-03-04	한국경제TV	의정부음악극축제"...미리 예매하면 혜택도 두배"
24	2015-03-11	경기인터넷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조기에매 특별할인
25	2015-03-11	국제뉴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조기에매 특별할인
26	2015-03-11	뉴시스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30~50% 할인판매
27	2015-03-11	서울뉴스통신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조기에매 특별할인

28	2015-03-27	국제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29	2015-03-29	연합뉴스	"중고물품 기증하고 의정부음악극 관람하세요"
30	2015-03-30	국제뉴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티켓 판매 '순항'
31	2015-03-30	문화저널21	구스타프 말러의 삶을 연주하다, 음악극 '말러매니아'
32	2015-03-30	서울뉴스통신	의정부음악극축제, 순조로운 티켓판매로 순항
33	2015-03-31	한국NGO신문	의정부음악극축제, 높은 예매율로 순항
34	2015-04-12	뉴시스	[포토] 의정부음악극축제, 서울한복판에서축제알리기나서
35	2015-04-12	뉴시스	[포토] 의정부음악극축제, 서울한복판에서축제알리기나서
36	2015-04-12	뉴시스	[포토] 의정부음악극축제, 서울한복판에서축제알리기나서
37	2015-04-15	뉴시스	음악과 함께하는 5월 의정부... '의정부음악극축제'
38	2015-04-15	연합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말러로 시작해 파리벨리로 마친다
39	2015-04-15	오마이뉴스	삶을 노래하다'... 시민참여형 음악극 향연
40	2015-04-17	네이버캐스트	드라마틱한 말러의 인생, 연기하고 노래하다
41	2015-04-22	경기인터넷뉴스	의정부예술의전당,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42	2015-04-22	뉴시스	음악극의 향연... 내달 8일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
43	2015-04-22	이뉴스투데이	의정부음악극축제 5월 8~17일 개최
44	2015-04-23	국제뉴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내달 8일부터 열흘간 열려
45	2015-04-25	뉴스1	의정부성모병원 로비서 펼쳐진 우쿨렐레 음악극 축제
46	2015-04-27	국제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지역 병원에 '찾아가는 공연'
47	2015-04-27	국제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행복로서 깜짝 플래시몹 '눈길'
48	2015-04-27	뉴스1	말러·베케트, 재즈·판소리 한곳에...5월은 '의정부음악극축제'
49	2015-04-27	뉴스캐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5월 8일부터
50	2015-04-27	서울뉴스통신	의정부음악극축제 -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열흘간 개최
51	2015-04-27	연합뉴스	국악·현대무용·실내악·음악극..축제 만발한 5월
52	2015-04-27	연합뉴스보도자료	의정부음악극축제, '삶을 연주하다' 주제로 개최
53	2015-04-27	이뉴스투데이	의정부음악극축제 6월 8~17일 개최
54	2015-04-27	이뉴스투데이	의정부음악극축제 깜짝 플래시몹 진행
55	2015-04-27	케이에스피뉴스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 개최
56	2015-04-28	CNB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홍보 위해 천보중 댄스동아리 '플래시몹' 등장
57	2015-04-28	서울뉴스통신	의정부음악극축제 깜짝 플래시몹 진행

58	2015-04-28	케이에스피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깜짝 플래시몹 진행
59	2015-05-05	코리아투데이	[포커스] 이훈 총감독, 축제는 살아있는 유기체
60	2015-05-06	불교공뉴스	연극, 뮤지컬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개최
61	2015-05-07	국제뉴스	2015 음악극 공동제작 파트너 찾기 8일 의예당 개최
62	2015-05-08	연합뉴스	5월의 밤.. 의정부 음악극 축제 '말러마니아'로 개막
63	2015-05-10	에너지경제	의정부음악극축제 해외초청작 '말러매니아' 등 5편
64	2015-05-11	경기G뉴스	꽃피는5월,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는 '음악의 꽃' 이핀다
65	2015-05-11	뉴스1	의정부음악극축제 화려한 개막... 3만명 몰려
66	2015-05-15	뉴스테이지	의정부음악극축제 폐막작 뮤지컬 '파리넬리' ...16·17일 무대 올라
67	2015-05-15	연합뉴스	주말에 가볼 만한 곳: 수도권
68	2015-05-25	국제뉴스	제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 10만 시민 참여했다
69	2015-05-28	한국경제TV	극단 '벼랑끝날다' 음악극어워드대상... "심사위원 압도적지지"
70	2015-06-11	국제뉴스	의정부음악극축제, 사패산 낙후 터널에 음악 입히다
71	2015-06-11	뉴시스	의정부시 사패산터널 그림타일 장식한 이색터널 탈바꿈

[공연장 나들이]
 드라마틱한 말리의 인생, 열기하고 노래하다

말리매니아



1 [말리매니아]는 작곡가 구스타프 말리의 삶과 사랑, 음악적 소래로 한 음악극이다.

최근 예술 장르 간 결합이 시도된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연극배우 박정자가 갈래식과 영상, 남색이 어우러지는 남색콘서트를 열어 화제를 모은 이래, 올해 1월 서울바로크합주단의 50주년 기념 공연 예전 영화배우 존 말코비치가 출연해 슈니트케의 [피아노 삼주곡]이 연주되는 공연 시바토(Ernesto Sabato)의 소설을 남색하며 각별한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오는 5월, 의정부음악극축제의 개막작으로 무대에 오르는 [말리매니아(Mallie Mania)]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도 최근 공연계에 일고 있는 새로운 경향과 청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작품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구스타프 말리는 특히 그의 음악과 삶을 밀접하게 관련시킨 작곡가일 뿐 아니라 그의 삶 자체도 치극히 드라마틱해서 그의 일생은 연극이나 영화의 소재로 다루기에 매우 적합하다. 반 러셀 감독의 [말리](1974)를 비롯해 보루스 베레소프도 감독의 [바람의 신부](2001) 등 말리와 그의 부인 말마의 이야기를 다룬 폭넓은 영화가 많은 것도 그의 삶 자체가 풍부한 이야기거리를 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말리의 음악 그 자체도 드라마틱한 힘으로 가득하다. 사립 말리의 교향곡은 애초에 극음악으로 작곡된 것이 아닌 순수 가악곡일 때도 불구하고 극적인 작품에 사용되는 일이 많다. 모리스 베자르(Maurice Bejar)의 말리와 지난해 공연된 말레 [스노우 화이트]의 음악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도 말리 음악이 지난 특유의 극적인 힘, 극정미라.



1 구스타프 말리 <출처: Wikipedia>

2 말리 매니아. 1961년 말리와 같은 <출처: Wikipedia>

오는 5월 8일과 9일 양일간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될 [말리매니아]는 말리 음악에 담긴 극적인 힘과 말리의 일생이 주는 각별한 감동이 한데 어우러져, 말리의 삶과 음악 모두에서 감동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작품이다. 배움된 도미치 오로라 극장 재개관 서거 100주기를 추모하여 기획된 [말리매니아]는 영상물로 출시되기도 했으나 아시아에선 아직 한번도 공연된 적이 없다.



1 한 음악극의 중요한 작곡가 구스타프 말리와 그의 아내 말리

2 말리는 작곡가로 성공할수록 일에 몰두하게 되고 <후략>시킨다.

NAVER

4.0228만 원이 올라 2월 1일 44억 4천 500만 원



0417 네이버 메인 노출 (네이버캐스트) 공연스테이지



2015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작 '말러매니아'

【서울=뉴스1】 조인우 기자 = 올해로 14회를 맞은 '의정부음악극축제'가 5월 9일~17일 경기도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 시내 일대에서 펼쳐진다.

살을 연주한다'가 주역다. 주제가 맞듯 예술가 우리 나의 치열한 삶과 인생 역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선체적으로 구성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 칠레 등 총 6개국 60개 작품이 80여 회 공연된다.

특히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고뇌를 연주한 음악극 '말러매니아' 7곡, 일과 개인적으로 준비돼 있다. 파리발리의 화려한 삶 속에 숨겨진 내면의 이야기를 담은 '파리발리' (한국)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두 작품은 '올해의 음악예술가'로 뽑힌 음악극전문가 상영단의 10년 배양과 함께 한다.

말년 극장 공연 초창작은 '말러매니아' '파리발리'를 포함해 모두 6편이다. 프랑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말러매니아극 '사랑의 역사' (일본), 하늘을 향해 횡행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이 온 더 스카이' (on the sky), 어린이 눈높이 국악무용을 차용한 '한글' (한국), 현재 파야나스트 노베현도 이야기 '노베현도' (한국),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모티브로 한 2인극 '도지두,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 (프랑스) 등이다.

공식 초창작 뿐 아니라 30개 작품이 준비된 자유공연작, 새로운 음악극 개발 및 신진 예술가 육성을 위한 음악극역대극 '유지할 배우 하다 푸이스트' 등이 함께하는 달라 콘서트가 준비된다.

시선이 쏠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개막작 주제작공연인 '살을 연주한다'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품 장 콘서트다. 시민 100여 명이 각자 자신의 집에 있는 간단한 악기를 가져와 함께 연주한다. 이 외에도 로즈캐치M, M, M 신발대회* 스물륙과 등 시민참여를 권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총감독을 맡은 한정애라고 이준 교수는 "예술성이 높은 음악극이 다소 대중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관객과의 대화나 시민 참여코너를 늘렸다"며 "북적의 젊은 관객층을 대충히 모으려 하라는 사도"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올해는 '올해의 의정부음악극축제'라는 결정을 '의정부음악극축제'라고 바꾸는 중요한 시도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는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이 주최하고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올해 집행위원장은 2015년 '대외적 공연예술'을 '경기도 10대 축제'에 선정했다.

joan@news1.com



2015년 5월 21일

【의정부=뉴스1】 이상훈 기자 = 14화제를 맞은 의정부음악극축제 주요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냈다. 27일 축제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여배이날인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시내 일대에서 펼쳐진다.

음악극 개막작은 '말러매니아'는 독일 초창작으로 9일 오후 8시, 9일 오후 7시 총 2회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독일에서 새로운 시도로 말랑이신 극단 나일 텐 덴 데비게타티스와 베를린 도이치 오페라극단이 공동제작했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삶과 고뇌를 연가, 성악, 무용, 줄리시 연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음악극은 창작뮤지컬 '파리발리'도 선보인다. 파리발리는 16~17일 오후 5시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연출과 감독으로 국내 최초로 20명의 합창단이 무대에 나선다.

말러매니아극 '사랑의 역사'는 12~13일 대극장에서 열린다. 프랑스 소설가 레지 드르제의 동명소설을 무대로 옮겨 조국과 문화의 기쁨에 무대와 기술을 결합한다.

무용극 'I on the sky'는 9~10일 소극장에서 열린다. 서커스, 김동태, 무용수 출신 5명의 배우가 모여 한 무대 위해서 화려한 움직임과 다이나믹한 표현을 선보인다.

무용극 '도지두' 디디와 고고의 기다림은 16~17일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시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착안한 스페인이다.

음악극 '노베현도'는 14일 소극장에서 2회 펼쳐진다. 주세페 토르나토레와 엔니오 모리코네의 파야나스트의 전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이탈리아 작가 말레산드로 베리올리 보물극의 희곡을 원작으로 삼았다. 현재 파야나스트 노베현도의 이야기를 다룬다며 재즈파야나스트 앙상블이 풍성한 연주를 선보인다.

연인이들을 위한 국악뮤지컬 '한글 꽃향기'는 12일 2회 소극장에서 열린다. 최근 눈높이로 사랑의 액바를 준비할 수 있는 초창작의 이야기를 그렸다. 국악뮤지컬집단 '바두'가 초창작을 위한 판소리 음악극을 선보인다.

미외공연은 8작품이 준비된다. 모두 무용이다. ▲이탈한 나라의 말리스, 9~10일, 예술의전당 전시장 ▲맛 날다, 9일, 예술의전당 야외무대 ▲다 헤어, 16일, 전시장 ▲말말말, 16~17일, 전시장 ▲화면 이후, 16일, 야외무대 ▲빈대의 신사, 16~17일, 분수무대 ▲당나라 그림자 재판, 9~10일, 분수무대 ▲일본 최고 거리극단 '다이시카키 스트로라드 서커스, 9일, 분수무대 등이다.

축제집행위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생태생각공예 ▲아크릴캐릭터공예 ▲간판만들기 ▲천문문양화기 ▲이글공예 ▲이글공예 ▲만들기 ▲생물공예품 만들기 ▲천문비행기 만들기 ▲악제사리 만들기 등을 마련한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이번 총감독은 "올해는 '살을 연주한다'를 주제로 예술가의 삶, 무대의 삶, 나의 삶을 공연과 전시, 체험을 통해 표현한다"며 "축제가 열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음악과 춤이 무대에서 즐거움과 감동으로 얻을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joan@news1.com



(서울=연암뉴스) 김정은 기자 > 해마다 5월이면 찾아오는 각종 공연예술 축제가 올해도 여강없이 돌아온다.

국악에서 현대무용, 실내악, 음악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작품들이 기다린다.

(중략)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축제 홈페이지(www.seoulspring.org) 참조. 관람료는 2만~15만원. 문의 ☎ 02-399-1114.

내달 8일에는 14회 의정부음악극축제가 경기 의정부예술의전당과 의정부 시내 곳곳에서 시작돼 17일까지 계속된다.

'살을 연주하다'라는 주제 아래 예술가의 삶, 우리의 삶 증을 담은 6개국, 50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와 그의 아내 알마 뮌헨러의 인생 여정을 담은 독일 음악극 '말러메니아'를 시작으로, 칠레의 알티미디움극 '사랑의 역사', 최초의 음악을 배경으로 한 무언극 '아이 온 더 스키'('I on the sky' 케나다 제백), 어린이 음악뮤지컬 '하얀 눈발 총칼이' (한국),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성 소프라노 가수)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국내 창작 뮤지컬 '파리날리' 등 음악을 매개로 한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의정부음악극축제 홈페이지(www.umt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에서 6만원까지. 문의 ☎ 031-628-5841-2.

kje@yna.co.kr



의정부음악극 음악극 권시아 '옛 흥' 17~18일 공연(의정부=연암뉴스) 의정부예술의전당극장 입장료: 17~18일 공연객으로 권시아의 티켓과 공연이 포함된 의정부 예술의전당 공연권 2014.5.16 (수) 지방자치 신문, 의정부 예술의전당 후원 > ynewsyna.com

맑고 화창한 주말 '다양한 축제'와 '음악 공연' 즐겨요

(서울=연암뉴스) 5월의 셋째 주 주말인 16일과 17일 전국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뜻한 날씨에 야외 축제와 음악 공연을 즐겨보자.

◇ 맑고 화창 일요일 오후부터 구름 많아져

토요일인 16일 맑고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5도, 인천 22도, 수원 25도, 광주 25도 등으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7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6도, 인천 23도, 수원 26도, 광주 26도로 전날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 5월의 밤 '음악과 함께'

이번 주말에는 춤과 음악, 연기로 가득한 음악 축제를 찾아보면 어떨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예술의전당과 시내 일대에서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열리고 있다.

개막작인 말러메니아를 비롯한 국내외 7개 공식 초청작 등 50개 작품이 총 60회 공연되고 있다.

10만원짜리 '올대 티켓'으로 공식 초청작 7편을 모두 관람할 수 있다.

중고 악기나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불품출 기증하면 공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착한 티켓'도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개막식이 열리는 17일이다.

가수 비다와 성악가 루이스 초이가 뮤지컬 형식의 갈라 콘서트를 선보인다.

축제 마지막은 국내 창작뮤지컬 '파리날리'(Farnelli)가 장식한다.

파리날리로 알려진 카스트라토(거세된 남성 소프라노 가수)의 최고봉 카를로 브로스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가수 고규진과 성악가 루이스 초이가 캐스팅돼 화제가 됐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초연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www.umtf.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31-828-5891~7)로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작 뮤지컬 '파리넬리'...16-17일 무대 올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공연

이정우 기자 보도



뮤지컬 '파리넬리'가 의정부음악극축제 개막작으로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18세기 유럽 최고의 오페라 스타였던 '파리넬리'의 삶을 다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4년 창작 뮤지컬 우수작품 제작지원 선정작이기도 하다.

뮤지컬 '파리넬리'는 국내 최초 20명의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화제를 모았다. 여기에 16인조 오케스트라와 23명의 실용 배우들이 함께해 높은 즐거움을 더했다.

의정부 공연에서는 서울 공연에서 활약했던 배우들이 함께한다. 전상의 목소리를 가진 거세 된 카스트로도 '파리넬리' 역을 루이스조이와 고유진의 반입이기에 무대에 오른다. '파리넬리'의 연인이자 남장여자 카스트라도 인물로 역은 안유진이, '파리넬리'의 할 '카카르도' 역은 이종석이 출연한다.

16일에는 공연 전 10분간 청담동의 프리마켓이 마련돼 작품의 이색을 돕는다. 17일 진행되는 개막콘서트에서는 '레다'와 '루이스조이'가 함께 출연해 축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할 예정이다.

의정부음악극축제 관계자는 "가장된 소프라노 '카스트로'의 드라마틱한 삶을 음악과 함께 그려낸 뮤지컬 '파리넬리'는 올해 음악극 축제의 주제를 '삶을 연주하다'를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다"라며 "오는 17일까지 개최되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공히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지혜 기자 newstage@hanmail.net
사진: 의정부음악극축제

의정부음악극축제 화려한 개막... 3만명 몰려

이정우·뉴스1 기자 보도 | 2015.05.12 18:55:55 | 경기



© News1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경기도 10대 축제인 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박형식)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7일까지 의정부시내 일원에서 열리는 음악극축제는 지난 9일 예술의전당 야외무대에서 3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성황을 이뤘다.

개막작 주제가공연은 사전 신청을 통해 모인 시민 200여명이 자신의 악기를 가져와 함께 연주하는 즉흥감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문연주단체인 방타타악기앙상블과 의정부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해 의미 있는 무대를 꾸몄다.

이들은 대중에게 친숙한 곡인 '마법의 성' 등을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야외무대에서는 TMA 색소폰 앙상블, 의정부윈드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극장내부에서는 개막작 '말려내미아'가 공연됐다.

불꽃이 곱창한 공중파포먼스 '빛, 날다'와 경쾌이 주인공이 되어 퍼레이드 공연, 전시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성찬 나리의 팔리스' 등이 이어졌다.

축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예술과 놀이가 펼쳐질 의정부음악극축제가 많은 방문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고물품 기증하고 의정부음악극 관람하세요"

연방뉴스 기사일부 2015-03-29 08:31

【의정부=연방뉴스】 김도문 기자 = 경기도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는 물려 축제에 착한 티켓'을 판매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고 악기나 소외계층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기증하면 공연 좌석을 예약할 수 있다.

중고물품은 4월 1~20일 축제 홈페이지(www.umtf.or.kr)에서 접수한다.

기증받은 물품은 모두 '아름다운 가게'에 전달된다.

이와 함께 집행위원회는 10만원에 공식초청작 7편을 모두 볼 수 있는 '절대 티켓'도 판매하고 있다.

물품은 14회차인 의정부음악극 축제는 5월 6~17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국내외 7편이 초청됐다.

개막작은 독일 작품인 '말러마니아'(M.Ahlermania)로 8~9일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률 설악가와 무중수, 오케스트라가 어우러진 곡으로 만든 작품으로 연극과 클래식과 만남이 돋보인다.

음악작은 국내 창작뮤지컬 '파리넬리'(Farinelli)가 선정됐다. 16~17일 무대에 오른다.

가수 고유진과 설악가 루이스 초이가 캐스팅돼 황제가 됐다. 지난 1월 서울에서 초연했으며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도 감동이 전달된다.

kyyoon@ytn.co.kr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관람티켓 30~50% 할인판매

연방뉴스 기사일부 2015-03-19 15:19

【의정부=뉴스시스】 이종구 기자 = 의정부예술의전당은 오는 5월 6일부터 열리는 '2015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의 관람티켓을 조기예매기간 특별 할인해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

3월 14일까지 티켓을 예매할 경우 50%(8000원~3만원), 3월 24일까지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

음악극 '말러마니아'나 뮤지컬 '파리넬리' 등의 대극을 1~3만원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다.

의정부예술의전당(031-826-5841~2),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 1544-1555)에서 구매할 수 있다.

올해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는 '일출 연주하다'라는 주제로 5월 6일부터 17일까지 독일, 프랑스, 칠레, 캐나다 퀘벡 등 5개국 60개의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관계자는 "지난 13년간 흥겨운 프로그램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경기북부의 문화발전에 기여했다"며 "올해 축제도 예술성과 축제성을 조화시켜 대중의 문화예술축제గా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leeig@newsis.com

경기/연방뉴스시스
NEWSIS

은 인쇄하기 · 닫기

의정부시 사패산터널 그림타일 장식한 이색터널 탈바꿈

기사등록 일시 : 2015-06-11 16:44:41

【의정부=뉴스시스】 김주성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의 관문인 예술의전당 뒷편 사패산터널이 이색 터널로 변신했다.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는 회색 콘크리트의 사패산터널 벽면에 시민 1500명이 직접 만든 그림타일을 장식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패산터널은 북한산 둘레길 등산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50m 길이의 터널로 등산객들의 발길이 빈번한 곳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도시환경 개선과 함께 터널 이용객들에게 이색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 관계자는 "현재 터널의 일부분만 타일벽화가 조성됐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문화 예술명소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jskim@newsis.com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

집행위원장	박형식
총감독	이 훈
행정감독	소홍삼
사무국장	김지선
공연사업팀장	박정제
팀원	박성호
기획운영팀	김미정
	김정윤
	윤 용
홍보마케팅팀	지영림
	김진아
	이지은

발행정보

발행처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발행일	2015년 8월 12일
발행인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장 박형식 총감독 이 훈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의정부예술의전당 내 축제사무국
T. 031-828-5887/ 5891~7
F. 031-828-5835
E. umtfest@naver.com
www.umtf.or.kr

제 14 회
**의정부
음악극축제**
UIJEONGBU MUSIC
THEATRE • FESTIVAL
결과보고서



(재)의정부예술의전당
Uijeongbu Arts Center
www.uac.or.kr

의정부음악극축제 집행위원회
www.umff.or.kr

(우) 480-01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
TEL 031-828-5841 FAX 031-828-5809